



풍/동/식/골  
고향  
이야기

고양시 일산 풍동 식골 마을

풍/동/식/골

# 고향 이야기



## 풍동 식골 마을이 역사에 잊혀지지 않길 바라며...

우리 풍동 식골은 참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마을의 어른들께서는 배 부르고 부족한 것이 없어 식골이라 하였으며, 늘 풍년이 들고 인심이 좋아 풍동이라 했다고 합니다. 지세는 낮은 야산으로 둘러싸인 삼태기 모양으로, 남쪽으로만 트여 있는 사계절이 뚜렷한 모든 이의 고향과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고양군 중면 풍1리 식골로 불려온 우리 마을은 고양시청이 있는 원당과 일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개울이 있고, 뒤편으로는 일산 지역 명산인 고봉산(테미산)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전원 속의 조용히 농촌 마을이었으나 일산 신도시가 생기고, 원당에서 민마루를 지나 백마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생기면서 마을이 조금씩 변해 갔습니다. 주변 지역이 주택 단지와 상가 지역으로 바뀌더니 우리의 삶의 터전도 주택공사에 강제 수용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고향과 농도에 대한 애착으로 반대를 소리쳐 외쳤으나 택지 개발을 원점으로 되돌리지 못하고 결국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실향의 아쉬움이 너무도 커서 멀리 떠나지도 못하고 인근에 거주하며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오가며 슬픈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주민들은 대감나무 걱정을 하며 한번 더 산치성을 지내고자 뜻을 모았고, 정성을 다하여 산치성을 치렀습니다. 한평생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서글픔에 말없이 약속만 드시던 할아버지와 초점 없이 먼 곳을 바라보던 할머니들께서 마을을 떠나신 직후 10여 명이나 되는 노인들께서 실향의 한을 품을 채 돌아가셨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달래고자 어딘가에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마을에는 공동기금이 있었고 그동안 수집한 사진, 지도 등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사라진 식골 마을의 이야기와 추억을 담은 마을 역사책을 만들지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잊혀지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우리 마을을 역사에 길이 남기고 이곳에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를 후대에 길이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식골의 지리, 역사, 민속과 풍습, 사진으로 보는 이야기 등 가능한 많은 것을 수록하려 했습니다.

이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크게 고생한 사람은 통장 김규성 님입니다. 여러 오해와 어려움에도 끝까지 애쓰신 분입니다. 그가 없었으면 이 책자의 발간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자의 총괄적인 정리와 원고 집필 등에 애써주신 정동일 위원님, 식골 마을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과 함께 아파하며 이 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고 집필에 흔쾌히 승낙해 주신 중앙대 박전열 교수님, 경기도문화유산해설사 여러분들, 그리고 이 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한 조사위원 여러분, 제보 및 대담에 응해주신 마을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자의 발간을 계기로 우리 식골 마을이 고양 지역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함께 하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11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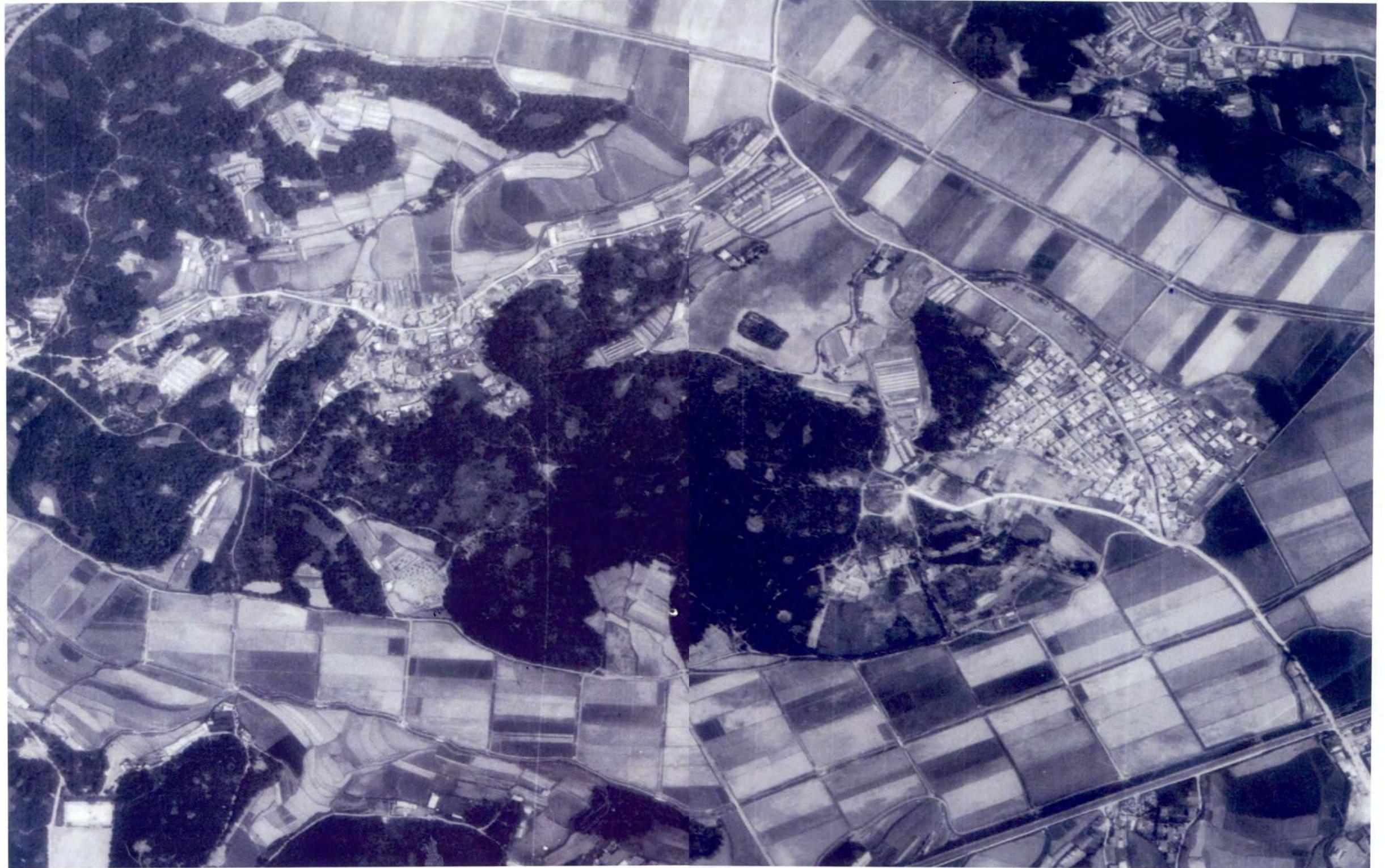
고양시 일산 풍동 식골 주민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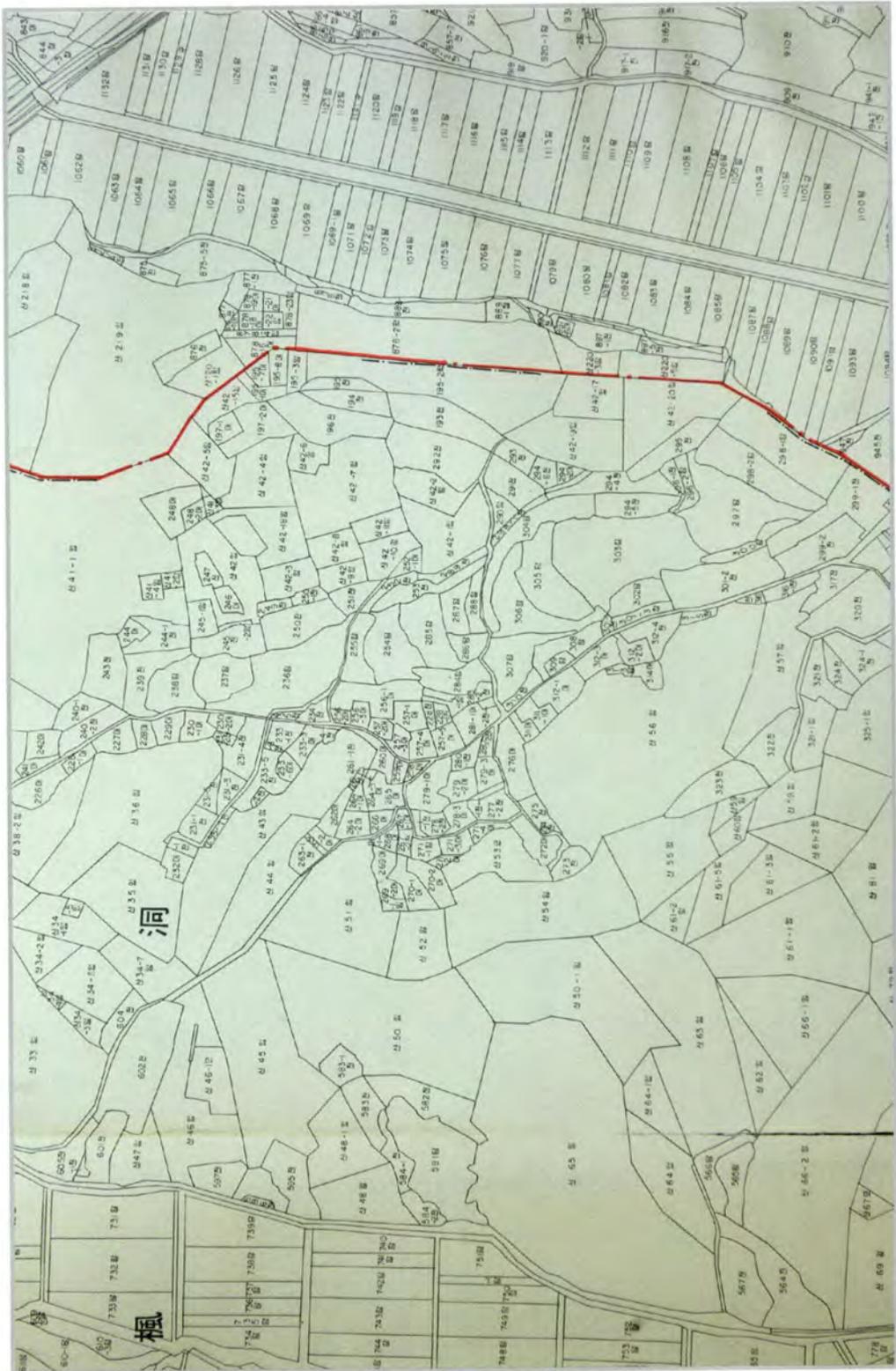


대감나무를 옮긴 후 첫 산치성에 모인 식골 사람들(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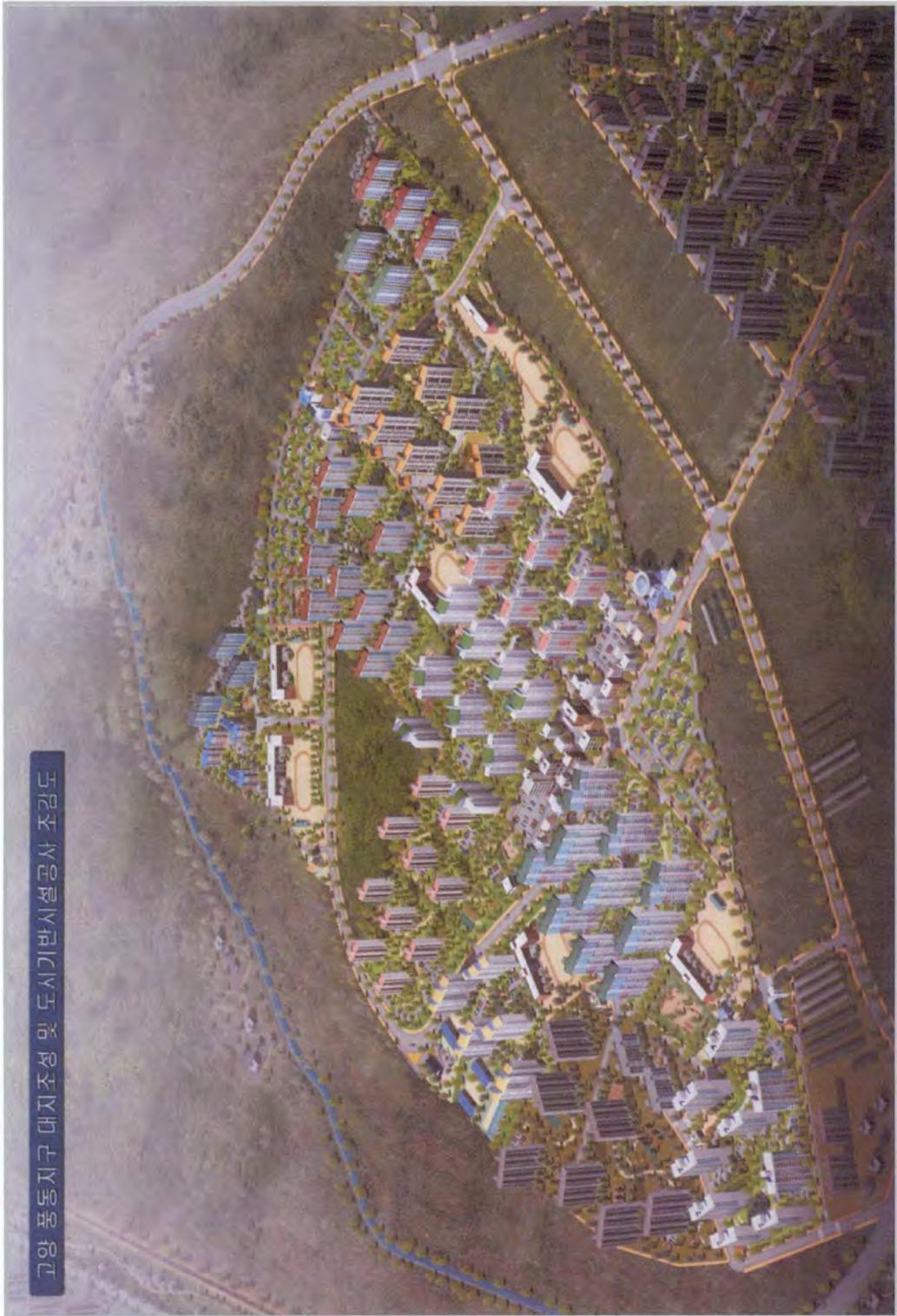


택지개발 전 항공 촬영한 풍동 전경(대한주택공사 제공)

우측 주택 밀집 지역이 풍3리이며, 좌측의 숲속 마을이 식골이다.



택지개발 전 마을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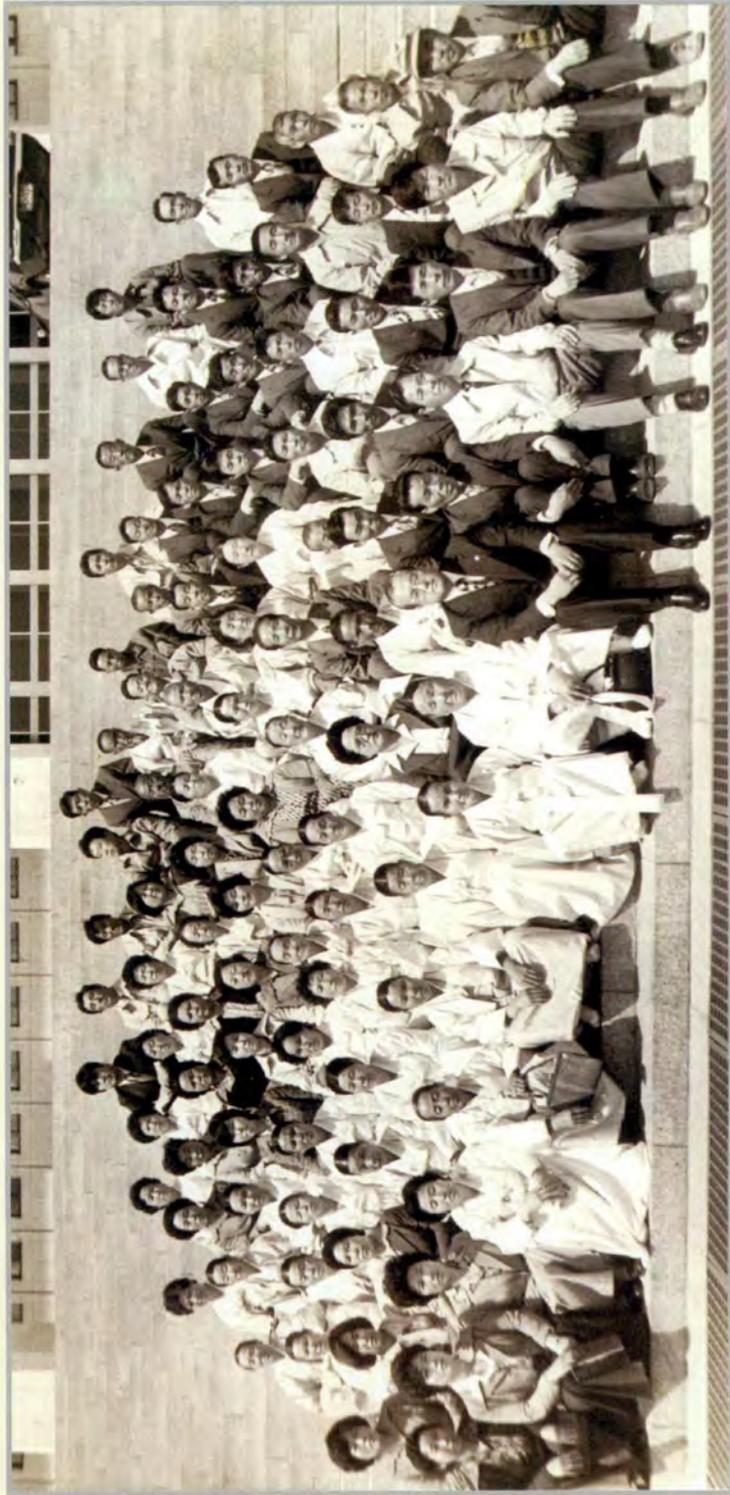


고양 풍동지구 대지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 조감도

고양풍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감도



조선조 후기의 고양군 지도



김유탁 국회의원 당시, 국회의사당을 방문한 식골 주민(1975년)



웁기기 전의 방성머리 대감나무와 터주 · 업양가리(1993년)



현 위치인 식골 중앙 공원으로 옮겨진 대감나무

여러 곳에서 본 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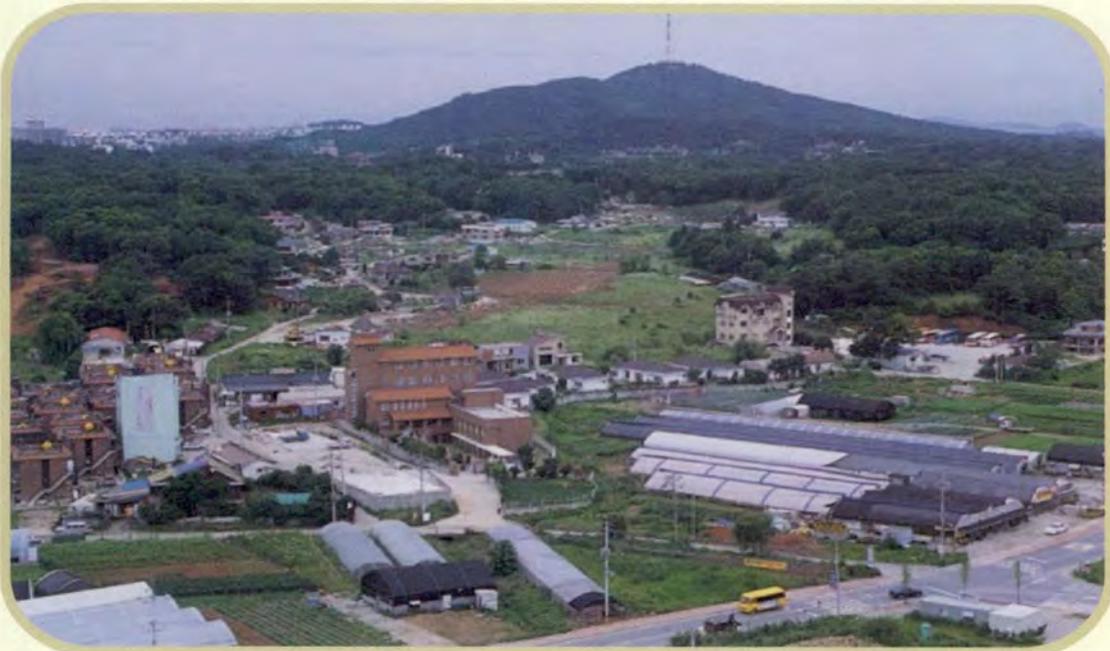
운동장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아랫말)



가운뎃말에서 바라본 웃말



운동장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웃말)



마을 전경(동문아파트에서 촬영)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동국대불교병원에서 촬영)



애니콜 쌍용아파트에서 본 식골 마을과 숲



구진다리에서 바라본 쇠경주 벌판



철길에서 바라본 매봉재와 당뒤, 우측은 성원아파트

산치성



치성을 드리는 봉사, 법사들



공수를 듣고 파안대소를 하는 할머니들



산신대 잡기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진 소지 드리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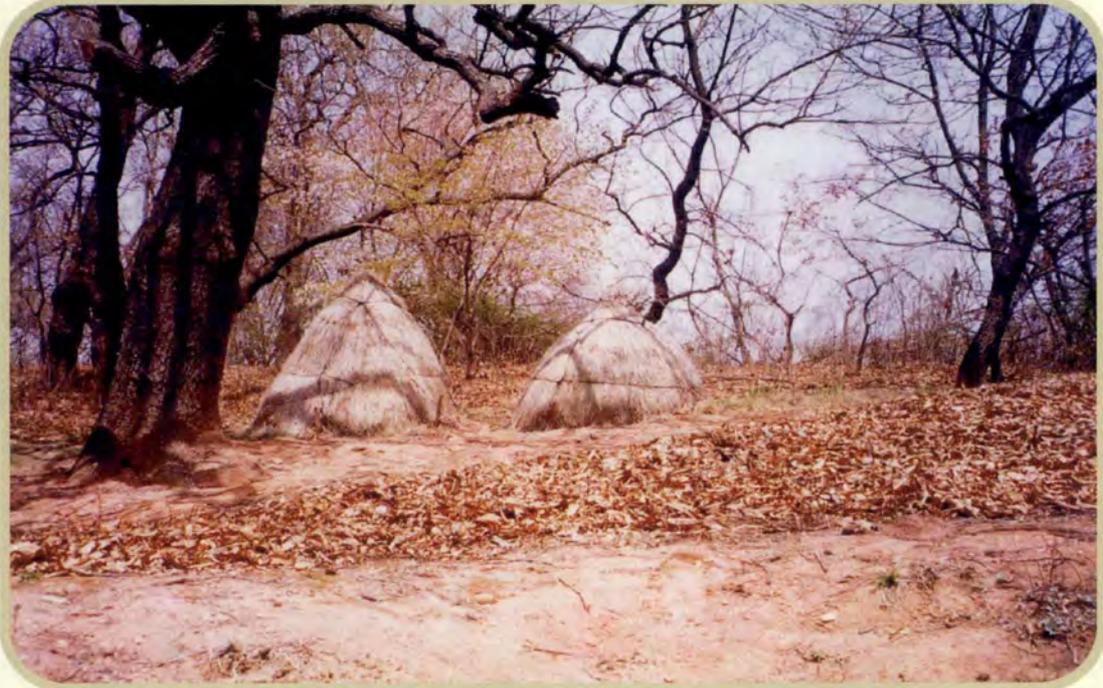
산치성 제례상과 가리



산치성에 쓰일 조라술을 꺼내고 있는 당주



밤참 준비(고사떡을 자르고 있다. 오른쪽은 쇠머리)



옮겨지기 전 마을의 상징이었던 대감나무와 터주 · 업양가리



장작 불가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주민들(행두막 밖의 모습)

## 마을의 해체와 재건



철거되는 빈집들



집들이 헐리고 마을 중앙에 조립식 건물만 남아 있다.



파묘(검바윗골 부근의 묘소 이장 장면)



지석(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 김공지묘)



매봉재 일대가 깎여지고 있다.(뒤는 고봉산)



터파기 작업 중에 있는 마을(아랫말 안산 부근에서 촬영)



옛 식골 마을의 중심부(풍동중학교와 주공 8단지가 들어섰다.)



아파트 공사 중인 마을(동문아파트 옥상에서 촬영)



오늘날의 풍동 식골 마을 모습(2006년)

## 풍요로운 마을의 사계(四季)



1960년대 말 가운데밭 부근에서 쟁기질과 씨앗을 뿌리는 모습  
(옆에 보이는 집은 이강선 씨 댁이다.)





이앙기로 모내는 모습



구진다리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



가을 추수(탈곡)



거적 치는 모습



날가리를 등지고...



눈사람을 벗삼아...

## 마을의 장례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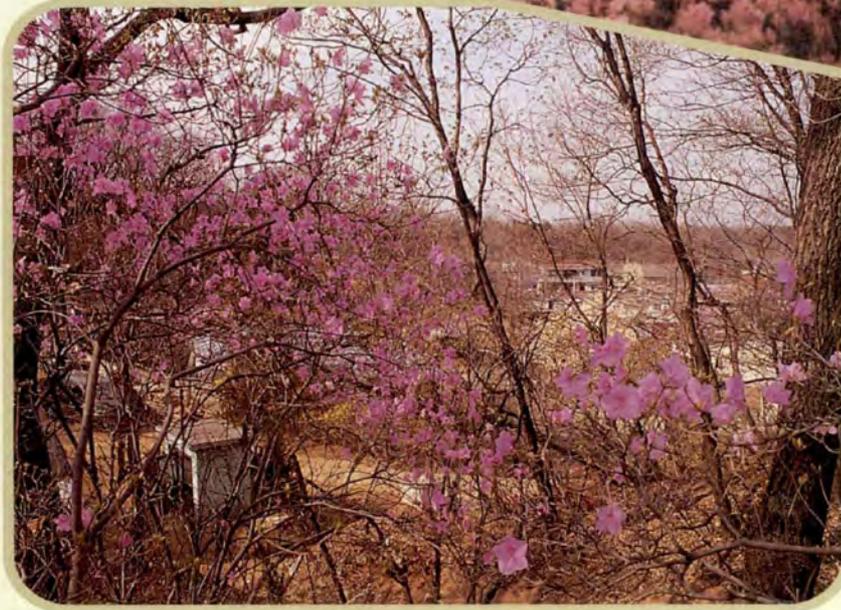
장지로 향하는 상여 행렬



달구질하고 있는 주민들

꽃들이 만발한 마을 풍경







추석맞이 체육대회(1994년, 세원고교 운동장)



파주 감악산 등반

풍/동/식/골/이/야/기  
**고향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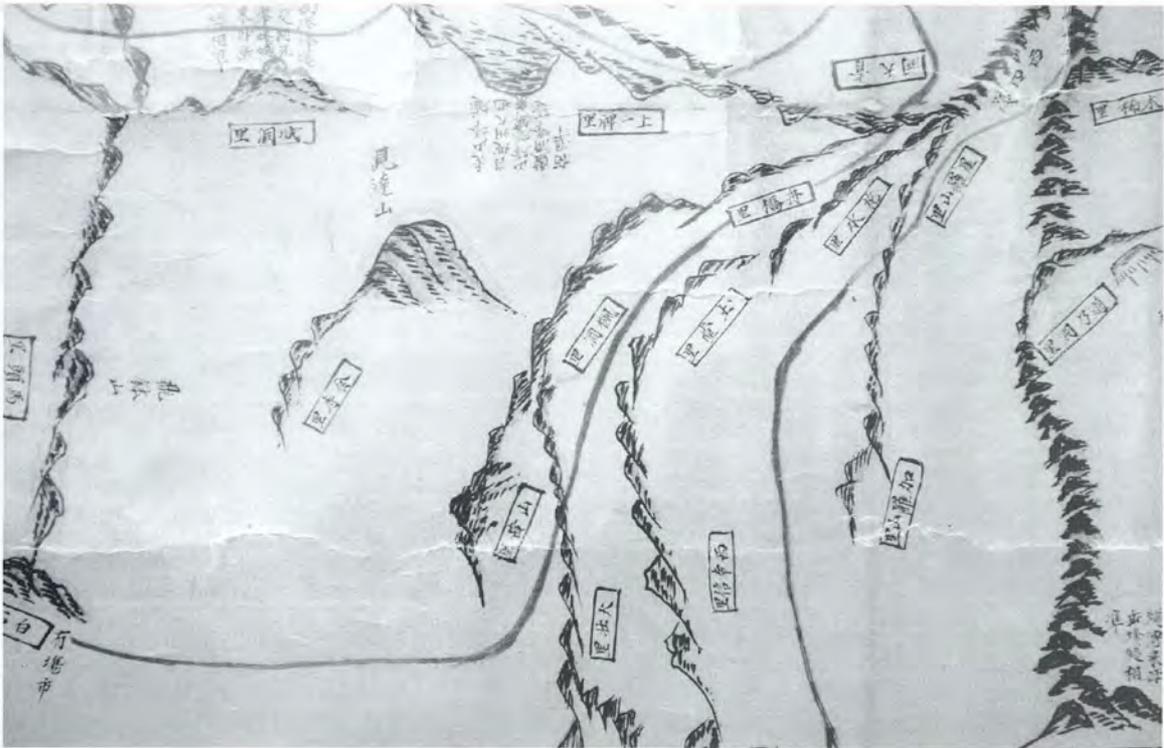
글 / 정동일  
(고양시문화재전문위원)

|                                      |     |
|--------------------------------------|-----|
| · 풍동의 역사(연혁) .....                   | 36  |
| · 통계로 본 풍동 이야기 .....                 | 38  |
| · 마을 개관 .....                        | 42  |
| · 대담을 통해 얻은 풍동 이야기 1,2,3,4,5 .....   | 44  |
| · 어르신께 들은 식골 이야기 .....               | 72  |
| · 1989년 고양군 지명 유래집에 기록된 풍동 이야기 ..... | 80  |
| · 1999년 식골 이야기 .....                 | 88  |
| · 2000년 봄 식골 이야기 .....               | 107 |
| · 다시 찾은 2004년의 식골 이야기 .....          | 131 |
| · 2006년 오늘날의 풍동 숲속 마을 .....          | 133 |



## 풍동의 역사(연혁)

- ▶ 선사 시대 : 한강가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 처음 발견됨  
지영동, 지축동, 사리현동, 가좌동 일대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물 출토됨
- ▶ 청동기 시대 : 지금으로부터 5000년전 가와지 범씨가 처음으로 출토됨  
(일산신도시 발굴 조사시, 현재의 대화동에서 출토)
- ▶ 백제 초기 : 하북 위례성에 포함
- ▶ 고구려조 : 고봉현(달을성현, 達乙省縣), 덕양구 지역은 개백현으로 불림  
(이후 고구려가 약 80년간 이 지역을 점령함)  
당시에 그 유명한 안장왕과 한씨 미녀 이야기가 풍동 인근인 고봉산에서 전해짐
- ▶ 646년 : 신라 한산주에 속함
- ▶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 : 고봉현에 소속되게 됨(교하군 영현)
- ▶ 1018년 고려 현종 9년 : 고봉현(양주속현이 됨)
- ▶ 1394년 조선 태조 3년 : 고봉과 행주가 통합되어 고봉감무를 설치
- ▶ 1413년 조선 태종 13년 : 고양과 덕양을 합쳐 고양현이 됨  
처음으로 고양이란 명칭이 사용되고 풍동은 고양현 풍동리에 속함
- ▶ 1471년 성종 원년 : 고양현이 고양군으로 승격, 고양군 중면이 됨
- ▶ 1504년 연산군 10년 : 고양군 전체가 혁파됨  
(연산군의 금표 지역으로 정해져 주민들이 살 수 없게 됨)
- ▶ 1506년 중종 1년 : 고양군이 다시 복군됨 (중종반정)
- ▶ 1593년 선조 26년 : 고양지역에서 임진왜란 행주대첩이 벌어짐  
고봉산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짐
- ▶ 1755년 영조 35년 : 고양군 중면 풍동리 45호가 있음, 식곡촌이란 이름으로 기록됨
- ▶ 1895년 대한제국 : 한성부 고양군이 됨(한성부 고양군 중면 풍동리)
- ▶ 1975년 : 풍3리가 새로 생김
- ▶ 1980년 : 중면이 일산읍으로 승격(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풍리)
- ▶ 1991년 : 풍동 애니골 일대에 카페촌이 들어서기 시작  
풍동 경의선 철도변에 일산 신도시 개발로 인해 농지가 단독택지로 전환 시작
- ▶ 1992년 :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 고양시 풍산동이 됨
- ▶ 1996년 : 고양시 일산구 풍산동이 됨(일산구 설치)
- ▶ 1997년 : 풍동 일대에 매립이 이루어져 논 대신 밭으로 형질 변경



조선조 후기 고양군 고지도. 풍동이 건달산 아래에 표기되어 있다.

- ▶1999년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 ▶2000년 10월 18일 :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2001년 4월 27일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2003년 5월 30일 : 택지개발 조성공사 착공, 대부분의 식골 주민 인근 지역으로 이주함  
6월 10일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2004년 2월 12일 : 예정지구 개발 계획, 실시 계획 변경 승인
- ▶2005년 :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동이 됨 (일산구의 분구)
- ▶2006년 12월 31일 : 택지개발사업 준공 예정

## 통계로 본 풍동 이야기



| 년도   | 동   | 가구  | 농가  | 비농가 | 인구수   | 남     | 여     |
|------|-----|-----|-----|-----|-------|-------|-------|
| 1972 | 풍1리 | 56  | 56  | 0   | 480   | 242   | 238   |
|      | 풍2리 | 57  | 55  | 2   | 333   | 166   | 167   |
|      | 계   | 113 | 111 | 2   | 813   | 408   | 405   |
| 1974 | 풍1리 | 83  | 83  | 0   | 512   | 259   | 253   |
|      | 풍2리 | 61  | 61  | 0   | 350   | 181   | 159   |
|      | 계   | 144 | 144 | 0   | 862   | 440   | 422   |
| 1975 | 풍1리 | 166 | 67  | 99  | 904   | 457   | 447   |
|      | 풍2리 | 57  | 51  | 6   | 327   | 171   | 156   |
|      | 계   | 223 | 118 | 105 | 1,231 | 628   | 603   |
| 1977 | 풍1리 | 144 | 57  | 57  | 612   | 319   | 293   |
|      | 풍2리 | 62  | 42  | 13  | 342   | 180   | 162   |
|      | 풍3리 | 203 | 6   | 197 | 987   | 501   | 486   |
|      | 계   | 409 | 105 | 267 | 1,941 | 1,000 | 941   |
| 1979 | 풍1리 | 111 | 54  | 57  | 606   | 293   | 313   |
|      | 풍2리 | 62  | 47  | 15  | 349   | 180   | 169   |
|      | 풍3리 | 320 | 1   | 319 | 1,475 | 732   | 743   |
|      | 계   | 493 | 102 | 391 | 2,430 | 1,205 | 1,225 |
| 1980 | 풍1리 | 123 | 75  | 48  | 653   | 325   | 328   |
|      | 풍2리 | 60  | 45  | 15  | 354   | 182   | 172   |
|      | 풍3리 | 392 | 0   | 392 | 1,863 | 950   | 913   |
|      | 계   | 575 | 120 | 455 | 2,870 | 1,457 | 1,413 |
| 1981 | 풍1리 | 119 | 60  | 59  | 605   | 308   | 297   |
|      | 풍2리 | 109 | 51  | 58  | 491   | 263   | 228   |
|      | 풍3리 | 489 | 2   | 487 | 2,071 | 1,044 | 1,027 |
|      | 계   | 717 | 113 | 604 | 3,167 | 1,615 | 1,552 |

| 년도   | 동   | 세대수   | 인구     | 남     | 여     |
|------|-----|-------|--------|-------|-------|
| 1983 | 풍1리 | 200   | 904    | 478   | 426   |
|      | 풍2리 | 118   | 562    | 299   | 263   |
|      | 풍3리 | 519   | 2,435  | 1,228 | 1,147 |
|      | 계   | 837   | 3,901  | 2,065 | 1,836 |
| 1984 | 풍1리 | 216   | 918    | 461   | 457   |
|      | 풍2리 | 126   | 565    | 303   | 262   |
|      | 풍3리 | 578   | 2,488  | 1,255 | 1,233 |
|      | 계   | 920   | 3,971  | 2,019 | 1,952 |
| 1988 | 풍1리 | 263   | 982    | 515   | 467   |
|      | 풍2리 | 152   | 635    | 332   | 303   |
|      | 풍3리 | 612   | 2,300  | 1,174 | 1,126 |
|      | 계   | 4,998 | 3,917  | 2,021 | 1,896 |
| 1990 | 풍1리 | 232   | 948    | 493   | 455   |
|      | 풍2리 | 151   | 615    | 337   | 278   |
|      | 풍3리 | 656   | 2,587  | 1,293 | 1,294 |
|      | 계   | 1,039 | 4,150  | 2,123 | 2,027 |
| 1991 | 풍1리 | 316   | 1,226  | 650   | 576   |
|      | 풍2리 | 156   | 627    | 323   | 304   |
|      | 풍3리 | 751   | 2,745  | 1,361 | 1,384 |
|      | 계   | 1,223 | 4,598  | 2,334 | 2,264 |
| 1992 | 풍1리 | 459   | 1,485  | 754   | 731   |
|      | 풍2리 | 229   | 738    | 387   | 351   |
|      | 풍3리 | 1,008 | 3,257  | 1,623 | 1,634 |
|      | 계   | 1,696 | 5,480  | 2,764 | 2,716 |
| 1993 | 풍동  | 1,673 | 5,235  | 2,697 | 2,538 |
| 1994 | 풍산동 | 1,996 | 5,983  | 3,102 | 2,881 |
| 1995 | 〃   | 2,107 | 6,099  | 3,189 | 2,910 |
| 1996 | 〃   | 2,021 | 5,781  | 3,003 | 2,778 |
| 1997 | 〃   | 2,014 | 5,787  | 3,010 | 2,777 |
| 1998 | 〃   | 2,741 | 7,947  | 4,805 | 3,862 |
| 1999 | 〃   | 9,692 | 4,945  | 4,747 | 3,252 |
| 2000 | 〃   | 3,590 | 10,467 | 5,292 | 5,175 |
| 2001 | 〃   | 4,022 | 11,846 | 6,027 | 5,819 |
| 2002 | 〃   | 4,186 | 12,443 | 6,303 | 6,140 |
| 2003 | 〃   | 4,929 | 14,742 | 7,401 | 7,341 |
| 2004 | 〃   | 5,167 | 15,453 | 7,738 | 7,715 |
| 2005 | 〃   | 5,125 | 15,394 | 7,694 | 7,700 |

앞의 도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대적인 통계 연보가 발간된 것은 1960년대 초반부터이다. 그러나 초기의 통계 자료에는 풍리에 관한 자료가 전무하다. 그 후 풍리에 대한 최초의 자료가 1972년의 인구와 농가, 비농가, 그리고 남아 인구수를 더한 총 인구수에 대한 통계 내용이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의 통계인 1972년 자료에는 풍리가 1리와 2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1리인 식골의 경우 100% 농가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총 가구수는 56가구이며 인구총수는 480명 수준이다. 남자가 242명, 여자가 238명으로 남자가 4명 더 많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후 인구수와 가구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975년도에는 166가구 904명의 주민, 그리고 농가에 비해 비농가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는 1974년 8월부터 풍1리 지역인 서무시에 외부인이 집단 이주해 왔기 때문이다. 풍3리가 행정리 마을로 신설되는 1975년 9월까지, 비농업 인구인 이주민은 일시 풍1리에 편입되어 통계상 식골 마을의 인구가 폭증한 것이다. 대부분이 논과 밭이 있던 지역에 새롭게 이주민이 정착하면서 풍3리가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풍리는 1975년 223가구였던 것이 1977년에는 409가구로 증가했고, 인구도 1,231명에서 1,94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1981년도 통계에는 풍1리 식골의 가구수가 119가구에 인구는 605명으로 나온다. 새로 들어선 풍3리는 489가구에 인구는 2,071명으로 늘어난다. 식골의 경우, 인구수와 가구수가 조금씩 줄어든다. 1980년에 비해 가구수는 4가구, 인구는 48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 정도의 감소수는 자연적인 감소로 볼 수 있는데 당시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던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3년 통계부터는 가구수의 통계를 대신하여 세대수로 기록했는데 식골에는 200세대에 904명의 주민이 보인다. 가구수는 각기 집의 호수를 정한 것이고 세대수는 집안의 세대수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가구 수에 비해 대폭 증가한 통계결과가 나왔다. 2리는 118세대, 3리는 519세대가 기록되어 있다.



마을회관 앞의 할머니들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기 직전인 1988년 풍1리 마을에는 263세대에 982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1980년대 초반에 비해 인구와 가구수가 꾸준히 증가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산 신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990년에 잠시 줄었던 세대수는 1991년도에 1리인 식골 마을에만 316세대 인구 1,226명으로 증가하고 1992년도에는 459세대 1,48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신도시 지역에서 새로 유입된 인구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들은 그 숫자가 줄거나 변함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93년은 고양시가 시 승격이 되어 풍1리에 대한 독자적인 통계는 없고, 다만 범정동 풍동 전체에 대한 통계가 수록되었다. 당시 풍동에는 총 1,673세대에 총 5,235명이 거주 했고, 이 중에 남자가 2,697명, 여자가 2,538명으로 나와 있다.

1994년부터는 산황동과 통합되어 풍산동 전체에 대한 통계 자료만이 보이는데 큰 변동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풍1리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조금씩 시작되었고 2003~2005년을 통해 주민들이 이주했으므로 하여 인구와 세대수가 급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날깃동산에서 본 마을 전경

## 마을 개관



### ■ 일산의 입구에 있는 개발 중인 마을

풍동은 고양시청이 있는 원당 지역에서 일산 신시가지 방향으로 3~7km 사이에 위치한 법정동 마을이다. 풍동의 동쪽으로는 식사동, 남쪽으로는 산황동, 백석동 서쪽으로는 마두동, 정발산동 그리고 북쪽으로는 중산2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은 일산 백마역 부근에서 진입하거나 하사관 주택, 애니콜 부근, 백마로 등을 통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민마루 주변과 풍3리, 옛 서부농장 부근은 아파트로 개발되었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식골마을과 풍3리 마을은 대규모의 아파트 개발이 되어 있다.

### ■ 단풍이 유명한 단풍나무의 마을

풍동은 특히 가을의 정경이 너무도 아름다운 곳으로 고양시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름에 알맞게 풍동 마을의 매봉재 기슭이나 애니콜 식골마을의 뒷산, 그리고 마을 곳곳에서 단풍나무를 볼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예로부터 이곳에 큰 단풍나무들이 많아 풍동이 되었다고 하는데 단풍이 많이 드는 해에는 온 마을이 불이 난 듯 하였다고 한다. 또 다른 마을 주민은 높은 벼슬을 하신 분이 이 마을을 지나다가 안산(아래우물) 부근에 있는 큰 나무를 보고는 “마을 이름을 단풍나무가 많은 곳, 풍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여 풍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 ■ 식골(食, 植골) 마을.... 열세 개의 골짜기

이 마을은 풍동에서 민마루와 함께 가장 오래된 마을이다. 예로부터 마을 뒤에는 산이 있고 그 앞으로 마을과 텃밭, 논, 개울이 있어 벼농사를 많이 짓고 수확이 풍성해 식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식골 마을에는 주로 전주 이씨, 전주 김씨, 김해 김씨, 남원 양씨, 단양 우씨 등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50여 년 전의 기록인 영조연간의 1755년 고양군 읍지에 의하면 이곳 풍동 식골촌에는 총 45가구가 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식자를 식(植)자로 표기해 지금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인 1989년 통계로는 232가구 948명의 주민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애니콜 포함)

이곳 식골 마을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재미있는 13골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렇듯 마을 주변에 작은 골짜기가 많아 6·25 등 민족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집 하나 불 타지 않고 평화스럽게 살아왔다. 이 골짜기는 ① 움터골 ② 쥐골 ③ 산악골 ④ 당수골 ⑤ 제수능골 ⑥ 학골 ⑦ 상골 ⑧ 검바골 ⑨ 신상골 ⑩ 가작골 ⑪ 더꾸골 ⑫ 밤나무골 ⑬ 식골이다.

이중 학골에는 큰 하얀 학들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검바골은 큰 검은바위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 13골 골짜기 말고도 이곳 식골에는 안산, 날기동산, 장심이동산, 방성머리, 쇠경주, 오른가리, 주름물, 장심이 등세이, 작세미, 굳은다리, 뱀비논 등 재미있는 지명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식골 마을회관 앞 10m 지점에는 수 백년의 수령이 된 마을 산신목(나무)과 마을을 지켜주는 업양가리 터줏가리가 보존되어 있었다. 이곳 산치성터(자리)에서는 매 2년에 한번씩 음력 10월에 산치성을 지냈다. 산치성은 손이 없는 날을 잡아서 지내며 사용되는 모든 경비는 마을 주민들이 조금씩 부담하게 되며 전통적인 의미의 제례 행사와 함께 소경(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소경거리가 이어진다.(현재 대감나무는 현 위치에서 서쪽으로 150m 지점 인근 공원으로 옮겨졌다.)

이렇듯 산치성에 소경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예이다. 산신나무 우측의 업양가리와 터줏가리는 짚을 엮어서 만들었는데 조라술 담그는 종이와 대감의관 등이 들어 있다. 이 가리들은 마을의 안녕과 발전·풍년 등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곳 식골에는 1960~70년대에 지어진 전통적인 가옥구조의 한옥집이 약 50%를 차지한다. 이 주택들은 대부분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ㅁ자(字) 형태의 기와집으로 집 앞에서는 멀리 고양의 명산인 북한산을 조망해 볼 수 있었다. 뒤편의 산은 붉은 황토색으로 토질이 매우 뛰어난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곳 마을 사람들은 큰 부잣집에서 초상이 나더라도 시신을 땅에 모실 때에는 퇴관·탈관하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 탈관은 시신을 관에 모시지 않고 관은 불에 태우고 별도로 시신만 땅에 매장하는 장례법이다. 이 장례법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신을 운구하는 상여 또한 100여년이 넘는 나이에도 원형 그대로 마을에서 보존하고 있었다.

2003년 가을, 중면을 대표하는 모범 마을로서 지켜온 오늘날의 식골 마을은 곳곳에 어수선탐이 눈에 띄었다. 앞으로 1~2개월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백년간 살아온 고향을 떠나 새로운 마을로 이사 가야 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고향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특히 마을회관에서 만나 뵈 여러 마을 주민들의 애뜻한 고향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후 식골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떠나고 소음과 먼지 속에서 개발이 이루어졌다. 마을을 대신하여 20층 이상의 고층 APT가 들어섰다. 마을의 중심인 마을회관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풍동중학교가 들어섰고 상징나무인 대감나무는 서쪽으로 자리를 잡아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다.

## 대담을 통해 얻은 풍동 이야기 (1)

(토박이 할아버지)

1. 성명 : 김영환, 1922년생(85세)
2. 본 주소 : 고양군 증면 풍1리 262번지
3. 본래 직업은 : 농업, 정미소 운영(40세~46세까지)
4. 농사의 규모 : 논과 밭 등 경작지 1만 5천평
5. 자녀관계 : 슬하에 5남 2녀
6. 마을에서의 직위 : 노인회장 역임



가작골 고개를 내려오시며...

7. 13골의 정확한 명칭 : 식골, 애니골, 밤나무골, 가작골, 학골, 채수노골, 당수골, 신상골, 검바골, 사낙골, 상골, 쥐골, 움터골
8. 마을 집들의 구조 : 일반적으로 ㄱ자형 집이 많았는데 사랑채와 안채가 합쳐져 ㄹ자형임.
9. 마을의 명칭(윗말, 아랫말 등) : 축동박, 아랫말, 가운데말, 가작골, 웃말로 나뉨.

### 10. 들돌의 유래와 위치

마을 앞 개울에 위치했는데, 한 아름 되는 무겁고 잘생긴 돌이다. 마을의 남자라면 이 돌을 꼭 들어서 어깨위로 넘겨야 했다. 이 돌을 동네 주민들은 들돌이라 불렀다. 가끔 농사일을 하다가 이 돌을 가지고 내기를 했다. 힘이 센 사람은 이 들돌을 들어 머리 위로 올려 뒤로 넘길 정도였다. 일반 사람들은 한 아름이 잔뜩 되어 넘기기가 어려웠다. 애니골 입구에 잘 있었는데 그 후 행방을 잘 모르겠다. 일명 지경돌로 부르기도 했다.

### 11. 대감나무 모시기

이 대감나무는 현재 세 번째 나무이다. 본래 안산 부근에 아름답리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이 나무는 잘생기고 수령이 좋아 오랜 기간 당산목으로 모셨다. 어느 해인가 죽어서 방성머리 부근의 소나무로 옮겼는데 이 나무도 고사하여 지금의 참나무 계통 대감나무가 당산목이 된 것이다. 다행히 옮긴 후 건강해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다.

## 12. 마을에 있던 흙의 색깔은

이곳 식골은 흙이 매우 좋아 모두 5가지의 색이 나온다. 적색, 황토, 파란색 등인데 이 오색이 나오는 땅을 좋은 곳이라 했다.

## 13. 오래전 장례의 풍습은

이곳 사람들은 아무리 큰 장례를 치루어도 탈관, 퇴관의 풍습이 남아 있다.

## 14. 어린 시절의 식골 모습은

어린 시절에 이곳 식골에는 모두 초가집 밖에 없었다. 기억으로는 단 한 채의 기와집도 없었다. 모두 지붕에 이엉을 얹어 엮는 초가집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 조금씩 기와집으로 고쳐 지은 것이다.

## 15. 집 짓던 일(공동 짓기) 이야기

집을 짓는 일은 큰 일이었는데 마을 주민이 합심하여 다함께 지었다. 보통 초가집 한 채를 짓는데 4개월 정도가 걸렸다. 필요한 흙은 집 아래에 있는 집터의 것을 사용했고 나무들은 산에서 골라 썬고 벽을 부치는 산자는 진달래와 같은 잡목이나 인근에 있는 수수깡, 옥수수대를 썼다. 온 마을 주민들이 도와주는 가장 큰 품앗이 중에 하나가 바로 집짓기였다.

## 16. 초가집 이엉 만들기

초가 지붕에 엮는 것을 이엉이라 불렀다. 벼의 짚을 이용하여 만드는데 단위는 마름이 된다. 기술이 좋은 사람은 하루에 20마름이나 이엉을 엮는데 가장 어려운 공정 중에 하나가 바로 용구새 만들기다. 용구새는 지붕의 가장 높은 자리에 얹혀지는데 마치 어린 여자아이 머리 만들듯이 조심스럽게 짜 내려가야 한다. 이 마을에서는 정씨란 분이 이엉 엮기에는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 17. 정미소 이야기

정미소를 형님에 이어 잠시 운영했다. 상호는 풍동 정미소였으며 위치는 축동밖 아랫말 입구에 있었다. 민마루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며 발동기 한 대로 운영했다.

## 18. 오래 전 산치성 모습

오래 전부터 산치성은 저녁에 시작해 아침에 끝났다. 지금보다 훨씬 경건하고 얌전하게 산치성을 치루었다고 기억된다.

## 19. 교육 생활

동네에 학교와 글방이 없어 아이들은 소개울에 가서 천자문 공부를 배우고는 했다. 당시 소개울에는 홍선생이 있어 글을 가르쳤다. 이 서당을 졸업한 후 곧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이후 소학교에 진학하려 했으나 등에 등창이 나서 3년 후 입학하려 하자 나이가 많다고 하여 다니지 못했다.

## 20. 재미있는 땅 이름

오른가리 : 자동차매매센터 부근인데 가운데 작은 언덕이 있어 오른가리라 불렀고 조금 더 일산역으로 가면 이 곳을 솔밭, 또는 솔개라 부르곤 했다. 소나무가 많은 고개라는 뜻이다.

## 21. 선조께서 자리를 잡은 이유

처음에는 산황리에 거주하시다가 민마루로 이사했고 다시 이곳 풍동 식골 마을로 이사했다. 산황동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했고 민마루에 큰택이 있으나 인원이 많지 않고 이곳 식골에 후손이 가장 번성하게 되었다.

## 22. 마을의 특산물

겨울 농한기를 이용하여 주민들은 새끼 꼬는 기계를 이용하여 새끼를 꼬았다. 이와 함께 거적도 짜서 일산장에 내다 팔았다. 일산장 역전 부근에 공판장이 있어서 내다 팔았다.

## 23. 전설 및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 마을에도 인근에 널리 알려진 채동지 이야기가 있다. 밥을 많이 먹고 기운이 장사이며 겨울에도 추위를 타지 않는 채동지는 고양군 일대를 다니며 밥을 얻어먹었다. 그런데 유독 이곳 식골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워낙 골짜기가 많고 복잡하여 한 번 들어오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아예 들어오지 못한 것이다.

## 24. 귀신 이야기

마을에는 유명한 귀신이야기가 있다. 우선 마을 앞 개울가 동쪽에 밤이 되면 귀신불이 오고 나가곤 했다. 이 불을 마을 사람들이 매우 무서워 했다. 이외에도 검바위골 부근과 상여도가 인근은 마을 주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곳으로 유명했다.

## 25. 가장 힘든 농사과정

여러 가지 농사일 중에서 가장 힘든 과정은 벼짚 건져내기다. 가을에 베어놓은 벼단이 물에 젖으면 물벼단이 되는데 무게가 대단했다. 이 물벼를 밖으로 건져내기 위해 지게에 7단을 얹은 후 나오는데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다.

## 26. 일산 장날의 풍경

물건을 사거나 팔 때, 그리고 명절 때 여러 일로 장에 나가곤 한다. 가끔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장에 나가는데 물건은 주로 단골집을 이용하게 된다. 돈을 대신하여 쌀을 가져가면 장에 전문적으로 쌀을 사는 장사꾼이 있어 물건을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 27. 사시던 집 이야기

우리 집은 본래 초가집이었다가 40여년 전에 슬레이트, 기와로 바뀐 것이다. 흔히 가작골 입구에 있어 가작골 집이라 부르곤 했다. 대지 170여평, 건평 60여평은 되었다. □자형 집이며 우물이 있고 장독대는 뒤란에 있었다. 마당이 넓어 많은 아이들이 와서 놀곤 했다.

## 28. 큰 장례식은

할머님 장례식을 5일장으로 치루었다. 당시 큰 아버님이 이장일을 보셔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 하셨다. 큰 장례식으로 기억난다. 이 잘 치루어진 장례식에도 퇴관, 탈관을 했다.

## 29. 외가댁은 어디인가

외가댁은 같은 식골 마을이다. 우리는 금녕 김씨인데 외가댁은 같은 마을의 전주 김씨이다.

## 30. 두레패 이야기

식골에도 유명한 두레패가 있었다. 어깨에 무동을 태울 정도로 번성하기도 했다. 인근에 널리 알려져 영심이 마을과 함께 유명했다. 6·25 전쟁을 전후하여 그 맥이 끊기고 말았다.

## 31. 네 문중 이야기 : 마을에는 단양 우씨, 전주 이씨, 전주 김씨, 김해 김씨 순으로 정착했다고 한다.

## 32. 겨울 간식 이야기

겨울에는 긴 밤에 간식 생각이 많이 났는데 주로 고구마, 감자와 함께 잔치국수를 즐겨 먹곤 했다.

## 33. 집안의 재산인 소에 대하여

집안에 집일을 하는 소가 2마리 있었다. 이 소들은 어렸을 때 공룡장(현재 파주시 조리면)에서 사서 설문리를 지나 태미산 아래로 끌고 왔다. 농사일을 돕다가 팔 때가 되면 푸줏간에서 사람이 나와 소를 사가곤 했다. 별도로 암소와 교미하지 않고 풀어 놓으면 자기가 가서 알아서 교미를 하고 돌아오곤 했다.

## 34. 가장 기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장가 가고 장남을 얻었던 일

슬픈 일: 가까운 인척이나 이웃이 돌아가시고, 고향이 개발로 천지개벽이 되어 떠나오신 일

## 35. 새마을 운동 이야기

이장 일을 보면서 가장 우선순을 둔 것은 마을 주민 전체의 화합과 단결이었다.

## 36. 민마루 주민과의 관계

민마루 마을은 식골과 가장 가까운 이웃 마을이다. 상여도 같이 사용하던 곳이다. 인근에 식사리가 있는데 그 곳은 원당면에 속해 민마루보다는 좀 더 멀었던 것 같다. 후에 마을이 커지면서 나뉘어지게 되었다.

## 37. 제사 때의 풍경

제사는 어른들의 말씀대로 밤늦게 지냈다. 아녀자들이 제수와 음식을 준비하지만 제례에 참석하지 못했다. 제례는 장남 위주로 진행되며 아이들은 배 고프니 시절 제사밥이 큰 관심거리였다. 흥동백 서로 진설을 하고 축문을 썼는데 근본이 남아 있어 축문을 쓰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 38. 매봉재에 대한 추억

매봉재는 우리 선조님들이 잠들어 계신 선산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좋은 휴식처, 놀이터 였다. 나무도 하러 가고 놀러도 갔다. 기차를 타고 오면 이 산기슭에 흰 백로가 천지였다. 정말 장관이었다.

39. 혼인은 누가 중매를

중매는 동네 형님이신 이재록 씨께서 해 주신 것이다. 당시 22살이었는데 색시가 참 예쁘고 고왔다.

40. 군대 생활은

군대에는 다녀오지 않았다. 그 대신 일본에 1년 정도 징용을 다녀왔다. 동경 등 두 곳에서 일을 했는데 1년 후 해방이 되어 무사히 돌아왔다. 노임은 받았으며 같이 간 동네 사람들도 무사히 돌아왔다.

41. 6·25 전쟁과 식골은

우리 마을은 마을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마을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난을 다녀와서 보니 불탄 집도 없이 동네가 그대로 참 깨끗했다.

42. 마을에 잘 자라던 풀은

마을 들녘에는 쑥, 질경이, 냉이 등이 지천으로 깔려 있었다. 이것을 캐내어 떡을 만들어 먹거나 나물로 만들어 먹곤 했다.

43. 하시고픈 말씀은

자꾸 동네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슬프다. 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산치성이 끝나지 말고 후대에 길이 이어졌으면 한다. 대감나무가 보전된 것은 정말 다행이다.



아랫말 축동밖 모습

## 대담을 통해 얻은 풍동 이야기 (2)

(토박이 주민)



1. 성명 : 김기설(48세), 김규태(47세), 김규성(47세)
2. 풍동 거주 기간 : 1959년~현재, 1960년~현재
3. 본적 및 주소지 : 고양군 중면 풍1리 270번지, 풍1리 262번지, 풍1리 233번지
4. 본관 및 가계 : 전주 김씨, 김해 김씨
5. 마을에서 맡았던 직위 :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식골상조회장

6. 현 거주지: 풍 8통 784번지, 덕이동 458번지

7. 선거시 성향

일부 야당 성향이 있기도 했으나 고양시 전체의 분위기와 비슷하여 여당의 성향이 강한 마을이었다.

8. 대감나무 이야기



대감나무 원경

수백 년 된 도토리, 참나무의 일종이다. 본래 안산 부근에 있다가 현옥이네 부근의 나무를 대감나무로 정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현재의 나무가 대감나무가 되었다. 대감나무는 마을 주민이 신성시 여겨 주변에서 땀감을 함부로 하지 못하였고, 도토리를 따기 위해 도끼로 치지도 못했다. 오래 전에 나무의 한쪽이 심하게 파였는데 마을 주민들이 신성시 여긴 이후 다시 새살이 나와 지금은 그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곳에서 소를 매어 두거나 도토리를 따면 이상하게 봉사가 산치성을 지낼 때 그 사실을 알고 이야기 해서 마을 주민들이 매우 신기해 했다.

6한 번은 외지에서 들어온 주민이 밭에 분노를 주기 위해 지계를 메고 가다가 이 대감나무의 가지가 걸리자 그 가지를 베어 버렸다. 이후 이 사람은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죽고 말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에서는 더욱 신성시 하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어르신들은 이 부근에서 부정 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했다. 주민들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곳에 올라와서 빌며 기원했다고 한다. 주변에는 짚으로 만든 엽양가리, 터줏가리가 만들어져 있다. 이 대감나무는 본래 있던 마을회관 앞에서 약 150m 가량 서쪽으로 옮겨져 지금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재미있게도 처음 대감나무가 있던 안산 부근으로 다시 오게 된 것이다.

## 9. 어렸을 때의 놀이

다마치기(구슬치기), 제기차기, 다방구, 술래잡기, 찢붕(현재 야구와 비슷한 놀이), 연날리기를 했다. 특히 연날리기에는 여러 사연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은 가오리연, 오징어연을 많이 만들어 놀았다. 그런데 동네 형들 중에서 솜씨가 좋은 사람은 방패연을 만들었다. 한번은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큰 방패연을 만들고 마을 놀이터에서 이 연을 날리게 되었다. 온 동네 아이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다. 연의 곳곳에 소원을 적고 대문짝 크기의 연을 날리는데 하늘 높이 올라갔는데 어찌나 줄이 팽팽한지 나일론 줄을 감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결국 실을 감지 못하고 끊었는데 어디에 가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날아갔다고 한다. 당시 일반적인 아이들은 달력과 신문, 창호지를 이용하여 연을 만들었고 열레 대신에 실패에 줄을 감아 놀았다. 실이 귀하던 시절이어서 부모님께 혼도 많이 났다.



건너말에서 본 마을회관 부근의 아랫말

## 10. 무서웠던 어른

담배집 어른님과 김덕성 어른님을 기억하고 있다. 김덕성 어른님은 집 대문 앞에 나와 계시다가 아이들이 지나가면 돌아다니지 말고 부모님 일손을 도와라, 깨끗이 씻고 다녀라 등 자세나 행동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교육을 시킨 교육자와 같은 어른이었다. 아이들은 이 맥을 지날 때 대문 틈새로 어른님의 유무를 확인한 후 도망오기 일쑤였다. 아이들은 이 맥 대문을 지날 때 바짝 긴장하고 지나 다녔으며 절대로 무조건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쳐 주신 분으로 기억한다.

장정석 어른님은 힘이 장사시고 덩치가 매우 크셨던 분으로 기억한다. 약주를 드시고 동네를 호령하면 마을 전체가 울릴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입심이 뛰어나시며 말씀하실 때 마다 손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셨다. 유명한 말씀이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술은 술술 잘 넘어간다는 말을 자주하

였다. 저녁에 자녀들을 부르기 위해 옷말댁에서 소리를 지르시면 가운데말을 지나 아랫말 축동 밖까지 들리던 목청 큰 어르신으로 기억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시지는 않으나 워낙 체격이 좋고 소리가 커 어려움의 대상이 되신 분이다.

### 11. 욱 잘하는 할머니

정○ 할머니라 불리던 분이 계셨는데, 생김새는 허리가 많이 휘어서 일명 꼬부랑 할머니라 불렸다. 집 앞 마당에서 놀거나 농작물을 건드리면 매우 다양한 욱지거리가 나왔다. 소리를 지르시며 하는 욱을 보면 염병할 놈, 때려죽일 놈 등이 기억난다.

### 12. 정월 대보름의 표정

아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전날 준비한 밤과 호두, 땅콩을 앞마당에 던지며 “내 더위 다 가져가라” 또는 “보름이요” 하며 소리를 지른다. 이어 오희밥과 여러 가지의 나물로 정월 대보름 밥을 먹게 된다. 이때 집에서는 여인네들이 아홉 번 밥을 먹고 아홉 번 나무를 해 와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본격적인 대보름 놀이를 준비한다.

마을의 아이들은 보름날 오후에 연날리기를 한다. 이때가 마지막으로 연을 날릴 수 있는 시기가 된다. 연에 편지를 띄어 보내는데 가화만사성, 만수무강, 소원성취 등 소원을 빌게 된다. 다음은 달집 만들기의 순서가 된다. 대문 앞마당에는 ‘ㅁ’ 자 모양으로 벼짚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 벼짚을 엮어 달집을 만들게 된다. 달집은 자기의 나이순대로 띠를 묶어 만들게 되고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린다. 달이 북한산 위로 떠오르면 온 집안사람이 모두 나와 마당에서 달을 보며 달집을 태운다. 달집 끝에 불을 붙여 마지막 부분까지 모두 타게 되고 달님을 향해 달님 달님하며 자신의 소원을 빌게 된다. 동네 어르신 중에서 달 점치기를 하는 분도 계신다. 집에서 달집 태우기가 끝나면 아이들은 방성머리나 날개산으로 모여 본격적인 대보름놀이를 한다. 달을 본 후 장작을 준비하여 동네 논으로 나가 깡통을 돌리면서 쥐불놀이와 불꽃놀이를 하며 운동네 아이들이 밤늦도록 즐겁게 논다. 그리고 이웃 동네인 식사동 방아고개, 어침이, 영심이, 마두리 설촌, 도두모리 아이들과 돌싸움을 벌이는데 심각하게 치루지는 않았다. 가끔 인근 미군부대 훈련장에서 구해온 물건을 이용하여 사재총과 폭죽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양말이나 옷을 태워 부모님께 혼도 많이 났다.

### 13. 장례식 때의 역할

장례식에 사용되는 식골 상여는 모두 10명이 메는 것이다. 상여는 아무나 멜 수 없었고 결혼을 하고 가능하면 아들이 있는 집 남자가 메게 된다. 상여는 주요 틀이 낙엽송 나무를 이용했기 때문에 무게가 대단했다. 어깨가 빠진다고 하여 무겁다는 소리도 하지 못한 채 산까지 메고 갔는데 후대에는 알루미늄 재질의 가벼운 상여가 등장했다. 장례식에는 주로 힘들고 어려운 허드렛일을 많이 했고, 위의

형님 세대가 상여를 많이 메셨다.

#### 14. 마을의 명물

마을의 명물은 풍동 13 골짜기 이야기, 대감나무, 단풍나무, 학골 백로, 목련나무를 들 수 있다.

#### 15. 마을의 명소

매봉재. 이곳은 위낙 나무가 우거지고 바람이 시원한지 주민들의 여름 피서지와 같은 곳이었다. 여기에 오르면 멀리 한강이 보이고 남산, 관악산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이곳으로 개나 닭을 잡아 피서를 가기도 했다. 특히 저녁에 이곳에서 보이는 장항, 백석, 마두리의 풍경이 좋았다. 이외에도 방성머리, 날기산, 안산, 운동장이 명소였다.

#### 16. 재미있는 사람

마을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사꾼이 있었다. 우선 뽕쟁이 코주부 할아버지가 있었다. 실제로 코가 주저앉아 마치 세 개로 보이곤 했다. 이분은 신발을 수리하거나 우산, 냄비, 잡동사니 모든 것을 수리하던 만물박사였다. 옛장수 아저씨도 있었다. 이 분은 술을 좋아하여 마을에 들어온 뒤 장사를 조금 한 뒤 술에 취한 경우가 많았다. 이때 아이들에게 리어카를 장심이 등생이까지 밀어 달라고 하시고는 졸곤 했다. 이 때 강냉이와 엇은 완전히 아이들 차지가 되었다.

#### 17. 특이한 나무나 집

나무는 대감나무, 옷말의 목련나무, 단풍나무, 토성 넘어 부근의 진달래, 매봉재의 소나무가 유명했다. 마을에는 유난히 한옥으로 된 기와집이 많았다. 기둥과 지붕의 기와가 멋져서 다른 마을에서 놀러온 친구들이 큰 부자가 많은 것으로 알곤 했다. 건너말 운동장 아래에 흙으로 지은 토담집이 있었다. -자형의 이 집은 다른 집에 비해 매우 두꺼운 흙으로 담장을 만들어 지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18. 새마을 운동 이야기

마을에 새마을 운동이 본격화 된 것은 1970년대 초중반의 일이었다. 우선 마을의 지붕이 개량되었고 여기에 일명 중앙로가 넓혀졌다. 이 길은 아랫말에서 옷말로 이어진 동네 가운데 큰 길이었다. 사유지를 조금씩 양보해서 도로가 넓혀졌는데 일부 다툼이 있기도 했다. 김기열 씨가 이장일 볼 때 이 길이 완성되어 마을의 대동맥 역할을 했다. 퇴비증산, 화장실개축, 농기계확산 등 사업도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19. 콩쿨대회 및 마을 행사

마을의 콩쿨대회는 추석 5일 전부터 시작되었다. 금반지, 비료, 양동이, 양은냄비 등 주로 생활용품

을 상품으로 걸었다. 장소는 운동장이나 방성머리에서 했는데 사회는 장인규 씨가 자주 보았다. 노래와 장기 자랑이 이어졌으며 저녁에 모여 진행되었다. 가끔 타동네에서도 콩쿨대회에 참여하는데 심사에 불만을 가져 분란이 나기도 했다. 콩쿨대회는 약 30년 전부터 단절되었다. 기타와 밴드가 등장하는데 기타는 김재기 씨가, 노래는 축동 박 딸이 잘 불렀다. 연극도 간간이 이루어졌다. 추석맛이 옷놀이대회, 체육대회, 산치성이 마을의 큰 행사였다.

## 20. 많이 하던 농작물

마을의 대표적인 농작물은 깻잎과 오이다. 특히 깻잎은 10여년이 넘게 마을 주민들의 주 소득원 역할을 했다. 깻잎은 보통 봄부터 가을까지 딸 수가 있다. 새벽에 아녀자들이 나가서 잎을 따오면 마루에 잔뜩 쌓이게 된다. 이때부터 밤 늦게까지 깻잎 묶기가 이어진다. 5장이 한 묶음이며 100 묶음이 한 접이 된다.



1960년대 식골의 가을 배추를 짐으로 묶는 장면이다. 우측은 뒷간이다.

이 접이 깻잎의 단위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이다. 묶는 줄은 땅풀을 쓰다가 빨간실, 그 후에는 흰실을 사용했다. 묶는 것도 경험과 실력이 필요한데 김덕송 씨네가 깻잎 농사를 많이 했고 각 집 집마다 밤늦도록 이 깻잎을 묶곤 했다. 특히 병숙이는 어찌나 잘 하는지 깻잎의 명수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 아이들도 논두렁 바로 잡기와 이 깻잎 농사를 지어야만 조금의 용돈을 벌 수 있었다. 처음에는 기차와 버스 등을 이용해 모래내, 신촌, 불광동에 내다 팔았으나 그 후에는 마을에 차량이 와서 편하게 팔 수 있게 되었다.

## 21. 귀신, 도깨비 이야기

마을에 도깨비는 3곳에서 보았다고 한다. 우선 일산에서 성황당을 거쳐 마을로 들어오는 길인 현재의 한남관광 아래가 첫 번째 출몰지이고, 이어서 동국대 병원에서 농장다리를 지나 들어오는 길에 도깨비를 보았다고 한다. 다음은 상여도가 부근이 무섭고 도깨비가 자주 출몰하는 장소였다.

## 22. 청년회에서 마을에 만들어 놓은 것

마을의 이정표 안내표시판, 마을 게시판, 마을 대청소, 생활 쓰레기 처리, 전화번호부 제작.

## 23. 마을에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절대로 상어가 마을의 중앙로 가작골 고개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시신도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에 여자가 남의 집을 함부로 출입하는 일도 삼가해야 한다. 대감나무는 건드리거나 부근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특히 마을에서는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데 집안이나 온 가족이 모두 욕을 먹게 되기 때문이다.

## 24. 백마부대 정착기

백마부대가 들어서기 전 부대 일원은 논과 밭,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이곳에는 행길아지란 지명이 있었는데 이 안쪽에 돌쟁이아저씨가 살았다. 이분은 돌을 깨내는 아저씨인데 차돌이 이곳에서 많이 나와 마을에 비석을 세울 일이 있으면 이분의 도움을 받곤 했다. 이 돌들은 왜정 때부터 등급이 매우 좋은 돌이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의 사유지가 많았으며 작은 테미산이란 봉우리가 있었다. 이곳은 미군들이 장비를 대어 야외 훈련장으로 사용했다. 아이들은 이곳에 사는 집을 당수골 최서방이라 부르기도 했고 칩이 많아 아이들의 칩 캐는 장소로 애용된 곳이다. 그 후 1970년대 초반에 이곳에 백마부대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주민들의 농토 및 토지는 수용령에 따라 모두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었다.



취골(현재의 백마부대 사단사령부 자리)

## 25. 풍동 마을 4H 이야기

풍동 4H 구락부라 불린 애향단체였다. 주로 위안잔치, 경진대회 참가, 꽃꽂이, 카드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겨울철 정월 대보름 때는 북조리를 판매하기도 했다. 북조리에 성냥, 양초를 넣었는데 대문 틈새로 밀어 넣어 판매했다. 이 수익금은 4H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 26. 애니골과 카페촌 이야기

본래 이 지역은 집이 거의 없던 곳이다. '애니'란 말은 오래전부터 불렸으나 '애니골'이란 이름은 최근에 생긴 것이다. 애니는 현재 한남관광 아래의 마을이며 움터골이 YMCA가 있는 지역, 그리고 현재 카페촌이 있는 곳은 사낙골이며 경의선 철도 부근이 바로 도두모리인데 이곳은 마두리와 경계

가 되는 곳이다. 본래 소나무가 많은 곳이었다.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고 마두리, 백석리 등 백마역 부근의 식당과 주점들이 조금씩 들어서더니 1990년대 중반, 후반부터 이 지역이 대규모의 상점, 가게, 음식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다.

### 27. 마을에 내려오는 재미있는 전설 및 설화는

마을에는 검바위골 명당자리와 검바위 이야기가 전해지며 학골, 매봉재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수 백 년 된 적송이 뻗뻗하게 있어 이곳에 많은 수의 백로가 날아와 살곤 했다 해가 넘어갈 때 기차를 타거나 마을로 들어올 때 이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운 절경이었다. 온 산봉우리가 완전히 하얀 백로 천지였다. 그 후 이 백로는 사낙골 골짜기(지금의 애니골 식당가) 방향으로 이주했다.

채동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힘이 장사였다고 한다. 고양군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임시로 거주하며 방랑생활을 했다. 식골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밥을 한 동이나 먹을 정도로 대단했다고 한다. 한번은 마을 주민들이 식사를 제공하고 장난을 치기 위해 돌절구를 머리에 씌어 주었더니 그 무거운 돌절구를 쓰고 아무렇지도 않게 밥만 먹고 있었다고 한다.

### 28. 우애 좋은 형제나 가족 이야기

마을에는 유난히 우애 좋은 친척과 집안 이야기가 많았다. 마을에 고씨 성을 가진 형제가 살았는데 넉넉지 못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쌀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등 남달리 형제간에 우애가 좋았다고 전해진다.

### 29. 나무 해 오던 이야기

주로 나무는 인근의 야산에서 잡목을 치거나 산에서 솔잎을 구해오곤 했다. 특히 솔가지는 현재 공원이 들어선 달맞이산 부근이 많이 있었다. 주변에 산이 둘러쳐져 있어 별판의 마을과는 달리 땀감사정이 좋은 편이었다. 마을에 외지 주민이 와서 나무를 해 가지고 가면 장작을 뺏거나 혼을 내서 내쫓곤 했다. 어떤 사람은 심술이 발동해서 나무를 진 지게에 불을 붙여 모두 타버리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 30. 방앗간에서 기다리던 이야기

정미소는 마을에 오래전부터 있었다. 정미소에는 일꾼이 있어 이 사람들이 각 집에서 벼를 가지고 와서 방아를 찼었다. 다 찼 방아의 쌀은 공임을 모두 떼고 마차로 다시 집집마다 배달해 주었다. 정미소 부근에는 높게 왕겨가 쌓이곤 했는데 이 왕겨는 엿을 만들거나 숯을 제작하고 탕줄을 태워 없앨

때 사용되었다. 인근에 정미소가 이곳 식골에만 있어 민마루 마을에서도 오가곤 했다. 어머니와 밀가루를 빻던 기억이 나며 설날이 다가오면 방앗간에 가서 새벽부터 기다려 긴 가래떡을 기다려 하나 얻어 먹을 때 어찌나 맛이 있던지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

### 31. 동네로 들어가는 길 이야기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다음과 같다.

- ▶ 애니에서 가작골을 넘어서 들어오는 길
- ▶ 오른가리에서 장생이 등생이를 따라 들어오는 길
- ▶ 민마루에서 들어오는 길(중앙로)
- ▶ 석사리 쇠경주(세원고 부근)를 통해 들어오는 길
- ▶ 동대병원 부근에서 농장다리 부근으로 들어오는 길
- ▶ 검바위 부근에서 들어오는 길
- ▶ 당수골길(정원가든 인근길)
- ▶ 토성 넘어길(백마역 가는 오솔길)



당수골에서 들어오는 식골 마을의 주 출입구

### 32. 신랑, 신부 골려 주는 일

신부는 시집으로 처음으로 올 때 택시를 타고 온다. 동네 아이들은 이 새색시의 얼굴과 모습을 보고 싶어 장난을 친다. 우선 택시가 오는 길을 곳곳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 차가 심하게 흔들리게 한다. 이래도 내리지 않으면 큰 구멍을 파서 눈에 띄지 않게 낙엽으로 덮어둔다.

달리던 택시가 이 구멍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면 색시는 내려서 마을로 들어오게 되고 온 마을 주민들에게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신랑은 처갓집 동네에 오면 짓곳은 마을 청년에게 호되게 당한다. 대들보에 발이 묶여 북어포나 다듬이 목으로 맞기도 한다. 이때 색시와 가족들은 술과 안주로 마을 청년들을 달래야 한다.

### 33. 마을 내에서 서로 혼인한 사람

마을 내에서는 각 동성동본 인척간에 혼인은 없었으나 분이 다르면 혼인할 수 있었다. 이곳 풍동 식골에서도 토박이 성씨끼리 혼인이 이루어져 결국 대부분의 주민들은 사돈 지간이 되었다.

### 34. 없어진 마을을 보고 느끼는 점

- 화가 난다. 옛날의 흔적을 거의 볼 수 없으며 마을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남아 있지 못해 아쉬움과 함께 화가 난다. 웃어르신들도 화가 나시고 아쉬워서 병이 나시고 돌아가신 분도 많다.
- 아늑한 곳, 선대로부터 대대로 살아온 고향이다. 식골은 참으로 조용하고 포근하며 정겹고 사랑스

러운 곳이다. 개발된 후 마을에 가보면, 정을 느낄 수 없고 낯선 느낌이 든다. 고향이란 느낌이 없으며 편안함을 느낄 수 없어 큰 걱정이다.

●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새로 깨끗해진 마을을 보면 한편으로 좋은 감정도 든다. 정리정돈된 계곡된 터에서 사는 것도 좋다. 여럿이 다함께 온 마을 주민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한다.

### 35. 책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동네 주민들의 여러 모습이 사진으로 실렸으면 한다. 마을 전경 사진도 포함되었으면 하며 이 책자를 통해 옛 정을 되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 36. 하고 싶은 말씀

이 책을 통하여 개발되기 이전의 풍동 식골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후대에 길이 전했으면 합니다. 특히 통장 김규성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여러 내용이 잘 정리되어 길이 남았으면 합니다. 고양시에도 이러한 개발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책자의 기록이 고양시의 역사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귀중한 사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날깃동산에서 내려다 본 웃마을

## 대담을 통해 얻은 풍동 이야기 (3)

(풍3리 주민)

1. 성명 : 정정식, 1939년생(68세)
2. 본래 주소 : 고양군 중면 풍3리 363-112호, 고양군 중면 풍3리 387-4호로 이사함
3. 거주기간 : 1976년~현재
4. 자녀가족 관계 : 1남 4녀를 둠.
5. 마을에서의 직위 : 반장, 개발위원, 개발위원회 감사, 개발위원장, 원주민대책위원회 감사
6. 풍3리로 이주한 이유 : 본래 서울 연희동에 거주하다가 철거를 당해 이주해 옴.

### 7. 풍3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1974년에 서울 남가좌동 뚝방에 살던 주민들을 정부에서 이주시킴. 그때 총 84세대가 이곳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다. 당시 이곳에는 이 지역 출신 인물 3가구가 살고 있었다. 이곳은 매봉재 자락의 야산으로 이장을 보던 박인호 씨가 지주가 되어 마을이 만들어졌다. 서울에서 이곳으로 내보낸 것은 환경정리가 목적이었다.

### 8. 토지매입과 가격은

당시 1가구에 50평씩 나누어서 대지를 살 수 있었다. 평당 가격은 800원이었다. 그러나 진입 도로 까지 포함되어 실제로는 평당 1,000원꼴은 되었고 도로 부지를 제외하면 약 35평에서 38평 정도의 집에서 살게 된 것이다. 집은 1974년 6월에 짓기 시작하여 그 해 8월에 완성되어 살기 시작했다.

### 9. 이사 온 규모는

처음 이사 온 규모는 총 84세대인데 363번지 일대 3,680평이 최초의 풍3리 주택 면적이었다.

### 10. 당시의 생활상은

당시 이주한 주민들은 40대 초·중반 그리고 젊은 사람이 30대 후반이었다. 직업은 막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다. 남자들은 공사장에서 막일을 했고 아녀자들은 파출부 생활로 힘겹게 생계를 유지했다. 집들도 일본말로 하꼬방이라 부르던 간이건물이 많았다. 자재가 부족하여 널빤지를 연결하

거나 서울 중고제재소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허술하게 집을 지어 살았다. 어려운 살림이었고 집은 대체로 一자집. 또는 ㄱ자형이 주종이다. 방은 2개 정도, 화장실을 밖에 별도로 설치했다.

### 11. 직업은

오랜 기간 목수 생활을 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정목수라 부르고 있다. 풍3리의 주택 중 70% 정도는 나의 손을 거쳐간 집이다. 집의 구조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 12. 생계 유지는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출퇴근 하곤 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쌀을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었고, 간혹 농번기에는 인근 마을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기도 했다. 손님이 오면 대접할 것이 많지 않아 어려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 13. 식골 주민과의 관계는

풍3리는 철거민이라 하여 좋지 않게 보고 따돌림을 당했다. 안동네 주민들과 특별한 충돌은 없었다.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던 풍3리 마을이어서 가끔 배고픔에 채소를 몰래 가져와 안동네 주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무를 몰래 해오기도 해서 두 마을 간에 특별히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다만 바쁜 농번기에는 안동네(식골)로 일을 하러 다니곤 했다. 이 주민들도 이때는 풍3리 주민들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 14. 그 후 변화 모습은

1974년에 1차로 84세대가 363번지 일대에 이주하였고, 1980년대 초반 2차로 주민들이 조금씩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3차로 1980년대 후반에 387-4번지 일대에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개발 전에는 세입자를 제외하고 총 305가구가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였으나 80년대 이후 생활이 점차 좋아지게 되었다. 돈을 벌어서 조금씩 집을 개조하기에 이르렀다. 90년대 이후에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기 좋은 마을이었다.

### 15. 가장 슬프고 서러운 일은

점심을 굶던 것은 다반사였다. 가장 큰 서러움은 배고픔의 서러움이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대 자루를 풀어 실을 만드는 일을 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점심에 손님이 오면 먹을 것이 없어 참으로 가난이 야속하기만 했다.

### 16. 관청에서의 협조는

중년의 면장이셨던 이영묵이란 분이 계셨다. 그 분이 마을 주민들과 안면이 있어 도로를 만들 때 시멘트도 보내주고 가마니 공장도 지원해 주는 등 여러 도움을 주었다.

#### 17. 집들을 짓던 기억은

집은 초창기에 임시 건물이라 1개월이면 한 채의 집을 짓곤 했다. 시멘트 블럭에 서까래만 올리고 슬레이트를 얹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였다. 집의 난방은 초창기에 나무를 때다가 점차 연탄으로 바뀌게 되었다.

#### 18. 주민들과의 관계는

풍3리 주민들과의 관계는 좋았다. 서로 없이 사는 사람들 끼리 모여 살았기 때문에 대문과 담장 없이 살아도 문제가 없었다. 간혹 술 한 잔 하고 서로 목청을 높여도 다음날이 되면 서로 얼싸안고 즐겁게 지내던 착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정이 넘치며 단결이 잘 되고 체육대회에 나가면 풍3리를 당해내지 못했다.

#### 19. 초상 장례는 어떻게 치루었나

마을에 초상이 나면 상여가 없고 선산이 없어 간이 장례를 치루었다. 우선 관이 없기 때문에 일산 제재소에 가서 합판을 사와 임시관을 만들었다. 장례 비용이 없어 마을 주민들이 조금씩 거두어 장례를 모시기도 했다. 운구는 리어으며 소개울 방향에 있는 공동묘지에 무덤을 쓰곤 했다. 후에 상여를 마련해 장례를 치루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다. 카를 이용했

20. 마을의 구분은 : 마을의 중심도로를 경계로 3통과 5통으로 구분되었다.

21. 아이들의 학교는 : 주로 백마초등학교를 거쳐 일산중학교, 고양여중·고를 졸업했다.

#### 22. 상수원 물 공급은

처음에는 물이 없어 여유 있는 집에서 우물을 파면 다함께 그 물을 길어다 먹곤 했다. 아침과 저녁이면 이 집에는 마을 주민 여럿이 모여 물을 길기 위해 줄을 서곤 했다.

#### 23. 신도시 개발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일산 신도시 개발을 보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특별히 계획이 없었다. 의식이 별로 없었으며 다른 마을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다.

24. 성원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변화는

개인이 토지를 팔아 지은 아파트로 주민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도 하지 않았다.

25. 세입자들의 생활상은

세입자들은 1990년대 이후 들어오기 시작했다. 주로 젊은 층이 많았으며 교통이 편리하여 기차를 이용하여 서울 등지로 출퇴근 하며 살았다.

26. 아파트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초기에는 일산의 신도시처럼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집행부에서는 설문을 돌려 도장을 받았는데 주민들은 신도시의 예를 들어 특별한 반대 없이 개발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후에 잘못됨을 알고 후회했다.

27. 왜 반대 했나 : 현실보상을 해 달라(보상가의 인상 요구), 이주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달라.

28.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

아파트의 분양가를 건설 원가로 분양해 달라. 그러나 주공에서는 일반 분양가로 원주민에게 분양하였다.

29. 주민들은 현재 어디에 거주하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곳 풍동 주공 2단지에 살고 있다. 대부분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내고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 주민은 더욱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30. 얼마나 보상받고 나갔나

도로변이 좀 더 보상가가 높게 나왔는데 상은 평당 270-300만원, 중은 250만원선, 하는 230만원선으로 평균 250만원이었다. 보통 대지가 37평 정도이므로 보상가는 약 1억원 내외가 된다.

31. 당시 주민들의 투표 성향은 : 야당 성향이 강하였다.

32. 주로 고향은 어디인가 : 특별히 한 지역이 아닌전국 8도에서 모두 모여 살았다.

33. 상조회는 있는가 : 초창기에는 있었으나 개발 후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34. 입주권을 모든 주민이 다 받았는가

총 305가구 가운데 224가구만 분양권을 받았다. 특히 이 중에서 80가구는 실제로 이곳 풍3리에 거주하지 않아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분양권을 가진 주민들도 은행에서 아파트를 저당으로 잡혀 융자금을 대출받은 상태이다.

35. 주택공사에게 할 말은

지금이라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건설원가로 아파트를 분양해 달라. 상가 분양권 및 대체용지를 주지도 않으면서 1억 정도의 보상금으로 살 곳이 없다. 처음 주장대로 가난하고 없이 살아도 좋다. 정든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 택지개발 전면 백지화 하라. 5,960만원이면 되는 아파트를 2억 900만원으로 분양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원주민들에게는 건설 원가로 보급해야 한다.

36.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이상 주민들이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2006년 12월 6일 결심공판에서 주민들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원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없는 사람은 갈 데가 없다. 그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제 1세대인 아버지의 세대의 가난함을 2세대인 아들 대에 가난함을 물려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개발로부터 풀과 잡초까지도 소중한 여기던 주민들을 무시하고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을 더 이상 있지 않았으면 한다.



풍3·5통(옛 풍3리)의 마을 전경

## 대담을 통해 얻은 풍동 이야기 (4)

(이주민)

1. 성명 : 국영숙 (50세)

2. 풍동 거주 기간 : 1999년 7월~ 2003년 9월 18일

풍동 식골 마을에서 가장 늦게 이사를 나온 주민, 행정 대집행 직전에 나온 주민

3. 사시던 주소 및 위치 : 일산구 풍동 280-1

4. 지금 하고 계신 일 : 풍동 원주민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5. 이사 전에 하시던 일 : 주부

6.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 :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 201-504호

7. 풍동 거주시 거주 의 형태는 : 단독주택 143평, 3필지

8. 풍동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아이 교육 및 자연 환경을 찾아서 세 자매가 인근에 함께 거주했는데 일명 국씨네로 불렸다. 전원생활을 꿈꾸며 오랜기간 살기를 원했다.

9. 풍동 이사시 첫 인상은

서울 태생으로 자연을 쉽게 접하지 못했는데 고향과 같이 포근하고 좋은 마을이었다. 신도시와 달리 맑은 공기 싱싱한 자연이 너무도 좋았다. 식골은 나의 고향같은 곳이었다.

10. 전반적인 인심은

신도시 개발 후이기 때문에 예전 우리네 외갓집과 같은 큰 인심은 아니었다. 외부인으로 약간의 경계는 있었으나 텃새를 하거나 소외시키지는 않았다.

11. 토박이 주민들과의 관계는

인사를 하고 대화하며 지냈다. 악의가 없이 참 좋은 분들이시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서로 어울리며 친하게 왕래하지는 못했다.

12. 주민들을 많이 만난 첫 계기는  
주민대책위원회의 활동을 계기로 주민들과 만나게 되었다.
13. 주로 누구와 친하게 지냈나  
대책위 임원, 청년회 임원, 그리고 통장대 식구와도 가깝게 지냈다.
14. 안말(식골)로 들어가는 이유는  
마을 산책이나 원일산에 나갈 때, 오전 10시경 마을을 둘러보기 위해 다녔는데 1시간 가량 소요된다.
15. 토박이 주민 가정사 큰일에 참석을 했는가  
돌아가시면 병원에 조상을 다녔고 작은 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16. 개발시 주민들 간에 갈등은 없었나  
원주민과 갈등은 없었다. 서로 협력하며 좋은 개발 여건으로 발전되기를 바랐다.
17. 대부분은 어느 정도 보상이 나왔나  
논은 평당 평균으로 삼아 80만원 대, 밭은 90만원 대, 임야는 60만원대, 대지는 150만원대가 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평균 120~130만원대가 된다. 3통, 5통의 경우는 평당 220~230만원대의 보상가가 나왔다.
18. 이주한 주민들의 주장은(요구사항)  
대지만을 가진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원했으며, 시세 가치대로 보상해 달라는 요구였다. 또한 아파트 입주권의 확대를 요구했다.
19. 세입자 주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임시 이주 단지를 조상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기준일 밖에 있는 주민들도 분양권을 요구했다.
20. 가장 크게 소외감을 느낄 때는 : 특별히 없었다.
21. 이곳 주민들의 성격 및 특징은  
착하고 유순하신 분들이다. 청년들도 어른을 공경하고 말을 잘 듣는 전형적인 농촌마을 모습으로 기억 한다.

22. 기억하면 생각나는 것은 .

눈이 오면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봄이 되면 장인철 씨댁 고개 부근은 완전히 아카시아 향으로 온 동네를 감싸곤 했다. 마을 곳곳에 야생화, 들풀이 어우러져 참으로 좋은 풍경이었다. 질경이, 썩, 어성초, 돌복숭아, 뱀딸기, 싱아, 까마중, 애기똥풀, 쫄래, 갈대, 억새, 민들레, 망초, 씀바귀, 냉이, 철쭉, 개나리, 진달래, 제비꽃, 엉겅퀴, 박하, 목련 등 많은 풀, 나무와 새들, 푸르름이 너무도 마음 깊숙이 생각난다. 성당에 다니곤 했는데 이 마을 곳곳의 꽃을 이용해서 꽃꽂이를 할 정도였다. 자연과 고향이 너무도 좋은 마을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다가 개발이 이루어져 집들이 허물어지게 되었는데 고향이 냄새가 대단했다. 허물어진 집자리에서는 바람이 불어도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다. 정말 자연과 마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23. 기억나는 인물 및 행사는 : 마을에서 저녁에 산치성을 하면 징소리가 집에까지 들려왔다.

24. 당시 주민 대책위가 주장하던 내용은

초창기 : 택지개발 무조건 반대

중반기 : 정당한 보상이 받기,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 요구

후반기 : 건설 원가의 80%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해 달라는 요구

25. 세입자 및 이주민들의 당시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다. 임대 아파트 분양권을 기대하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쫓겨나 다시피 했다. 당시 이주비로는 주변에서 방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26. 풍동 거주시 가장 불편했던 점은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다. 교통의 불편 정도를 들 수 있다.

27. 풍동 거주시 가장 좋았던 점은

자연과 주민들이 함께 했던 전원마을, 고향과 같은 곳이었다.

28. 남편이나 아이들이 이야기 하는 풍동은

아들 : 중국에 유학을 다녀온 뒤 화가 나고 가슴속에서 무엇인가가 올라온다고 이야기했다. 아름답던 마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고향을 잃은 느낌이 든다고 서운해 했다.

남편 : 자연과 전원주택을 동경했는데 안타깝다.

딸 : 초등학교 5학년부턴 살았는데 설경은 물론, 꽃과 나무, 자연, 새소리를 느꼈는데 개발로 인해 아쉬워 했다.

## 29.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하는 것은 후손에 대한 커다란 죄악이다. 오래된 마을과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이곳 풍동 개발에서 끝났으면 한다. 어느 지역을 가다가 개발되는 모습이나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불쌍한 풍동 같은 마을이 생겼구나 생각되어 안타깝다. 자꾸 마을 주민들이 특별한 병명도 없이 돌아가고 계신데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누구도 살고 있는 생활의 터전을 빼앗고 수용하여 개발할 권리는 없다.



숲속의 식골 마을



개발 중인 식골 마을

## 대담을 통해 얻은 풍동 이야기 (5)

(어린 시절을 보낸 젊은 주부)

1. 성명 : 김종숙(만 39세, 여)

2. 풍동에 거주했던 기간은 : 태어나서 28세에 시집오기 전까지 풍1리 식골마을에서 살았다.

3. 동네에 친구들끼리의 모임은 있는지

동창회, 반창회에 참석하며 67년생 몇 친구들이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4. 어린시절에 주로 하던 놀이는

종싸움, 구슬치기, 사방치기, 땅따먹기, 훌라우프, 자치기, 새총놀이 등 남녀 구분 없이 어울려 놀았다.

5. 등교, 하교길의 풍경은

주로 학교를 오갈 때 성당갈 때 친구랑 다녔는데 언니들은 대부분이 일산초교, 고양여중, 고양여중고를 다녔으며 저도 마찬가지로이다. 걸어서 가작골 뒷동산을 넘어 하사관 주택을 지나 일산으로 걸어서 다녔는데, 이후 버스가 다녀서 불광동에서 오는 버스를 현 정원가든 부근에서 타고 일산을 다니곤 했다. 당시 이 도로가 비포장도로로 기억한다.

6. 교통수단은

경의선 백마역을 이용하거나 서부운수, 대성여객의 시외버스를 이용했다. 그후 신성교통의 서울 시내버스와 명성운수 버스가 다니게 되었다.

7. 소풍 장소와 음식은

소풍은 대부분이 풍동 근처의 고봉산, 만경사 일원이었으며 행주산성도 다녀온 것으로 기억한다. 소풍은 주로 걸었는데 김밥, 삶은 달걀, 사이다, 고구마, 군밤, 찌뽕을 먹던 것이 기억난다.

8. 일요일의 추억은

어린 시절 일요일은 숙제만 하면 놀았는데 텔레비전 시청과 친구들과 모여서 놀기, 집안일 거들기,

친구집에 모여 이야기 하기가 주된 것이었다.

#### 9. 친척집 생일날의 풍경은

마을 어르신들의 생신은 온 마을의 큰 잔치였다. 할머니의 생신이 되면 부근의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 아침을 먹고 학교에 등교했다. 생일집에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국수, 설탕, 소주, 약간의 돈, 고쟁이, 달걀과 같은 선물을 가져오셔서 훈훈한 인심을 알 수 있었다. 집집마다 떡을 돌리기도 했으며 아이들은 도시락을 이 생일집에서 챙겨주면 가져가기도 했는데 그 양이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 10. 산치성 기억은

아버지가 산치성의 당주를 보신 적이 있는데 1박 2일간 마을을 위해 애쓰시던 모습이 기억난다. 산치성을 주관하던 봉사를 집에 모셔두고 극진히 대접했으며 제례음식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하셨다. 밤을 세워가며 주민들이 산치성 드리던 모습이 또렷이 기억난다.

#### 11. 현재 친정은 어디에

풍동에 사시다가 개발로 인해 현재는 일산동구 마두동에 거주하고 계신다. 남동생이 할머니와 부모를 모시고 있다.

#### 12. 집안에 형제 자매는

1남 2녀인데 본인이 장녀이고, 한 살 어린 남동생 세 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

#### 13. 어린시절 산에서 놀던 추억은

밤에 친구, 동네 아이들과 함께 손전등을 들고 짐계벌레(일명 사슴벌레)를 잡던 기억이 나며 정월 대보름에 산에서 달님보기가 기억난다. 집 부근 동산에서는 서울의 63빌딩이 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았다.

#### 14. 어머니나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신 금기언은

밤에 손톱 깎지 말 것, 밤에 피리불지 말 것, 문지방을 밟거나 쪼지 말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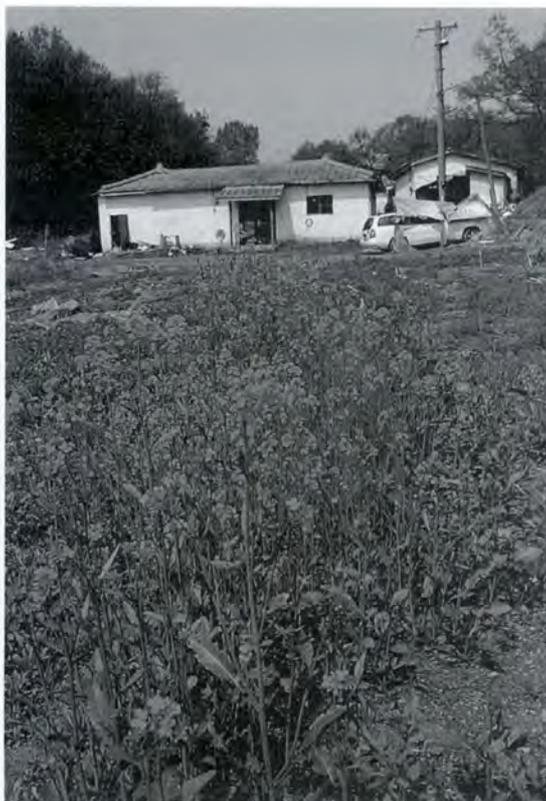
#### 15. 집안일을 돕던 기억은

어렸을 때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한 일로 깻잎 묶기가 기억남. 그래서 동생들과 함께 마루에 앉아 일하던 일이 생각난다. 이외에 밥 짓기, 연탄 나르기, 산에서 불쏘시개 가져오기, 나뭇가지 모아오기, 농사일 거들기, 작은 염소 돌보기, 집안청소 등 가사일을 돕기도 했다. 특히 깻잎이 많이 기억나는데 새벽에 어머니가 나가셔서 깻잎을 따오시면 할머니와 고모들이 둘러 앉아 5장씩 실로 묶어서 100개를 만

들면 이를 한 집이라 했다. 이 한 집이 판매의 기본단위가 되었는데 손이 부족하면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도와주시곤 했다. 아버지는 주로 소를 키우시는 축산에 신경을 쓰셔서 이 껏잎 농사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 16. 사계절에 놀던 기억은

봄에는 동네에 정말 많은 꽃이 피었다. 개나리, 진달래, 특히 마을에 개나리 울타리가 많아 봄이 정말 아름다웠고 마을 앞 논과 밭에는 냉이와 쑥도 많았다. 여름에는 참나무 그늘에서 놀았는데 개울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도 했다. YMCA 수영장에 수영도 다녔다.



마을 한가운데의 꽃과 집들

## 어르신께 들은 식골 이야기

제보자 : 김용환, 1925년생(을축) 풍동 233번지  
 이종남, 1922년생(임술)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가루계 421번지(친정)  
 1941년 혼인(당시 신랑 17세, 신부 20세)



3대가 함께 사는 풍동 식골의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

노루뵈에 사시던 친정고모의 중매로 혼인하게 되었으며 22살에 장남을 얻었다. 이 장남이 돌 때 큰 집에서 세간을 나서 살게 되었으며, 슬하에 5남 1녀를 두었다. 당시 세간난 땅은 서울사람 소유였는데 1년에 세가 벼 3가마로 지불했으며 워낙 검소하게 분가하여 가마솥, 국솥, 밥솥, 이 살림살이가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었다. 집을 완성하는데 모두 3년 이상 걸렸는데 집의 주요 부재는 나무가 드물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수수깡으로 지었다. 혼자서 툼툼이 지었고 잠만 자고는 바로 큰댁으로 가서 일을 해 주었다. 몸과 집만 독립했을 뿐 하는 일과 노동의 장소는 그대로 큰댁이었다.

주로 농사는 예전부터 지내오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벼농사를 주된 작물로 유지하다가 보리,

밀, 콩, 수수를 재배했고 이어 텃밭과 주변의 밭을 이용하여 배추, 무를 재배했다. 좀 더 가격을 잘 받기 위해 서울로 옮겨 시장에 내다 팔아 용돈과 집안의 생활용품 등으로 사용했다. 이어 약 30년 전부터 새로이 절화인 국화 재배가 성행하여 시세에 맞추어 가격을 받았으나 요즘은 그 시세가 좋지 못해 국화 농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식골에는 오래전부터 모두 13골짜기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 골짜기들은 큰 길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은 심층지(숨겨 숨겨 좋은 곳이다)인데 모두 옛날부터 이곳을 피난처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곳은 6·25 전쟁 때나 일본인들이 강제 징용할 때도 숨곤 했던 곳인데 젊은 사람들이 숨고 도망하여 비교적 잘 넘긴 곳이다. 그러나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세 사람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 ■ 이 마을의 구장 및 이장 계보

김병학(구장, 20세~62세까지 함) - 이주환 - 권점득 - 이일성 - 이기순 - 김필환 - 김학재 - 이문성 - 양학진 - 이강숙 - 김기열 - 김농현 - 이정환 - 이석송 - 김규성

### ■ 방앗간 이야기

김병학, 이일성, 이기순, 김덕문 4인이 동업하여 일제 강점기시대에 방앗간을 시작했고 이어 김병학 씨가 이를 맡아서 운영했다(김주영, 김용환 씨가 일을 함). 쌀을 넣는 발동기 형태의 정미소인데 정미는 5번 정도해야 하며 겨는 벼의 주인이 다시 와서 가져가 긴요하게 사용했다. 이 방앗간의 주요 고객은 식골 40여 가구, 민마루 30여 가구 등 70여 가구가 이 방앗간을 이용했다.

### ■ 옛 우물 이야기

우물은 모두 식골에만 네 곳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계신데 웃말 우물, 아랫말 우물, 애니 우물, 건너말 우물, 여기에 마을 밖인 건풍빌라, 축동밖, 쇠경주(식사동) 우물이 유명했다. 이 중에서 웃우물은 사람 한 길이 넘는 깊은 우물인데 돌로 쌓아 튼튼하고 수량이 좋았다. 겨울에는 김이 나며 물이 늘 철철 넘쳐 주민들이 모두 모여 빨래도 하고 목욕도 했으며 고사를 지낼때 이 우물을 사용했다. 이 우물물에 소원을 빌고 오면 그 축원이 10년은 넘게 들어 준다던 유명한 우물이다. 이강윤 씨택 부근에 있던 이 웃우물이 얼마 전에 시멘트 덮개로 덮어 처리했다.

웃우물은 이 우물물 옆에 웃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강숙 씨택 부근에 있던 우물이며 가물면 물이 좀 적게 나오곤 했다. 주로 남자들이 이 우물물에서 목욕을 하곤 했다. 그 후 각자 집에서 물을 먹게 되자 시멘트관을 묻어 지금과 같이 남아 있다고 한다. 아래 우물은 현 소식교회 부근에 있었다. 물의 양도 많아 대동 우물로 사용하던 곳이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 우물에서 빠져 죽었고 아이가 죽으면 이곳에서 물긋을 하곤 했는데, 물긋은 소의 질마를 놓고 하는 곳을 말한다.

### ■ 마을의 기운 센 장사 이야기

마을에는 입으로 전해오는 기운 센 장사들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양학진 씨의 부친인 양상원 어르신이 유명한 장사였다. 김개봉 씨는 씨름판에 나가면 송아지를 받아올 정도로 유명한 씨름꾼이며 김기영 씨의 아버지인 김덕성 씨도 유명한 장사로 들들들기의 명수였다고 전해진다. 장정석(장인철 씨의 부친)은 마차를 들어올리는 장사로 힘이 매우 세나 무섭지는 않은 인물이었고 웃는 소리가 호탕하고 술을 잘드신 어르신으로 기억하고 있다.

### ■ 마을의 기능인

쇄재이라 불리던 상쇠의 기능인은 고순동(선동, 선돌이) 씨가 유명했고 낮은 저음의 소리꾼은 김현군 씨가 유명했다. 호적은 주로 김태인 씨(김경문 씨 부친), 박진갑(박순금 씨의 부친)이 유명했다. 묘 자리를 잡아주는 지관은 주로 제비사람 강지관이 유명했으며 실무적인 장례 초상은 김경복 노인회장께서 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 ■ 마을 부자 이야기

주로 논농사 위주의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땅 부자가 많았다. 김기영 씨 증조 할아버지인 망두(김상준) 어르신이 부자였고, 김경숙(김덕만 씨 조부), 김병학(김용환 씨 부친), 이길록(이강준 씨 조부) 등이 마을 부자로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

### ■ 굿

이 마을의 굿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집안에 평안함을 기원하는 개인굿인 경사굿을 비롯하여 질병을 물리치는 질병퇴치굿,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위한 진혼굿(진오기),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올리는 도당굿이 있었다. 지금은 제일 보기 힘든 것이 바로 경사굿인데 보통 2일 정도 걸렸으며 이른 저녁에 시작해 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하던 굿이 일반적인 경사굿의 모습이라 한다. 만신이나 박수 등 무당은 인근의 방아고개 만신이나 구과밭, 박세기네 만신이 오곤 했다. 특히 큰 굿판을 벌이면 다들 모여서 돕곤 했는데 인심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여 굿을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 ■ 재미있는 별명 이야기

손이 귀하고 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이름으로 무쇠, 천쇠라는 이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망두 할아버지: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배가 나오고 뚱뚱하며 키가 크고 무엇이든지 잘 드시며 몸이 거꾸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명 망두석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김기영 씨 증조부)

▷망태 할아버지: 몸의 일부에 장애가 있어 무섭게만 느껴졌던 할아버지이다. 망태기로 데리고 간다고 하여 이 마을 뿐만 아닌 여러 마을에서 무서워 하였다.(김기열 씨 숙부)

▷장정석 할아버지: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며 화나면 무서운 할아버지로 유명했다.

(장인철 씨 부친)

▷진갑에 태어난 진갑이: 아버지의 진갑해에 태어나서 아이이름을 진갑이라 불렀다고 한다.

▷삼할매: 삼할매는 곧 애를 받는 할머니를 이야기한다. 본래는 마을에서 애 잘 받는 할머니가 있었으나 그 후로는 집안 내에 경험이 많고 손 없는 여인네가 아이를 받았다고 한다.

### ■ 교육과 재미있는 이야기

마을의 어린 시절 교육은 소학교, 국민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멀리 백석리 핸들 마을까지 나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소개울까지 나가기도 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집에서 인근의 훈장 선생을 모시기도 하는데 한때는 송포산리 거그뒀에서 선생을 모시기도 하였다.



마을에 핀 들꽃

일제 시대에는 어리쩍 장수가 마을에 들어오곤 했다. 한번은 이 장수가 잘 모르고 도당산의 도당신을 건드리게 되었다. 송충이가 마을에 들끌고 동네에 피부가 따가운 병이 돌아 온 동네가 펄펄뛰고 난리가 났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대감나무에 모여 잘못을 빌고 굿을 하고 대감나무를 잘 모신 뒤에야 평안해졌다. 이것 말고도 대감나무 부근에는 소도 맬 수 없고 장작과 같은 나무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조심하고 정숙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에 김일 선수의 레슬링이 있으면 텔레비전 시청을 많이 하곤 했다. 그런데 텔레비전이 비싸던 시절이라 기와집에 살던 김상군 씨가 처음으로 이 텔레비전을 샀는데 어찌나 아이들이 이집으로 모여 드는지 난리가 났다. “아마 그 집 방을 쓸고 흠치면 대단했을 것이지... 한번은 어찌나 힘들었는지 이틀간 대문을 열어주지 않은 적도 있었지. 아이들이 그 집의 큰마당에 모여서 언제나 대문이 열릴지 바라보던 그시절이 생각나지.” 그리고 그 이후로 박천금 씨 택에서 1원에서 5원을 내고 축구나 레슬링을 보기 시작했고 얼마 뒤 각 집집마다 사서 각자 보게 되었는데 예전 다함께 모여 보던 그 맛이 아니었다고 한다.

### ■ 결혼과 장(場) 이야기

이석송 씨는 여섯 형제, 박진갑 씨는 딸만 여섯인 집, 김덕천 씨는 딸 다섯에 아들이 하나. 그래서 아들 이름을 김귀항이라 짓기도 했다. 김덕산 씨는 딸 다섯에 아들이 하나인데 돌잔치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고 귀여워 했다고 한다. 이재록 씨도 딸이 여섯이고 아들이 하나이며, 김대운 씨는 아들이 있고 딸이 일곱이나 있기도 했다. 김은쇠 씨는 김농선 씨의 부친인데 모두 10남매를 두기도 했다.

혼인은 마을에 시집온 아주머니들이 친정 동네하고 중신을 서서 맺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집 안에 신이 내린 무당이 있으면 꺼려 했고 이외에 봉사집, 장애인, 그리고 일반적으로 희귀한 성씨하고는 혼인을 꺼려 했다. 사위도 며느리를 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것을 보았으나 점차 연예결혼이 많아지면서 두 사람의 사랑을 우선시 하는 풍토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장(場)은 주로 일제시대 때부터 일산장을 이용했다. 그래서 고깃집을 비롯해 모두들 아는 장사치가 많아 단골이 많았다고 한다. 장에 나갈 때는 집에서 잡곡과 같은 곡식을 팔고 이 돈으로 아이들의 옷가지들을 사가지고 와서 명절을 보내기도 했다. 일산장으로 가는 길은 가장 빠르게 넘어가는 길을 택했는데 특히 가낙골 길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산비탈이 반질반질할 정도였다. 이후 교통이 좋아져서 홍제동, 동대문, 불광동, 남가좌동, 금촌장도 이용했다.

### ■ 아이들의 등학교길

마을에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주로 일산초등학교를 다녔다.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모두 걸어서 학교에 다니곤 했다. 산을 넘어서 애니로 해서 하사관 주택을 지나 덕방재 고개를 넘는 것이 일반적인 등학교의 순서였다. 온 동네 아이들이 등교 시간만 되면 산등성이 새까맣게 넘어가곤 했다. 이후 아이들의 일부는 백마초등학교가 생겨 그곳으로 다니기도 했다.

### ■ 집안에서 고사 지내기

고사는 집집마다 개인이 지내는 작은 기원의식이다. 보통 10월 상달에 지내는데 쌀로 고사떡을 만들어 올리며 떡은 한 말 정도가 적당했다.

고사는 떡을 만들어서 성주님(대들보), 안방의 칠성님, 마루 위의 대감님, 뒤란에 있는 터춧가리, 대감나무 살림대감, 부엌, 대문, 화장실, 각 방, 곳간, 창고, 앞마당, 노적가리, 장독대, 우물을 순회하면서 지내게 된다. 두 손을 비비면서 고사



를 지내는데 대주 여럿이 모두 건강하고 아무 탈 없게 하고 빈 몸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 짐 한 짐씩 잔뜩 싸들어오게 해 달라고 축원을 한다. 남자들은 주로 이 고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도와주며 고사가 끝나면 떡을 온 마을에 돌려 먹게 된다. 잘 익은 김치와 돼지고기를 어울려 먹으면 그 맛이 천하일품이라 했다. 이 고사 때가 되면 마을의 어른들은 시향(시제)을 지내기 위해 멀리 갔다가 돌아오곤 했다.

### ■ 제사 지내는 방법

제사는 일반적인 기제사와 차례로 구분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면 제사를 모시지 않았다.

- ▷ 아이를 낳고 삼칠일이 되지 않았을 때
- ▷ 집안에 중대한 혼삿일이 잡히면 차례는 모시나 기제사는 하지 않음
- ▷ 동네에 초상이 생길 경우
- ▷ 인척 중에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진설은 보통 흥동백서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진설은 여자들이 차려놓은 제수품을 남자들이 와서 자리를 잡게 하였다. 술잔은 기본적으로 초헌, 아헌, 종헌, 세잔을 올리는데 명절에는 단잔을 올리고 기제사에는 네 잔을 올리면서 첨잔을 처리한다. 기제사는 밤 12시에 지내야 하지만 요즈음엔 11시 정도에 지내는 경우도 있고 아예 더 빨리 지내는 경우도 있다. 여인네들은 음식을 모두 준비하고 실제로 제사는 참여하지 못하며 음복은 우선 제사를 지낸 남자들이 하고 여자들은 나중에 함께 하곤 했다.

### ■ 두레패와 농사일

마을에는 예전에 인근에 널리 알려진 식골 두레패가 있었다. 김매기와 같은 힘든 일을 할 때 품앗이로 그 힘든 노동을 줄이기 위한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주로 김매기를 하는 한 달 동안 운영되곤 했다. 인근에는 식사리의 영심이에 두레패가 있어 가끔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필남이란 분이 기운이 세서 깃대잡이를 하기도 했는데 지경다지는 소리, 모내는 소리, 벼벨 때 소리 등 여러 소리가 불려지기도 했다. 먼저 영기와 농기를 앞세우고 긴 논뚝길을 따라 악기를 올리면 참 장관이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배우질 않아 완전히 그 전통이 끊어졌다고 한다.

### ■ 특용작물 재배

마을에 특별히 재배한 것은 없으나 고구마를 온상으로 관 것이 좀 특이하다고 한다. 또한 농한기를 맞아 새끼줄을 꼬고, 팻방석을 만들고 거적을 짜서 벽돌 공장 등에 팔아 가게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을 잘해서 이 마을을 고양군의 모범마을로 지정하기도 했다. 뽕나무를 이용하여 누에치기를 하기도 했는데 방아고개와 문촌마을에서 이를 처리해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겨울에는 온상재배를 하기도 했는데 철길로 밤 10시부터 5시까지 걸어서 갔다. 하루에 당시 돈으로 7~8만 원을 받아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도내리 적계다리를 지날 때가 제일 무섭고 고추는 주로 서울 아현동 일대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식골 부추밭

#### ■ 금기언(하면 안 되는 일)

1. 문지방을 밟거나 짚지 말라, 복이 모두 달아난다.
2. 어른이 머리에 베고 주무시는 토막을 밟거나 앉지 말라.
3. 아랫목 쪽으로 거꾸로 눕거나 자지 말라.
4. 비오는 날 머리를 감지 말라. 이가 생긴다.
5.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의 어깨를 짚거나 누르지 말라.
6. 까마귀에게 침을 뱉지 말라.
7. 굶은 일이 생기면 까마귀가 운다.
8. 조반 전에 여자들이 다른 집의 대문을 들어오면 안 좋다.
9. 콩 명석에서 장난치면 안된다. 넘어지면 곰보 된다.(곰보 신랑, 곰보 신부에게 시집 장가간다.)
10. 밤에 손발톱을 깎지 말라.
11. 화롯불에 손발톱 자른 것을 넣지 말라.
12. 시신 위로 쥐가 다니면 쥐가 사람된다. 송장이 벌떡 일어선다.
13. 밤에 피리 불면 안된다. 뱀이 들어온다.
14. 남녀 모두 다리를 심하게 떨면 안된다. 복이 모두 달아난다.
15. 이른 아침 어른 지나는 길을 함부로 질러 가면 안된다.
16. 쌀을 가지고 장난 치면 안된다. 넘어지면 곰보된다.
17. 지렁이에 오줌을 누면 고추가 툭툭 분다.
18. 도당대 근처에서는 나무를 하거나 오줌을 누면 안된다.
19. 밤에 장난으로도 우는 소릴 내면 안된다. 초상난다.

20. 생일날은 큰 잘못을 해도 욕을 해서는 안된다. 1년 재수 없다.
21. 동짓날 친구가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해서는 안된다. 모든 더위를 가져온다.
22. 상가집에서는 모든 행동을 반대로 해야 한다. 귀신을 막는다.
23. 상가집에 갈 때는 속 호주머니에 게 껍데기와 같이 뽀족한 것을 지녀야 한다.
24. 상여가 마을 주산을 넘게 해서는 안된다. 마을에 안 좋은 일 생긴다.
25.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수가 없다.
26. 까마귀가 울면 침을 세 번 뱉어야 한다.
27. 남자 아이는 빨간색 옷을 자제해 입어야 한다. 여자 아이 같이 변한다.
28. 아침 마당은 대문 밖에서 안쪽으로 쓸어야 한다. 복이 들어와야 한다.
29. 상가댁에 다녀온 사람은 마을의 주요 행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30. 금줄이 쳐진 집에는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된다.
31. 장례식 때 함부로 시신을 보아서는 안된다.
32. 머리에 비닐 봉지 같은 것을 쓰고 다니면 안된다. 집안에 초상난다.
33. 대문 바로 앞에서 놀거나 문을 가리면 안된다. 복을 가린다.
34. 밥 먹는 상에 앉거나 걸치면 안된다.
35. 공부하는 책상에 턱을 괴면 안된다.
36. 화가 나도 이름 아침에 빗자루로 때려서는 안된다. 3년 재수 없다.
37. 중요한 일에 4지는 좀 꺼려해야 한다.
38. 어른이 누워 계신데 그 위로 지나가면 안된다.
39.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된다. 소가 된다.
40. 중요한 일이 있으면 생선과 같은 비린 것은 먹지 않는다.
41. 옷은 뒤집어 입지 말아야 한다.
42.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면 안된다. 마치 송장같다.
43. 마을에 빨간 황토 흙이 뿌려져 있으면 들어와서는 안된다.
44. 마을앞의 큰 나무는 베거나 올라가서는 안된다.
45. 부엌의 부뚜막에는 절대 앉거나 올라가서는 안된다.
46.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직접 마시거나 냄새를 맡아서는 안된다.
47. 신발 위에 신발을 포개어 놓아서는 안된다.
48. 밥주발에 수저나 젓가락을 넣어 소리나게 해서는 안된다.
49. 대문에 매달리거나 장난쳐서는 안된다.
50. 밖에서 잡은 동물을 집으로 들여서는 안된다.

## 1989년 고양군 지명 유래집에 기록된 풍동 이야기

일산읍 풍리는 일산읍사무소가 있는 일산리에서 원당·능곡 방향에 있는 마을의 법정리 명칭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풍리의 위치를 소개하면 일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어진 310번 지방도로를 따라 가다가 우측에 있는 마을인데 경의선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일산에서 능곡 방향으로 가다가 좌측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을 풍리라고 부르는 것은 예부터 이 마을에 바람이 몹시 불어 붙여진 지명이라 하나 마을 주민들은 바람을 막기 위해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가을이 되면 단풍물이 곱게 들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현재의 풍리는 모두 3개의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촌락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였으나 근래에 들어와 풍 3리 중심으로 도시화되기 시작하여 촌락의 모습이 근·현대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또 새로이 마을 주변에 신도시가 건설되어 모습이 크게 변화될 듯 하다.

1999년도에 그린 식골 마을 약도



## 1. 풍 1리(楓 1里)

풍 1리는 일산 13리 마을에서 원당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310번 지방도로 백마부대 앞에서 일산을 마두리 방향에 있는 길을 따라 들어와 YMCA 수련장이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적당한 높이의 산이 마을 앞 뒤편으로 자리잡고 있어 촌락들은 산기슭에 자리하고 논·밭들이 부분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마을 주민들의 주업은 논농사·밭농사 등 전통적인 농업이며 마을은 자연촌락 단위로 만들어져 있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232가구 948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식골

식골은 풍 1리의 자연지명으로 이 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벼농사를 많이 짓고 또 수확도 풍성하였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식곡(食谷)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흔히 이 동네를 식골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을의 형상이 삼태기 모양을 하고 있어 무엇이든 주어 담는다 하여 가난한 사람이 없고 큰 부자나 권세 있는 사람도 없는 동네로 알려져 있다. 6·25 사변 때도 집 하나 불 타지 않고 인민군들도 후퇴하는 길에 조금 들어 왔을 뿐 마을에 큰 재난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식골에는 전주이씨와 전주·김해김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 ■ 열두골

풍 1리에는 작은 골짜기가 12개 있는데 이 골짜기들의 이름은 기억하시고 있지만 이름들이 그렇게 불리게 된 유래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서 불리어온 골짜기의 이름이 구전되어 입에 오르내릴 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12골의 이름을 나열해 보면 학골, 재수노골, 움터골, 큰골, 당수골, 쥐골, 산우골, 산성골, 금박골, 산골, 밤나무골, 더구골이다. 풍 1리에는 고개도 여럿 있는데 큰말에서 애니마을로 넘어가는 가작골고개, 오른가리에서 큰말로 가는 오른가리고개, 풍 3리로 넘어가는 학골고개, 또 재수노골고개, 산골고개 등이 있다. 그리고 논·밭의 명칭도 12 골짜기의 명칭을 따서 학골 옆에 있는 논은 학골논이고, 재수노골 옆의 논과 밭은 재수노골논, 재수노골밭으로 불렸다. 그런 식으로 움터골논, 큰골논, 당수골논, 쥐골논, 산우골논, 신성골논, 금박골논, 산골논, 밤나무골논, 더구골논이라 불렸다. 또 다른 논 이름은 재수노골 아래의 벼전밭이 있는데 이것은 밭의모양이 벼전을 닮았다 하여 벼전밭이라 부른다. 그밖에 수령논과 논 옆의 진밭이 있는데 진밭은 밭이 질어서 가뭄에도 흙이 잘 마르지 않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 애니

애니는 YMCA가 있는 작은 동네를 큰말에서 부르는 자연촌락 이름이다. 애니는 본래 애현리(愛峴里)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애니라고 부르게 된 것 같다.

### ■ 오른가리

오른가리는 9사단 앞의 마을을 부르는 이름으로 오른가리고개 아래 있다고 해서 오른가리라고 부르는데, 오르막길 위에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인 듯 하다.

### ■ 새동네

백마사단이 새 건물을 신축할 때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310번 지방도로를 중심으로 신축건물 앞에 산을 깎아 집을 지어 주었다. 그 후 공장이 들어서고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새로 동네가 생겼다 하여 새동네라고 부른다.



애니골 안내도



애니골의 오늘날 모습

### ■ 술개산

술개산은 새동네 앞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산의 모양이 마치 술개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 백마관사

20년 전에 백마부대가 풍 1리 1번지로 들어오자 영관급들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산을 깎고 집을 지어 관사를 만들었다. 백마부대는 월남전쟁이 끝나고 풍 1리 1번지에 정착하게 되었다 하는데, 일산읍 풍 1리에서 벽제읍 성석리에 걸쳐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 YMCA 수련장

YMCA에서 운영 관리하는 서울 YMCA 수련장은 풍 1리 9-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80년 7월 19일에 개장하였다. 현재 총 48,000평의 부지(건평 약 561.72평)·식당(200명 수용)·숙소(250명 수용) 등을 가진 본관 건물과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촌, 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겨울에는 스케이트장) 그리고 그밖에 종합운동장, 야영장, 바비큐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울 YMCA 수련장도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자연을 배우고 단체훈련을 통해 협동심과 자기 희생정신을 배우기 위한 장소로서 개방되어 있어 사회교육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 서울 YMCA 수련장이 있는 48,000평의 대지는 유광렬 선생이 청소년 사업을 위해 기증한 것이다.

■산제사 장소

음력 10월 초순중에 좋은 날을 받아 풍 1리에서 가장 오래된 도토리나무 앞 도당터에서 지낸다. 풍 1리 산제사의 특이한 점은 무당이 굿을 하지 않고 봉사들이 3~4명 와서 치성을 드리는 풍습인데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다. 식골은 무당으로 굿을 하지 않은 마을로 알려져 있다.

▶유광렬 묘

일산읍 풍 1리에 위치하여 配 孺人 金海 金氏의 묘와 합장하였다. 오석(烏石)으로 된 묘표는 크기가 폭 2척, 두께 0.8척, 높이 4.5척이다. 유광렬은 광무 1년(1897) 6월 파주에서 출생하여 1981년 11월 사망하였다. 호는 종석(種石), 본관은 문화(文化)이며 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77년 6월 25일 본군 중면 풍리에 소재해 있는 임야 48,540평과 밭 690평 내지 66평을 서울 YMCA 청소년 사업을 위해 기증하였다.

- 제보자 : 이정의(76), 김은쇠(79), 김영환(68) -

2. 풍 2리(楓 2里)

풍 2리는 원당읍 식사리 마을과 경계하는 지역의 행정리 명칭으로 310번 지방도로에서 경의선 방위에 위치하고 있다. 풍 2리는 풍 1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지역이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촌락들이 산기슭과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다. 마을을 형성하는 촌락들은 도촌천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는데 가옥의 구조는 대부분 근대·현대식으로 되어 있다. 마을의 앞쪽으로는 넓은 벌판이 이어져 있으며 세현고등학교 부근은 옛 모습이 많이 변모되었다. 이 마을에는 1989년 통계로 151가구 61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 ■ 민마루

민마루는 풍 2리의 자연촌락 명칭이다. 민마루는 본래 황우재 민마루라 불렸다. 황씨가 제일 먼저 이 마을에서 뿌리를 내려 살게 되었는데 지금의 준용하천 도촌천을 중심으로 건너 마을인 산황리에는 노씨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두 마을 사람들은 개울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놓아야 했는데 산황리 노씨는 늦것가락으로 다리를 놓고 황씨는 닭 쩍지를 푹푹 묶어서 다리를 놓았다.

동네가 부자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늦것가락을 녹여 만든 다리는 평생을 가지만 닭 쩍지로 만든 다리는 계속 닭을 잡아먹고 다시 엮어서 다리를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민마루에는 몇 가지의 지명유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식사리에 있는 현달산 줄기의 끝이 마루처럼 이 마을에서 끝나기 때문에 옷동네 밑이라 하여 민마루라 부른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이 동네의 모양이 용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식사리에서 마을이 시작되는 곳이 용의 꼬리이고 가운데말 경로당 있는 곳이 용의 허리인데 가운데말은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은 듯이 불룩하게 배가 나와 있어서 민마루가 빈촌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은 부자가 많다고 한다. 또 달리 경의선 철도 방향의 마을은 용의 머리 죽띠 마을이라 부른다. 이곳에는 마을 양쪽에 우물이 있었고 우물 앞으로 오리나무가 두 그루씩 있었는데, 이곳의 샘이 수염 난 것 같은 모양이라 하여 용대가리라 불렀다고 한다.

이 용머리 부분에 불당이 있고 누각이 있어서 '다락 루(樓)' 자를 써서 민마루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또 이 마을을 민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제식민지시대 때 일본인들이 부르던 이름이다.

약 70년 전만 해도 민마루에는 장사가 많았다고 한다. 그때 장사였던 분들은 장경환, 나창호 씨인데 그들은 흥동알로 씨름을 해서 이기셨다고 하며 백살이 되실 때까지 사셨다고 하며 그 이후로는 장사가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유래는 마을 앞의 흙이 대부분 붉은 흙이었는데 이 흙이 비만 오면 씻겨내려 땅이 절고 미끄러운 마루턱이 되어서 밭마루라 칭하다가 민마루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곳의 땅이 얼마나 걸었는지 시집을 때 신발에 묻은 흙이 첫 아기를 낳을 때까지 붙어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건물 표시판(새주소사업)의 민마루

### ■ 송장고개

송장고개는 민마루 마을에서 식골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으로 예로부터 이 고개 밑에 송장을 운

반하는 상여도가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달리 옛날 이곳에 사람이 죽으면 그 송장을 이곳에 버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파재 고개

진파재 고개는 서부농장 앞에 있는 고개의 이름으로 이곳을 진파재 고개라 부르는 것은 시멘트로 길을 닦기 이전에는 길이 너무 질어서 소에다 질마를 얹혀 놓고 지나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땀이

아랫말과 웃말의 경계가 되는 부분의 동네를 진땀이라 부르는데 다른 곳의 지명으로 추측할 때 진땀이 변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의 민마루 마을 모습

■아랫말·가운뎃말

민마루를 쉽게 구분해 보면 용의 꼬지 부분의 마을을 웃말, 용의 허리 부분의 마을을 아랫말, 가운뎃말, 머리 부분의 마을을 죽띠 정상골이라 부른다.

■고을안

가운뎃말을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마을 안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죽띠 정상골(골)

죽띠 정상골은 앞에서 소개한 용머리 부분을 달리 부르는 지명으로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우물

민마루에는 모두 다섯 개의 우물이 있었는데 용대加里 부분에 2개와 진파재에 3개가 있었으나 지금은 정상골에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 하나 남아 있을 뿐이다.

## ▶ 김판서 이야기

아랫말에 김판서라는 분이 살았는데 집이 44칸이나 되었다고 한다. 김판서는 효자라 서 어머니 산소를 집 뒷산에 모셔놓고 매일 같이 올라가서 절을 하였다고 한다. 그 집 앞에 홍살문(효자문)이 세워져 있었는데 자식들이 서울로 올라가자고 종 말년에 홍살 문은 허물어지고 집도 없어졌다. 그 후 후손들이 대감 산소와 산을 팔아먹고 산소를 파버렸다고 한다.



민마루 마을의 고가

## ■ 산제사·도당굿 장소

진땀이 뒤편의 산이 도당제 산인데 굿을 하게 된 것이 약 10년 전의 일이라 한다. 이곳에서 굿을 시작한 것은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동네에 매일 불이 난 것이 유래라고 한다. 지서에서 사람이 나와 밤 새워 꼬박 마을을 지켜도 불이 나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무당을 데려다 굿을 하고 닳더니 다음 날부터 마을이 평온을 되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 해서 도당굿이나 산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 불당앞논 : 불당앞논은 앞에서 소개한 불당이 있던 자리에 있는 논 이름이다.

## ▶ 배석자리

배석자리는 불당 앞에 있는 논 이름인데 벼가 하도 안되고 김만 나고 해서 배석(뚝자리)을 깔아 놓고 가져가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밖에도 용머리 부분의 논으로 개논과 잣논이 있다.

- 제보자 : 양해룡(68), 장안사 주지, 오태석(56) -

## 3. 풍 3리(楓 3里)

풍 3리는 앞에서 소개한 풍 1리와 2리 사이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의 명칭이다. 풍 3리의 자연촌락 명칭은 서무시인데 1980년대에 들어 백마 주변의 마을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이외의 많은 다른 지역은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토박이들은 논농사 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은 교통이 편리하여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신도시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대거 이주해와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656가구 2,58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 서무시

서무시는 풍 3리의 옛 자연촌락 명칭으로 서무시에 대한 지명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서무시는 1974년 8월 전까지는 거의 풍 1리 김주영 씨 소유 논과 고개뿐이었다. 그러나 그 해 8월 북가좌동에서 철거민들이 그곳으로 이주하면서 동네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5년 9월에 풍 3리로 독립하였다.



성원APT 옥상에서 본 풍 3리 마을 일대

■ 매봉재

매봉재는 식골에서 서무시로 가는 고개의 이름인데 1980년까지는 이 매봉재에서 산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매봉재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정부인 묘와 비석이 있다. 이곳을 매봉재라 부르는 것은 옛날 매사냥꾼이 이곳에서 매를 잡기 위해 관망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개논

개논은 건풍빌라 앞에 있는 논 이름으로 을축년 장마 때 이 논으로 귀인(개밥그릇)이 떠 내려와 붙여진 이름이다.

■ 구진다리

매봉재에서 서무시 마을을 연결하는 다리의 이름인데 예전부터 이 다리에서 도깨비가 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냄비논

구진다리 앞에 있는 논 이름으로 을축년 장마 때 이 논으로 냄비가 떠 내려와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제보자 : 최두연(66) -

## 1999년 식골 이야기

조사자/ 안수연, 정미지

### ■ 마을 개관

풍동은 법정동의 명칭이며, 행정동으로는 고양시 일산구 풍산동에 속해있는 마을이다. 시 승격 이전까지 풍1리, 풍2리, 풍3리로 나누어져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풍산동이 총 13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6통만이 산황동이며 나머지 12통은 풍동에 해당한다.

풍1리는 자연마을 이름으로 식골이라고도 불리어진다. 그 속에는 애니골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은 까페촌과 먹거리촌으로 형성되어 있다. 풍동 중에서 가장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지만 현재 식골은 개발예정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여서 곧 그 모습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풍2리는 옛부터 민마루라 불리어지고 있다. 일산 신도시가 형성되며 도로가 생겨 민마루는 현재 원당에서 일산 신도시로 연결되는 백마로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다. 차길에 많은 상가들이 들어서서 길을 지나갈때는 옛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이 들지만,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금도 논과 밭을 볼 수 있다. 백마역 뒤편으로 가면 백마 양어장과 낚시터가 있다. 민마루는 얼마 전까지 납골당 문제로 인한 장안사와의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풍3리는 현재 풍산동 사무소와 성원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풍동 중에서 가장 변화한 곳이기도 하고 외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다. 동사무소와 농협등은 개발제외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주민들의 불만도 있고, 아파트 주민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은 곳이다.

현재 풍동신도시개발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이며 얼마후엔 풍동마을이란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아파트촌 신도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가운뎃 마을(뒤쪽에 동대불교병원이 보인다.)

### ■ 식골 마을

식골은 행정구역상으로 풍산1통에 해당되는 곳으로 마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크게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고일주유소' 로 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가구 단지의 반대편에서 세원고등

학교 방향으로 걷다 보면 왼쪽으로 두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면 건풍빌라가 있고 그 길을 따라 300여m 정도 걸어서 마을로 진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풍산동 사무소가 있는 골목에서 성원아파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 건풍빌라로 들어가는 길과 만날 수 있다. 그 외에 애니골에서 걷거나 차를 이용하여 마을로 들어올 수도 있고 정원가든에서 고개를 넘어 들어올 수도 있다.

식골은 예전부터 형성된 자연촌락으로서 지금도 마을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하고 있으며 김해 김씨, 전주 김씨, 전주 이씨가 모여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그러나 현재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마을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낮은 산으로 쌓여 있고 안으로 들어오기 전엔 마을이 보이지 않는다. 걸어가는 길엔 새로 지은 집들도 많이 눈에 띄고 마을 한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교회'가 인상적이다. 아름다운 교회 뒤쪽으로는 전주 김씨의 묘가 보인다.

식골은 이미 개발 예정 지역으로 확정되어 있지만 인터뷰에 응해 주셨던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여러 대가 살아왔던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도 아쉬울 뿐 아니라 개발로 인해 옮겨가서 어딘가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에 걱정을 크게 하셨다. 집이나 땅을 가진 분들은 그나마 형편이 좀 나은 편이지만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이곳에서 세를 얻었던 금액으로는 다른 곳으로 이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이다.

교통편은 주엽역에서 백마역까지 운행하는 101번 마을버스를 타면 성원아파트까지 들어오고 식골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차하여 약 15분간 기다리면 크기가 작은 마을 버스가 식골 - 식사동 - 민마루 - 성원아파트 노선으로 다닌다.

## ■ 주민에게 듣는 식골마을

1. 제 보 자 : 밀양 박씨 할머니(69세)
2. 제보장소 : 식골 중앙의 할머니댁 텃밭
3. 제보시간 : 1999년 8월
4. 제보내용



아랫 마을 전경

### (1) 제보자 생활사

할머니께서는 열아홉살에 문산에서 시집을 오셨다고 한다. 자제분은 아들 셋에 딸 둘을 두었지만 모두 분가시키셨고, 지금은 할아버님과 할머니 그리고 시어머님과 세 분이서 함께 사신다고 한다. 시어머님은 연세가 89세가 되셨지만 아직도 아주 정정하시다고 한다. 아드님과 함께 살지 않으시는

이유를 여쭈어 보았더니 시부모 모시기도 어려워하는 요즘 세상에 나이드신 시할머님까지 모시고 살기가 쉽겠냐며 오히려 우리들에게 되물으셨다.

할머님은 요즘도 아주 바쁘다고 하셨는데 벼농사는 12~13마지기 정도로 작게 지으시지만 아침 전에는 오이를 따고, 아침 후에 배추에 물을 주고 텃밭도 둘러보시는 등 쉴 틈이 없다고 하신다. 농사일은 할아버님과 두 분이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

할머님께서 세 분의 며느님께 집 근처 텃밭에서 가꾸고 있는 오이, 배추 등 채소들을 다 해 보내실 뿐 아니라 고춧가루, 깨소금 등을 만들어 보내 주신다고 한다. 막내 며느님한테는 아직까지도 김치까지 직접 담아 주신다며 은근히 좋은 시어머니임을 과시하셨다. 그렇지만 할머님께서도 시집살이가 말도 못하게 힘들었다시며 긴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이야기만으로도 짐작할 만큼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지내시는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할머님께서도 할머님 연배의 분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한 세대들이면서 그 보답도 못받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며 “태어나길 망하게 태어났는데 어찌나...” 라며 말끝을 흐리셨다.



집 주인의 외출을 알리는 표시

## (2) 마을 이야기

이곳 식골은 전주 김씨, 전주 이씨, 김해 김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마을로 할머님댁은 전주 김씨로 이곳 토박이라고 소개해 주셨다. 마을을 둘러 보았을 때 교회가 많은 것에 대해 여쭈어 보았더니 이 마을분들은 고봉산 근처의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개 외지인들이라고 하셨다. 이곳에 교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약 5년 전 쯤이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음식도 많이 차려주곤 하지만 나가는 신자가 없어 큰 소용이 없다고 한다.

마을은 공기 좋고 조용해서 살기에는 더할나위 없이 좋으며 마을 사랑을 하셨다. 마을에 있는 노인정에는 65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갈 수 있지만 할머님께서도 올해 노인정에 처음 들어가셨다고 한다. 바쁘지 않을 때나 특히 겨울에는 자주 가지지만 요즘 같이 바쁠 때는 월 말일 쯤이나 들르실 정도라고 하셨다. 노인정은 윗층은 할머님들께서, 아래층은 할아버님들께서 사용하신다고 한다.

## (3) 산신제 이야기

이 곳에서는 아직도 2년에 한 번씩 10월달에 산신제를 지낸다고 한다. 책을 보고 좋은 날을 잡으면 그 전에 마을에서 추렴하여 제사에 쓰일 떡이나 술들을 미리 준비하고 마을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분들을 골라 그 분들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한다고 한다. 작년에 제사를 지냈는데 통장님과 노인회장님, 그리고 다른 한 분이 모셨다고 한다. 요즘은 산신제에 여자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일정들을 결정하는 일은 여전히 남자분들께서 주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 제보자: 고부용 할머니(67세)
2. 제보장소: 할머니이 운영하시는 가게 안
3. 제보일시: 1999년 9월
4. 제보내용

### (1) 제보자 생활사

고부용 할머니의 고향은 고양군 동쪽 벽제이시고 결혼 후 서울에 살다가 30년 전에 이곳 풍동으로 이사를 오셨다. 풍동에 와서 줄곧 슈퍼를 경영하였는데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장사도 잘되고 없는 것 없이 생활용품 모든 것을 팔아 건물을 새로 지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물건이 팔리지도 않는다. 게다가 새로 지은 건물도 남에게 넘어갔다. 처음 슈퍼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하나였는데 식골로 들어오는 길에 건풍연립 옆 건물에 건풍슈퍼가 생겨났다. 예전에는 쉬는 날도 없이 바빴지만 요즘에는 마을 사람들이 농협공판장이나 신도시에 있는 대형할인점에 가 생활용품을 사다 쓴다. 처음 슈퍼를 시작했을 때에는 방 안에서 술과 라면 한 짝을 팔았다. 이 마을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는 농사밖에 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다. 개발 수행 명령이 떨어진 상태이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언제 시작될 지는 아직 모른다.

할머니이 오셨을 때 처음은 세를 사셨고 그 후에 백마부대 때문에 군인 가족들이 세를 살기 시작했다. 이곳에 와서 부녀회장도 역임하셨다. 자녀는 딸 하나를 두셨는데 결혼시키고 할아버님과 두 분이서 살고 계신다. 지금 할머니이 여러 가지 병을 앓고 계셔서 멀리 가지지도 못하고 별로 재미가 없으시다. 노인정에 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팔자가 좋으신 분들이라고 하시며 자신은 가게도 지켜야 하며 그런 형편도 못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맘 때가 되면 마을에 있는 산에 가서 도토리를 주워 도토리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에서도 밤이나 도토리를 따라 차를 가지고 많이 온다. 도토리가 비싼 편이다. 도토리를 한 말을 주우면 가루로 세 양재기가 나온다. 그걸 내다 파시는 분들도 있고 잔치에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동생이 서울에 살다가 잠시 풍동에 와 살아 함께 한다. 동생 덕분에 그나마 덜 적적하다고 하셨습니다. 도토리를 주울 때 모기가 많아 힘이 든다. 도토리묵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첫째, 도토리를 가루를 낸다

둘째, 도토리 가루와 물을 1:7로 섞는다. 이때 물과의 비율이 중요하며 물은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위의 혼합물을 놔두면 아래로 앙금이 가라앉고 먼지가 위로 뜨면 윗물을 따라버린다.

넛째, 가리얏은 것을 풀을 만들듯이 불에서짓는다  
다섯째, 그릇에 담아두면 옹고가 된다.



도토리를 말리는 모습

## (2) 마을 이야기

식골에 처음 왔을 때는 논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 건물도 많이 생겼다. 돼지 축사도 많았지만 그것도 거의 사라지고 집들이 지어졌다. 축사를 하던 사람들은 대다수는 세를 사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금은 본토인의 수보다 외지인의 수가 더 많다.

원래부터 이곳은 집성촌으로 본관이 다른 두 김씨와 이씨가 많이 살고 있다. 그들은 지금껏 직계가 족이 모여 살고 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당시만 해도 풍동 전체에 80호 밖에 살지 않았었다. 요즘에 새로 짓고 있는 집들은 대개가 서울 사람들이 땅을 사서 들어온 것이다. 옛날에는 땅값이 많이 썼지만 개발지역으로 정해져 지금은 한 평에 150만원 정도이고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정부가격이 많이 낮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나가라면 나가야지 별 수가 없다고 하셨다.

마을안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처음 들어올 때 마을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반대는 없었다. 교회가 예전처럼 종을 치거나 하지도 않고 크리스마스에 시끄럽게 하지도 않는다. 그런 게 없으니까 조용해서 좋다. 그저 외부에서 신도들만 오고 가며 일 년에 한 번씩 노인잔치를 해주곤 한다. 백마 쪽에서 전도하러 오는 사람은 많이 있다. 아름다운 교회가 전에 땅을 사둔 것이 있어 마을 입구에도 교회를 짓고 있다고 전해주신다.

## [조사후기]

슈퍼에 들어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동생이 와서 함께 마늘을 까며 얘기를 해주셨고 나중에는 할아버님이 오셔서 정동일 선생님을 얘기하시며 예전에 다 찍어갔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더니 화사랑을 짓고 있다고 그 분을 찾아가 보라는 말씀도 해주셨다.(오병균 할아버님)

1. 제 보 자 : 마을버스 운전사 아저씨(30대로 보임)
2. 제보장소 : 101번 마을버스
3. 제보일시 : 1999년 9월
4. 제보내용

(1) 제보자 생활사

마을버스가 식골로 다니기 시작한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자신이 운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곳으로의 노선을 운행 중이시지만 실제로 사시는 집은 일산 신도시여서 이 마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알지 못한다고 하셨다.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은 질문에 응해주지 않으셨다.

(2) 마을버스에 대해서

마을버스 노선이 중간에 끊어지고 다른 버스로 갈아타는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식골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차 한 대 정도가 지날 수 있는 좁은 길이어서 큰 마을버스가 들어오기가 힘이 들어 성원 아파트까지만 큰 마을버스가 들어오고 그곳에서부터 식사동까지 노선이 붓고차 크기의 마을버스로 운행된다고 알려 주셨다. 운행 노선은 사람이 있을 때는 식사동까지 들어가지만 없는 경우에는 식골 안에서 돌아서 왕복을 하기도 한다. 이 버스는 혼자서 운행을 하시고 시골 마을의 특성 상 어느 한 곳에서 기다리기 힘든 관계로 마을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집 앞 가까운 곳에서 계시면 그곳에서 태워주시고 내릴 때에도 마을분들이 내려달라고 하는데서 내려주신다. 그 때문에 일반적인 마을버스들과는 달리 이곳 식골 안에서의 마을버스는 특별히 정해진 정류장이 없다고 한다. 점심 시간에는 다른 기사분께서 교대를 해주신다고 한다. 이 마을 사람들은 부자이며 이곳이 내년에 개발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마을의 발이 되어 준 식골 마을버스

[조사후기]

식골을 돌아다니다 101번 마을버스를 발견하고 그 버스의 운행노선 등에 대해 알아볼 겸해서 다음 날에 백마역에서 101마을버스를 탔지만 한 정거장이 지난 후(성원아파트)에 기사 아저씨께서 승객들

모두 내리도록 해서 잠시 어리둥절해 했다. 다행히 아저씨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해 들으시더니 내려서 크기가 좀 더작은 마을버스를 기다려서 타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무료라고 말씀하셨다. 알고 보니 그곳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온 승객들에 한해 버스만 바꿔타고 운임은 내지 않은 채 마을 안쪽까지 더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식골에 들어가는 마을버스의 아저씨는 말씀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지만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주셨다. 우리가 내려달라고 하니 즉시 서주셨고 돌아서 잠시 기다리다 다시 나가셨다. 곧 개발되는데 이런 일은 왜 하나고, 책으로도 나와 있으니 그걸 보라는 말씀도 하셨다.

1. 제 보 자 : 김옥례 할머니(81세)
2. 제보장소 : 풍1통 노인정 2층 내
3. 제보일시 : 1999년 9월
4. 제보내용

#### (1) 제보자 생활사

제보를 해 주신 김옥례 할머니는 열아홉살에 고양군 지도면 행신리에서 시집을 오신 분으로 아들셋에 딸 넷의 7남매를 두셨고 지금은 아드님 내외분과 4대가 함께 사신다고 한다. 손주며느님이 중손자를 둘을 낳았는데 막내가 8개월된 아기로 할머니께서 저녁 무렵이면 유모차에 태워 마을 주변을 데리고 다니신다고 한다. 힘이 딸려 아기를 업어주지 못하시기 때문에 며느님이나 손주며느님께서 바쁘실 때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정도로 도와 주신다는 말씀이었다.

할머니는 시집 오실 때 그 당시에 흔했던 일반적인 가마보다 더 화려하게 구슬 등을 많이 달아 장식했던 사륜거를 타셨고 할아버님께서는 말을 타셨다고 한다. 혼례식에서 신부는 쪽두리를 쓰고 활옷을 입는데 시댁에 들어오실 때 사용했던 사륜거는 근처에서 빌릴 수도 없어 수색까지 가서 빌려오셨다고 한다. 혼례식 후에 바로 시댁으로 오면 부정탄다고 하여 친정에서 사흘을 머문 후에 이곳 시댁으로 들어오셨다. 시댁에는 시할머니,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이 있었고 만며느님이셨던 할머니는 집안 살림하시랴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시랴 설 틈이 없으셨다고 한다.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드님 두분과 따님 한 분만 결혼시키신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자제분들을 결혼시키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 요즈음에는 댁에서 드실 정도로 소규모의 농사만을 지으실 뿐이라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밭농사를 전혀 안 하신지가 20여 년 정도 되셨다고 한다. 전에는 댁에서 젓소를 기르시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아드님께서 허리와 다리에 탈이 나셨기 때문에 그

만두셨다고 한다. 그 이후로 우사를 비워두었는데 근처에 공장 사람들이 사정을 해서 지금은 세를 주셨다고 한다.

할머님께서서는 칠순잔치 대신에 싱가포르에 다녀오시기도 했고, 엿그제는 아드님과 함께 거제도에 3일간 여행을 하셨는데 그곳 경치가 너무 좋아 다녀오신 후 많이 아프셔서 고생하셨는데도 기분이 좋다고 하셨다. 그래도 연세에 비해 기력이 좋으신 편이어서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편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드님 사랑을 하셨다.

마지막으로 할머님께서서는 이곳이 개발되어 언제 마을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싫다고 말씀하셨다. 오랜 세월 살아온 마을을 떠날 뿐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에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정성들여 지었던 한옥집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면 속이 아프시다는 말씀이셨다.

## (2) 전주 김씨 이야기

풍동에서 전주 김씨는 8대째 살고 계시며 마을 안에 전주 김씨의 선산이 있다. 이 선산은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의 초입에서부터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본래 애니골 근처에 전주 김씨의 대종가집이 있어 지금껏 그곳에서 종중의 제사나 중요한 행사들을 치루어 왔으나 몇 년 전에 그곳의 종손이 급사하여 제사를 내놓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는 종중에서 산 밑에 별당을 잘 지어두고 그곳에서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해두었다고 한다.

다른 할머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는 전주 김씨 선산 근처에 지어둔 별당이 얼마나 좋은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 할 정도라고 하셨다.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살림을 꾸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 (3) 노인정 이야기

노인정은 생긴 지 약 10여 년 정도 되는데 올 초에 부인회에 있던 분들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회원이 34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할머님들께서는 매달 말일에 음식을 차려 노인정 안에서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2~3달에 한 번씩 외부로 나가셔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즐겁게 노시다가 오신다고 한다. 아무래도 안에서 행사를 하면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울 뿐 아니라 회비가 적어서 음식도 좋은 것을 드실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곳 노인정에서는 할아버님들과 할머니들의 활동이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이곳에 노인회장님이 남자회장님과 여자회장님으로 두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곳 할머니들의 노인회장님은 외지분으로 적십자사에서 지원을 받아 양로원 같은 곳으로 자원봉사를 다니신다고 한다. 언제 찾아오면 노인회장님을 뵈실 수 있을지 여쭙어 보았더니 봉사활동을 많이 하셔서 바쁘신 관계로 노인정에는 자주 나오시지 못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노인정 한쪽에 놓여 있던 장구와 북에 대해 여쭙어 보았더니 예전에 마을에서 농사를 많이 지을 때

사용하던 것으로 두레 치는 장구와 북이었지만 지금은 두레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외에도 장사지낼 때에 사용하긴 하지만 마을에서 소리를 잘 내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기에 요즈음은 장의사에서 대신한다고 한다. 다행히 장의사의 목청이 좋으시다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 (4) 마을 이야기

이 마을에 사신 지 60년이 넘으신 할머니께 예전과 지금의 마을 모습의 변화에 대해 여쭙어 보았더니 가장 먼저 집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다. 예전에는 지금 노인정이 있는 자리 주변으로 조그맣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을 뿐 대부분이 논이었지만, 지금은 논은 별로 남아있지 않고 돼지나 소를 키우던 곳까지 모두 방을 들여놓고 세를 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마을에 외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10년 전부터는 외지인과 토박이의 비율이 반이 넘을 정도라고 한다.

동사무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마을버스로 들어온 우리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길에 대해 여쭙어 보았더니 그 길은 나중에 새로 닦은 길이고 본래 마을로 들어오는 길은 노인정 앞쪽으로 나 있는 좁은 길이라고 하셨다. 그 길은 산신제를 지내는 산(할머니께서는 그 산 이름을 문자 잘은 모르지만 '식골산' 일거라고 말씀하셨다.)을 둘러싸고 있어 그 길로는 신행 들어 오는 가마나 사료거 뿐 아니라 장의차도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할머니께서 시집오실 때도 한참을 돌아서 마을로 들어오셨다고 한다.

식골은 열두골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전쟁 당시에도 젊은 남자들만 피난을 가고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은 마을에 그냥 남아 있었지만 전쟁 중에 마을 안에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분은 없었다고 한다. 이 동네에는 '빨갱이' 도 없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어 마을 사람들끼리 "열두골이라더니 피난골인가보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마을이 숲속에 묻혀 있다.(동대불교병원에서)

1. 제 보 자 : 임씨 할머니(81세)
2. 제보장소 : 풍1통 노인정 2층 내
3. 제보일시 : 1999년 9월
4. 제보내용

### (1) 제보자 생활사

17살에 능곡(삼성당)에서 시집을 오셨다는 임씨 할머니는 딸을 여섯분을 낳고 막내 아드님을 낳으셨다는 분으로 지금은 할아버님과 아드님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한다. 할머니께서 시집오실 때는 가마를 타고 오셨고, 시택이 "밥 술이나 먹는 집"으로 표현하실 만큼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굶거나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살림의 규모만큼 일이 많았기 때문에 막내(넷째) 며느님이셨지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할아버님도 할머니도 농사일을 하실 수 없으신데다가 아드님은 여의도 쪽의 회사에 다니시기 때문에 며느님 혼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농사는 전혀 하지 않으신다고 한다. 여행같은 것도 힘이 없어 잘 다니지 못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1. 제 보 자 : 박영호 할아버님(74세)
2. 제보장소 : 풍1동 노인정 1층 내
3. 제보일시 : 1999년 9월
4. 제보내용

### (1) 제보자 생활사

박영호 할아버님께서는 군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던 분으로 제대 후에 여러 곳을 다녀보신 후 이곳만큼 좋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되셨다고 한다. 본래 고향은 전주이고 친척들은 지금도 군산쪽에 많이 계신다고 한다. 아들 넷에 딸 하나를 두셨는데 큰아드님은 전주에 계시고 따님은 일산 신도시에 시집을 보내셨고 지금은 건축 사업을 하시는 막내 아드님과 함께 사신다고 한다. 할아버님께서 이 곳에서 사신 지가 30년이 넘으셨지만 이 마을은 인심은 예전에 처음 이곳에 터를 잡으셨을 때 마을 분들이 밭에서 나온 작물들을 먹으라고 그냥 가져다 줄 정도였고 그 인심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 (2) 지명 유래

식골이라는 마을의 이름에 대한 유래를 설명해 주셨는데 식골은 본래 밥식(食)자에 골짜기곡(谷)자를 써서 식곡(食谷)이라 불리다가 발음하기 쉬운 식골 혹은 식골로 변화한 지명이라고 한다. 또한 이 지명은 마을의 형태가 산이 둘러쌓여 있는 소쿠리같이 생겼다고 하며 이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이 생활의 기반을 닦고 잘 살았다고 할 정도로 터가 좋은 곳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한다.

### (3) 마을 이야기

이 마을에서는 2년 마다 한번씩 산신제를 지내는데 말하자면 '고사' 와 같은 개념으로 산신제를 지내는 산을 신성시하여 지금도 그 산 주변으로는 부정한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고 한다. 마을에 청년회와 부인회가 잘 이루어지는데 단적인 예로 마을 곳곳에 풍동 청년회에서 설치한 표지판( '마을기점 가~사' 까지의 표시가 적힌)이 있는데 그것은 외지에서 마을을 찾아온 손님들이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의 결과라고 한다. 가을에는 마을 전체에 참나무가 많아 도토리묵이 유명하다고 한다.



마을 기점 표지판(아랫말)

### (4) 노인정 이야기

이 근방에 이만한 노인정은 없을 거라시며 노인정에 대한 자랑이 대단하셨는데 아래층은 할아버님들께서 쓰시고 윗층은 할머니들께서 쓰시는데 냉장고, TV부터 시작해서 부엌 살림까지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노인정에 등록된 할아버님들은 모두 마흔 한 분 정도 되시지만 대부분 할아버님들은 발이나 눈에 일을 하러 나가시기 때문에 오후 늦게 나오시거나 매달 말일 날 나오셔서 노인정에서 준비한 음식들을 드신다고 한다. 물론 짬짬이 술도 드시지만... 말일 날 준비되는 음식은 3,000원씩의 회비를 걷어 마련한다고 한다. 특히 이곳에서는 할아버님들끼리 여행을 많이 다니시곤 하는데 제주도, 흑산도, 울릉도, 지리산 등 안 다닌데가 없으시고 그곳에서 찍은 많은 사진들을 노인정 한쪽에 붙여두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두셨다. 노인정이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부녀회와 청년회의 덕분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다가 두어달에 한 번씩 근처의 세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등을 열고 음식을 준비한 후 노인분들을 초대해서 잘 놀고 잘 드실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부녀회에서는 김치같은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신다고 한다.

## ■애니골 이야기

풍동의 자연촌락 명칭 중에 하나인 애니골은 식골이라는 큰 마을에 속해 있는 작은 마을의 이름이다. 애니골은 백마부대 하사관 주택의 도로에서 경의선 철도가 있는 곳까지 인접해 있고 경의선 철길을 경계로는 마두동과 맞닿아 있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애니골이라는 명칭보다는 ‘풍동까페촌 혹은 백마까페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더욱 많이 알려진 곳으로 약 수백여 개에 달하는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애니골에는 까페촌으로 불리게 된 음식점들 이외에도 일산자동차공업사와 한남여행사 주차장, 신도택시주식회사, 고려어린이집, YMCA수련장, 유광열(柳光烈) 묘, 백마훼미리테니스클럽, 백석골프연습장, 마두골프연습장 등이 있어 마을의 규모에 비해 유동 인구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더불어 아직도 논과 밭이 있어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주민들이 남아 있기도 한 곳으로 근래에 개발 예정지구로 정해진 곳이다. 마을의 안쪽으로는 집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셀 수 있을 정도이고 그나마 대부분의 집이 음식점을 겸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310번 지방도로, 시민대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작은 상가와 경의선 주변의 집들이 있을 뿐이다.

애니골을 찾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158번 일반버스, 158번 좌석버스, 일산과 신촌,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버스를 타고 하사관 주택이라고 불리는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들어갈 수 있고, 식골이나 풍3리에서 연결되는 길로 걸어들어 갈 수도 있다. 식골에서는 노인정 앞으로 난 길을 따라 걸어올라가거나 전주김씨 묘 옆을 지나 정원가든 반대쪽으로 난 두 개의 길 중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모두 애니골과 통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풍3리에서는 성원아파트 옆에 공사중인 ‘광림교회’ 쪽으로 난 길을 따라 들어가면 까페촌이 형성되지 않은 애니골로 들어갈 수 있다.

유광열 선생 묘는 310번(시민대로) 지방도 쪽에서 까페촌으로 들어오는 길의 초입에 있었는데 ‘우물집’이라는 음식점의 옆에 위치해 있었다. 유광열 선생 묘 앞에는 생전의 업적 등을 표시한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선생의 묘 위쪽에 자리잡은 묘까지 두 개 봉분을 포함하여 그 뒤쪽의 작은 야산에는 모두 문화 유씨의 묘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문화유씨 선산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유광열 선생 묘에서 YMCA 수련장 사이에 작은 무덤을 하나 더 발견 할 수 있었다.

1. 제 보 자 : 24시 슈퍼 아저씨
2. 제보장소 : 슈퍼 안에서
3. 제보일시 : 1999년 8월
4. 제보내용

### (1) 제보자 생활사

슈퍼 아저씨는 11개월된 딸을 두신 분으로 아주머님과 함께 두 분이서 슈퍼를 운영하고 계셨다. 영업시간이 두시까지여서 가게 한 칸에 방을 따로 만들지 않고는 생활해 나가기 어려워 그곳에서 지내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아저씨의 고향은 전라도 장성이시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상경하신 뒤 쪽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이곳 풍동으로 이사온 지는 4년 정도 되셨다고 한다. 이 마을과의 인연은 군입대 전에 잠시 음료수 영업사원으로 일하실 때 여러곳을 다니다가 풍3리 주변까지 오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그 후 어찌어찌하여 이곳에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한 후 서울시 응암동 출신이신 아주머님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지금의 위치가 아닌 좀 더 위쪽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3개월 전에 이곳으로 옮겨오셨다. 원래 살던 곳의 집이 개발부지로 편입되면서 그곳에서 세를 주고 장사를 하시던 아저씨네는 이쪽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 (2) 슈퍼 운영에 대해

길가에 위치한 덕에 아무래도 길을 가던 차나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그래서 거의 실새없이 바쁘긴 하지만 대부분이 뜨내기를 상대하는 장사여서 정작 동네분들은 그다지 많이 찾지 않으신다고 한다. 본래 이 슈퍼가 있기 전에는 이곳에 '문짝' 을 만들어 파는 곳이었다. 이 마을에는 이곳과 길 건너편에 마을 안쪽으로 향하는 골목안에 있는 가게 두 곳이 있는데 아저씨 말씀으로는 그곳은 집주인이 직접 장사하는 곳이고 아저씨네는 세를 얻어 하는 곳이라고 하셨다.

### (3) 마을에 대해

마을에 정착하신 지가 4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크게 변한 것은 없다시며 오히려 예전에 영업사원으로 이곳에 오셨을 때와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전한다. 그 당시에는 아저씨네 가게가 있는 큰 도로가 없었고 그 곳에는 집도 몇 채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군 제대 후에 와 보니 그 때 도로가 놓아져 있더라고 말씀해 주셨다.



민마루와 도촌천 개울

이 마을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문제와 변화를 안고 있는 곳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납골당에 관한 문제로 마을이 시끄러웠다고 말씀해 주셨다.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곳은 많은 데 만일 납골당이 들어서면 시세가 떨어질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등을 안고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격

렐했으며 결국 납골당 문제는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말씀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이 곳은 '알부자'가 많다고 귀뜸해 주셨다. 도로 부지나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제법 많아 그런 분들은 자신들이 먹을 정도로 소규모로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세를 주었다고 한다.

1. 제보자 : 박경용 할아버님(63세)
2. 제보장소 : 2통 노인정 안
3. 제보일시 : 1999년 8월
4. 제보내용



민마루 마을 회관

### (1) 제보자 생활사

박경용 할아버님은 이곳에서 태어나신 토박이분으로 3남 2녀의 자제분을 두셨고, 현재는 노인정에서 '총무' 직을 담당하고 계신다. 자제분들 중에 따님 한 분만 제외하고는 모두 결혼을 시키셨다고 한다. 할아버님은 21세에 중매로 문봉동 출신의 할머니님과 결혼을 하셨는데 얼굴도 못보고 한 결혼이라 할머니의 얼굴을 혼인하는 날에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할아버님은 말을 타고 혼례를 치루러 가셨는데 할아버님이 이 곳 민마루에서는 마지막으로 말을 타고 장가를 가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할아버님 이후에 장가를 드신 분들은 '시발택시'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택시와 같은 역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셨다고 한다. 지금도 문봉동에 처가가 있어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씩 방문하시는데 그 곳도 많이 변했다고 하셨다.

2

### (2) 마을에 대해서

원래 할아버님께서 농사를 지으셨었는데 지금은 나이도 드시고 해서 일을 그만두셨고 자제분들은 다른 일들에 종사하고 계셔서 농사를 짓지는 않으신다. 할아버님의 땅도 매립되었는데 이 마을에 그러한 땅의 매립이 시작된 것이 1989년 무렵부터라고 한다. 현재는 마을 안에 있는 대부분의 땅이 매립되었고 서너명만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마을은 여러 지역 출신의 각성받이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민마루 전체에 토박이분은 일곱 집 정도에 불과하며 그 외에는 대부분이 외지인들이라고 하셨다. 본래 이 민마루는 현재 있는 백마로를 포함하여 위, 아래쪽이 하나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길이 나면서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길이 난 후에는 자연스레 마을간의 왕래도 적어지고 새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곳이 하나의 마을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게 된다시며 안타까워 하셨다.

## (3) 노인정 모습

노인정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들과 트로피에 대해 여쭙어 보았더니 일 년에 한 두차례씩 열리는 동네 체육대회에서 축구나 마라톤 같은 경기를 통해 받은 거라며 자랑스러워 하셨다. 내친김에 그 옆의 장구나 북에 대해서도 여쭙었는데 예전에 농사를 많이 지을 때 행하던 사물놀이 도구로 김멜 때 5~6명이 악기를 연주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다루시던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물놀이에 관심을 갖지 않아 그냥 노인정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다.

1. 제 보 자 : 장용석 할아버님(67세)
2. 제보장소 : 풍2통 노인정 안
3. 제보일시 : 1999년 8월
4. 제보내용

## (1) 제보자 생활사

장용석 할아버님께서는 본래 고향은 풍동이 아니시지만 근처의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19세 이후로 계속해서 이곳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철이 났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다. 자제분은 4남 3녀를 두셨고 지금은 막내아드님만 출가를 못시키셨다고 한다.

할아버님은 19세에 장가를 드셨는데 그렇게 빨리 결혼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전쟁 때문이었다고 한다. 할아버님께서 18살 때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할아버님의 부모님께서 언제 군대에 가게 되어 잘못될 지 모르는 아드님이 결혼이라도 하고 군에 갈 수 있도록 서두르셨다는 것이다. 결국 중매로 할머니의 얼굴도 못보시고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 할머니는 과주 교하면 삼다리라는 곳의 출신이라고 하셨다. 전통혼례의 방법대로 식은 처가에서 올리셨고 그 당시의 풍습대로 말을 타고 처가집까지 가셨다고 한다.

말을 타고 결혼하셨다는 말씀에 혹시 그 때 모습을 담아둔 사진이 있는지 여쭙어보았더니 사진이 있었기는 하지만 집을 새로 짓고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있던 짐들을 추려내어 태우고 했던 탓에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시며 그 때 사진이 있었다라면 자제분들도 아주 좋아하셨을 거라며 아쉬워하셨다.

인근의 능곡과 일산역까지 걸어나가서 집에서 기른 채소들을 직접 팔아 받은 돈으로 할아버님께서는 자제분들을 키우고 교육시키셨다고 한다.(풍동에서 가까운 백마역은 좀 더 후에 생겼다고 알려 주셨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울에 가야 물건들을 팔고 또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촌까지 나가시곤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가야 물건을 팔 수 있었다고 한다. 옆에 계신 박광용 할아버님께서 신촌을 '문 앞' 다니듯 했다고 거들어 주셨다.

## (2) 지명 유래

지금은 민마루라고 불리는 풍산2통은 정확한 명칭이 '황구재 민마루' 라고 불리는 데 한때는 '황구재' 라는 말이 '홍구재' 로 잘못 전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 말의 유래는 그 시초가 이곳 풍동에 황씨가 태어났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었으나 지금은 황씨 성을 가진 분들은 안계시고 '장안사' 라는 절에 계신 스님 한 분만이 황씨 성을 가진 분이시라고 한다.

## (3) 전설

민마루에 살았던 황씨와 산황리에 살았던 노씨는 서로 자신이 부자라고 자랑했다고 한다. 그래서 누가 더 부자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마을 사이에 있던 도촌천이라는 개울에 다리를 놓기로 했는데, 노씨는 노젓갈로 다리를 놓았고, 황씨는 닭 뒤꿈지(뒤쪽의 긴 깃털)로 놓았다고 한다. 닭 뒤꿈지로 놓은 다리는 닭을 계속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황씨가 부자였다는 이야기이다. 더불어 그 다리를 놓은 개울 양쪽에 도깨비가 많이 나타나 놀곤 했다는 전설도 있다고 전해 주신다

## (4) 노인정 모습

장용석 할아버님께서서는 현재 풍2통 노인정의 노인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올해 1월부터 회장직을 맡으셨다고 한다. 이곳은 노인회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임기가 끝나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님이나 다른 어르신들께서 일을 잘 맡아서 하실 수 있는 분을 추천하시는 방법으로 다음 대의 노인회장을 뽑게 된다고 한다. 노인정은 오전에도 문을 열어 놓기는 하지만 대부분 오후 3~4시 사이에 어르신들께서 많이 들르시고 많이 오실 때에는 약 15~6명 정도의 규모로 모이신다고 한다. 이곳에서 함께 TV를 보시거나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하고 심심풀이로 화투를 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신다.

## (5) 체육대회

박경용 할아버님께서 조금 언급하셨던 체육대회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근처의 백마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었다고 한다. 이곳 노인정에서도 가까운 백마초등학교에서 열렸던 체육대회에 여러 번 참가하여 상을 많이 타곤 했었는데, 최근에는 두 해째 행사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인신 장용석 할아버님께서서는 아마도 학교가 비좁아서 열기가 힘든 모양이라고 추측하셨다. 대신 최근에는 동사무서에서 3~4년째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고 한다.

1. 제 보 자 : 이상수 할아버님(75세)
2. 제보장소 : 2통 내 성현농원
3. 제보일시 : 1999년 8월
4. 제보내용

### (1) 제보자 생활사

이상수 할아버님은 2년 전에 오금동에서 장미농원을 하시다가 풍동으로 처음 이사를 오셨으며 장미농원을 경영하신지는 5년 정도 되셨다. 그 전에는 양계장을 경영하셨으며 오금동에서 농원을 늘려서 이사오게 되셨고 전보다는 수입이 늘어났다. 그러나 요즘은 장미값이 너무 싸서 약값도 안 나온다고 하셨다. 현재 농원의 규모는 천 여 평 정도로 상당히 큰 편이다

고향은 전라도 나주이며 고향에서 살다가 안양에서 10년 정도 거주하셨다. 2남 4녀를 두셨는데 모두 결혼을 시켰고 자녀들이 모두 1남 1녀씩을 낳았으며 사랑하듯 말씀하시며 좋아하셨다. 현재는 할머님과 아들, 며느리와 함께 장미농원을 경영하고 계신다. 일손은 가족들로 부족하지 않은 편이다. 부족하면 동사무소에서 인력을 공급해준다고 하였으나 거절하셨다고 한다. 아들 가족은 벽체에 있는 교회를 다니며 독실한 신자이다. 자신은 예전에는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 토박이분들과의 친밀함보다는 이곳에는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은 편이라서 고향분들과 어울리는 일이 많다고 하시고, 노인정에는 잘 안나가신다고 하신다.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술만 먹어 가지않는다고 하신다.

### (2) 장미농사 이야기

장미농사는 손이 많이 가는 농사이다. 장미는 매일 아침마다 좋지 않은 것을 골라 잘라주어야 한다. 물은 3일에 한 번씩 주고 약을 다 치긴 하지만 특히 벌레를 보고 약을 친다. 장미농사는 사계절 모두 하지만 여름에는 너무 더워 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겨울에는 보일러(석유)로 난방을 한다. 석유값도 상당히 든다. 장미값이 가장 좋은 때는 동짓달, 선달이다. 이곳에는 빨간색, 주황색, 분홍색의 세 가지 종류의 장미가 있다. 장미는 매일 따서 단으로 묶으면 서울 등지에서 차로 실어 가서 도매로 파는 것이다. 농원에서 하는 일은 여기까지이며 돈은 나중에 은행으로 송금되어진다.

### (3) 밭농사 이야기

제보를 받았던 평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깻잎들이 많아 키우는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 여쭙어 보았다. 올해 심었던 깻잎은 다 베어내거나 그 나머지는 다 태운 후에 매년 다시 심는다고 한다. 요즘은 깻잎은 먹을 때가 지났다고 하는 데 보통 잎만을 먹고자 할 때는 아무 때나 심어서 키

위먹을 수 있지만 일단 꽃이 피고 나면 들깨를 털어내는 시기가 된다고 한다. 아무래도 들깨를 터는 일은 손이 많이 간다고 하셨다. 그 외에도 아욱 상추, 배추, 갓, 무 등 여러 가지 작물을 심으시고 그것들을 가까운 곳에 열리는 주말장 등에 내다 파신다고 한다. 아주머니께서 키우시는 작물에는 약을 전혀 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벌레 먹은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1. 제보자 : 김씨 할머니(71세)
2. 제보장소 : 백마의원 앞 길가(풍3동)
3. 제보일시 : 1999년 9월
4. 제보내용

#### (1) 제보자 생활사

제보를 해 주신 할머니께서는 본래 풍1리의 식골이 고향이신 토박이분으로 16세에 벽제로 시집을 가셔서 사셨다고 한다. 생활이 어려워져 다시 지금의 3리로 이사해 오신 지가 벌써 29년이 되신 분이셨다. 할머니는 모두 5남 1녀를 두셨는데 모두 출가를 시키시고 이제 두 분 남으셨다고 한다. 할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드님 두 분을 결혼시키실 일이 걱정되신다고 하셨다. 식골의 전주 김씨가 친정으로 예전에는 집안이 모두 한 마을에 사셨지만 지금은 많이 이사해 나가셔서 예전에 비하면 그 수가 많이 적어졌다고 한다.

#### (2) 마을 이야기

할머니께서 이곳으로 이주해 오신 지 약 3년쯤 지난 후에 한 두집씩 모래내에서 이주를 시작해 오셨다고 한다. 할머니께서 오셨을 때는 이 마을이 전부 수렁이어서 장화가 없이는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농사를 지으셨는데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자리 근처가 바로 할머니댁 땅이었다는데 지금은 모두 집들이 들어있는 상가로 변해 있어 예전의 전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 (3) 나물장사 이야기

제보를 해주신 할머니는 농협 옆의 백마의원 건물이 있는 골목의 그늘에서 조그맣게 좌판을 벌여 놓고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할머니 이외에도 7~8 분 정도되는 할머니들이 더 계셨다. 고구마순, 호박, 알타리 무, 배추, 파, 고구마 등 채소의 종류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였지만 모두 소규모여서 어디에서 가져 오시는 것인지 여쭙어 보았더니 마을 주변의 공터에서 조금씩 키우셔서 가지고 나와

파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장사를 시작하시는 시간도 끝내시는 시간도 자유셨고 팔 물건이 있으면 날씨가 궂어도 파라솔을 펴 놓고 장사를 하신다고 한다. 물론 하루에 3,000~4,000원 정도 밖에는 돈을 버시지 못하시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는 용돈벌이도 하고 친구분들하고 이야기도 하실 수 있어 장사를 그만두시지 못하신다고 하셨다.

## ■ 조사를 마치면서

풍동은 '풍동 미니 신도시' 라는 개발 예정 지구 발표가 난 곳으로 최근에 남골당과 관련한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고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에 포함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주민들 각각의 다른 입장에 관한 논의가 많은 곳으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안고 있는 마을이다. 여러 중앙지에서 다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마을이어서인지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여느 마을과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일례로 기본적인 자료를 얻는 것으로 시작하는 마을 조사를 위해 찾아갔던 동사무소에서는 그곳 직원께서 자신들이 자료를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라고 하셔서 30여 분간이나 진땀을 빼야했던 기억도 있었다. 세 군데에 있는 노인정에서는 민마루를 제외하고는 다른 두 곳의 노인회장님을 뵈기 어려웠고, 대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나 인터뷰 요청으로 이미 상당히 지치신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마을이 일산 신도시와 기차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촌락의 모습을 많이 가졌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이 신도시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에니골의 경우 마을의 대부분이 음식점들로 이루어져 있고 논은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정작 농사를 짓는 집은 찾기 어려웠다. 마을을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고 겨우 만난 분들도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이어서 도움을 주시지 못하셨다.

풍 3리에서는 초기 이주민들의 정착기와 토착민들과의 알력에 대한 제보를 원하셨지만 마을 조사의 결과 초기의 이주민들은 대부분 일찍 이곳을 떠나신 분들이 많으시고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은 2차 이주민들이라는 것과 예전에 어려웠던 때 함께 지내신 분들이셔서 오히려 얼마 전에 입주한 성원아파트 주민들과의 관계가 더 불편한 것으로 보여졌다. 인터뷰 중에 들은 바로는 양 쪽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같은 동네에 사신다는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한다.

민마루에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미 땅을 다른 곳의 사람들에게 판 상태여서 그나마 농사를 짓는 분도 많지 않으시고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노는 땅에 이것저것 심어 내다 팔기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 2000년 봄 식골 이야기

조사자/나희주, 강혁진

### ■ 마을로 들어가면서

#### 1. 풍경

건풍빌라를 지나 식골로 들어오는 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 다닐만한 넓이인데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시멘트 포장을 한 지가 오래 되었는지 길 가장자리가 부서진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빌라를 지나 제일 처음 보이는 건물은 마을 입구 왼편에 있는 '일산온누리교회'이다. 조립식으로 예쁘게 지어진 작은 교회인데 교회 주변에 하얀 봄꽃과 분홍빛 꽃이 활짝 피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회 뒤편에서 마을 끝으로 이르기까지는 울창한 숲이 있는 아랫말 산이 있고 그 밑으로는 예쁘게 지어진 목조 태양열 주택이 있다.

길 오른편으로는 양우종합건설에서 빌라를 지으려던 대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지만 조성되어 있고 공사는 하고 있지 않다. 주택공사에서 이 일대 20여만 평을 택지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우종합건설에서 주민들에게 땅을 샀다가 다시 주민들에게 대금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지금 그 자리의 땅은 공사하려고 일정하게 조성해 놓은 곳도 있고 대부분의 밭은 농사를 짓지 않는 상태에 있다. 부분적으로는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곳도 볼 수 있었다. 마을 입구 오른편으로 첫 건물은 일산온누리교회 맞은편의 '섬김카독크'라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있다. 그런데 큰 길가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수리하고 있는 자동차를 볼 수는 없었다.



마을주민들의 대감나무 보존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조금 더 마을 쪽으로 들어가면 마을길에 폐타이어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길가에 피어난 풀들과 함께 까만 낚은 타이어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 한 편으로는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렸다는 생각과 함께 농촌마을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풍1통 식골로 들어가는 마을길에는 특이한 것이 전신주의 모습이다. 마을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며 전화 전신주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는 모습인데, 길 사이로 고봉산이 보인다. 신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길게 늘어서 있는 전봇대의 모습이 옛날 시골 모습을 연상케 하며 평화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길을 따라 조금 더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거성가구’ 라고 쓰여진 버려진 벽돌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원래 돼지나 소를 기르기 위해 축사로 지었는데 마을에 돼지 같은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여 축사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공장에 이 축사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개발 계획이 있으면서 공장마저 나가게 되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버려진 건물로 있다.

## 2. 101번 마을버스

마을 길 가장자리로는 풀들이 많이 자라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민들레꽃과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이 조용한 마을 풍경과 함께 평온한 느낌을 준다. 마을 길 안으로 30분 정도마다 101번 미니 마을버스가 들어간다. 이 마을버스는 풍3리 성원아파트에서부터 풍1리로 들어와 돌아나가는 버스이다. 자주 다니지 않기에 마을 사람들은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성원아파트나 ‘오장동냉면’ 이 있는 곳까지 주로 걸어다닌다고 한다. 이 마을 버스는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데 버스에 탄 사람은 거의 없었다.

## 3. 마을 어귀에서 만난 꼬마 아이

- 김동현(7세), 섬김카센타집 둘째아이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작은 자전거를 타고 노는 꼬마 아이가 우리에게 관심을 보였다. 동현이는 유치원에 다녔는데 잠시 끊어서 지금은 혼자 논다고 하였다. 풍1통 식골마을과도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 입구라서 이곳에는 친구가 없다고 하였다.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총을 들고 노는 아이는 학교에 간 2학년짜리 형이 학교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아이는 혼자서 심심하지 않니?” 라는 우리의 물음에 “유치원에 다닐 때는 친구도 많고 심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심심하다. 그런데 나중에 아빠가 미술학원에 보내주기로 했다.” 라고 말했다. 인사를 하고 멀어져 가는 우리에게 아이는 섭섭한 표정을 지었다.

#### 4. 채소 장수와 물 오징어 장수 아저씨

마을로 들어가다가 우리는 마을에서 나오는 채소 장수의 용달차와 마주쳤다. 풍1리(식골)에는 마을 회관에 붙은 작은 가게 하나밖에 없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이마트나 일산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어지간한 것들은 자급자족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마을에는 용달차나 행상으로 물건을 팔러오는 상인들이 자주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꿀참외, 토마토, 방울토마토 등을 파는 이 아저씨는 요즘 매일 이 동네에 들르고 있다. 특이한 방송 소리와 함께...

역시 물오징어 장수 아저씨도 만날 수 있었는데, “싱싱한 물오징어가 10마리에 4000원씩! 싸고 싱싱한 물오징어가 왔어요. 빨리 나와서 사주세요~.” 방송 소리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 안에 낭랑히 울려 퍼진다.

#### 5. 소리

풍1동은 정말 조용한 동네다. 오직 들려오는 소리들은 자연의 소리뿐! 참새, 까치, 종달새 등 이름 모를 새들의 소리와 함께 산에서 들려오고 낮선 사람들의 발걸음에 동네 개들이 간간히 짖어온다. 파란하늘에 흰 뭉게구름, 새 잎새들이 돌아나 연녹색의 푸른 산이 보이고... 산 너머 경의선 열차의 기적소리와 기차 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이 마을에 들어오면 누구나 감상적이 될 것 같다.)

#### 6. 집

마을 입구에는 현대식 양옥집들이 보인다. 넓은 마당을 가진 2층 양옥집, 마당에 잔디를 심어 놓은 예쁜 벽돌로 지어진 집, 현대식 조립식으로 지어진 집, 오래 전에 지어진 한옥 등... 마당 잔디밭에는 진돗개와 발발이가 사이좋게 집을 지키고 있다. 발발이는 이방인에 관심을 갖고 다가오고, 진돗개는 무심히 마당을 한가로이 나는 하얀 봄나비만 물끄러미 쫓고 있다.

2층 양옥집 옆으로는 오래된 녹색 슬레이트 지붕의 집이 있다. 벽은 돌과 하얀 회로 발라놓은 오래된 집이다. 지금 이집엔 외지에서 온 세입자가 살고 있고 주인은 옆에 2층 양옥집을 지어 살고 있다. 마을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종류의 집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대식 양옥집에서부터 슬레이트집, 전통적인 기와집 등 수 백년 내려온 동네이기에 일제시대에 지어진 집에서 1~2년 전에 지은 집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이곳 동네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가옥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제시대만 해도 이곳의 가구수는 30여 가구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이곳 식골은 150여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대대로 내려온 김해김씨, 전주김씨, 전주이씨 외에도 새롭게 이주해 온 가구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옥을 유지하며 살려는 사람들도 있고 새롭게 이곳

에 집을 지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곳 원주민들은 대부분 땅을 어느 정도씩 많이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편이라 새 집을 지은 사람들도 있고 반면, 외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싸게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이곳까지 오게 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오래된 집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 온지 몇 년 안된 세입자인 경우도 있었다.

### 7. 풍동 정미소

녹색 슬레이트 지붕 옆에는 오래된 정미소가 있다. '풍동 정미소' 왜정시대에 지어진 것 이라는데 몇 년전부터 문을 닫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예전같이 벼농사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데 주인은 지금 일산 신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한다.

크지 않은 작은 정미소는 나무기둥과 양철 대문이 인상적이다. 양철대문은 오래전에 칠

한 까만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 자리에 녹이 슬어 마치 나무대문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벽은 연 노랑 페인트로 발라 놓았는데 그 안의 시멘트벽은 금이 가 있고 시멘트가 떨어져 나간 곳도 있었다. 지붕의 서까래는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나무들 사이로 옥수수(수수깡)대로 씩운 후 흙으로 발라 놓은 것이 보인다. 그 위에 슬레이트로 지붕을 씌웠다.



아랫말과 정미소

### 8. 마을회관 / 노인정

현재 마을회관과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회관 옆으로 동네의 유일한 가게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구멍가게가 있고, 그 앞으로는 마을 산제사를 모시는 작은 언덕(산)이 있다.

2층으로 된 이 건물은 현대식 양옥집으로 지어졌는데 1층은 할아버님들이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2층은 할머니들께서 노인정으로 사용하신다. 2층 계단에서 지팡이를 들고 힘겹게 내려오시는 할머니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왜 할머니들께서 2층을 사용하세요? 남자분들이 2층으로 사용하지 않고..." 라고 여쭙어 보았더니, 할아버님들은 술을 드시기 때문에 계단이 위험해서 할머니들께서 2층을 사용하시게 되었다고 하셨다. 할머니들께서는 "우리가 사용하는게 낫지!" 라고 하시며 할아버지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노인정에 가니 할아버지 방에는 2~3분 정도 밖에는 계시지 않으셨다. 봄이 돌아와 농사철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할 일을 찾아 소일을 하신다고 말씀들을 수 있었다. 반면 할머니 방에 가니 6~7분 정도의 할머니들께서 쉬고 계셨다. 가끔 민화토를 치기도 하시지만 주로 앉거나 누워서 쉬시며 말씀들을 나누고 계셨다.

하루는 완도에서 오신 66세의 미역 파시는 할머니께서 행상으로 오신 것을 볼 수 있었다. 2층 할머니방까지 미역, 김, 파래 등을 보자기에 싸 가지고 와서 파는 할머니는 완도 미역이 좋다고 하시며 동네 할머니들에게 물건을 자랑하셨다. 마른 미역을 사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고 다른 분들은 구경만 하셨다. 할머니들께서는 미역이 좋은지 부스러기들을 하나씩 입에 넣고 맛을 보시기도 하셨다. 완도 행상 할머니는 돈 버는 것도 버는 것이지만 운동삼아 이렇게 다니신다고 했다. 기차로 물건을 부치고 자신은 버스를 타고 도착지에 가서 물건을 찾아 팔러 다니신다고 하셨다. 마을 할머니들께서는 행상 할머니보다 나이가 대부분 많으셨는데 그 완도 행상 할머니보고 살 좀 빼야 되겠다며 놀리기도 하셨다. 식골의 할머니들은 뚱뚱한 분이 없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으며 그 고생한 이야기를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끝을 흐리셨다. 지금도 젊은 할머니 분들은 농사일을 조금씩 거들기도 하신다. 그래서 할머니방에도 회원은 30명이 넘지만 일곱 분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마을 대책위와 식골 마을회관의 현판

### ■ 노인정에서 들은 풍동 이야기

처음 2층 할머니들 방에 방문했을 때는 할머니 여섯 분과 완도에서 오신 붓짐장수 할머니께서 얘기를 나누고 계셨다. 붓짐장수 할머니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며 김, 미역, 멸치 등을 파신다고 하셨다. 이곳은 1년에 몇 번씩 오시는데 물건을 팔러 안가 본 곳이 없으시다고 하셨다. 붓짐장수 할머니께서는 2남 2녀를 두셨다고 하셨다. 젊었을 땐 농사도 함께 지으며 장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함께 장사하

시는 분들과 서울에 공동으로 집을 얻어 장사하고 와서 거기서 주무시고 다시 장사하러 가신다고 하셨다. 할머니들께 할머니들이 2층을 쓰시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할아버지들이 2층을 쓰시게 되면 술 드시고 계단에서 넘어지실까봐 할머니들이 2층을 쓰신다고 하셨다.

이곳은 2년 주기로 치성을 지내는데 그 때는 맹인이 와서 한 집에 하나씩 대주이름을 적고 축원하고 창호지로 소지를 올린다고 하셨다. 그 일은 당주가 하는게 아니라 장님이 따로 지정해 준다고 하셨다. 치성을 지낼 때는 송장이나 결혼식 행렬이 이 산을 못넘어가게 한다고 하셨다.

### 양씨 할머니(75세)

할머니께서는 민촌(민마루)에서 사시다가 17살 때 이곳으로 시집 오셨다고 하셨다. 시집 오실 때는 남편 얼굴도 못보고 부모님께서 억지로 결혼시키셨다고 하셨다. 그땐 시집 가기 싫어서 매도 많이 맞으셨다고 하셨다. 아버지께서 엄하셔서 그땐 집밖도 제대로 못나가셨다고 하셨다.

집에 계셨을 땐 어머니 살림을 도와주셨는데 시집 와서는 밭일도 하고 그래서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셨다.

할머니께서는 아들 넷, 딸 셋 모두 7남매를 두셨는데 할아버님이 35세에 돌아가셨고 할아버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땅을 팔지 않고 빚을 갚으시려다 5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한다. 왜 땅을 팔아 빚을 안갚으셨냐고 물어 봤는데 남들에게 남편 죽고 땅 팔아 빚 갚았다는 말 안들으시려고 그러셨다고 답하신다. 그땐 농사 짓고 나면 소출을 빚쟁이들에게 다 뜯겨서 아무 것도 남지 않아 많이 우셨다고 한다. 아이들도 먹을 게 없어서 울었는데 아이들에겐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한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어서 깻잎, 고추장, 간장, 된장 등을 팔러 서울로 다니셨는데 자식들에게는 아버지 없이 자란 후레자식이라고 듣지 않도록 열심히 살라고 하셨다.

할머니께 왜 그렇게 많이 자식을 낳으셨냐고 물어봤는데 그땐 피임이 안돼서 생기면 생기는대로 다 낳으셨다고 하셨다. 그때 당시엔 파리 뿌리를 삶아 먹거나 소금, 간수를 먹으면 애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다. 지금은 큰 손주도 결혼하고 재산도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큰 아들과 같이 사신다고 하셨다. 땅은 세를 주고 요즘은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다. 원당에 사는 따님께서 건강팔찌도 해주셨다고 자랑도 하셨다.

어버이날에는 마을회관에서 부녀회가 음식이나 떡을 준비해서 먹고 이야기하는 행사가 있다. 정월에는 동네분들이 윷놀이도 하시고 음식(동태찌개, 술, 떡 등)을 준비해서 먹고 노신다고 한다. 추석날은 청년회가 주관이 되어 세원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연다고 하셨다. 노인정에서는 회비를 걷어서 나가서 회식도 하신다고 하셨다.

### 이재록 할아버님(86세)

전주 이씨 16대, 손주대까지 18대... 대대로 전주 김씨도 그렇고 김해 김씨는 조금 나중에 들어왔지만 다 화합하며 똑같이 살아왔다고 하신다. 어르신은 이곳에서 나신 본 토박이시다. 아들은 하나인데 손주는 대학 1학년으로 학교에 진학했다. 아들 회사에서 30명이 명예퇴임을 했는데 아들은 유능해서 퇴임치 않고 대구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곳 풍동에 땅이 많은데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열심히 일해서 땅을 사셨다고 한다.

전주 이씨는 조선시대 왕손으로 어려서부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신다.

요즘은 친구할아버지와 술과 과자를 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시면서 운동을 하는데, 걷다가 힘들면 앉아서 마을 이야기도 하고 가져온 술과 과자도 드신다고 한다.



옛날에는 일손을 사서 벼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힘들어 농사를 안 지으신다고 한다. 마을뒤에 있는 산은 서울 사람들 땅이고, 할아버지는 땅 중에 논은 주택공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아버지 바깥은 땅 있는 거 제대로 보상받는 것이다.

산신제는 음력 10월에 서울 동대문에 있는 장님에게 가서 기일을 잡아서 제사 지낸다. 준비하는 음식은 떡, 북어, 쇠머리, 대추 등을 당주가 준비한다. 당주는 젊은 사람을 뽑는데 신중을 기하여 장님이 선별하며, 장님은 무슨 성 가진 몇 살된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해준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 중에서 당주가 말아서 이 산신제를 준비한다. 돈은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두는데 부자는 더 내고 어려운 사람은 적게 내는 등 사정에 맞게 낸다.

장님이 오면 초저녁부터 산치성을 시작한다. 각자 마을 주민들은 안와도 되지만 안오면 정성이 없어서 자기가 복을 못받는다. 장님이 4명이 오는데 북, 방울 같은 걸 치고 동네 사람들 잘 되게고 해달라고 치성을 드린다. 산신제는 다음날 밝을 때까지 하며 어지간하면 마을 주민들 모두 자리를 다 지킨다.

산신제를 하는데 천막 치고 자리를 깔며, 정성스러운 자리지만 쉴 때는 쉬고 다시 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노인정 앞쪽에는 산신제를 드리는 장소가 있다. 이곳에는 지푸라기로 씌어놓은 사람 키만한 것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대감님이라고 부른다

예전 산 주인이 이 대감님이 자기네 산에 있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대감을 보고 “남의 산에 이게 뭐냐고” 하면서 치웠는데 그 사람 집안이 씨도 없이 망했다고 전해온다.

산신제는 본토박이 중심으로 하는데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다. 동네에 있는 교회(아름다운교회, 소식장로교회)에는 주로 외지에서 온 이들이 다니고 있고 멀리 신도시 사람이나 밖에서 예배드리러 온다. 아름다운교회는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온다고 말씀하셨다. 원래는 산신제에 무당을 불렀는데 무당을 부르면 마을에 우환이 생겨서 장님(봉사)을 불렀다. 봉사도 잘하는 사람을 부르지 시시한 사람들은 안 부르며 산신제는 2년마다 지낸다(한 해 걸어 한번씩). 할아버지께서는 노인회장을 7년동안 하셨다고 한다.

### 이강윤 아저씨(60세)

마을 뒤편의 에니골로 넘어가는 길 부분에는 재활용품 처리장이 있다. 그곳에서 마을로 들어와 마을회관쪽으로 오다 보면 오른쪽에 이강윤 아저씨댁이 있다. 아저씨는 어제 고추를 모종으로 심었는데 이웃집이 품앗이를 해주어 오늘은 그 집에 가서 일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마당에서는 6세 쯤 되어 보이는 아이 두 명이 놀고 있었는데, 한 아이는 손자고 다른 아이는 이웃집 아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강윤 아저씨는 2남 1녀를 두었는데 다 출가하였고 지금은 큰 아드님과 함께 살고 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리고 사위까지 다 공무원인데 아들들은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강윤 아저씨는 주로 과거에 농사 짓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과거에 식골은 마을 앞도 모두 논이었고 식사동에 이르기까지 식골 사람들의 논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뒤편으로 에니골 쪽으로도 다 식골 사람들의 논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마을 앞 논은 신도시 생길 때와 성원아파트 생길 때 흙을 얻어다가 다 메워 밭으로 되어 있다. 당시 품값만 주면 흙을 공짜로 주어 논에다 부어 주었다고 한다.

### ■논에 물대기

이곳 식골 근처의 논들은 예전엔 따로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천수답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꼭대기에 있는 논 하나에 수렁이 있어서 물이 솟아 나왔다고 한다. 물 나오는 논에는 정월에는 물이 필요없기에 밑으로 내려 보내면 겨울부터 아랫논 주인들은 그물을 막아서 자기 논에 들여 물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물이 귀하다 보니 비가 오면 비로소 모내기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다. 지금은 대부분 농지 정리가 되어 있지만 예전엔 계단식 논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다가 ‘관정’이 생겼다. 관정이란 나라에서 파 준 우물을 말하는데 지하수를 파 양수기를 달아 놓아 물을 댈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이후 형편이 되는 마을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논에 지하수를 파

고 모터를 통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도 했다. 지금은 수리조합이 생겨서 한강물을 당겨다가 쓰기도 하고 임진강 물을 당겨다 쓰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이젠 농사 지으며 물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많이 줄었다고 한다.



#### ■ 채소 농사

식골은 예전에 주로 채소 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한다. 논에 벼도 심었지만 현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채소 농사였다. 오이, 고추, 깻잎 등을 가꾸어 서울 모래내시장에 가서 팔면 현금이 되어 그 돈으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하였다고 한다. 특별히 비닐하우스가 이 동네 곳곳에 많았는데 비닐하우스 안에는 주로 깻잎 농사를 하였다고 한다. 깻잎 얻기 위함이 아니라 깻잎을 따 서울에 내다 파는 근교농업이다.

#### ■ 깻잎 농사 짓던 이야기

이 농사는 이 마을 사람들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였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한 일터에서 같이 지은 것은 아니지만 각자가 자신의 밭에서 농사를 지어 출하할 때는 같이 판매하였던 것이다. 새벽 4~5시면 짐차를 대절하여 마을 안쪽에서부터 자기네 양을 계산하여 깻잎을 차에 실었다고 한다. 이것은 홍은동, 불광동 같은 곳에도 갔지만 주로 모래내시장에 내다가 팔았다. 특별히 깻잎 농사를 하게 된 것은 다른 농사는 한 번 열매를 내다 팔면 끝이지만 이 깻잎은 따면 또 나고 하여 계속 수입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깻대도 여러 차례 깻잎을 따고 나면 노쇠하게 된다. 그러면 그 나무를 뽑고 다시 새 모종을 심어 계속 깻잎 농사를 하였다고 한다. 동네 어른들은 당시를 회상하며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아니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하지 않을 수 없어 계속한 일이지만 쉴 틈도 없이 너무나 힘든 농사였다고 한다.

### ■ 깻잎 농사의 경쟁력

이곳 식골에서 나오는 오이나 깻잎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보다 상인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오이의 경우에는 밤에 손전등을 가지고 나가 오이를 소출하여 새벽에 내다 팔았고 깻잎의 경우에는 낮에 모든 깻잎을 따서 하루종일 5장씩 묶어 100개를 만들면 한 접이 된다고 한다. 이렇게 수확한 것을 이른 새벽에 시장에 내다 파니 다른 지역에서 1~2일 지난 채소보다 훨씬 싱싱하였고 보관도 오래 되어 상인들에게나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 ■ 밭벼 이야기

이강윤 아저씨께 4월 농사 이야기를 여쭙었더니 밭벼 이야기를 해 주셨다. 동네 앞에 논을 메꾸어 밭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밭벼(참쌀)를 심었다고 하셨다. 논에 모심기는 아직 시기가 이르지만 밭벼는 지금 심어야 한다고 하셨다. 밭벼는 논에 심는 모와 같게 생겼는데 밭에 심어 놓으면 물이 없어도 잘 자란다고 한다. 지금 심으면 양력 10월에 수확하게 된다. 올 논에는 벼를 3,000평 정도 심을 예정이라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예전엔 농사를 매상하기 위해 지었지만 지금은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는다고 양도(양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 점심식사 얻어 먹은 이야기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려 하자 큰 며느님을 시켜 점심식사를 준비하게 하셨다. 먹는 상에 숟가락 하나 더 없으면 되는데 차린 건 없지만 함께 먹자고 말씀하시는 데서 아직 가지지 않은 농촌 인심을 느낄 수 있었다. 곁은 오래된 집인데 부엌은 현대식으로 개량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식탁에서 맛있는 김치찌개와 함께 기름진 밥을 먹고 인사 드리고 나왔다.

### 한은자 아주머니(53세)

- 건풍빌라 앞 텃밭(4월 28일)

우리가 아주머니께 가서 물어볼 땐 파를 심으시고 계셨는데 파는 씨를 뿌리면 저절로 자란다고 말씀해 주셨다. 또 파는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옮겨 심으면 대파처럼 크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씨앗을 심기 전에 거름을 사서 미리 뿌려놓고 심으신다고 하셨는데 열무 같은 경우는 금방 커서 5월이면 먹는다고 하셨다. 아주머니는 자녀를 2남 1녀 두셨는데 손자까지 있고 아들과 딸은 지금은 따로 살고 계신다고 하셨다. 큰 아들은 서른 한살인데 일산 신도시(백마)에 살고 딸은 서초동에 사신다고 하셨다. 막내 아들은 스물 일곱살인데 아직 장가를 안갔다고 하시고 손자는 이제 100일 지났다고 하셨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시는데 두 분은 서로 칠년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다. 원래는 능곡에 사시다가 이

곳 풍동 건풍빌라로 이사오셨다고 하셨다. 이곳은 교통은 불편하지만 마을이 조용하고 공기가 좋아서 만족하신다고 했다. 요즘은 심심풀이로 빌라 앞 텃밭에 열무, 아욱, 상추, 배추, 쪽갓, 파 등을 심는데 파시지는 않고 가족들끼리 먹고 남아서 다른 분들과 나눠 먹는다고 하셨다. 시댁에도 많이 나눠 주시냐고 물어 봤더니 오히려 시댁에서 농사를 지으셔서 더 많이 가져오신다고 하셨다.

### 공공근로 하시는 조씨 아주머니(마을 중앙 앞)

공공근로 하시는 풍동 시는 아주머니를 만나서 물어봤는데 이곳에는 87년도에 이사 오셨다고 한다. 원래는 세를 사시다가 중간에 집을 사셨다고 한다. 공공근로는 9시까지 동사무소로 가서 확인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점심 때는 집이 근처이기 때문에 집에서 먹고 나오신다고 하셨다. 자녀분들은 직장 다니고 학교 휴학하고 군대에 가 집이 비어서 심심풀이로 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다. 하루 일당은 22,000원이고 운동도 되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며 얘기하기 때문에 재미 있으시다며 일에 대해 많이 만족하셨다.

### 김영환 할아버지(79세)

- 고개 넘어 부추밭(제시누골밭, 4월 28일)

할아버지께서는 콩을 심으시려고 밭에 나와 계셨다. 할아버지께서는 이 마을 터를 잡은 지 11대며, 손주까지 13대째 대대로 사셨다고 한다. 이 마을에선 특이하게도 다른 전주·김해 김씨와는 달리 김녕 김씨, 경순왕의 후손이라고 하셨다. 이 마을에서 나서서 자라오며 농사짓고 사는 식골 토박이라고 말씀하셨다. 밭에는 주로 부추를 심어 재배하는데 남은 곳은 녹두와 팥을 심으시고 가장자리에는 콩을 심으신다고 한다. 논에 콩을 그냥 심으면 까치, 꿩, 비둘기들이 냄새를 맡고 파먹어 버리기 때문에 모종을 새들이 먹지 못할 정도로 키워서 심어 놓는데 그래도 심술 맞게 잎파리를 죄다 뜯어놓는다고 하신다. 부추는 6월경에 추수하시고 시장에 출하시키는데 시장 사람들이 와서 가져간다고 하셨다.

부추를 심는 이유에 대해 물어봤는데 부추는 한번 심으면 손이 자주 안가고 거름만 주면 잘 큰다고 전해 주신다. 또 밭에 작물을 심어 놓으면 개발할 때 보상을 더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부추는 땅 힘이 좋고 날씨가 좋으면 두 달에 한 번씩 깎아서 파신다고 하셨다. 이곳 밭은 원래는 평범했는데 공사장에서 쓰던 흙을 사서 복토하여 높여 놓으셨다고 한다. 밭 중앙에는 모터로 끌어올리는 우물이 있는데 20년 전 정도에 직접 파셨다고 한다.

논도 있는데 논에는 5월 중순쯤에 모내기를 하시며, 옛날에는 논 농사를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힘들어서 많이 논을 매매했다고 한다. 요즘은 심어도 양도(양식거리)만 하신다고 하셨다. 앞쪽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원래 돼지 축사였다가 잘 안돼서 공장으로 세를 주었는데 개발이 된다고 해서 모두 나가

서 이젠 비닐하우스가 됐다고 하셨다.

자녀들은 아들 다섯, 딸 둘이 있는데 모두들 출가하고 지금은 큰 아들과 함께 사신다고 하셨고 손주 손녀도 아홉이나 있다고 하셨다. 할머니께서는 중풍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셨다.

과거엔 노인정 회장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정에선 1년에 한 두번씩 여행을 가신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는 주로 집에 계신데 오늘은 솔솔 바람도 불고 날씨가 좋아서 나오셨다고 하셨다. 손자들은 학교 가서 없고 아드님과 며느리들은 다 일 나가신다고 하셨다. 논이나 밭은 동네 분들이 협동으로 도와주시고 기계로 주로 농사를 짓는데, 앞에 목욕탕은 여자 전용 목욕탕인데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셨다.

원래 이곳 풍리에 풍은 풍년풍(豐)자였는데 200년 전 고을 원님이 새로 바뀌어 오셔서 지금의 단풍풍(楓)자로 바꾸었다고 한다.

즉, 곡창지대인 줄 알았는데 산이 막혀있고 질퍽해 묵은 땅이 많아서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했다. 그 후 마을회관 부근에서 산을 바라보니 아름답디 단풍나무가 세 그루가 있어서 풍자를 단풍풍(楓)자로 바꾸게 된 것이라 한다.

또 이곳을 자물쇠 동네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옛날 먹는 것을 좋아하던 한 영감이 이곳은 들어가기만 하면 잘 먹을 거 같은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것 같아 들어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했다. 예전엔 여기에 한 30호 정도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100호가 넘는다고 하셨다.

산신제 이야기도 하셨는데 원래는 무당을 불러 굿을 했는데 효과가 없고 장님이 와서 독경을 읽으면 마을이 편안해져서 장님을 불러온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개발이 되어 그 곳(산신제 지내던 곳)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지 어려움이 많다며 수 백 년간 해온 산신제인데 없어지면 걱정이라고 하시며 우려의 말씀을 하셨다.



구진다리에서 바라본 식골의 전경

## 구태두 아주머니(41세)

- 마을 입구 건풍빌라 옆 건풍수퍼 주인 아주머니(5월 3일)

처음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물건을 정리하고 계셨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들이 묻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앞에 빌라에 대해 물어 봤는데 빌라의 이름은 건풍빌라이고 생긴 지는 10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다. 지금은 90~100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한다. 택지 개발될 곳을 물어봤는데 옛날에는 옥수수밭이었는데 성원건설에서 2차 개발 계획이 있어서 샀다가 주택공사에서 택지 개발로 묶는 바람에 주택공사에 넘겼다고 한다.

대부분 수퍼 외곽 쪽에는 외지인들이 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상 대대로 살아오신 토박이 분들이 사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식골을 안동네라 부르고 있다. 슈퍼 앞에 있는 유치원은 작년 여름에 공사를 시작해서 겨울에 완성되었고 올 봄부터 아이들을 교육시킨다고 하셨다. 앞쪽 창고 앞에는 원래는 밭이고 양계장이었는데 작년에 택지로 정해진 다음부터 땅값이 올랐으나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아주머니께서는 이사 오신 지 10년 정도 되셨으며 들어오시기 전부터 형제들이 여기 살아서 서울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 오셨다고 하셨다. 이사 올 때만 해도 큰 도로가 없었는데 2, 3년 전에 복개공사로 새로 도로가 생겼다 하셨다. 원래는 논둑길이었다고 하셨고 밑으로는 농수로가 있다고 한다. 큰 도로(풍동 식사동간 도로)는 다른 곳이 막혔고 동문아파트 건설 때문에 통행량이 많다고 한다. 아주머니께서는 91년도에 이곳으로 새로 들어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입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 물어 보니까 보상은 모르겠지만 다른 곳을 보면 세입자들에게도 조금은 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셨다. 아주머니께서는 아들이 둘이 있다고 하셨는데 두 아들 모두 태권도를 잘하신다고 하셨다. 슈퍼 안에는 아들이 태권도 대회에 나가서 타온 상들도 있었다.



건풍빌라와 마을 입구

빌라 주변에는 오랫동안 산 사람이 적다고 하셨으며 직장도 고양시와 서울 등 여러 곳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곳은 교통이 불편하고 학교가 멀어서 애들을 키우며 살기에 안 좋지만 공기가 좋고 마음이 평안하며 무엇보다도 형제들이 같이 사니까 외롭지 않다고 하셨다.

개발 후 계획은 보상금 수준에 맞추어 이주할 생각이라고 하셨다. 시골 같은 이곳에서 살다가 서울에 가면 못 살 것 같다고 하셨고 이주를 하더라도 멀리 가지 않고 고양시에서 살 계획이라 한다. 개발이 된다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세입자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한다. 주공에서 2,000평 정도 임대 아파트를 질 것이라고 들으셨다며 주공에서는 주변도 모두 없애지 않고 공원으로 남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 바다의 별 어린이집 수녀 선생님(5월 3일)

이름을 밝히길 꺼려 하셨으며 원장 선생님은 어린이들을 돌보고 계셔서 뵈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인터뷰하러 갔을 때는 수녀님께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다. 이곳 어린이집은 작년 12월에 생겼는데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후원으로 생겼다. 이곳은 개발되더라도 보존될 것이라 했으며 어린이집에는 50명 정도의 원아와 6명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아이들은 주로 신도시에서 오고 선생님들은 수녀님들만 계신다고 하셨다. 어린 아이들은 만 2세부터 만 4세까지 입학이 가능하며 내년 쯤에는 원아들이 100명 정도 될거라 하셨다. 이곳 어린이집은 환경이 좋고 수녀님들이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 양봉석 할아버지(66세)

건풍빌라에서 식골로 들어가면서 왼편에는 넓은 밭 지대가 있다. 온누리교회 아래편에 위치해 있는데 이 밭(검바골)들은 왼편 멀리 성원아파트 있는 곳까지 이어진다. 밭 위로는 산이 위치해 있고, 대부분 파종기 농사를 시작한 상태에 있다. 이곳에서 비료를 주고 있는 양봉석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 밭에 부추, 고추 등을 심어 놓았으며 나중에 7월 정도 되면 이 자리에 배추, 무 등을 심어 11월 김장철에 맞춰 출하할 예정이라고 하셨다. 현재는 고추 모종과 함께 부추를 주로 심어 놓으셨다. 부추는 한 번 심으면 몇 년을



자라 팔 수가 있다. 겨울을 나도 뿌리가 얼어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추를 다시 심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1년에도 몇 번을 잘라 팔 수 있기 때문에 효자 채소라고 할 수 있다. 이 부추는 생명력이 강하여 요소비료나 복합비료만 가끔 주면 잘 자란다고 한다. 복합비료는 주로 밀거름용으로 사용되고 요소비료는 비온 후에 주면 좋다고 한다.

또 필요한 물은 밭 어귀에 파놓은 ‘관정’ (정부에서 파 준 우물)을 통하여 공급해 주기도 한다. 관정이라고 해서 우물을 생각했는데 의외로 땅에 모터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 모터를 통해 땅 속에서 지하수를 끌어 올려 채소들에 물을 주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뒤편에 있는 신도시 정발 마을에서 내려다 보인다는 개논에 가서 못자리를 보고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하신다. 그리고 오전엔 밭에 나가 풀 뽑고 밭도 메고 부추도 잘라 팔 준비를 한 후, 점심식사를 하신다. 오후에는 논에 가서 논두렁도 살피고 수리할 곳이 있으면 수리도 한다. 이제 5월 20일 경에는 모내기를 하려면 곧 논에 물을 대놔야 한다. 논에 물을 공급하는 곳은 ‘파주농조’ 인데 임진강 물을 수로로 보내주어 그 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셨다.

밭 뒤편 산에서 까치 여러 마리가 울고 있다. 할아버지는 이 동네가 원래 까치가 많은 동네라고 하셨다. 어렸을 때 까치알을 꺼내서 친구들과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누가 까치알을 먹나?” 라고 하시며 까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까치알을 꺼내 먹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셨다.

### 김덕운 아저씨(59세)



마을 입구 2층 양옥집에 거주하시며, 꽃박람회 하루 전날에 조사를 시작했다.

전주 김씨는 13대째 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 정착한 연도는 대략 430년 전 정도 되었다고 한다. 현재 식골에는 전주 김씨가 35세대 정도 살고 있으며 아저씨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이 동네에 살고 계시다. 4남매를 두셨는데 큰 딸과 둘째 딸은 출가시켰다.

옛날에는 고양군이 매우 넓었는데 군수님이 이 동네를 제일 잘 사는 동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잘 사

는 동네였음은 동네 이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동네를 '식골' 이라고 부른다. 그 외에도 이 근방에는 음터곡(현재의 애니골 자리)이라고도 불리는 골짜기도 있다. 이 동네를 '학곡' 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것은 현재 마을 앞은 밭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엔 논이었다고 한다. 학곡은 이 논에 우렁이가 많아서 학들이 날아와 우렁이를 잡아먹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 이 동네는 산신제를 한 해 걸러 한 번씩 지내는데 택지 개발 계획으로 인해 올해가 마지막 산신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아쉬워하시는 말씀도 하셨다. 현재 이 식골 인근의 27~28만 평의 땅을 주택공사에서 주택 부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택공사에서 금전으로 보상을 잘 해 주었으면 하는 동네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 더도 말고 시세에는 맞게 받을 수 있었으면 하셨다. "여기 사람들은 순한 사람들이라 데모도 잘 못해." 라는 말씀과 함께 고향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셨다.

이곳엔 예전에 벼농사를 많이 지었다. 지금은 논을 많이 메꾸어 밭을 만들었는데, 논은 절대용지로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파트 택지 개발을 하면서도 마을 건너편에 있는 논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한다.

이 마을은 참 좋은 동네로 6·25 때도 마을의 집들이 고스란히 있었다. 그래서 '피난골' 이라 불릴 정도로 피해가 없었다. 온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동네가 밖에서는 안보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이 둘러쳐져 있어 '삼태기 동네' 라 부르기도 한다.

**풍동** : 바람풍자가 아니고 단풍풍자를 쓴다. 옛날에 단풍이 많아서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면 안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꽃박람회** : 내일부터 꽃 박람회가 시작되는데 내일은 개막식으로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고 초대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대통령과 많은 해외 인사들이 오는데 고양시의 지역 어른들과 유지들도 일부 초대 받은 모양이다. 아저씨는 내일은 꽃 박람회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집** : 아저씨네 집은 건풍빌라 쪽에서 마을로 들어가다 왼편에 있는 첫 번째 2층 양옥집이다. 원래는 옆에 있는 녹색 슬레이트 지붕 집에 오래 살았는데 85년도에 200평의 대지 위에 평생 살려고 지은 집이라고 한다. 그런데 개발 때문에 정성들여 지은 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기에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하셨다.

**앞으로의 계획** : 올해는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 농사를 계속 지을 예정이고 개발이 되면 다른 곳으로 나가 있다가 택지 개발이 된 후 동네 주민들에게 단독택지를 분양하면 그때 다시 들어와 집을 지어 살 예정이라고 하셨다.

### 송봉연 할머니(72)

어버이날 마을 길에서 만난 할머니이다. 풍1리 식골마을은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동네 부녀회에

서 음식을 장만하여 동네 어르신들을 대접한다고 한다. 그동안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혹 사진자료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보충하려는 마음으로 동네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마을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애니골 쪽으로 해서 산 고개를 넘어 동네에 들어갔는데 길가에서 할머니 세 분을 만나게 되었다.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꽃을 달고 계시기에 식골의 어버이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 여겨져 사진을 한 장 찍을 수 있게 부탁을 드렸다.

할머니들은 지금 마을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어버이날 잔치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하셨다. 이 행사는 매년 마을 젊은이들과 부녀회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잔치라고 했다. 길에서 만난 분들은 송봉연 할머니(72), 이순복 할머니(65), 김순덕 할머니(61)이셨는데 세 분 모두 술도 약간 드시고 무척이나 신나는 모습으로 흐뭇하게 가시는 중이라 했다. 하루종일 마을회관에서 음식도 드시고, 술도 드시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시고 했다고 했다. 이벤트 회사에서 노래방 기기와 사회자까지 불러다가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 드리는 식골 부녀회 및 젊은이들을 보며 참 정이 있는 동네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순복 할머니는 얼마나 춤을 추며 신나게 노셨는지 블라우스의 단추가 떨어졌을 정도로 재미있게 잘 놀았다고 하셨다.

송봉연 할머니는 18세에 강촌마을에서 시집 오셨다고 한다. 당시 강촌마을 인근에는 강촌말, 설촌말, 도두머리, 냉천말 등의 4개 부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풍1리로 시집와서 지금껏 사시고 현재는 9사단 앞에 있는 집에서 아드님과 함께 살고 계신다. 세 분의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동네 젊은이들이 잘한다” 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 ■ 어버이날 잔치(2000년 5월 8일 월요일)

풍1리 식골 부녀회에서는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면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한다. 왜지도 잡고 떡 종류, 부침개, 술, 잔치국수, 김치, 참외,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과일 음식들을 준비하여 어르신들을 즐겁고 흥겹게 해 드리고 있다.

오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신나게 어울리는 동네잔치가 된 것이다. 마을회관을 찾으신 어르신들은 노래도 부르고 또 젊은이들의 노래 가락에 맞춰 춤도 추시고 매우 즐거워하는 눈치였다. 지난 2주 동안 매일 식골을 찾아 왔지만 노인정에는 아주 연세 드신 어르신들 외에는 어르신들을 잘 볼 수가 없었는데 이 날은 5, 60대의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다들 가슴에 꽃을 달고 흥겹게 어우러지는 모습에서 바쁜 봄 농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베푸는 어버이날 잔치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마을이 개발되고 재구성되면 이러한 풍습도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 풍1리(식골)의 세 성씨와 풍습

풍1리는 예전부터 세 성씨(전주 김씨, 전주 이씨, 김해 김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왔다. 그러다가 다른 성씨(우씨, 박씨, 최씨, 양씨 등)들이 마을에 조금씩 들어와 지금은 다양한 여러 성씨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그 중에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세 성씨를 중심으로 그들이 이 마을에 들어온 시기와 현재 남아 있는 세대수를 알아보고, 이 마을에서 행해지는 풍습으로 '시향' 과 '장례 모습' 그리고 그밖의 동네 풍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세 성씨가 이 마을에 들어온 유래

노인정에서 전주 김씨, 전주 이씨, 김해 김씨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었으나 이 동네는 그 성씨들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아무도 모르고 계셨다. 알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 몇 대째 살게 되었는가 하는 정도이다. 전주김씨와 전주이씨는 이곳에서 13대째 살고 있다고 한다.

전주 이씨의 경우 이재록 할아버지(86세) 께서 연세가 가장 많으신데, 그분의 11대조 할아버지 묘소가 동네에 있다고 한다. 그것으로 미루어 봐서 이재록 할아버지의 손자까지 합하여 13대째 이 마을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주 김씨의 경우는 조금 틀린데, 김덕선 할아버지(70세)의 말씀으로는 '전주 이씨와 비슷한 시대에 이 동네에 들어온 것 같다' 는 말씀과 역시 '13대째 정도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대략 연수로는 400년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셨다. 두 성씨 중에 누가 먼저 이 동네에 들어왔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김해 김씨의 경우에는 조금 더 늦게 이 동네에 자리를 잡았노라고 노인정 어르신들은 말씀하셨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성씨들이 이 동네에 들어온 정확한 경위가 기록된 책이 없으므로 그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것과 대략 선조들의 묘소와 어른들의 전해 내려오는 말씀으로 미루어보아 13대째 내려왔으며 대략 그 기간은 400년 정도 된다는 정도이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었지만 이 동네는 대대로 농사만 지어오던 동네라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는 말씀에 더 이상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2. 현재 이 동네에 사는 세 성씨의 세대수

동네 통장님께 전화를 드렸으나 노인정에 가면 어르신들께 자세히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권고에 따라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께 말씀을 여쭙어 볼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는 이 동네에 더 많은 세 성씨의 사람들이 살았으나 지금은 많이 외부로 나가고 해서 그 수가

줄었다고 한다. 먼저 현재 제일 많이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성씨는 전주 김씨이다. 대략 20여 호가 살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전주 이씨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수는 대략 10여 호이다. 마지막으로 김해김씨가 많은데 대략 일곱 세대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 우씨가 많이 살았으나 지금은 많이 살고 있지 않으며 양씨, 박씨, 최씨 등도 현재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 3. 마을의 풍습

이 마을에 특이한 풍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 어르신들은 특별한 풍습이 없다고 잘라 말씀하셨다. 평범한 동네에 무슨 특별한 풍습이 있겠느냐는 말씀과 함께 이곳에 있는 것이면 다른 곳에서도 다 하는 것이라서 마땅히 말해 줄 것이 없노라고 말씀하셨다. 문중에 전해오는 행사라도 알려달라는 부탁에 어르신들은 ‘시향’ 과 ‘장례풍경’ 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 시향과 장례풍경에 대해서 세 성씨를 중심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것은 같은 동네에 오래 살아왔기에 특별히 서로 다른 모습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위의 두 가지 행하는 것들은 서로가 거의 같다고 말씀해 주시며 집안의 형편에 따라 규모가 조금 다를 뿐이라고 알려주셨다.

#### 1) 시향에 대해서

풍1리 세 성씨의 내려오는 풍습이나 집안 행사에 대해서 소개해 줄 것을 부탁드리자 어르신들은 시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김씨와 이씨의 시향 드리는 날짜가 다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시향’ 이란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5대조 이상 되는 조상들에게 연 1회 한꺼번에 몰아서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기일에 제사를 집에서 드리고, 그 이상은 전주 김씨의 경우에 음력 10월 13일에 시향을 드린다고 한다.

시향 드리는 방법은 집안의 제사 때처럼 온 집안이 모이는 것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같은데 장소의 차이가 있다. 제사는 집에서 하지만 시향은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선산으로 가서 윗대 할아버지 묘소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대의 할아버지 묘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 대의 할아버지 묘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 선대 할아버지 묘소에서부터 6대조 할아버지 묘소에까지 차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시향이라고 하는 것이다.

시향 드릴 때는 제사처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산소 앞에서 상을 놓고 그곳에 음식을 차린다. 상에 오르는 음식은 술, 진미, 떡, 과일 등이 오르는데 이것은 집안의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한다. 어르신들은 ‘제사는 정성껏 드리는 거니까 남의 제사에 대해 뭐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시향 드리는 순서로는 먼저 제일 윗대 조상님 묘소에 상을 차리고 제주를 맡은 종손이 제수(술)을 석잔 올린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축문을 읽는데 '조상님 저희들이 조상님 묘를 찾아 이렇게 시향을 드리니 차린 음식 잘 드시고 후손들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하는 내용의 축문을 읽는다고 한다. 그 후에 모든 후손들이 절을 올리는데 예전엔 남자들만 절을 하였으나 지금은 여자들도 함께 절을 올린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조상님의 묘로 이동하여 같은 순서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여 마지막 조상님 묘에까지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음식들을 그 자리에서 나누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음식을 싸 가지고 와서 집에서 동네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고 한다. 시향은 연 1회 치루어진다.

## 2) 장례 풍경에 대해서

### (가) 3일장

예전에는 주로 5일장은 했는데 요즘은 3일장으로 장례식을 치룬다. '5일장과 3일장의 차이점은 정성의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동네 어르신들은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예전엔 초상이 나면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으므로 3일만에 장례를 치루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상을 알리는 데만도 부고를 알리기 위해 전화 등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 전보나 인력을 통해 직접 부고를 전했고, 초상집으로 집안이 모이는 데에도 교통수단도 불편하여 오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장지에 산소를 만들기 위해 광중(관이 들어가는 구덩이)을 파는 데에도 삽이나 곡괭이를 통해 직접 무덤을 만들었기에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은 통신시설이 발달되어 초상이 나면 즉시 온 집안이나 동네에 알릴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교통편도 좋아서 모이는 시간도 빨라졌으며, 산소를 준비하는 데에도 삽이나 곡괭이가 아닌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묘터와 광중을 파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단축되어 3일장으로 많이 장례를 한다고 하셨다.



상여에 장식할 꽃을 줄에 달고 있다.



상여 행렬

### (나) 장례 풍경

상을 당한 집이 동네에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가서 부녀자들은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돕고 젊은 사람들은 묘터를 준비하고 상여도 준비한다고 한다. 이 동네 어르신들의 특이한 조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보다 웃어른이 돌아가시면 찾아가 조문을 할 때, 술을 붓고 절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봉투도 드리고 온다고 했다.

초상이 나면 3일째 발인을 하는데 동네 상여집에 있는 상여에 꽃으로 장식한 '꽃상여'로 무덤까지 이동을 한다. 꽃상여는 6명, 8명, 10명... 이렇게 짝수의 사람들이 양쪽에서 메고 나가는데 앞으로 소리꾼이 종을 치며 선창을 하면서 행진하고 상여를 맨 상여꾼들은 후창을 하면서 따라간다.

소리꾼의 선창은 돌아가신 분을 기리고 달래며 아쉬운 마음을 전하는 가락으로 읊어지는데, 이 소리를 통하여 상여꾼들이 발을 맞추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 한 발 한 발 안정된 상태에서 내디딜 수 있어 상여가 잘 나가고, 그래야 상여 속의 시신이 흔들리지 않아 좋다고 한다. 소리꾼의 선창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를 여쭙어 보았으나 전에 잘 하시던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다. 대신 상여꾼들의 후창에 대해 여쭙어 보았더니 “어~야 헤~야” 라고 후창을 한다고 했다.

전에 이 마을에서 장례 소리꾼으로 잘 하시던 분은 고 '김현군' 어르신이었다고 한다. 이 분은 노래도 잘하는 분이셨는데, 선창을 넣으면 그렇게 구슬프게 잘 하셨다고 한다. 요즘은 장인수 씨가 맥을 이어 구성진 소리매김을 이어가고 있다.

상여가 나갈 때 소리꾼이 소리를 선창하면 상여가 외나무 다리도 건넌다고 했다. 예전엔 이 동네에 길이 닦이지 않았는데 여름에 장마가 지면 골짜기의 외나무 다리로도 상여가 나가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상여를 매려면 최소한 1.5미터 이상 되는 너비의 장광틀 양쪽을 상여꾼들이 매게 되는데 외나무 다리를 어떻게 건넌을까 하는 것이다. 노인정의 어르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여꾼들이 양옆으로 거의 넘어지듯이 누워서 외나무 다리의 모서리를 한발한발 밟고 나간다고 했다. 양쪽의 균형이 맞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때에 소리꾼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씀하셨다. 예전의 참 보기 좋고 신기했던 풍경이라고 말씀을 남기셨다. 풍1리는 아직도 이런 상여를 사용하여 장례를 치루고 있다.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미리 굴삭기로 파놓은 광중에 관을 묻고, 그 위에 흙으로 관을 덮는데 이때 사용하는 흙은 흙과 석회를 섞은 것을 사용한다. 그래야 물이 차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석회를 섞은 흙으로 관을 덮은 후에는 어느 정도 굵은 나무 장대로 바닥이 단단해 지도록 두드려 다진다고 한다. 그래야 산소가 탄탄하게 자리잡고 산짐승이 파지 못하고 비가 와도 괜찮다고 한다. 이렇게 나무 장대로 바닥을 다지는 일을 '달구질' 이라고 한다. 이것은 동네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이때 상주가 돈을 주어야 더욱 성의있게 그리고 탄탄하게 그 일을 한다. 여기에서 모이는 돈은 동네에

서 같이 사용한다고 한다.



달구질 중 회격을 만들고 있다.



달구질

(다) 묘터

이 동네에는 동네 뒷산과 주변의 산들에 세 성씨를 비롯한 각 성씨의 선산이 있어 이곳에 각 문중의 산소가 있다. 전주 이씨, 전주 김씨, 김해 김씨 등의 집안 묘소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산에 들어가면 많이 볼 수가 있다. 아마 400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대대로 살아온 동네이기에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닐까 한다. 특별히 풍1리 주변은 산이 나지막하고 별이 잘 들어 보는 이에게 ‘명당’ 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전주 김씨 선영



김해 김씨 선영의 고비(古碑)

(라) 상여와 상여집 이야기

건풍빌라에서 조금 동네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상여집이 있다. 평상시 상여를 놓아두는 창고를 ‘상여집’ 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아이들은 밤중에 이곳을 지나며 무서워하곤 하는데 무서운 곳은 아니라고 동네분들은 말씀하셨다. 외지에서 여행 중이던 사람이나 걸인들이 추위나 비를 피하여 자고 가기도 하던 곳이 이 상여집이다. 그런데 상여 도둑이 있어서 지금은 문을 잠가 둔다고 한다. 이 상여는 많이 만드는 물건이 아니라서 값이 꽤 나가는데, 몇 년 전에 상여를 한 번 도둑 맞아 마을 사람들이 돈을 각출하여 150만원 정도를 들여 종로5가에 가서 새 상여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 3) 설날 풍경에 대해서

풍1리는 설날이 되면 외지에 나갔던 자손들이나 일가가 다 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자신의 성씨 어른들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성씨를 가진 동네 어르신들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며 인사를 드린다고 말씀해 주셨다. 한 마을에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성씨들이 한 일가처럼 섬기고 아껴주는 '정 있는 마을'임을 자랑하시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식골 김해김씨 설날의 모습

### 4. 그밖의 이야기들

이 마을의 대표적인 세 성씨가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된 유래와 풍습 외에 특별한 음식, 전해 내려오는 인물에 대해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여쭙어 보았더니 대대로 농사만 지어오던 농촌마을이기에 특별한 인물은 없었노라고 말씀하셨고, 음식에 대해서도 이 동네가 특이한 특산물이 나는 동네도 아니고 이곳에서 해 먹는 음식은 다른 동네에서 해 먹는 음식이기에 마땅히 말해 줄만한 음식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동네는.... 이런 동네다.

풍1리 사람들은 김씨, 이씨, 허씨, 박씨, 최씨 등이 같이 살고 있지만 서로가 김서방, 이서방이라 부르지 않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면 성님,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한다. 여러 성씨가 살지만 오래 같이 살아오니 한 일가 같은 분위기인 것이다.

‘농사짓고 먹고 사느라고 특이한 풍습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동네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며 특이한 풍습은 없을지라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촌마을의 아름다운 미풍이 남아있는 동네가 이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얼마 후면 이 고립된 마을이 아파트 개발로 인하여 산도 논도 마을도 없어져 개방된 마을이 된다고 한다. 개발과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산과 가치, 아름다움이 소멸되고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동네를 정부의 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 주택 택지를 분양 받으면 다시 이곳에 돌아와 집을 짓고 살겠노라는 꿈... 그러면서도 함께 살아온 사람들 중에 땅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다시 이곳에 올 형편이 못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에 그들은 한 가족처럼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제보자 : 전주 이씨 이재록 할아버지(86세), 전주 김씨 김덕선 할아버지(70세) 외 3명  
장소 : 풍1리 노인정 1층, 조사기간 : 2004. 4. 10~5. 10)

#### [조사후기]

봄철을 맞아 이들은 다시 올해의 농사를 시작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이 이 땅에서 짓는 마지막 농사가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거두지 못하는 농사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어느 때처럼 씨를 뿌리고 모를 심는다. 조상의 숨결이 숨쉬는 터전에서 농군이기에 변함 없이 씨앗을 파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 생길 것에 대한 기대감과 가치보다는 사라져가는 소중한 자산들과 가치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한 것은 왜일까? 필자들은 이곳을 탐방하면서 이러한 동네가 우리 지역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 동네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마치 우리의 고향을 잃어버리는 듯한 아쉬움과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남는다.



방치된 농기계



잡초가 무성한 전답

## 다시 찾은 2004년의 식골 이야기

2004년 한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풍동 식골 마을을 찾았다. 마을 입구의 건풍빌라를 통해 진입하는데 많은 공사차량과 먼지, 그리고 사방에 깔여진 산, 베꾸어진 논과 밭, 무너지고 사라진 집, 불과 1년 전의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변해 있었다. 천주교 어린이 바다별 유치원을 지나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공사 차량의 주 진입로가 되었는데 간간히 고봉산의 안테나가 보여 이곳이 예전에 그 정겹고 살기 좋은 식골 마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골 마을에 자주 다녀간 적이 있어 마을의 지형과 지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마을 주민들이 이주 전에 풍동 식골 마을은 인근에서 유명한 명당자리이고 풍요로운데 이것은 마을에 토질이 훌륭해서 가능했다고 했다. 공사 현장을 기웃거리며 살펴본 토질은 과연 이곳이 선택된 마을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안산과 아랫말, 마을 회관과 방성머리 부분에서는 붉은 황토 토질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토질은 축축한 느낌이 들 정도였고 주먹으로 만져보니 잠시 뭉쳤다가 곧 마르는 순수 우리땅 토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포크레인이 파는 곳마다 선명한 자국이 그대로 남는데 먼지는 날리지 않고 축축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현재 택지와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며 아파트가 조금씩 지어진다. 철근과 시멘트를 이용하여 뼈대를 세우며 공사현장은 말 그대로 정신이 없다. 마을로 들어가다 보니 마을이 있던 중심부는 학교가 들어서는지 아파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만히 보니 이 학교의 운동장과 교실이 있던 곳이 마을회관, 대감나무가 있던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위험한 공사현장을 돌아 옛 안산 방향으로 가보니 거기에 대감나무가 남아 있었다. 고양시와 주민들의 요구로 본래 있던 장소에서 서쪽으로 약 150m 가량 이동한 곳이다. 이곳은 식골 공원이란 이름으로 보전되는 곳인데 그렇게 커 보이던 대감나무가 작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감나무에는 고목임을 감안하여 주택공사에서 수간 주사가 매달려 있다. 이 마을 식골 주민들의 상징과 같은 산신목이 터전을 옮기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듯한 모습이다. 나무 뒤로는 짙으로 만든 터줏가리와 엽양가리가 남아 있는데 주변에 북어포가 있는 것으로 주변에서 누군가가 보존하는 듯 했다.

나무 뒤로 올라 앞을 보니 아직 아파트가 많이 올라오지 않아 북한산과 동문아파트, 식사동이 보인

다. 고봉산도 한 눈에 들어오는데 다만 옛 풍동 주민들과 그의 집들은 찾을 수가 없다. 산에 있던 마을 나무들은 한곳으로 모여져 추후 공원이 만들어질 때 옮겨다 심는다고 전해 준다. 산이 가장 많이 깎인 곳이 예전 달맞이하던 달맞이산 일대다. 이 산기슭을 넘으면 바로 동국대병원으로 연결되는데 산을 많이 깎아서 낭떠러지가 되고 말았다. 산을 없애고 평지가 되고 보니 일산신도시와 성원아파트, 애니골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니 세원고등학교가 보인다. 소음과 먼지 속에서 남아 있는 학교의 모습도 곧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마을 쪽으로 더 들어가니 예전 정원가든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났다. 이곳에 잘 지어진 집과 건물이 남아 있고 마을을 내려다보듯 적송 한 그루가 단단히 서 있다. 이 소나무와 보존된 집, 그리고 작은 무덤들이 있음으로 하여 이곳이 예전 식골 마을의 주 도로 입구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밤나무 아래, 날기산 기슭에서 본 풍동 마을의 모습은 쓸쓸하고 황량하기 그지없다. 수백년간 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다가 떠난 마을, 깎이고 베어진 후 메꾸어서 높낮이가 없이 일정하게 다듬어 놓은 풍동 식골 마을의 모습을 보며 개발의 아픔과 고향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날기동산이 깎이어 황토흙이 노출되었다.

## 2006년 오늘날의 풍동 숲속 마을

오늘날 풍동 식골 마을은 단독주택지, 고층의 아파트 단지, 공원, 도로, 상가, 학교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풍동으로 진입하는 방법은 일산 신도시에서 연결된 백마로를 통해 들어올 수 있다. 동대병원과 애니골, 단풍마을 성원아파트에서도 풍동 택지개발지역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2단지와 6단지 사이의 도로를 경계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2단지 동쪽에 단독단지가 배치되어 있다. 2단지와 단독주택지 북쪽에 풍동지구 최대의 상가가 자리했다. 이 상가에서 8단지, 7단지로 이어진 도로를 따라 들어오면 서쪽에 5단지가 동쪽에 4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개발 전에 축동 밖에 해당하는 곳인데 5단지는 검바위골과 같이 산이 있던 곳이 되고 4단지는 주로 논과 밭이 위치했던 곳이다. 5단지를 지나면 풍동중학교가 나온다. 학교 주변에는 작은 어린이 공원이 있고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섰다. 학교는 이 아파트 숲속에 자리하는데 비교적 낮은 건물로 지어져 시야가 트여져 있다. 이 학교의 운동장과 건물이 예전 마을회관과 방성머리 가운데 마을에 해당한다. 예전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으나 서쪽으로 안산자락이 남아 있어 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풍동중학교 도로 건너편에 풍동초등학교가 있다. 예전에 운동장이 있던 곳이며 조금 더 올라가면 아름다운 교회가 있던 곳이다.

풍동중학교에서 백마부대 방향으로 올라오면 예전의 웃말에 해당하는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이 아파트 단지 끝에 또 하나의 단독주택 단지가 나온다. 동쪽으로는 세원고등학교로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다솜초등학교를 지나 애니로 연결된다.

아파트 사이 사이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소나무를 비롯한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다. 풍동의 마을 이름을 정하면서 숲속마을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나무를 심는다고 전해진다. 앞으로 공원이 모두 완성되면 공원 이름도 소나무 공원, 참나무, 산수유, 느티나무 등 나무 이름을 부여한다고 한다.

이들 공원 중에서 가장 큰 공원이 식골 중앙 공원이다. 예전 안산 일대의 산을 보전시키고 만든 공원인데 풍동 지구 한 가운데 위치한 비교적 큰 공원이다. 고봉산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공원 입구 남쪽에 식골 마을의 상징인 대감나무가 있다. 대감나무 부근에 식골 주민들이 건립한 애향비와 터줏가리, 업양가리가 만들어져 있다. 공원을 조성하여 주변이 잘 정돈되어 있다. 이 대감나무 아래로 넓은 보행자 도로가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조용한 숲속의 정감을 느낄 수 있다.

단독 택지 뒤편으로 오르면 정원가든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만난다. 우측에 무덤 한 기가 있고 그 서쪽에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이 부근에 개발 전부터 보존되고 있는 원주민의 주택이 있어 모든 마을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예전 달맞이산으로 오르면 잘 만들어진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중 가장 높은 곳에 풍월정이란 정자가 세워져 있다. 풍동에서 처음으로 달을 보고 달맞이를 하던 유래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에서 내려다보면 식사동과 동국대불교병원 일대는 옛 모습이 잘 남아 있으나 식골 마을은 완전히 아파트촌으로 그 모습이 바뀌었다. 깨끗해지고 정리 정돈된 모습은 시대의 흐름이나 정겨웠던 이웃과 한옥 집, 나무와 숲, 새와 꽃을 볼 수 없어 실향의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



웃말 고개에서 내려다 본 식골(2006)



식골의 오늘날 모습(2006)

## 마을 사람들



1950년대 식골 전주 이씨 친지 모습(이강준 씨 댁)



1970년대 식골 전주 김씨 회갑연(김기현 씨 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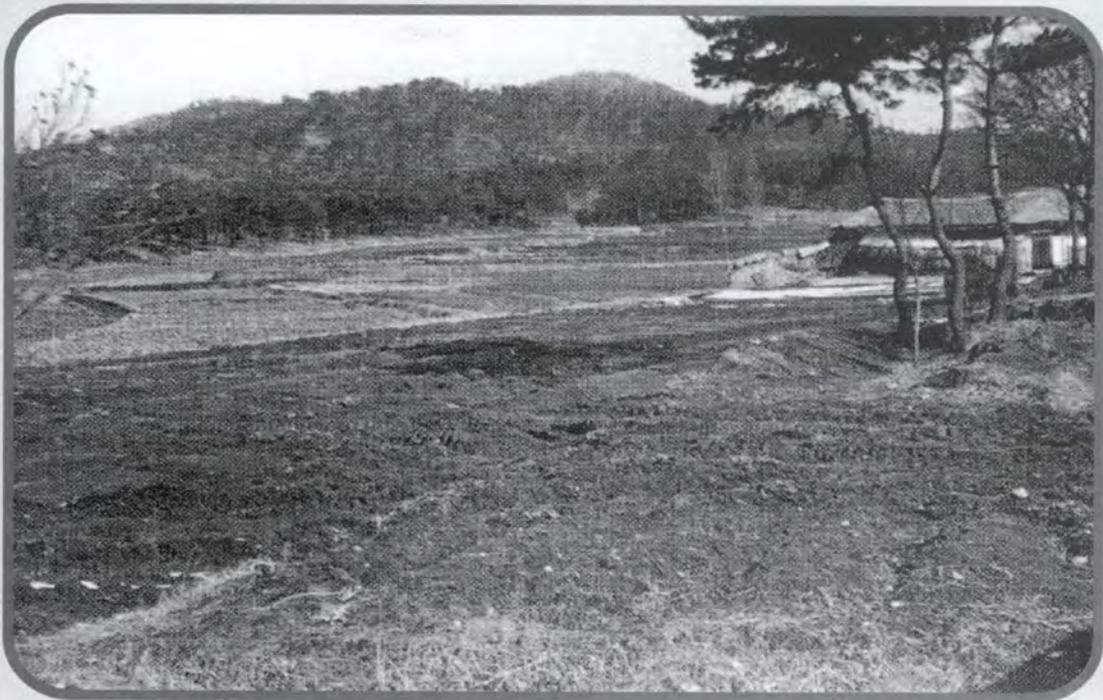


1980년대 김해 김씨 혼례식(김규태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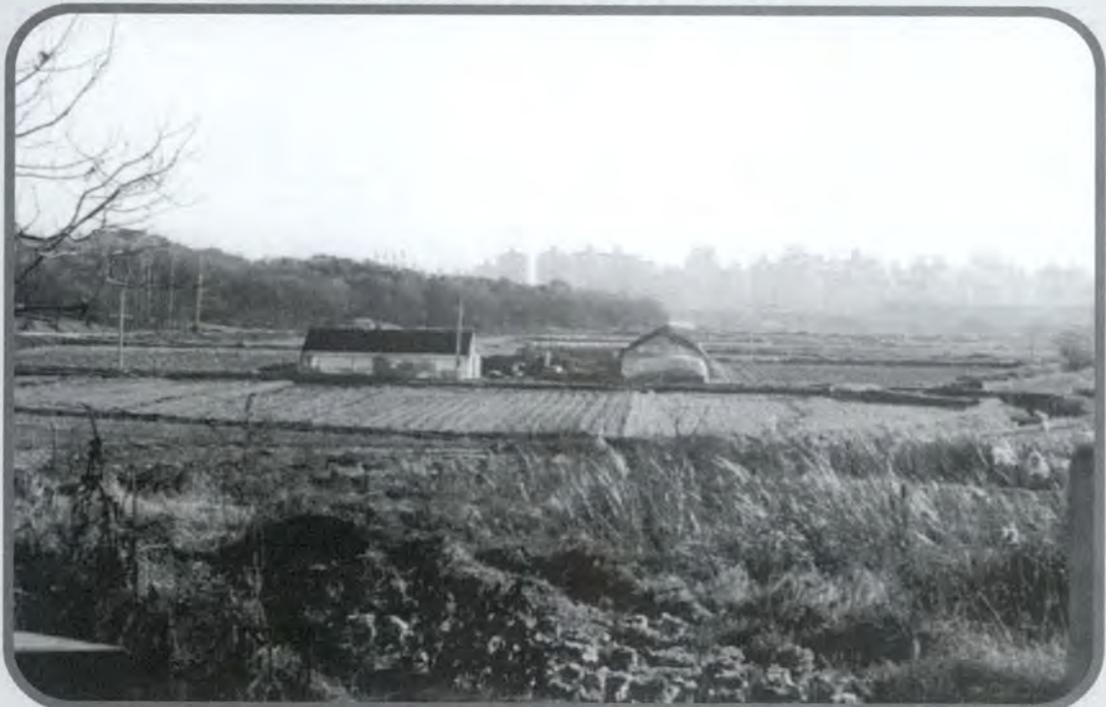


식골 노인정 할머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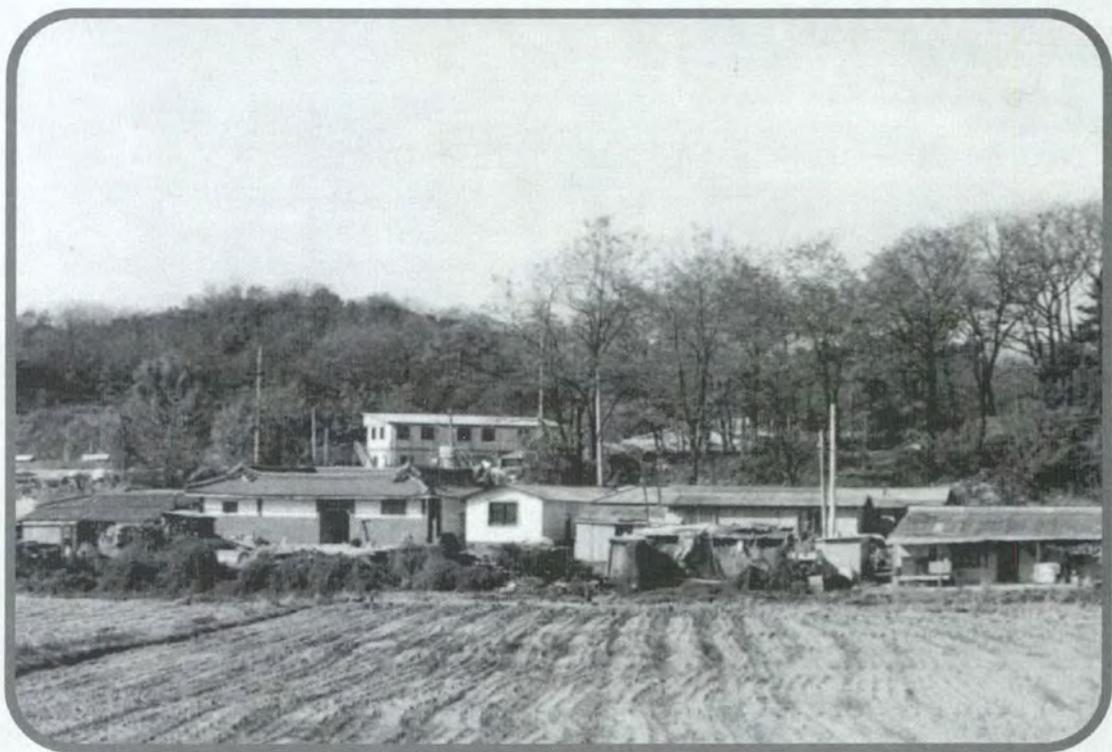
## 마을의 소지명



사단사령부가 들어 서 있는 쥐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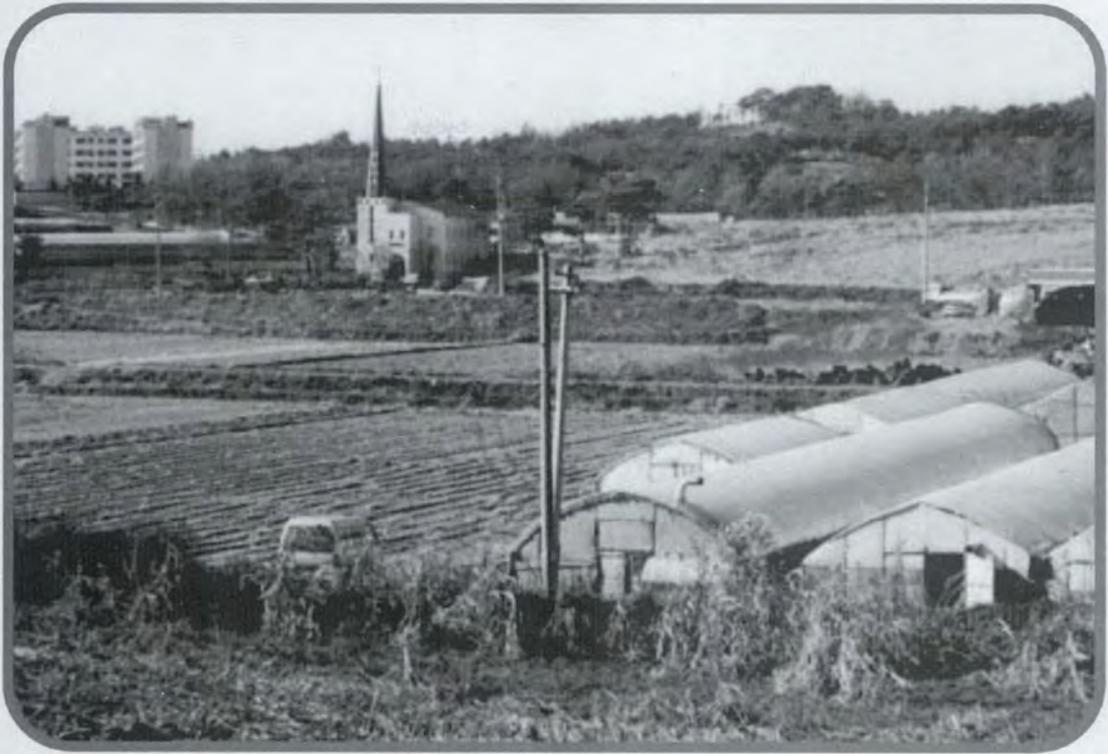
너먼들 벌판(일산 신도시 백마 마을이 보인다.)



애니 마을



까페촌이 들어서기 전 산악골 골짜기



민마루에서 본 매봉재( 작세미논, 신상골 골짜기, 신혼아파트가 보인다.)



매봉재 일대와 풍산초교(단풍 마을 성원아파트에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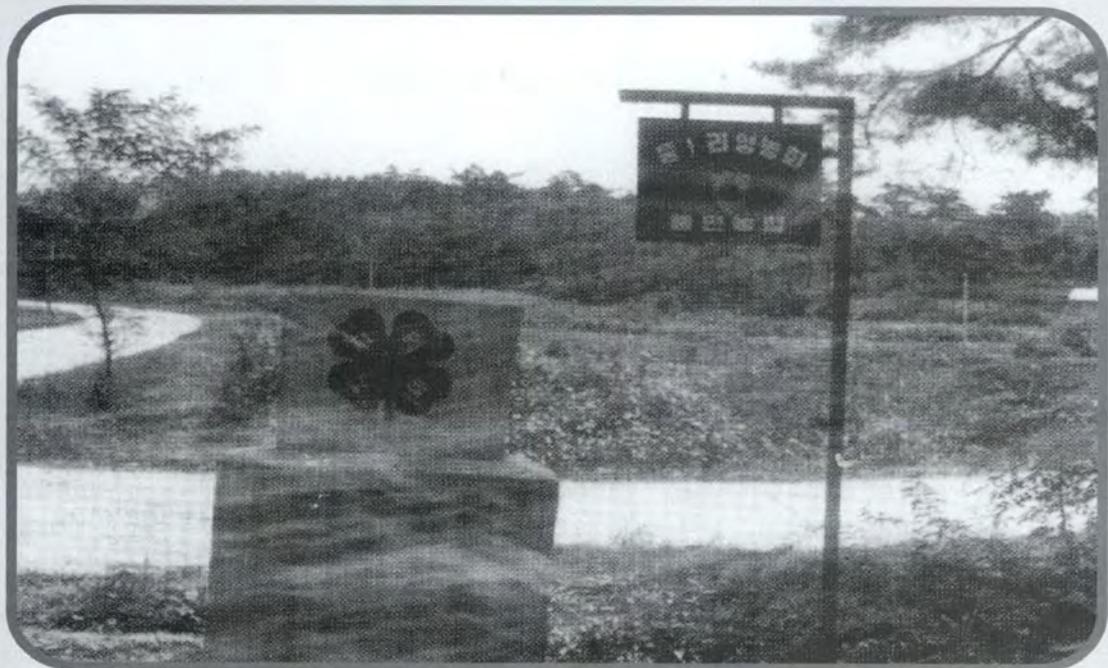


철거로 황량해진 신상골과 검박골



건풍빌라와 마을 입구

## 식골 청년들



4H 기념비



4H 회원들(1970년대 초)



장흥유원지에서 귀가하는 모습  
(경운기는 농기구로 뿐만 아니라 농촌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뒷동산의 마을 청년들(1970년대)



청년회 가족 등반



조기축구회



당수골 고개를 넘으며(아래 보이는 길은 신작로)



# 변화하는 마을의 모습

(연대별, 동일 장소에서 촬영)



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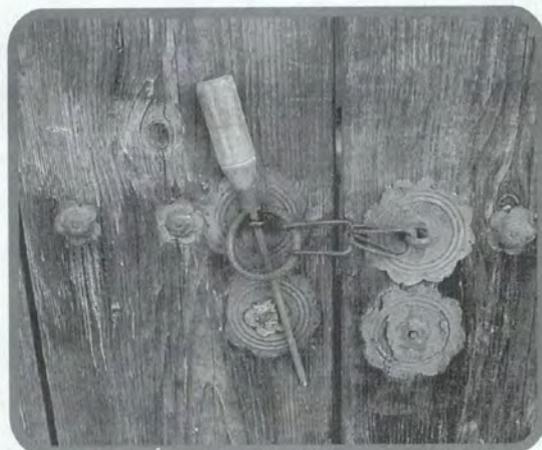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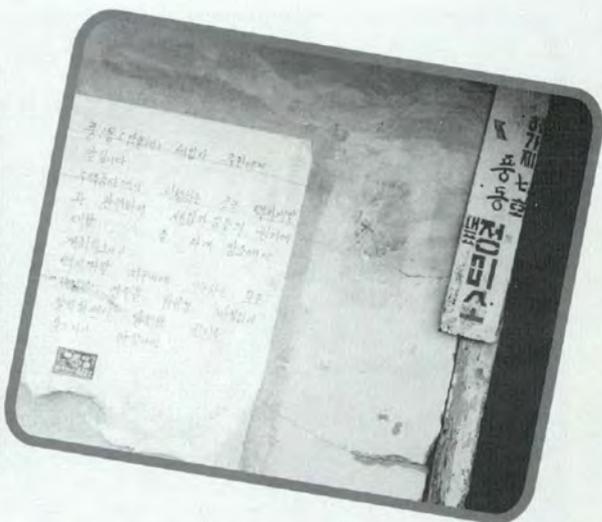


1970년대



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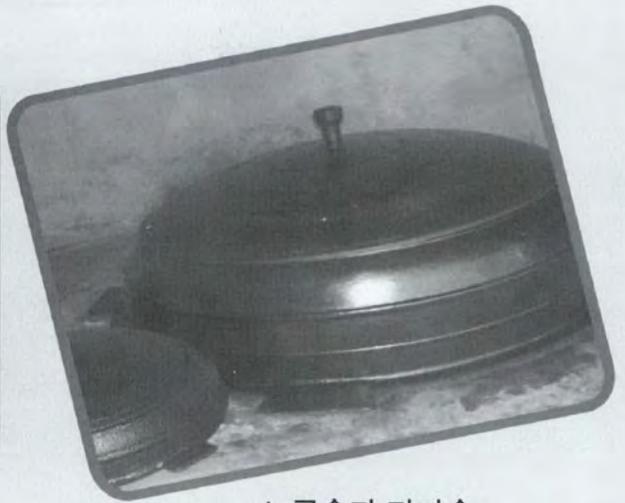
현판 · 대문 · 문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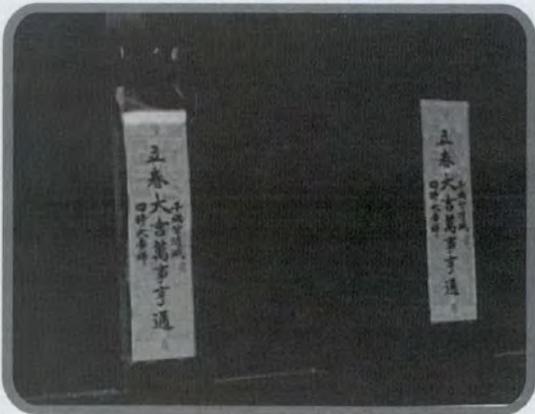
# 사라진 옛 풍경



명석 위에 말리고 있는 나물



노구솔과 가마솔



입춘대길 발원문



벽체 문양



화장실과 두엄더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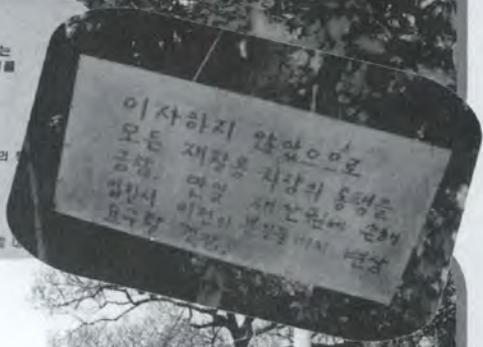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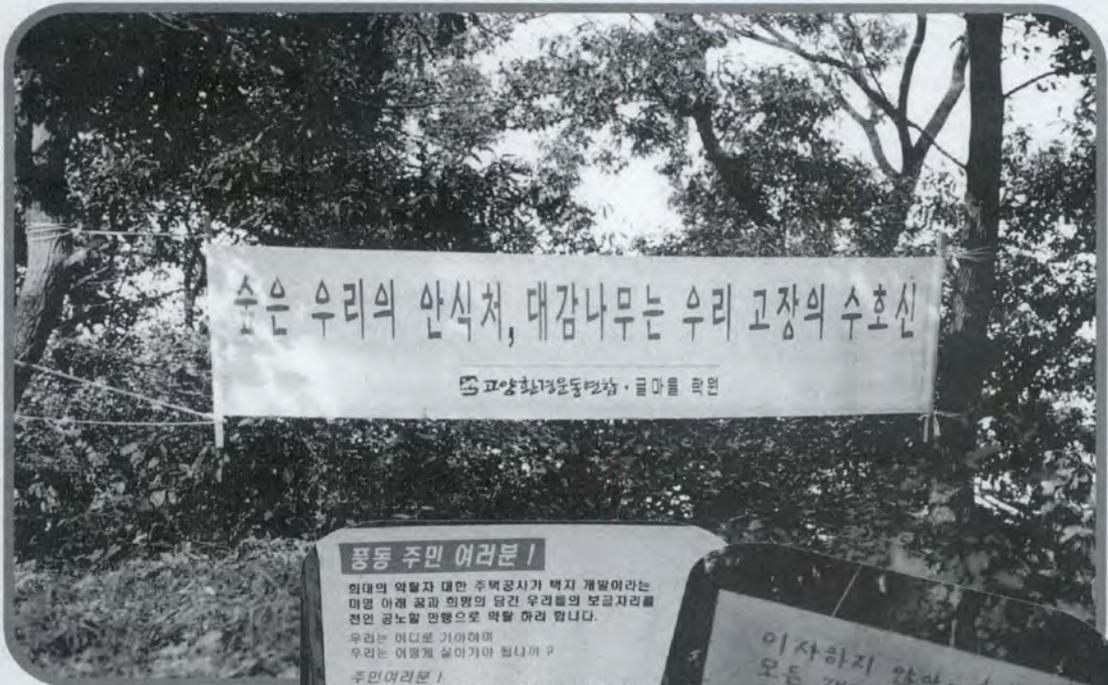


재래식 화장실 내부

# 농기계(농기구)



# 마을을 수호하려는 주민들의 외침



이전 후의 대감나무



풍/동/식/골/의/민/속  
고 향 이야기

|                      |     |
|----------------------|-----|
| 풍동 식골 사람의 일생의례 ..... | 152 |
| 마을의 세시풍속 .....       | 183 |
| 가신신앙과 마을신앙 .....     | 192 |
| 마을의 통과례 .....        | 204 |
| 마을의 옷 이야기 .....      | 216 |
| 마을 주민의 삶 .....       | 219 |
| 마을의 의생활 .....        | 223 |
| 마을의 음식 문화(1) .....   | 235 |
| 마을의 음식 문화(2) .....   | 239 |
| 마을의 장례 이야기 .....     | 247 |



## 풍동 식골 사람의 일생의례

박전열(중앙대교수) / 한국민속학회장

### 1. 풍동 마을의 인생의례

풍동 마을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정과 마을을 중심으로 일생에 여러 가지 의례를 치르며 살아왔다. 출산에서부터 성장하여 혼인하고 가정을 이루어 나이에 알맞은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치르고, 후손들은 조상을 제사지내는 등 사람의 일생은 절기마다 다양한 모습의 의례를 치르며 살아가는데 이를 '인생의례'라 한다.

자신의 직업이나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의례의 절차가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지만, 인생의례의 기본적인 틀은 거의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풍동 마을은 농작을 생업의 중심으로 삼으면서 인생의례의 진행 과정도 농경문화의 밀접한 관련 아래 전개되었다.

근대화 과정에 다른 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이들과 더불어 타지역의 관습이나 생활 방식이 마을의 모습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기부터 시작된 일산 신도시의 건설과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도시화 현상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전통적인 지역의 문화가 빠른 속도로 변질되거나 자취를 감추었다.

특히 2004년을 계기로 마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며 오랜 역사를 지닌 마을이 해체되고 마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짐에 따라 풍동 마을의 민속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일부는 인근 지역에 주거지를 옮겨 살면서 때때로 마을에서 나누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만들었으나, 이전의 정든 마을은 추억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 체험했던 인생의례를 기록하고 정리함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여기 실린 풍동 마을의 인생의례는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시행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 2. 출산과 성장

### (1) 출산

요즈음에는 대부분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을 하지만, 병원에서 해산하는 일이 일반화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젊은 부부가 독립하여 일가를 이루는 경우에는 많고, 친정이나 시집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해산하는 일이 많으며, 고양시에도 병원이 많이 생긴 이후로 당연히 출산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출산한 부인과 아기를 돌보아주는 일을 산바라지라 하는데,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산바라지를 해주며, 여자 자매가 거들어주기도 하였다. 예전에는 해산이 가까워지면 산부는 친정집에 가서 아기를 낳는 일이 많았다. 시집에서는 시집식구들의 눈치도 보아야 하고, 다른 가족이 일하고 있는데 자신만 오랫동안 몸조리를 한다고 누워 있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친정에서 출산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친정이 너무 멀어 가기 힘든 경우나 친정에 돌아가도 편안히 출산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시집에서 출산해야 했다.

어떤 집에서는 출산하러 친정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본인도 친정에 돌아가서 해산하고 싶지만 친정에 가지 못하고 시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집에서 해산하기 직전까지 가사를 돌보고 일을 시키기 위하여 며느리를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경우 출산 후 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별로 쉬지도 못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여 건강을 크게 상하는 경우도 많았다. 요즈음 할머니들 가운데는 아기 낳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부엌에 나와서 밥을 지어야 했던 경우가 많고,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대개 첫아이 만큼은 친정에 가서 낳는 일이 많았다. 더러는 출산 후에 아기의 백일을 친정에서 보내고 시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아기를 낳기는 했지만 집안일이 바빠서 자신도 아기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영아 사망률이 높았다.

아기가 태어나면 배냇저고리를 입히고 반듯하게 눕힌다. 배냇저고리는 대개 집에서 만드는데, 따로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옷이불 조각으로 싸서 아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싸두기도 한다. 배냇저고리는 여름에는 광목으로 만들고, 겨울에는 용으로 만드는데, 산부가 미리 만들어두기도 하고,

아기를 낳은 직후에 옷감을 마련하여 손수 바느질하여 만들기도 했다. 배냇저고리는 아기가 최초로 입는 옷이라 하여 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풍습이 있다. 배냇저고리가 서너벌 있는 경우에도 가장 처음으로 입었던 옷에 특별한 의미를 둔다. 이 옷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며, 시험치러 가는 사람이 지니고 시험장에 가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하여, 배냇저고리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가는 경우도 있었다.

아기는 3일만에 목욕을 시킨다. 첫 이레날 즉 출산 후 7일째 되는 날에는 시어머니가 만신집에 가서 아기의 수명장수를 비는 집안이 있다. 만신에게 갈 때는 쌀 한 말 정도를 사래로 가지고 가면, 만신은 아기의 수명장수를 빌어준다. 해산할 시기가 마침 집안의 제삿날인 경우가 있다. 이 때는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촌이나 가까운 친척집에 가서 아기를 낳기도 했다.

## (2) 백일잔치

아기가 탄생하여 100일을 무사히 맞이하면 출생 이래 큰 고비는 넘겼다고 여겨 축하하는 잔치를 연다. 백일잔치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성대하게 하기도 하지만, 대개 삼신에게 이후에도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축원하고, 가족과 가까운 이웃이 백일음식을 마련하여 나누어 먹으며 축하하는 정도로 한다.

농가에서는 백일음식으로 수수경단을 만들어 가족과 이웃이 함께 먹는다. 백일 아기의 무병장수를 빌기 위하여 머리맡에 상을 차려준다. 상에는 미역국, 밥 한 공기 정도를 차려놓고, “삼신자손 우리 아기 병 없이 쑥쑥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우면서 합장을 하거나 손을 비빈다. 집에 따라서는 국 3그릇, 밥 3그릇을 올려놓기도 한다. 이는 삼신할머니에게는 3그릇을 드려야 한다는 말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상에 차려 놓았던 음식은 내려서 아기 어머니가 먹으면 삼신할머니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3) 돌잔치

아이들의 돌잔치는 ‘대동을 풀어 먹인다’ 고 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동네 어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 초청하여 대접해야 좋다고 한다. 노인들이 계시는 경우에는 자손의 번창함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돌잔치를 크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크게 돌잔치를 열지 못하는 경우에도, 아기의 살이 풀리기를 기원하여 백설기 위에 메밀떡을 장식으로 올려놓고 축수하는 관습이 있다. 메밀떡은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어 끓는 물에 넣어 삶는다. 메밀떡은 맛이 좋지 않지만 액을 막는 데 효험이 있다 하여 조그맣게 장식해 두었다가, 백설기를 먹을 때는 거둬내고 먹지는 않는다.

요즈음에는 대부분 돌빔을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구입하여 입히지만, 돌빔은 모친이나 시어머니가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돌빔의 모양과 색깔은 대개 정해져 있었다. 남색 공단으로 조끼를 만드는데 등에는 함박꽃을 수 놓고, 양회색바지, 분홍저고리, 타래버선에는 수를 놓고 뽕족한 코 끝에 빨간 색실로 장식한다. 복주머니는 귀주머니 혹은 염낭이라고 하는데 빨간 색이나 감색 비단 조각으로 주머니를 만들고 목단 한 송이를 수 놓으며, 돈이나 반지를 받으면 여기에 넣어준다.

돌상을 차릴 때는 떡을 올리는데, 백설기와 인절미, 수수팥떡은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돌상을 차리고 아기를 상머리에 앉혀놓고 어른들이 상 주변에 둘러서서, 아이의 장래를 점치며 축복하는 의미로 돌잡이를 한다. 돌잡이는 돌상잡이라고도 하며 하객들과 더불어 흥겹게 분위기를 돋운 다음에 돌상잡이를 한다. 상 위에는 공책, 연필, 붓, 활, 실, 국수, 주발에 담은 쌀 등을 아기의 손이 닿을만한 자리에 올려놓고 아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물건을 집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아기의 장래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여 어른들은 아기가 무엇부터 집을까 흥미진진하게 바라본다.

아기가 공책, 연필, 붓 등을 집으면 '그놈 이 다음에 공부를 잘 하겠구나' 혹은 '이 다음에 정승 판서를 하겠구나' 라고 하며, 모양으로 만든 활을 집으면 '그놈 이 다음에 장군이 되겠구나' 하며, 실을 잡으면 '목숨이 길겠구나' 혹은 '수명 장수 하겠구나' 라고 한다. 아기가 국수나 쌀을 집으면 '그놈 먹을 걱정 않고 잘 살겠구나' 혹은 '그놈 부자로 살며 호의호식 하겠구나' 라고 말하며 이야기 거리로 삼는다. 이 때 장래를 점치는 말은 모두 '잘 되겠구나, 잘 살겠구나, 오래 살겠구나, 걱정 없이 살겠구나' 라는 등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서 아기와 그 가정을 축복한다. 이는 서로 축복해주며 잘 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축하의 말이라고 생각된다.

돌잔치를 대동으로 한다고 할 때는 큰 잔치를 벌려 많은 사람을 초대한다는 뜻인데, 가까이 살고 있는 가까운 친척들의 경우에는 아침에 와서 아침을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며 놀다가 점심식사까지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축하객이 돌아갈 때는 떡을 싸주면서 미처 오지 못한 노인이나 다른 식구들에게 먹으라고 봉지에 싸서 보낸다. 2~30년전까지는 보통 농가에서도 돌잔치 때는 떡 7, 8말을 하여, 잔치 자리에서도 많이 먹고 많이 싸서 돌려보냄으로써 널리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돌잔치에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이웃에는 저녁 무렵에 쟁반에 떡을 담아서 보낸다. 예전에는 떡을 받은 집에서는 대개 쟁반에 실타래를 담아서 돌려보냈으나, 오늘날에는 현금이나 현금을 넣은 봉투를 함께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다.

돌잔치에 오는 손님들은 무언가 선물을 가지고 오는 풍습이 있다. 농가에서 현금이 귀하던 시절에는 축하로 돈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 실타래를 준비해 두었다가 하나씩 가지고 가서 선물했다. 일반 가정에서 실은 필수품이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환영받는 요긴한 선물이 되었다. 더구나 실은 길고 칭칭 감기기 때문에 길다란 것, 감싸고 있는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수명장수, 복이 감싸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물건으로 선호되었다. 실타래를 선물로 가지고 온 사람 가운데는 실

타래를 목걸이처럼 아기의 목에 걸어주며 장수를 빌기도 했다.

근년에는 집에서 돌잔치를 하지 않고, 연회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봉일천, 구파발, 원당, 원일산, 일산 신도시 등에 대규모 식당이나 뷔페를 이용하였다.

연회장을 빌리는 경우, 굳이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도 저녁 시간에 손님을 모시고 돌잔치를 연다. 아기의 부친이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일가친척과 친구는 물론 직장의 상사나 동료까지 초대하여 성대하게 여는 일이 많다. 뷔페에서 열 때는, 뷔페에서 마련해 둔 축하 순서를 따르는 일이 많다. 축하객들은 입구에서 자리를 안내받아 축하 순서에 참가한 뒤에 식사를 한다. 축하 순서는 아기 부모가 인사말을 하고, 생일케익을 자른 다음, 돌상잡이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아기는 돌빔을 입고, 부모와 직계 가족은 대개 한복을 입고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낸다. 축하객은 부모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정성껏 축하의 뜻을 표시하게 된다.

첫돌 이후의 어린이 생일은 특별한 잔치를 열지는 않지만, 가정에 따라서는 수수팥떡을 만들어 먹으며, 어린이의 무병장수를 빌기 위하여 축수를 한다. 축수는 할머니나 어머니가 마당에 나가서 삼신이 있다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 아기 아무개 밥 잘 먹고 잘 크고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라고 축언하면서 손을 비비면서 떡을 바친다는 뜻으로 사방에 던진다.

#### (4) 관례와 성년식

전통 사회에서는 성장하여 성년이 되면 남자는 관례(冠禮)를 행하고, 여자는 계례를 행함으로써 성인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의무와 권리를 깨닫고 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풍동 마을에서는 특별한 성인의식을 치르지 않고, 어른으로서의 신체적 능력을 지니고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되는 시기에 성인이 된 것으로 여겼다.

#### (5) 입대 환송

남자들에게 병역의 의무는 오랜 역사를 지닌 사회적 역할로서 가족과의 이별, 군대생활을 통한 신체의 단련과 세계관의 확대 등 성장 과정에 주요한 변화를 맞이한다. 오늘날에는 남자들은 19세가 되는 해에 입영 대상자로서의 신체검사를 받고 20세가 되는 해에 입대하여 약 2년반 정도 복무한 뒤에 제대하게 된다. 1960년대까지는 복무 중에 많은 위험을 당했기 때문에 마을과 가족 단위로 입대하는 장정들에게 성대한 환송 절차를 치렀다. 마을에 따라서는 돼지를 잡고 가까운 친척과 이웃을 불러 환송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본인은 마을의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큰절로 작별인사를 올렸다.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은 무운장구를 빈다는 뜻으로 어깨띠를 만들어 본인에게 걸어주었으며, 떠나는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입구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며, 친구들과 가족은 기차로 떠나는 사람을 배웅

하기 위하여 일산역이나 능곡역까지 나가서 작별하였다. 이전에 비하여 군대 생활에 위험성이 적어진 오늘날에는 이전과 같은 환송 절차는 없고, 가족 단위로 환송 절차를 가지며, 이웃집 어른에게 인사를 하고 떠날 정도로 간소화 되었다.

### 3. 혼례

혼인은 인륜대사(人倫大事)로써 인간의 생애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기며 신중하게 진행하며 또한 경사스러운 일로 여긴다. 남녀는 혼례를 치름으로서 완전한 성인으로서 대접 받으며, 가정을 이루어 가족에게 대한 의무도 감당해야 한다.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은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할 도리로 다하는 것이라 여겼다.

풍동 마을에서 혼인 상대를 찾는 방식으로는, 이전에는 중매를 통하는 일이 많았으나 요즘은 연애결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혼인 상대를 찾는 범위로는 고양 관내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나, 인근 지역에서 맞이하는 경우에는 파주, 양주, 김포 등지에서 친척이나 친지의 소개로 중매 과정을 거쳐 혼인이 이루어졌다.

혼례 절차는 살림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일대에서 하는 절차와 거의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 왔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인 절차로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도입되어 오늘날에도 그 전통이 전해지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서구의 결혼식과 일본의 결혼식이 유입되어 이른바 신식 결혼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 (1) 혼담과 선보기

남녀가 혼인할 나이가 되면 일가친척이나 친지를 통하여 중매인을 구하여 상대방을 찾아 양가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이를 '혼담이 오간다' 고 한다. 신랑 신부가 직접 선을 보는 일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고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어른들이 혼담을 정하여, 본인들은 결혼식 당일에 비로소 상대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혼담이 들어오면 먼저 연령별 간지를 따져 맞추어 보고, 사주를 따져 궁합을 맞추어 본다. 궁합은 결혼 후에 가정을 원만하게 꾸려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인데, 엄하게 따져 결혼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년에는 궁합보다 상대방의 교양, 가문, 품행 등을 중요시하여 결정하는 일이 많다.

결혼하기를 결정하면 신랑 측에서 신부집으로 사주를 보낸다. 사주란 사주단자를 줄여서 히는 말이며, 종이 한 가운데 신랑의 사주(四柱)인 생년·월·일·시의 4간지를 적어 5번이나 7번 접어서 백지에 싸고 봉투에 넣어 청색과 홍색 2개의 보자기에 싸는데, 청색이 겹에 오도록 한다. 사주를 신부집에

보낼 때는 사주와 함께 옷감 한 벌을 함께 보내기도 한다. 사주를 전달하는 역할은 마을 사람 가운데 다복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중매인이 하거나, 신랑이 직접 가지고 가는 예도 있었다. 신부집에서는 돛자리를 깔고 사주를 받아놓는데, 신부의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오빠가 사주를 펴서 확인하며 신랑의 앞날에 대하여 점을 치기도 한다. 사주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술과 안주를 내어 대접한다. 신부집에서는 사주를 잘 보관하였다가 혼수짐과 함께 시집으로 보내며, 신부의 옷장에 넣어 오랫동안 보관한다.

사주를 받은 후에 혼인식 택일을 하는데, 양가에서 불길했던 달과 6월이나 12월을 피하며, 일진이 좋은 날, 주당살을 피한 날을 택하게 된다. 택일을 받은 신랑집에서는 혼인일까지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이 풍습은 대체로 근년까지도 지켜졌다.

## (2) 혼례식

혼인일이 되면 신랑이 신부집으로 혼례식을 올리러 갔다. 1960년대까지도 전통적 혼인식이 많았는데, 신랑은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정식이었다. 민가에서는 말이 귀했기 때문에 부유한 가문이 아니라면, 말 대신에 트럭을 타고 가거나 가마를 타기도 하고, 걸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경의선 연변의 능곡, 일산, 탄현, 파주 등지에서는 기차편을 이용하는 신랑도 있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이 예식장에서 혼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능곡역, 일산역 일대의 예식장을 이용하거나, 여유있는 가정에서는 서울의 불광동의 예식장을 이용하였다.

신랑이 신부집에 갈 때는 함진애비, 신랑의 아버지, 작은아버지, 형님, 일꾼 등이 동행한다. 함진애비는 혼서지(婚書紙)와 채단으로 치맛감을 넣은 함을 지고 간다. 신랑일행이 신부집 근처에 도착하면 신부집에서 정해둔 일종의 대기소인 새처에 머물며 시간을 기다린다.

혼인식 시간이 되면 신랑은 준비해 가지고 온 관복을 입고 사모를 쓴다. 함진애비는 함을 판다고 하여, 먼저 신부집에 함을 전해준다. 함은 선뜻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실랑이를 하며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겨우 건네주거나 빼앗기기도 한다. 요즘에는 혼인식이 열리기 며칠 전에 신랑의 친구가 함진애비가 되어 밤에 신부집에 찾아가 함을 파는 의식이 열리기도 하는데, 함진애비와 친구들이 신부집 가족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술과 안주와 노자로 대접받고 함을 건네기도 한다.

전통적인 혼인식은 신부집의 마당에서 거행하는데 이곳을 대례청이라 한다. 바닥에는 멍석이나 이엉을 깔고 대례상을 차린다. 새처에서 대기하던 신랑은 초롱꾼의 인도를 받아 신부집으로 들어갈 때, 목기러기를 들고 들어간다. 목기러기는 코에 청홍색실을 끼우고 대추를 달아매고, 청홍보자기의 홍색이 드러나도록 쓴다. 신랑은 대례상 앞에 서서 집례자의 지시대로 2번 절을 하고 목기러기를 상위

에 놓아둔다. 이런 과정을 전안례(奠雁禮)라 하며 목기러기는 신랑 신부가 시집에 올 때 보내준다.

신랑이 전안례를 마치고 병풍으로 가린 대례상을 향하여 3걸음 물러나 있으면 신부가 원삼에 족두리 차림으로 2여자의 부축을 받으며 나온다. 이때 대례상 앞의 병풍을 치우고 신랑도 2남자의 인도로 대례상 앞으로 간다. 신랑과 신부가 첫 대면을 한 뒤에 신부가 먼저 3번 반 큰절을 할 때, 신랑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절을 받으며, 다음에 신랑이 2번 반 큰절을 하면 신부는 앉아서 절을 받는다. 이를 교배례(交拜禮)라 한다. 교배례에 이어서 신랑과 신부가 합환주를 나누어 마시는 합근례(合近禮)를 한다. 신부는 앉아서 신랑측이 주는 술잔을 입에 조금 대는 척했다가 신랑에게 건넨다. 신랑은 조금만 마시고 퇴주 그릇에 붓는다. 다시 신랑 측에서 술 한 잔을 따라서 신부에게 보내면 신부는 입에 대었다가 퇴주 그릇에 붓는다. 이런 식으로 두 번 반복한 뒤에, 세 번째 잔은 서로 받아 마시고 안주를 먹음으로써 합근례를 마친다. 합근례는 술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부부로 결합된다는 상징적 의례이다. 이 과정까지를 대례(大禮)라 하며 대례가 끝나면 신랑은 사모관대를 벗고 신부집에서 준비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큰 상을 받는다.

신랑과 신부를 잠깐동안 한 방에 있게 한 다음에 신랑만 나와서 처가의 어른들과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새처로 가서 함께 왔던 어른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술을 올린다. 신랑은 저녁이 될 때까지 친구나 처가의 친척들과 술을 마시면서 신방에 들어갈 시간까지 기다리며 논다.

신랑 신부는 신부집에서 첫날밤을 보내는데 이를 '신방차린다' 고 한다. 손님들이 돌아간 저녁에 신랑 신부는 신방에 들어가 첫날밤을 맞이한다. 신랑은 방에 들어가 촛불을 끄고, 신부의 옷을 벗기고 함께 자리에 들게 되는데, 신방의 문에 구멍을 내어 들여다 보는 것을 '신방을 지킨다' 고도 하고 '신방을 엿본다' 고도 한다.

신부집에서 3일 지낸 후에 신랑 신부는 시집으로 가는데 이를 우귀(于歸)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례식 당일에도 우귀하기도 하고 달을 묵히거나 해를 묵혀서 온다 하여 여러 달을 신부집에 머무는 경우도 있었다. 우귀할 때,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말이 귀하던 시대에 신랑은 걷고, 신부만 가마를 타기도 했다. 신부집에서는 시댁에 보내는 예단으로 시부모와 시삼촌, 형제들의 옷을 준비하고 떡과 과일도 시집으로 함께 보냈다.

### (3) 시집살이

신부는 시집에 도착하면 신방에 들여보내고, 큰 상을 받는다. 이 상에 올렸던 음식은 거의 그대로 물리는데, 음식은 친정으로 보내어 친정집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도록 한다. 신부는 큰 상을 물린 후에 시댁의 어른들에게 첫 인사를 드리는데 이를 폐백이라 한다. 집안에 사당이 있는 경우에는 사당 참배를 먼저 한다. 신부는 친정에서 가지고온 술·닭·밤·대추 등을 차려놓고 시부모로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큰절을 하고 술을 올린다. 며느리에게 절을 받은 시부모는 신부의 치마폭

에 대추를 던져주며 아들딸 많이 낳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한다.

폐백을 드린 이튿날 아침 신부는 일어나 몸단장을 하고 시부모님에게 문안인사로 큰절을 한다. 시집은 지 3일만에 '3일 입주'라 하여 신부가 부엌에 가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안 형편에 따라서 바로 다음날부터 부엌일을 시작하기도 한다.

시집살이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친정에 가는 것을 근친(覲親)이라 한다. 근친갈 때는 시집에서 마련해주는 떡이나 술을 가지고 신랑 신부가 함께 가는데, 때로는 신랑만 먼저 돌아오고 신부는 친정에서 쉬다가 오기도 한다. 쉬다가 돌아올 때는 친정에서 떡이나 술 혹은 시집어른에게 드릴 반찬 등을 해 가지고 친정아버지나 오빠와 함께 시집으로 돌아오는데, 근친을 마침으로써 비로소 혼례의 과정을 마쳤다고 여긴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결혼식은 현재 80대, 70대 노인들이 체험한 과정이며 일부 60대, 50대의 경우는 현대적인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혼인의식 자체만 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식을 하지만, 결혼 전체의 과정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재의 50대 이하의 부부는 대다수가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주례자를 모시고 진행되는 현대적인 결혼식을 치르고 있다. 풍동 마을에서 가까운 곳으로는 일산, 능곡, 원당, 벽제 등지에 예식장이 있어 주말에는 많은 결혼식이 진행된다. 양가의 합의로 결혼식 일정이 정해지면 당사자들이 결혼식장을 정하고, 청첩장을 만들어 양가의 친척들과 친지들에게 인편이나 우편으로 보낸다.

일반적으로 신랑이 장남인 경우는 시댁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따로 살거나 단기간만 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분가하는 경우도 있다.

#### (4) 현대의 결혼식

결혼식은 결혼식 전문 예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신자의 경우는 시찰이나 교회, 성당에서 종교 의례에 따른 결혼식을 한다.

현대의 결혼식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결혼식이 시작되면 사회자가 신랑 신부의 약력을 소개하며 개회사를 하고, 양가의 어머니 나란히 입장하여 신랑 어머니는 왼쪽으로, 신부 어머니는 오른쪽으로 무대에 올라 촛불을 켜다. 주례의 약력이 소개되면, 신랑이 입장하고 이어서, 신부가 입장한다. 신랑과 신부가 맞절을 하면, 주례가 '신랑과 신부는 신랑과 신부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겠는가'라고 묻고 이에 답함으로 결혼서약을 받는다. 이에 주례는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는 성혼신언문 낭독한 뒤, 주례사를 한다.

주례사는 대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라는 격려와 축하의 말로 이루어진다. 신랑 신부가 그간 길러주신 신부 부모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이어서 신랑 부모님에게 인사 올린 뒤, 하객에게도 인사를 올린다. 축가, 축전 낭독 등의 축하 순서에 이어 신랑 신부

가 팔을 끼고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여 첫발을 내딛는 행진을 하며 하객들이 박수를 보냄으로 결혼식을 마친다. 결혼식을 마치는 대로 기념촬영을 하고, 예식장 안에 마련된 폐백실에서 시집 어른들에게 큰절로 인사를 올린다. 큰절은 시부모와 시부모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고 신랑의 형제들에게도 한다. 어른들은 신부에게 큰절을 받으면 대추를 던져주면서 아들딸 많이 낳고 화목하게 살라고 덕담을 한다. 어떤 집안에서는 대추와 함께 신혼여행에서 쓰라는 명목으로 돈을 봉투에 넣어 주기도 한다.

신혼여행은 4, 5일간 국내의 관광지에 다녀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외국의 관광지를 신혼여행 대상 지역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다. 외국 관광지로는 동남아시아나 태평양의 휴양지가 선호되는데, 한국을 벗어나서 외국에 간다는 호기심과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일이 차츰 일반화되고 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집 어른들과 친정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나서 생업에 복귀한다. 시집에 들어가서 시부모를 모시게 되는 경우, 시집살이를 시작하는 날 아침부터 문안인사를 드리는데, 대개 부모들은 하루나 이틀만 문안인사를 받고, '자네 뜻을 잘 알겠네. 내일부터는 문안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네.' 라고 하여 신부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준다. 신랑 신부는 친척 어른들을 찾아 인사를 다니기도 하고, 집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시집 식구들을 익히고자 한다. 신랑의 직장 동료나 친구를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면서 신랑측의 사람들을 익혀나가게 된다.

#### 4. 수연례

신랑 신부는 가정을 이루어 생활해 나가는 동안에 아기를 낳아 식구도 늘어나고, 사회에서는 자신의 일에 종사하면서 보람을 찾는다. 요즘의 젊은 부부들은 과거와 달리 자신들의 결혼기념일이나 아이들의 생일을 기억해 두었다가 외식을 하거나 가족 단위로 축하행사를 하기도 한다. 특히 시집이나 친정의 어른들의 생일을 기억해 두었다가 축하함은 물론이지만 회갑이나 칠순, 팔순 등 중요한 시기에는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 수연례(壽宴禮)를 치르기도 한다.

수연례란 부모의 장수를 기뻐하고 기원하는 마음에서 자식이 베풀어 드리는 생일 잔치를 모두 수연이라 한다. 상차림이나 의식의 절차는 집안의 내력과 형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 수연에는 자손들이 상을 차리고 예를 올리며, 장수를 기원하여 술잔을 올리는 현수(獻壽)의식이 중심을 이룬다. 잔치에는 친척과 가까운 이웃을 청해 어른을 즐겁게 해 드리면서 만수무강을 빈다. 수연 잔치로는 대개 회갑과 칠순 잔치를 많이 한다.

### (1) 회갑 축하

61세가 되는 생일은 회갑(回甲), 화갑(華甲, 花甲) 또는 주갑(周甲)이라고 한다.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를 합쳐서 60갑자(甲子)가 됨으로 태어난 간지(干支)의 해가 다시 돌아왔음을 말한다.

회갑연을 개최하는 날짜는 회갑 당일에 하는 경우보다 날을 따로 잡아서 진행하는 일이 많다. 회갑연 축하객들이 시간을 내기 쉽도록 주말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손이 없는 날을 골라 며칠 당겨서 진행하거나 늦추기도 한다. 회갑을 맞아하는 모두가 회갑연을 여는 것은 아니다. 살림이 어려운 사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식이 있는 사람, 근자에 상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회갑연을 열지 않는다. 더러는 회갑을 앞두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문의하기도 한다. 문의한 결과 회갑연을 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거나 미루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한다. 이런 말을 듣고도 무리하게 회갑연을 연결과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니, 무리하게 잔치를 열면 좋지 않다고 한다. 회갑연을 하기 전에는 사당체례라 하여 '조상에게 잔치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고하며 술잔을 올린다.

예전에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70세 된 노인을 보기가 매우 드물었으며 환갑만 살아도 경사로 여겨서 사람들이 환갑상에 놓였던 밤, 대추를 얻어다가 자손들에게 먹이면서 장수하기를 빌었다.

회갑 잔치의 회갑상은 혼례 때의 큰상과 같이 떡, 고자, 생과, 숙실과 등을 높이 고이기 때문에 고배상(高排床)이라고도 한다. 회갑상은 색을 맞추어 보기 좋게 큰상차림으로 하며, 정성껏 높이 쌓은 음식은 험어서 먹기 어려우므로 따로 큰상 앞에 입땃상을 차려 회갑 당사자가 시장하지 않도록 한다. 회갑에는 큰상을 차려놓고 자손들이 부모에게 큰절을 올리며 무병장수 하시기를 비는데 이를 회갑큰절이라 한다.

큰상의 괴는 높이와 음식의 종류는 홀수로 하는데 유밀과, 강정, 다식, 당숙, 생실과, 건과, 정과, 편, 건어물, 편육, 전유어, 적 등을 놓으며 입땃상은 주로 면상을 차리는데 김치, 나물, 편육, 찜, 전유어, 숙과류, 생실과, 음료를 올린다.

회갑상에 올리는 음식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 〈회갑상의 기본 음식의 종류〉

건과 : 대추, 밤, 은행, 호도

생과 : 사과, 배, 감, 귤

다식 : 송화다식, 쌀다식, 녹말다식, 흑임자다식

유과 : 약과, 강정, 매자과, 빈사과

당숙 : 팔보당, 줄병, 옥춘당, 꿀병

편 : 백편, 꿀편, 찰편, 주악, 승검초떡, 팔시루떡

포 : 어포, 육포, 건문어  
 정과 : 청매정과, 연근정과, 산사정과, 생강정과, 유자정과  
 적 : 쇠고기적, 닭적, 화양적  
 전 : 생전전, 갈납, 고기전  
 초 : 홍합초, 전복초

### 〈회갑상의 곁상 음식의 종류〉

편육, 신선로, 식혜, 화채, 면, 나박김치, 구이, 초간장, 꿀 등 큰상에 쌓아 올렸던 음식은 잔치가 끝날 무렵에 헐어서 축하객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렇게 하면 복을 나누어주는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

## (2) 회갑잔치의 절차

### 1) 손님 초청

아버이가 회갑(61세)을 맞이하면 아들 딸은 적당한 날을 잡아 회갑잔치 계획을 세우고 미리 친척과 친지를 초청한다.

### 2) 새옷 단장

회갑날이 되면 아침에 아버지께 새 옷을 입혀 드려서 곱게 단장한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살아계시면 회갑 당사자에게 아기에게 입히는 것과 같은 오색무늬옷을 입게 한다.

### 3) 큰상차림

일가친척이 모여서 서로 도우며 경사스러운 술을 드릴 큰상을 중앙에 차린다. 회갑을 맞이한 분이 앉을 좌석을 중심으로 하여 잡수시기 좋게 차리고 그 상 앞에서 자손이 축수 술잔을 올릴 수 있게 위치를 잡는다.

### 4) 헌수

정한 시간이 되면 아들 딸은 아버이를 모시어 큰 상 중앙에 자리하여 앉게 하고, 아버이의 가까운 어른(할아버지, 할머니, 백숙부모, 고모)이 있으면 그 곁에 모신다.

모두 자리에 앉으면 사회자가 회갑잔치를 거행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큰 아들 며느리 부부로부터 앞에 나아가 축수하는 술잔을 올리고 절한 다음 물러온다. 이렇게 가족이 축수 술잔을 올림과 동시에

헌수하는 글이나 시가 있으면 낭독한다.

헌수의 절차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남녀 자손들이 지정된 자리에 북향해 선다.
- 수연 당사자에게 웃어른이 계시면 아들들이 남자 웃어른을 인도해 동쪽의 자리에 앉으시게 하고, 며느리들이 여자 웃어른을 인도해 서쪽의 자리에 모신다.
-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수연 당사자 내외를 인도해 큰상 앞으로 와서 남자 어른은 동쪽에서 서향해 서고 여자 어른은 서 쪽에서 동향해 마주 선다.
-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이 평절로 한 번 맞절을 한다. 만일 주악이 있으면 이 때부터 올린다.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를 하는데 자손들이 부족한다.
- 남녀 어른은 큰아들 내외의 인도를 받아 동쪽의 남자 웃어른 앞으로 가서 술을 한 잔씩 올리고 절을 한다. 담배하여야 할 웃어른은 담배한다.
- 다시 서쪽으로 가서 여자 웃어른에게도 그렇게 한다.
- 남자 어른은 큰아들의 인도를 받아 큰상의 동쪽으로, 여자 어른은 큰며느리의 인도를 받아 큰상의 서쪽으로 돌아 각기 정한 자리에 남향해 앉는다.
-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물러나 자리에 선다.
- 모든 자손이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를 한다.
-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술상 앞으로 나아가 아들은 동쪽, 며느리는 서쪽에 북향해 꿇어 앉는다.
- 남자 어린이가 잔반을 들어 주면 큰아들 내외가 받고, 남자 어린이는 큰아들 내외의 잔에 술을 따른다.
- 큰아들은 일어나서 술잔을 받들어 남자 어른에게 올리고, 큰며느리는 일어나서 여자 어른에게 술잔을 올린 다음 공수하고 선다.
- 어른이 술을 마시고 잔을 주시면 받아서 술상 위에 놓고 큰아들은 재배, 큰며느리는 4배 한다.
- 큰아들 내외는 꿇어 앉고 큰아들이 축수(祝壽) 한다.
- 남녀 어른이 대답한다.
- 만일 헌수할 자손이 많으면 큰아들 내외가 헌수할 때 큰아들의 자손들은 그 뒤에 늘어서서 함께 절한다.
- 이어서 작은 아들, 딸, 동생, 조카의 순으로 부부가 나가서 아들 내외가 헌수하듯이 헌수한다.
- 헌수가 끝나면 어른이 일하는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라.” 고 명한다.
- 일하는 사람들이 음료와 안주가 담긴 쟁반이나 작은 상을 날라다 자손마다 한 상씩 준다.
- 자손들은 두 손으로 주안상을 받아 바닥에 놓고 모두 함께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를 한다.
- 모두 앉아서 음료를 마신다.

- 남녀 어른이 교훈이나 소감을 말한다.
- 남녀 어른이 “이제 나가서 오신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라.” 고 자손에게 명한다.
- 남녀 자손이 일어나서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 하고 각기 상을 들고 나간다.

회갑연의 순서 가운데 회갑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된다. 회갑상은 상을 3, 4개를 연이어 놓고 하얀 보자기나 종이로 덮는다. 상 위에는 적어도 1자 2치 너비한 경우에는 1자 5치 높이로 음식을 보기 좋게 쌓아올린다. 얼마나 높이 쌓았는가, 보기 좋게 쌓았는가 축하객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매사에 꼼꼼하기며 상차림에 쓸 음식을 잘 고이기로 유명한 양학진 씨는 젊어서부터 잔칫집에 자주 불려 다녔다. 큰 잔치를 치를 때는 2, 3일에 걸쳐 상차림 음식을 고였는데, 특히 글씨를 잘 새겼다. 사과, 배, 감 등의 과일은 똑바로 세워 가지런하게 쌓으면 되지만, 껍질을 깠던 밤이나 사탕, 과자 등을 쌓을 때는 무늬가 잘 나타나도록 쌓는다. 특히 밤, 대추 잣을 쌓아 회(囍)·축회갑(祝回甲)·수연(壽筵) 등의 글자를 새긴다.

글을 좋아하는 집에서는 종이에 [不老長生][萬壽無疆] 등의 글을 써서 벽이나 상앞에 붙여놓기도 한다. 큰상 앞에는 축하주를 올릴 때 쓰는 작은 상을 놓는데, 사진을 찍을 때도 작은 상을 그대로 놓아 둔다. 회갑 기념사진을 찍을 때는 회갑 당사자 부부가 나란히 앉고, 주위에 가족과 친척이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좌우에 앉는다. 대개는 가까운 친척부터 당사자 가까이 자리하지만, 이 순서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회갑잔치를 열지는 않고, 형편에 따라서 칠순잔치나 팔순잔치로 미루는 일이 많고, 그런 경우에도 어느 잔치인가 한 번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3) 칠순잔치

양학진 씨는 육순 때는 건강하고 젊고 자제들도 아직 다 혼사를 치르지 못했다 하여 육순잔치를 열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 이장으로 재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농협 등에서 축하품으로 금반지와 은수저 등을 받았다. 칠순잔치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따로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고, 친척과 노인정 회원들에게만 전화로 알리는 정도로 했다.

당일 아침은 출가한 아들 딸의 가족이 집에 모여 평복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12시부터 잔치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11시쯤 전세 낸 일산예식장 부근의 식당으로 갔더니 축하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식당에서 준비한 음식 이외에 집에서 인절미와 백설기 3말을 만들어 가지고 갔다.

먼저 준비한 축하케익을 자르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하였고, 음식은 뷔페식으로 하였다. 축하객들의 식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 준비했던 떡을 주머니에 싸서 각각 나누어 주었다. 참석한 사람은 동장을 비롯하여 친목계원, 노인정 회원과 친척들이었다. 따로 사진시를 부르지 않고 가족들이 카메라

로 여러 장면을 찍었다.

축하는 회갑을 맞이한 본인이 중앙의 자리에 앉으면 큰 아들 내외부터 작은 아들 내외, 큰 사위, 작은 사위 순서로 큰절을 하며 술잔을 올린다. 잔을 올리며 자식들은 '오래오래 사세요' 혹은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사한다. 저녁에는 가족들이 집에 모여 시사를 하고, 손자들이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고 재물을 피웠다. 식당에 지불한 경비는 약 150만원이었는데, 축하객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약 300만원이었다.

환갑이나 회갑잔치는 사정에 따라서, 날을 가려서 앞당겨 열기도 한다. 자손의 축수 술잔이 대강 끝나면 가족은 큰상 앞으로 손님 잔치상을 차려 낸다. 여러 손님이 잔치상에 앉으면 사회자가 음식을 즐겁게 들도록 권한다. 이에 손님은 자유롭게 술과 음식을 들며 특별히 축수 술을 드릴 사람은 큰 상 앞으로 와서 인사하고 술을 드리거나, 축하의 글월이나 시를 지었으면 읽어 드린다.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술과 밥을 먹고 나면 놀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와 춤으로 즐겁게 놀아주는 것이 이 날의 도리인즉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놀면서 오래 산 기쁨을 누리도록 한다. 여유있는 집안에서는 직업적인 노랫군을 불러 흥을 돋우기도 한다.

회갑 이외의 장수잔치로는 회갑 이듬해에 여는 진갑(進甲)잔치, 70세는 옛부터 드문 일이라 하여 교회(古稀)라 하여 잔치를 베풀며 교회연 혹은 칠순(七旬)잔치라 했다. 드문 일이지만 77세가 되는 해를 희수(喜壽)에는 희수연(喜壽宴)을 열고, 80세가 되는 해에는 팔순(八旬)잔치를, 88세가 되는 해를 미수(米壽)라 하여 생일잔치를 열 때는 미수연(米壽宴)이라 한다.

#### (4) 칠순잔치를 겸한 금혼식

풍동 마을에서는 칠순잔치를 겸하여 금혼식을 연 경우가 있다. 1987년 11월 이재록(1916년 생) 씨의 아들과 딸들은 부친의 결혼 50주년을 축하하여 금혼식을 했다. 이 지역에서는 금혼식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며, 약 200호 되는 식골의 경우 금혼식이라는 말 자체를 아는 사람이 적다. 자식의 정성이 남다를 경우에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구끼리만 모여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

아들 이기완 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부모의 다른 잔치 즉 회갑과 칠순잔치를 부모님들이 사양하여 잔치를 열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혼식으로 행했다. 집안에 병풍을 두르고 혼례식장처럼 꾸몄다. 양친에게는 원당에서 빌려온 사모관대를 입히고, 자식들도 한복을 입었다. 모친은 원삼과 족두리에 얼굴에는 곤지도 발랐다. 양친이 큰상 앞에 앉고 아들 내외와 큰 사위에서 작은 사위 순서로 잔을 올리고 큰절을 하며 축하했다. 양친은 자식들이 준비한 반지를 예물로 교환했다. 가까운 이웃 식구들을 초대하여 점심식사를 대접하였다. 여흥으로서 가족과 친척 친지 마을 사람이 준비한 마이크 시설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즐겼다. 이웃의 친구들은 따로 축하 선물을 마련하지 않고 축하의 말로 축하한 사람과, 축하금을 봉투에 담아서 낸 사람이 있었다.

수연례는 회갑을 기본으로 하여, 칠순 팔순 혹은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의례를 말한다. 이전 보다 평균 수명이 연장된 현대사회에서 수연례의 의미는 전통사회에서의 수연례의 의미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우선 회갑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 농경사회에서 유복한 가정을 이루며 건강하게 60세를 넘기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었으며, 주위로부터 축복받을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70세나 80세를 향유하는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경사스러운 일이었다.

특히 효 사상이 중시되던 사회에서 노인의 새로운 연령의 단계로 들어가는 시점에서의 생일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축하연을 베풀어 당사자를 축하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능력과 지위를 시위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수연례의 진행은 전반부의 헌수 부분과 후반부의 여흥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는 의례성이 강하고 차분하게 진행되지만, 후반부는 될 수 있는 대로 흥겹고 떠들썩하게 진행된다는 양면성이 있다. 여흥 부분에서는 노인들이 좋아할만한 시조창이나 민요조의 노래를 비롯하여 최근에 유행하는 빠른 춤곡도 노래하며 많은 축하객들이 어울려 춤춘다는 공통점이 있다.

수연례의 초청범위나 진행방식은 가문의 형세나 시대에 따른 차이가 있다. 특히 근년에는 거주하는 마을에서 자신의 가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수연례가 근년에는 장소를 옮겨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는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났다. 마을과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단체로 이동하기 위한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식당이나 연회장에서 잔치를 여는 경우가 많아졌다. 좁은 집안에서 단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평이성 때문에 새로운 양식의 수연례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균 수명이 길어진 오늘날에는 환갑의 의미가 달라져 그 나이에 잔치를 한다는 것이 썩스럽다고 생각하여 부부가 여행을 하거나 칠순(七旬)잔치로 미루거나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 5. 상례

### (1) 머리말

풍동 마을이 송두리째 없어지기 직전에 조사에서 소중한 장례의 전통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2001년 11월에 송봉연 씨의 장례를 참관하며 여러 어른들이 경험한 장례 즉, 초종례부터 발인, 안장, 삼우제, 49제까지의 체험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망자 송봉연 씨는 여산송씨 1930년생으로 2001년 11월 6일에 향년 73세로 일산백병원에서 작고했다. 주상(主喪)은 장남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차남인 김종만 씨가 맡았다.

본고의 기술은 크게 상속(喪俗)과 장속(葬俗) 나누어 살펴 보았으며, 이를 다시 임종 직전과 직후에 사자를 다루는 초종례 즉, 수세거두기, 초혼 부르기, 사자밥 차리기, 발상, 습렴의 순서로 다루었다.

장속은 장례 당일 출상과 함께 매장 및 봉분 조영 등 치장에 대해서 다루었고, 끝으로 초우제로부터 탈상까지 다루었다. 이 과정의 조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김기영(남, 73세), 박영순(남, 42세), 장인수(남, 48세), 이기완(남, 56세), 김영환(남, 83세), 김희태(남, 46세) 등 여러 분이다.

## (2) 초종례(初終禮)

초종례란 죽음과 발인에 대한 준비로 임종, 초혼(招魂), 시신 거두기, 상례의 역할 분담, 수의 및 상복 준비, 관 준비, 부고 등이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 1) 임종(臨終) 및 임종장소

임종은 집이나 병원에서 맞이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집안의 형편과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장소가 달라질 수 있다. 집안에서 장례 치르기가 불편한 경우는 운명 직전 환자를 병원으로 모시기도 한다. 집에서 임종을 할 경우는 대부분 본인이 사용하던 방으로 옮겨 모시거나 안방으로 모신다.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임종만은 집에서 하는 경우는 운명하기 전에 바로 집으로 편안히 모신다. 혹은 평소 사랑에서 기거를 하였더라도 안방으로 모셔 운명케 한다.

운명 확인은 동공이 풀어졌는가, 숨을 쉬고 있는가, 손발이 굳어오는가, 혹은 운명할 사람의 허리에 밑에 손을 넣어 허리가 방바닥에 밀착되어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운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종은 온 가족이 지켜 보는데 이를 종신(終身)이라 한다. 종신을 못하면 불효자식이라 여겨 '종신 자식이 진짜 자식' 이라고 하여, 그만큼 종신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장례는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에서 사는 경우는 대부분 병원에서 치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농촌이나 아직 도시화가 덜 된 지역의 경우는 병원에서 치르는 것보다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살고 있는 지역에 장례식장을 갖춘 큰 병원이 있는가 없는가 따라 장례 장소가 달라지기도 한다. 병원 장례식장이 멀어 이용이 불편할 경우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다.

장의용품도 장례를 치르는 장소에 따라 구입처가 다르다.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면 거의 대부분 장의용품을 병원 장례식장에서 구입하지만, 집안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는 대개 그 지역의 단위농협을 주로 이용하거나 장의사집에서 구입을 한다.

### 2) 상가의 호칭

보통 이 지역에서도 죽음을 다루는 의례를 상례라 하고, '장사 지낸다', '장례 치른다' 고 하며 장례를 치르는 집을 '상가(喪家)', '초상집', '장사집' 등으로 부르며, 그 앞에 성씨를 더해 '오씨 상가' 또는 '누구네 상가집', '누구네 장사집' 이라 부른다.

### 3) 수세 거두기

숨이 끊어진 것이 확인되면 상주들은 곡을 한다. 그리고 친척이나 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햇숨으로 입과 코, 귀 등을 막고 손발을 곧게 펴는데 이를 '수세 [收屍] 걷는다, 혹은 수시 거둔다, 손발 걷는다' 고 한다. 시신이 굳기 전에 사지를 주물러 편 다음 양팔과 다리를 곧게 펴고 양손을 가지런히 하여 배 위에 올리고 옥양목이나 한지를 끈 끈으로 양 손끝과 발끝을 가지런히 붙들어 맨다. 이는 혹시라도 뒤에 시신이 뒤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수세를 거둔 다음 벗짚으로 고침을 세 개 만들어 그 위에 칠성판(七星板)을 놓고 시신을 안치한 다음 흙이불로 덮어놓는다. 그리고 병풍을 쳐 시신을 가린다. 입관하기 전까지는 병풍을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펴지만, 입관 후에는 바르게 세워 친다.

### 4) 사자밥 차리기

집에서 돌아가시면 수세를 거둔 후 사자밥을 차린다. 사자밥은 가족 친척이 아닌 타성받이가 해 차린다. 하지만 병원에서 임종을 하면 전통적인 상례 절차가 대부분 생략되기 때문에 사자밥을 차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치는 대문 앞에 차리는데 절구통을 거꾸로 얹어놓고 그 위에 흰 종이나 도래방석을 깔고 키를 얹혀 놓은 다음 잡곡을 섞지 않는 메(흰 밥)와 나물(무나물) 7그릇을 놓고, 그 옆에 짚신 세 켤레, 망자가 신던 고무신 등을 놓는다. 그리고 메에다 저승갈 때 노자돈하라고 동전을 한 닢씩 꽂아 놓는다. 이렇게 차려놓은 사자밥은 발인날 상여에 싣고 가다가 다리를 건널 때 버린다

### 5) 초혼(招魂) 부르기

집에서 돌아가시면 수세를 거둔 사자밥을 차리고 초혼(招魂)을 부른다.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면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혼 부르는 것을 '초혼' 또는 '복(復) 부른다' 고 한다. 복은 마당에 나가 북쪽을 향하여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 번 부른다.

망자가 남자인 경우는 속적삼을, 여자는 치마를 가지고, 먼저 망자의 관동성명 <000도 00군 00면 00리 000(이름)>을 부르고 끝에 "복! 복! 복!" 세 번 외친 후 "○○○ 씨 옷 가져가시오" 라고 외친 다음 지붕에 던지거나 사자상 옆에 놓는다. 예전에는 지붕에 올라 불렀다고 한다. 초혼을 불렀던 옷은 발인 날 상여에 싣고 가다가 태워버린다.

### 6) 염습 및 입관

운명을 하면 수세를 거두고 초혼을 부른 다음 염습을 한다. 고양시 일대에서는 염습시간과 입관시간, 장례일을 경을 읽어주고 문복(問卜)을 영업으로 하는 장님 집에 가서 물어 정한다.

일산구 풍동 2001년 11월 6일 돌아가신 송봉연 씨(일산구 풍동)의 경우 염습과 입관 시간을 막내 사

위가 인근 원당에서 점복집을 운영하는 남자 장님집에 가서 물어 행했는데, 염과 입관을 할 때 박수가 “19살, 31살, 37살, 39살, 43살, 55살, 69살, 76살은 보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했다 한다. 수고료로 쌀 한 말을 주었다 한다.

원래는 목욕과 습은 사망 당일에 하고 시신에게 수의를 입히는 소렴과 입관은 다음날 한다. 그러나 요즘은 목욕과 습, 소렴, 대렴, 입관까지를 동시에 하는데 보통 만 하루가 지난 다음 한다. 송봉연 씨는 맹인이 운영하는 원당의 문복(問卜)집에 가서 시간을 물어보고 돌아가신 다음날 오후 2시에 행했다. 이날 염습과 입관은 병원 측의 염사에게 부탁하지 않고 상주의 친구로 일산에서 장의가게를 운영하는 장인수(48세) 씨에게 부탁하여 했는데, 1시간 30분 소요되었다. 집에서 하면 이보다 시간이 더 들어 약 2시간 걸린다고 한다. 병원에서 염을 하는 것이 집에서 염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리는 것은 시신을 알루미늄으로 만든 탁상(이곳에서는 당가라 부름)에 눕혀 놓고 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라 한다.

염습은 알루미늄으로 된 당가 위에 올려놓고 하는데, 먼저 탈지면에 알코올을 묻혀 시신을 깨끗이 씻긴다. 몸을 씻기고 나면 머리를 빗기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 주머니에 넣었다가 입관할 때 관속에 넣어준다. 이어 반함을 행한다. 반함은 물에 불린 쌀을 버드나무 손가락으로 세 번 입에 떠 넣는다. 첫 손가락을 떠 넣으면서 “백석이요”, 두 번째 손가락을 떠 넣으면서 “천석이요”, 세 번째 손가락을 떠 넣으면서 “만석이요” 라고 부른다. 입 안에 쌀을 떠 넣는 것은 저승 갈 때 양식으로 이를 “공양미 올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

반함을 마치면 수의를 입힌다. 수의는 병원에서 따로 사지 않고 1995년 윤팔월에 남편 것과 함께 지어놓은 것을 썼다. 당시 전라남도 고흥에서 수의를 지어 왔는데 300만원 들어갔다 한다. 시신은 21대로 묶고, 매듭 부위를 종이로 접은 고깔을 끼워 매듭 부위가 보이지 않도록 감싼다. 보통 고깔은 12장 정도 쓴다. 시신을 다 묶으면 입관을 행한다.

병원 측에서 파는 관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매장할 때 관을 빼고 시신만 묻는 ‘퇴관’ 을 하기 때문에 좋은 관을 쓰지 않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오동나무 관을 쓴다. 오동나무 관은 두께가 1푼 짜리로 병원 장례식장의 판매 가격은 13,500원이다. 여기서는 관을 빼고 매장하는 것을 ‘퇴관(退棺)’ 이라 한다. 천주교나 기독교식에서는 관 채 매장하기 때문에 시신을 묶지 않고 입관한다. 염습과 입관을 병원측에 부탁하여 하면 그 비용이 30만원이며, 유족 측에서 아는 사람을 불러 해서 염습료로 20만원을 지불했다 한다.

입관이 끝나면 영좌를 설치하여 혼백을 안치하고 오른쪽에 명정을 세운다. 이 때 병풍을 비스듬히 있던 병풍을 바로 세운다. 병풍 앞에 향상과 간단한 상을 차리고 혼백을 놓는다. 혼백은 흰 비단이나 저포를 접어 동심결로 묶은 것으로 체백(體魄)을 떠난 혼이 여기에 빙의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상가에 쓰는 혼백은 거의가 장의사나 장례식장에서 만든 것을 쓴다. 신주를 만들면 혼백은 시신을 안치한

후 삼우제 때 산소 앞에 묻는다.

### 7) 성복제

입관을 마치면 상주들은 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상복을 갈아입고 나서 빈소에서 성복제(成服祭)를 지낸다. 성복은 혈연관계의 친소에 따라 참최(3년), 재최(1년), 대공(9개월), 소공(5개월), 시마(3개월)의 5종류에 배의 굵기가 다른 옷을 입었지만, 요즈음은 장기에 관계없이 장의사 집에서 구입한 상복을 입는다.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베옷을 쓰지만, 대개가 화학섬유로 만든 베옷을 입는다. 그나마 병원 같은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남자들은 검정 양복에 베로 만든 완장을 두르고, 여자들은 흰 치마 저고리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관이 끝나면 상주를 비롯한 복인들은 상복으로 갈아입기 전에 먼저 마당에 물이 든 물동이를 상위에 놓고 그 옆에 상복을 놓는다. 평복을 한 만상주가 맨 앞에 서면 상주들이 물동이를 중심으로 둘러 선 다음 우로 세 바퀴, 좌로 세 바퀴 돌면서 서로 인사를 나눈다. 서로 인사가 끝나면 다시 물동이를 중심으로 서서 앞서 행한 것처럼 다시 물동이를 중심으로 집안의 웃어른께 절을 하고 좌우로 세 바퀴씩 돌며 동서남북을 향하여 절을 한다.

상복은 만상주부터 갈아입는데, 만상주가 끝나면 다음 상주 순으로 차례로 돌며 절을 하고 갈아입는다. 상주들이 상복을 모두 갈아입으면 방안으로 들어가 영좌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제를 지낸다. 이를 성복제라 한다. 성복제를 마쳐야 비로소 문상객들의 조문을 받는다. 성복제를 지내기 전에는 문상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요즈음은 장기가 짧기 때문에 성복제 전이라도 문상을 받는다. 그리고 상주들은 지팡이를 짚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나무 지팡이(竹杖)를 짚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오동나무가 없으면 버드나무를 쓴다. 상장도 장의용품점에서 구입하는데 크기는 약 110cm 안팎이다.

### 8) 문상과 조상

원래 입관을 하기 전까지는 문상이나 조상을 하지 않지만, 장례기간이 짧은 3일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복제 전이라도 관계없이 조상을 한다. 손님이 빈소에 도착하면 빈소 앞에 차려진 호상소로 가서 자기가 누구라고 통성명을 하고 빈소로 바로 들어가거나, 호상소(護喪所)에서 상주에게 누가 왔다고 전한 다음 바로 들어가기도 한다.

손님이 빈소에 들어가 공수하고 서서 곡을 하거나 곡 없이 꿇어앉아 분향을 하고 바로 빈소를 향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두 번 절한다. 이 때 상주들은 서서 곡을 한다. 여자 상주들은 엎드려서 곡을 한다. 빈소에 문상을 마친 손님은 영좌 옆에 있는 상주와 마주 서서 맞절을 한다. 맞절이 끝나면 손님과 상주가 서로 꿇어앉아 손님이 상주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상주가 대답한다. 서로 인사를 마치면 빈

소를 나와 상가 측에서 마련한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들며 이야기를 나눈다.

### (3) 장례(葬禮)

#### 1) 치장(治葬)

부모가 돌아가시면 먼저 장일(葬日)과 장지(葬地)를 정한다. 장기(葬期)는 거의가 3일장이다. 돌아가신 분과 일진이 맞지 않으면 장삿날을 하루 앞당겨 2일장으로 하거나 하루 더 늘려 4일장을 하기도 한다. 장지는 선영이나 공동묘지를 이용한다.

묘역은 발인 전날에 미리 마을 주민이 장지에 가서 광중을 판다. 광중을 파기 전에 먼저 간단한 제물을 백지에 위에 놓고 산신제를 지내고 작업에 들어간다. 사람이 직접 안하고 포크레인을 불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장례 당일날 작업을 하기도 한다. 무덤 속의 광중은 외광(外壙) 내광(內壙)을 판다. 외광은 시신이 보다 약간 크게 파는데, 크기는 길이 약 2m 정도로 자리를 잡고 파며, 내광(속광이라고도 함)은 시신의 크기와 거의 같게 판다. 내광 파는 것을 '모토 뽑는다' 고 한다. 특히 모토는 어깨 쪽이 발 쪽보다 약간 넓게 파는데 그 모양이 엮을 한 시신과 비슷하다. 시신 안치 방향은 합장일 경우 남좌여우(男左女右)로 상석 위치에서 보아 남자가 왼쪽, 여자가 오른쪽에 오도록 한다.

#### 2) 발인(發靱)

발인은 영결이라고도 하며 상여가 장지로 떠나는 의식이다. 장사날이 되면 아침부터 서둘러 출상(出喪) 준비를 한다. 상두꾼들은 곳집(상여막)에서 상여를 갖다 상주집 마당에서 상여를 조립한다. 상여는 마을에 목상여가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번 쓰고 태워버리는 꽃상여를 쓴다. 이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남이 쓰지 않았던 깨끗한 상여를 쓰고자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나무 상여는 대개 12인용과 16인용, 24인용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외지로 나가 마을에 상여를 뭇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때론 10명이 메기도 한다고 한다.

상여를 메는 사람을 이 지역에서는 상두꾼이라 하다. 상여가 완전히 조립되면 상주들은 관을 빈소로부터 운구하여 상여에 실어 결박을 한다. 빈소에서 출관할 때 방 내구통이에 관을 뒹다 붙였다 하고 방을 나온다. 이 때 문지방 앞에 엮어 놓은 바가지를 밟아 깨고 나온다. 이는 액을 풀고 잡귀와 부정을 막는 것이라 한다. 상사(喪事)로 인하여 집안에 생겼던 모든 액이 출관시 바가지를 껌으로서 없어진다고 한다. 영구를 상여 싣고 결박을 하면 상두꾼들이 상여를 조립한다. 상여가 다 조립되면 영구 앞 머리맡에 병풍을 치고 자리를 깔고 제상에 제물을 진설한 다음 발인제를 지낸다.

발인제는 상주가 나와 잔을 올리고 재배하면 축관이 독축을 한다. 이 축을 발인축 또는 건전축(遣奠祝), 영결축(永訣祝)이라 한다. 독축 후 한참동안 곡을 하다가 상주 이하 모두 재배하고 난 뒤 제수를

치우고 출상한다. 제수는 발인제가 끝나면 곧 상두꾼들이 나누어 먹는다.

발인 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靈輪既駕往即幽宅載陳遺禮永訣終天” (영혼께서 상여를 타시고 유택으로 가시게 되어 보내는 예로 전(奠)을 베풀어 영원히 이 세상을 마침을 고하나이다.)

### 3) 출상(出喪)

발인 절차가 끝나면 상여 또는 영구차가 장지로 떠난다. 상여가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 하직인사를 한다. 하직인사는 상주들이 상여 앞에 서서 절을 하면, 상두꾼들이 상여를 앉았다 일어났다 세 번 반복한 후 선소리꾼의 선창에 상두꾼들이 후 창을 하면서 상여는 서서히 장지를 향해 간다.

상여꾼들의 발은 선소리꾼의 요량과 소리에 맞춘다. 여기에 북이 가세하는데, 호상일 경우는 새납까지 분다고 한다.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마을을 벗어나면 선소리가 빨라지면서 상두꾼들의 발걸음도 빨라진다. 출상의 차례는 맨 앞에 명정이 서고 이어 운아 - 공포 - 영여(영정) - 만장 - 상여 - 상주 - 조객 순으로 간다.

다음은 2001년 11월 6일 일산구 풍동에서 돌아가신 송봉연 씨 출상 때 부른 상여소리이다.

〈선소리꾼이 요량을 흔들며..〉

에이—

자 이 앞으로 상주님들 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상주님들 절반으세요.

인사드리세요. 자 나무아무타불입니다.

나무 아무타불

절하세요. 자 일어나시구요.

나무아무타-불-

자 반절해요 무릎만 살짝 꿇으세요.

에이

허-허- 허어-헤- (선소리)

허-허- 허이-헤- (후렴)

허-허- 허어-헤- (선소리)

허-허- 허이-헤- (후렴)

이제 가시면 언제오시나 (선소리)

허-허- 허이-헤 (후렴)

북망산천이 멀다고는 해도



허-허- 허어-헤-

대문 밖이 저승이구라

허-허- 허어-헤

허-허- 허어-헤

허-허- 허어-헤 (후렴)

허허-허어어어헤 신

허허어어헤 후

열시왕에 부름을 받구요

허허어어헤

허허어어헤 신

허허-어어헤에 후

이제 가시면 언제 오나

허허어어헤

우리 부모님 가시는 길은

허허어어헤 후렴

어디에 가나 누구 가나

허허어어헤

허허어어헤 신

허허어어헤

일가나 친척이 많다 한들

허허어어헤-

어느 누가 대신 가라

허허어어헤-

내 친구가 많다 한들

허허어어헤-

어느 누가 동행 할까

허허어어헤-

이 세상에 나온 양반

허허어어헤-

에- 천년 살자 몇 만년 살자

허허어어헤-

에- 이 세상에 나오셨건만

허허어어헤-

에- 담방 면노나 못 사셨네

허허어어헤-

허허어어헤

허허어어헤-

우리 부모 가신다나

허허어어헤-

이제 가면 언제 오시나

허허어어헤-

꽃이 피면 오실런가요

허허어어헤-

낙화지면 오시려나

허허어어헤-

겪어지는 명년 삼월에

허허어어헤-

허비 또 다시 나오시지나만은

허허-허어어헤-

한 번 가신 우리 부모님

허허-허어어헤-

헤 차비가 없어서 못 오시는가

허-허-허어-헤-

한 번 가신 저 저승길을

허허어어헤

두 번 다시는 못 오시나요

허허어어헤 (후렴)

허-허- 허어어헤

허허어어헤 (후렴)

여보시오 여 상주꾼들

허허 허어-헤 -

어서 가세 바빠나 가세

허허어어헤-

열시왕의 부름을 받고

허허어어헤-

팔뚝 같은 쇠사슬로다가

허허어어헤-

결박해서는 잡아끌어내니

허허어어헤-

헤에 천하장사가 무슨 소용있나

허허어어헤

헤에 혼비백산 나 죽거든

허허어어헤

허허어어헤

허허어어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허허어어헤

꽃가마 타구나 나는 간다

허허어어헤

노갯돈 적어서 그런지는

허허어어헤-

상두꾼의 발길이 붙었네

허허어어헤-

허허어어헤

허허어어헤 -

제발 우리 아들 딸 기를 적에

허허어어헤-

음식이라도나 간을 봐가며

허허어어헤

쓰디나 쓴 거는 부모님 먹고

허허어어헤-

달콤한 거는 아들 딸 주면서

허허어어헤

금이나 옥이나 다 길러줬네

허허어어헤  
 부모 은공을 그 누가 아리요  
 허허어어헤  
 헤에 허- 소리로 애태워누나  
 허허어어헤-  
 타는 소리로 넘어나 가세  
 허허어어헤  
 (빠르게)  
 허허허어-헤  
 허허어어헤  
 허허어어헤  
 허허어어헤



회격을 사용했다.

이 지역에서는 여자 상주들도 장지까지 따라가 하관하는 것을 지켜본다. 가다가 다리가 있거나 건너기 힘든 개울이나 언덕 등에 이르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상여가 너무 무거워 쉬었다 가야 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상주들에게 노자돈을 걸라고 한다.

그러면 상주들은 미리 준비한 노자돈을 상여 앞에 맺어 놓은 새끼줄에 끼어 놓으면서 상여를 향하여 절을 두 번 한다. 이렇게 장지까지 가면서 상주들 모두에 돈을 걸도록 한다. 그리고 마을을 벗어나면 상여를 멈추게 하고 주과포의 제수를 마련하여 노제를 지낸다. 이 때 고인의 친구 등이 고별 인사로 제문을 지어 대표자가 분향전작(焚香奠爵)하고 일동이 재배하고 철상을 한다.

#### 4) 영악(靈幄)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상여는 해체하여 영구(靈柩)를 하관 때까지 임시로 모시는 자리 영위를 마련한다. 차일이나 천막을 치고 영구를 놓고 영구가 보이지 않도록 그 앞에 병풍을 두르고 제상을 설치하여 간단한 주과포를 진설하고 교위가 있으면 혼백함을 봉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에 봉안한다. 그런 다음 영악 앞에 자리를 깔아 조상석(조喪席)과 상주석(喪主席)을 마련한다. 그리고 상주는 영위 우측에서 서서 곡을 하며 조문객을 맞이한다. 상주가 영악을 설치하여 조문객을 받는 동안 상두꾼과 산역꾼, 조문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산역을 한다.

#### 5) 하관(下棺)

하관은 관을 광중(壙中) 즉 묘혈에 넣는 의식이다. 하관 시간이 되면 지관의 지시에 따라 시신을 광

중에 내리는데, 광내(內壙)를 평평하게 정비한 다음 깨끗한 흙을 깔고 내광 전체에 백지를 깔고 영구를 밧줄(광목으로 보통함)로 서서히 광중으로 모신다. 이 때 머리가 북쪽(위쪽)으로 가게 한다. 이 때 지관은 일진을 보아 하관하는 것을 보아서는 안되는 나이를 부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살 맞는다', '죽 맞는다' 고 하여 잠시 자리를 피한다.

시신이 내광에 안치 되면 깔았던 백지는 모두 걷어내고 영구의 상하좌우에 흙을 채우는데 관구(棺柩)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영구의 높이와 같이 흙을 채우면 공포(功布)로 구(柩)의 주위와 위에 흙을 말끔히 덮어낸 다음 홍대를 3장 또는 5장을 써서 광중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는데, 다 덮지 않고 가슴 부위 홍대 1장만 남겨놓고 현훈의 폐백을 드린다.

폐백은 광중 앞에서 맞상주가 무릎을 꿇고 홍대에 올려진 현훈(玄訓)의 폐백을 위로 들어올렸다 내려왔다를 2~3차례 반복한 다음 광중에 있는 일꾼에게 건네준다. 현(玄)은 검은 비단으로 접은 것으로 동쪽 상(영위의 좌)에 놓고, 훈(訓)은 빨간 비단으로 접은 것으로 서쪽 하(영위의 우)에 놓고 덮기 전에 상주 이하 모든 복인이 곡을 한다.

한참 곡을 한 다음 상주 이하 모두 재배하면 폐백을 드리기 위해 열어두었던 홍대를 덮는다. 홍대를 다 덮으면 이어 홍대 위에 명정을 덮는다. 명정은 관속에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홍대를 덮고 그 위에 덮기도 한다. 명정이 덮히고 나면 만상주가 취토를 한다. 취토는 만상주가 상복 자락에 흙을 세 번 받아 상중하의 차례로 놓는다. 만상주의 취토가 끝나면 이어 차남 순으로 삼으로 흙을 떠 넣고 나서 산역꾼들이 광중을 메운다.

## 6) 회다지와 성분(成墳)

광중을 덮는 흙은 백회를 흙과 물에 섞은 것을 먼저 광중의 3분의 1쯤 메운 후 산역꾼들이 이를 밟아 단단하게 다진다. 이를 '달구질' 또는 '회다지' 라 한다. 달구질은 보통 초벌, 재벌, 세벌까지 한다. 많이 할 때는 다섯 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상두꾼들로 구성된 달구꾼 여러 명이 상여를 땄 때 쓰는 어깨걸이용 장대(이를 연주대라 함)를 들고 광중에 들어가서 선소리꾼의 선창에 맞추어 서로 등을 마주 대었다가 돌아서서 마주보는 동작과 함께 서로 발을 맞추며 바닥을 세게 밟는 동작을 반복한다.

그런데 풍동 마을은 물론 고양지역의 달구질은 타지역과는 달리 광중에 들어가지 않고 광 밖에서 긴나무로 만든 달구대를 가지고 다지는데, 이는 예부터 나라님(임금)을 차마 밟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고양지역은 왕릉의 조영의 영향이라 한다.

달구질은 선소리꾼이 선창을 하면 달구꾼들이 이를 받아 "회~다지 달~꿈" 이라는 후창을 하면서 광중을 단단하게 다진다. 회다지의 선소리 장단은 긴 소리와 짧은 소리가 있다. 달구질을 하면서 상주나 망인의 사위들에게 노자돈을 내라고 하며 장난을 친다. 이렇게 하면서 회를 다지면 힘도 훨씬 덜 들고 능률도 더 오르고, 잠시나마 상주들로 하여금 슬픔을 잃게 한다. 회다지를 할 때 묘역 주위에

장대 두 개를 세워 새끼로 빨래줄처럼 매고 상주나 사위, 복인들로부터 나온 노자돈을 끼워 놓는다.

묘광에 회를 쓰며 달구질로 단단하게 다지는 것은 짐승의 침범과 나무 뿌리가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행상 때와 달구질 때 나온 노자돈은 상주에게 일부 돌려주기도 하고, 마을 기금으로 잡기도 하는데 마을마다 약간 씩 차이가 있다.

### 7) 성분, 평토제

광중에 흙을 메워 땅이 평평해지면 평토제를 지내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봉분이 완성된 후 지낸다. 봉분 앞에 제상을 놓고 제물을 진설한 다음 지낸다. 성분 작업을 할 때는 묘의 중심을 잡기 위해 긴 대나무 장대를 중앙에 세우고 묘의 전후상하에 표지 말뚝을 쳐서 좌향이 틀리지 않도록 한다.

평토제를 마치면 상주들은 혼백과 영정을 들고 상여가 오던 길로 하여 집으로 돌아온다. 산역꾼들은 산에 남아 탈관한 관재와 잡물, 또는 상여(꽃상여인 경우) 등을 태운다. 그리고 나머지 묘역을 정리하고 하산한다. 묘역은 중앙에 봉분을 세우고 봉분 양쪽에 활개를 펴고, 활개와 봉분을 잇는 용미를 잡는다. 대개 중부 이북 지방은 용미와 활개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 8) 반혼(返魂)과 우제(虞祭)

평토제를 지내고 나면 상주들은 혼백상자와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를 반혼이라 한다. 반혼 행렬은 발인 때의 행상행렬 때와 같다. 장지에서 시신을 안장하는 동안 집안에서는 반혼하는 신위를 맞을 준비를 한다. 상주들이 집에 도착하면 즉시 곡을 하고, 혼백을 영좌에 봉안하고 곡을 한다. 상청은 마루나 방에 설치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간편하게 상을 하나만 놓고 그 위에 영정만 모셔 두기도 한다.

우제는 장사 후 처음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우(虞)란 위안한다는 뜻으로 사자의 신령을 편안케 하는 동시에 생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안위의 제사이다. 우제는 시신을 묘에 안장하고 혼백을 집으로 모시고 지내는 제사이다. 상중에 지내는 제사이기에 흥제라고도 하는데, 우제는 초우·재우·삼우제를 지내는데, 보통 재우제는 지내지 않는다. 삼우제는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산소에서 지내기도 한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초상이 나면 굿을 하였는데 이를 자리걸이굿, 지노귀굿, 천금새남굿이라 칭한다.

### 9) 소상(小祥)·대상(大祥)·탈상(脫喪)

유교식 상장의례에서는 전통적으로 초상 후 만 1년이 되는 날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소상이라 한다. 만 2년째가 되면 다시 제사를 지내는데 대상이라 한다. 즉, 대상은 만 2년째인 25개월 만에 지낸다. 대상 때까지는 굴건제복을 그대로 입다가, 대상을 마치면 탈상을 하고 상주가 짊었던 지팡이와

상복을 모두 태운다. 그러나 요즘은 탈상은 빠르면 3일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49제로 하거나 100일 탈상을 한다. 100일 탈상인 경우는 49제가 소상이 되고 100일제가 대상이 된다. 특히 49제 탈상을 하는 경우는 절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다.

## 6. 제례

제사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조상의 덕을 기리며 후손들의 화목이 화목을 이루는 의식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이다. 풍동 마을에서도 유교의 정해진 격식을 바탕으로 가정마다 조상의 제사를 지내며 정성을 드려 조상을 받든다. 이는 후손들에게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가족과 친척이 한 자리에 모여 제사준비를 하며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조상들 이야기, 친척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제사를 지내는 절차는 유교의 격식에 따르며, 4대조까지를 봉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제사의 원칙과 방식의 기본 절차는 [가례(家禮)]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 각 가정에서는 가정마다 전해지는 절차를 중요시하며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제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가례(家家禮)라 하여, 풍동 마을에서도 이런 차이를 인정하며 무엇보다도 후손들의 정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제사의 진행 자체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의 왕실에서 종묘(宗廟)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제사는 규모도 크고 예악(禮樂)을 갖추어 진행되지만, 가문의 형세에 따라서 규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진행되는 제사는 대체로 차례(茶禮), 기제사(忌祭祀), 시제(時祭)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 (1) 차례

차례는 매달 음력 초하룻날, 보름날, 설과 추석 등의 명절, 조상의 생일 등에 간단히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오늘날은 도시화된 지역이 많고 가족의 단위도 핵가족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마다 일일이 모여 차례를 지내기가 어려워졌고, 조상에 대한 관념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설과 추석 명절에 일가 친척이 모인 가운데 차례를 지내고, 나머지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추석에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고 묘 앞에서 차례를 지내는 경우도 많다.

정초 차례는 선달 그믐날 밤에 종가에 모여 장자가 제물과 떡국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술을 올린 다음, 아침에 차남 이하 모든 자손이 모여 술과 메를 올리며 차례를 지냈다. 조상은 고조부모·증조부모·조부모·부모 등 4대조를 모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1973년에 공포된 가정의례준칙의 영향으로 조부모와 부모에 한하여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차례는 집안에 사당이 있는 곳에서는 사당에서 지내지만, 오늘날에는 사당이 있는 집이 매우 적다. 사당 차례의 경우 종손과 연장자 몇 명만 사당에 들어가며 나머지는 밖에 있다. 사당이 없는 가정이 대부분인데, 대청이나 안방에서 지낸다. 대청이나 안방에서 지낼 때도 조상의 신주(神主)를 내어 모시거나, 지방(紙榜)을 준비한다. 향을 피우고, 모사(茅沙)를 올리고, 술을 올리는 기본 절차는 사당 차례의 경우와 같다.

음식은 정초에는 떡국을 반드시 올리고, 추석에는 송편을 올린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밖에도 과일·포·탕·어적·산적·나물·절·편·국·매 등을 올린다. 진행은 정성을 들여 제물의 진설에 이어 장자가 재배(再拜)하고 헌작(獻酌)하는데 가례에 따른 기본적인 순서 기제사의 경우와 같다.

## (2) 기제사

기제사는 기제(忌祭)라고도 하며 해마다 조상이 돌아갔던 날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기제사는 4대 봉사가 즉 4대조까지 모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일반 가정에서는 조부모까지만 제사할 정도로 축소되어 있으며, 종가집의 경우도 축소되어가고 있다. 4대 봉사라면 매년 4대조의 내외를 8차례 제사 지내는 것이지만, 조상 가운데는 재취를 한 경우도 있고, 영원히 사당에 모시기를 허락받은 조상인 불천위(不遷位)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번 이상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기제사를 철저히 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간략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고양 지역의 대규모 주거 단지의 개발 과정에 많은 사당이 철거되기도 하였다. 사당이 없는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대청이나 안방에서 병풍을 치고 제상을 차리고 기제사를 지내는데 대개는 8촌 이내의 일가가 참석한다.

제사 절차는 제상에 제수(祭需)를 정해진 격식에 따라서 진설(陣設)함으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실과를 올리는데, 홍동백서(紅東白西) 혹은 대추·밤·배·감·사과의 순으로 놓는다. 이때 동쪽은 오른편이고 서쪽은 왼편으로 삼는다. 생과(生果)는 서편, 조과(造果)는 생과 다음으로 동편에 놓는다. 포·젓갈·침채(沈菜)·청장(淸醬)·숙채(熟菜)를 올린다. 제수의 진설은 [가례]의 격식을 따르지만, 가문의 일정한 내력에 따라서 일부 제수의 위치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뒤 제주(祭主)가 신주를 모셔다가 교의(交椅)에 놓고 일동이 신주에게 절을 하는 참신(參神)으로 시작된다. 교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상에 신부를 모시기도 하고, 신주를 모시지 않는 집에서는 지방을 써서 모신다. 신주는 고서비동이 되게 모신다. 고서비동이란 아버님 신위는 서쪽에, 어머님 신위는 동쪽에 모시는 것으로, [가례]에는 기일에 해당하는 신위만 모시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두 신위를 합설(合設)한다.

제주는 장자나 장손이 담당하는데 제주가 재배·8분향·모사·초헌하면 집사(執事)가 정저(正箸)·개개(開蓋)하고 일동이 부복(俯伏)하면 고축(告祝)한다. 축문 읽기 즉, 고축이 끝나면 [아이고, 아이

고리라고 곡을 하고 이어서 일동이 재배한다. 다음에 고인과 가까운 후손이 순서대로 재헌(再獻)과 삼헌(三獻) 그리고 첨작(添酌)을 하면, 다시 젓가락을 두드렸다가 놓고 숟가락을 밥에 꽂아둔다.

축문을 읽은 후에 합문(闔門)이라 하여 제관 이하 전원이 밖으로 나오고 문을 닫는다. 문이 없는 곳이면 불을 조금 낮추어 어둡게 한다. 조상이 식사하는 시간이라는 뜻인 합문 시간은 약 5분 정도되며, 그 후 제관이 세 번 기침 소리를 내고 다시 안으로 드는데 이를 계문(啓門)이라 한다. 다시 불을 밝게 한 뒤, 국을 물리고 숟방을 올린 다음 메를 조금씩 떠서 숟방에 만다. 잠시 시립하다가 수저를 거두고 메 뚜껑을 덮는다. 술잔을 약간 돌려 놓으면 일동이 재배하고, 사신(辭神) 즉 제사를 끝낸다.

이후 철상(徹床)이라 하여 상 위의 음식을 내리고, 음식이 준비 되는대로 모두 함께 음복(飲福)을 하면서 식구들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집안일을 논의하기도 한다. 제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싸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음식을 싸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노인이 있는 이웃에 보내기도 한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해시 말(亥時末)에서 자시 초(子時初)가 관습으로 되어 있었다. 요즈음 시간으로 대략 밤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일 것 같다. 돌아간 날의 첫 시각에 지내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근래에 저녁 시간에 지내는 풍습이 생겼는데 반드시 돌아간 날 저녁, 어둡이 짙은 뒤에 모셔야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제사를 지내기 어려워서 시간을 앞당겨 지내는 경우가 많다.

제사에 참례한 가족 가운데는 먼 곳에 왔다가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제사를 마치고 가족들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일찍 시작하여 일찍 끝내는 경향이 있었다. 제사의 절차나 모이는 사람의 범위, 차리는 음식의 종류가 가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성껏 조상을 모셔야 한다는 마음은 한결 같았다. 특히 2002년 이후에는 마을 주변에 있던 산소를 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파주나 포천 등지에 토지를 구입하여 이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 (3) 시제

시제는 시사(時祀) 혹은 시향(時享)이라고도 하며 기제사 대상에서 넘어간 조상 즉 5대조 이상되는 조상들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로서, 매년 한 번씩 음력 10월에 날을 정하여 직계 후손들이 모여 지낸다. 과거에 높은 벼슬에 올랐던 조상의 묘소 부근에 재실(齋室)을 지어, 우천시에는 묘소 대신에 재실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제사 뒤에 음복 장소이며 문중의 회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시제에 상중(喪中)인 사람이나 여자들은 참례하지 않는다.

이 날은 아침 일찍 묘역을 청소하고 주인은 전날부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데 이를 재계(齋戒)라 한다. 산소에 도착하면 먼저 산신제(山神祭)를 하여 묘역을 지켜주는 산신에게 고한 뒤에 묘마다 하는 제사를 시작한다. 선대의 조상묘에서부터 시작하여 후대의 순서로 진행하며, 각묘 앞에서의 진행

절차는 동일하다. 각묘에서는 진설을 한 후에, 조상에게 절을 하는 참신(參神), 세 차례에 걸쳐 술을 올리는 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 숭늉을 올리는 신숙수(進熟水), 조상을 배웅하는 사신(辭神)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주민 가운데도 조상의 묘역이 다른 지방에 있기 때문에 시제를 지내기 위하여 출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7. 결론 - 전통과 현대의 조화

풍동 마을은 한국의 중심부와 인접하여 그 영향을 받아 높은 문화 수준을 유지하였다. 풍동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태어나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 배필을 얻어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여 장례의식을 치르고 묘에 묻히고, 그 뒤에는 조상으로서 제사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밟으며 살고 있었다. 이런 인생의례의 과정의 큰 틀은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인류 공통의 것이지만, 지역의 자연과 서울에 인접한 지역이라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독특한 요소를 지닌 인생의례를 형성하였다.

조선시대 이래로 문화의 중심인 서울의 영향을 받으면서, 관혼상제의 진행 절차나 격식은 정통적인 요소를 중요시하며 엄수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유지되었다. 부인이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에 각종 급기사항이나 친정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 등은 서울 지역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액을 막기 위한 가정 내의 의례는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유지하려는 주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백일이나 돌 등의 축하 행사는 생활 수준에 따라서 성대하게 잔치를 열기도 하고, 간략하게 어린이의 명을 비는 할머니나 어머니의 비손 정도로 끝내기도 하지만, 가족 사랑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었다.

혼례는 신분 계층이나 생활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농촌 지역의 혼인에는 지역의 특성이 나타났다. 혼인 대상자는 고양 지역 내에서 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파주, 김포, 양주 등 인근 지역이 통혼권(通婚圈)을 이루었다. 오늘날에는 직장문제나 학업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통혼권이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중매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전의 통혼권 내에서 중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장례의 절차와 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은 엄격하게 [가례]를 따라서 한다고 여겼다. 근대 이후 많은 문물이 현대화되는 과정에도 장례의 절차만은 전통적인 요소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으며, 장례의 절차와 운구방식 등은 전통적 양식을 엄격하게 유지하며, 조상의 묘자리를 정하는 과정에 풍수사상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가 형성되고 농촌 지역에도 장지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벽제동에 화장장이 설립되어 있는 관계로 주민들 사이에는 화장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다.

제례는 후손이 제물을 준비하여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에 대한 감사와 가족간의 우애를 다지는 기회가 된다. 제례의 절차는 다른 의례에 비하여 전통적인 요소가 엄수되고 있다. 제사의 절차는 가정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상님을 맞이하고, 대접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한 뒤에 배웅하며, 이어서 가족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음복 절차로 끝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현대인들의 종교가 다양해졌고, 종교에 따라서는 제사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상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정신은 한결같다고 할 수 있다.

제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된다. 명절과 고인의 생일에 하는 차례, 4대조까지 돌아가신 날에 하는 기제사, 5대조 이상인 조상의 묘소에서 하는 시제 등으로 제사가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도 명절에 하는 차례와 기제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많은 정성을 들인다. 예로부터 풍동 마을에서는 인륜을 중시하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며,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기 위하여 사람들이 성장해가고 인생의 각 단계를 거치는 과정마다 적절한 의례를 베풀어, 축복할 자리에서는 큰 잔치를 열고, 죽음을 맞이해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또한 조상을 소중히 여기며 이런 정신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아왔다.

풍동 마을은 서울의 문화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도, 전통적으로 마을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인정과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정신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런 정신은 현대인의 관혼상제를 포함하는 인생의례 가운데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되는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전주김씨 묘소와 웃말의 APT

## 마을의 세시풍속

### 1. 풍동 마을의 전통적인 세시풍속

세시풍속이란 해마다 정해진 시기에 관습적으로 행하여지는 특별한 생활 행위 또는 행동 양식을 말한다. ‘해마다 정해진 시기’에 행하여진다는 것은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뜻하며, 이것은 계절로 구분되고 다시 달로 세분되며 그 중 특정한 날은 절일(節日)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세시풍속의 개념에 비추어 풍동 마을의 세시풍속을 일괄해 보면, 전반적인 세시풍속은 농업 특히 벼농사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농한기인 정월에 세시풍속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대보름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는 주로 농사의 풍요와 개인과 집안의 안과태평을 비는 기풍(祈豐), 기복(祈福), 제액(除厄)의 의례 행위와 놀이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 세시풍속의 일반적인 양상이기도 하다.

#### (1) 1월(정월)

정월에는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논다. 설 명일을 지내고 15일 이전을 선보름이라 하고 15일 이후를 후보름이라 하는데 선보름을 가장 크게 지냈다. 선보름이 지나면 새끼 꼬고 가마니도 치는 등 일을 시작하였다.

##### 1) 설(설날 및 정초)

설날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날이므로 연중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아이들에게도 명절 중 가장 고대하는 날이었다. 설날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설빔으로 갈아입고 새해 첫인사를 올리는 일이다. 각 가정에서는 떡국을 비롯한 세찬을 조상님께 올리고 새해 인사와 함께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차례를 지낸다. 이어서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떡국을 먹은 뒤에는 성묘를 한다.

풍동 마을에서는 어느 집이나 설날 조상의 묘소를 찾아 새해 인사를 올린다. 성묘를 다녀서는 일가 친척이나 동네 어른들께도 세배를 다닌다. 세배 때는 상대가 잘되기를 비는 덕담(德談)을 나눈다. 근년까지도 친척은 물론 이웃 어른을 찾아가 정중하게 세배를 드리는 모습을 남기고 있었다.

설날 차례는 대개 아침에 지내는데, 가정에 따라서는 선달 그믐밤에 지내는 경우도 있다. 설날은 한 해의 첫 출발이므로 예로부터 전해오듯이 이 날은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삼간다. 특히 여자들의 바깥 출입이 금지되고, 남의 집 방문하는 것을 꺼린다. 따라서 여자들은 세배를 다니지 않는다.

기복적인 풍속으로 선달 그믐날 대문 안에 던져놓은 복조리를 쌍으로 방문에 걸어둔다. 복조리 안에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성냥이나 돈을 넣어두기도 하였다. 한 해의 신수를 알아보는 토정비결은 정초나 보름 안에 본다.

정초의 놀이로는 널뛰기와 윷놀이, 연날리기와 그밖에 비석치기, 팽이치기, 자치기 등이 있다. 설의 세시풍속은 주로 가족 내지 혈연 중심의 세시풍속이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2) 정초 12지날

정월 초하루부터 열이틀까지 간지에 따라 정해진 날을 정초 12지날이라 한다. 이 12지날에는 전체적으로 해서는 안될 일이 중심을 이루고, 또 각 날에 따라 특별히 하면 좋은 일도 있다. 12지날의 금기와 행위는 오늘날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첫쥐날〔上子日〕에는 저녁 때 논두렁 밭두렁에 쥐불을 놓아 잡초 종자와 해충을 불사른다. 그리고 쥐불을 놓다가 해싸움을 하기도 하고, 쥐불의 모양으로 농사짐을 치기도 한다. 첫소날〔上丑日〕에는 칼질을 하면 소가 연장에 다친다 하여 칼질을 하지 않으며, 이 날은 소를 위하는 날이라 하여 특별히 쇠죽에 콩을 많이 넣어주기도 하였다. 첫토끼날〔上卯日〕에는 여자들의 바깥출입을 금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문지방을 넘으면 재수가 없다고 하며, 첫용날〔上辰日〕에는 우물물을 길어오지 않는다는 등이 있다.

## 3) 대보름

### ① 14일

보름 전날은 풍농을 기원하는 행위와 개인적인 액막이가 중심을 이루는데 주로 14일 저녁에 이루어진다. 이날 저녁밥은 남보다 일찍 오곡밥을 지어 묶은 나뭇과 함께 먹는다. 오곡밥은 많이 지어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남보다 먼저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잘 차려서 먹이는데, 그러면 일꾼이 많이 붙어 그 해 농사짓는데 걱정이 없다고 한다. 오곡밥은 많이 나누어 먹을수록 좋다고 하여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먹는 관습이 있다. 날이 저물면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꾸며 가지고 몰래 오곡밥을 훔쳐 먹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날은 '나무 아홉 짐을 하고 밥 아홉 번을 먹으면 좋다' 는 등 무엇이든 아홉 번 하는 풍습이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근면, 다복, 딸감과 양식의 풍족 등 다양하다. 저녁밥을 먹은 뒤에는 노적거리처럼 쪼단을 여러 단씩 묶어 마당 여기 저기에 많이 세워 놓는다. 이는 노적거리처럼 추수를 많이 하기

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날 밤 열매가 많이 열리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과수나뭇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놓는데, 이를 '나무 시집 보내기' 또는 '나무 장가 보내기' 라고 하였다.

농사점으로는 수수깁 속에 열 두 달을 표시하는 콩알 12개를 넣은 다음 묶어서 우물에 넣었다가 이튿날(15일) 꺼내어 콩이 불은 상태에 따라 점을 치는 '달불음' 을 하였으며, 또 까치 등우리의 문이 달리는 방향에 따라 풍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이 날 액막이를 많이 하였는데, 무당한테 가서 식구들의 나쁜 운수를 막기 위한 흥수막이를 하고, 삼재가 든 사람은 삼재부적을 절이나 만신 집에서 써서 몸에 지녔다. 또 그해 신수가 안 좋은 사람은 쪼으로 사람 모양의 제물을 만들어 밤에 삼거리에 버리기도 하고, 또는 서낭당에 저고리 동정이 나 옷고름을 떼어 걸어놓고 빌기도 하였다. 한편 자기 전에는 식구들이 모여 각자 잣불을 켜서 불길의 세기로 신수를 점쳤고, 이 날 밤에는 집안 곳곳에 환하게 불을 밝혀 놓았다.

## ② 15일

대보름날의 세시풍속은 시간적으로 대개 해 뜨기 전과 보름달이 뜬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동트기 전에 행하는 세시풍속은 개인적인 행위 위주로 진행되며 근면, 건강, 재복, 풍농 기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름달이 뜬 후의 행사는 집단적인 행위가 중심이 되고 풍농의례적 성격이 강하다.

보름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밤, 잣, 땅콩, 호두 등 '부름(부림)' 을 깨무는데, 부스럼 예방과 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동트기 전 남보다 일찍 샘물을 길어 아침밥을 일찍 짓는데 농사일에 부지런하고, 또 무병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새벽 밥 먹기 전에 '용밥 준다' 고 하여 식구 나이대로 밥을 떠서 창호지에 싸서 샘에 떠내려 보내며 식구들의 건강과 무사를 기원하였기도 하였다. 아침밥을 먹기 전에 귀밝이술을 마시고 이날 아침밥은 흰밥에 고기국(또는 무국), 북어, 김, 두부 등을 먹는다. 또 일년 내내 잘 먹으라는 뜻에서 육류를 많이 먹기도 하였다.

흰밥을 먹는 것은 논밭에 잡풀이 나지 말라는 뜻이 있으며, 김은 복 많이 들어오라고 복쌈을 해서 먹었고, 두부는 더위 먹지 말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먹었다. 그러나 김치는 눈에 있는 벌레에 쏘여 살이 빨갱게 된다고 해서 먹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밥은 숟가락으로 먹으면 모판이나 밭 고랑이 넓은 것을 차지하게 된다고 젓가락으로 먹는 관습이 있었다. 그리고 여름철 더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남의 이름을 불러 더위를 팔았다.

또 보름날에는 웃놀이대회(척사대회)를 하였고, 저녁 무렵에는 보름까지 띄워오던 연의 줄을 끊어 액막이연을 날려보냈다. 보름날 저녁 뒷동산이나 자기 집 마당 등 제일 먼저 달을 볼 수 있는 곳에서 달맞이를 하였다. 이날 미리 벼짚을 비는 사람의 나이대로 마디를 묶어 해를 만들어 두었다가 달이 올라오면 해에 불을 붙여 절을 하면서 빈다.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을 위해 빌었다. 이때 일찍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가 달이 뜨면 소원을 빌었다. 청소년들은 산에서 깡통 속에 불을 피워

휘두르며 달맞이를 하기도 하였다. 달맞이를 하면서 달의 빛깔이나 두께, 형체, 뜨는 방향, 모양 등을 보아 농사점을 친다. 달이 붉거나 얇거나 이지러지면 흉년, 허영거나 두껍거나 둥글면 풍년이 들 징조로 여긴다.

#### 4) 16일(귀신날)

정월 열 엿새날은 귀신날 또는 신날이라고도 한다. 이 날은 일을 하지 않고 바깥 출입도 삼간다. 이 날은 액막이를 주로 하였는데, 저녁 때는 귀신대가리를 깨뜨린다고 널을 뛰었다.

#### 5) 입춘

입춘날에는 입춘축 또는 입춘방이라고 하여 동네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나 학문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 ‘立春大吉(입춘대길)’, ‘建陽多慶(건양다경)’ 이라는 입춘축을 받아와 대문에 붙인다. 입춘방은 학문을 아는 사람이나 대문이 큰 부잣집 사람들만 써서 붙였다. 입춘 때 보리 뿌리점을 본다. 그러나 그해 입춘이라고 아무 때나 보는 것이 아니라 ‘입춘시’ 에만 볼 수 있다. 보리를 뽑아보아 뿌리가 많으면 그 해 풍년이 들고 적으면 흉년이 든다고 점친다

#### 6) 정월 내

설에 손님을 다 치르고 난 뒤 또는 선보름이 지나면 며느리에게 말미를 주어 근친(覲親) 곧, 친정 나들이를 보낸다. 이때 음식을 장만하여 보냈으며 신랑도 동행하였다. 전래민요 <화전가>에 “근친길이 제일이요 화전길이 버금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여자들은 이때가 가장 좋았다 한다. 정월에는 장을 담근다. 장은 1월이나 3월에 담그는데 주로 말날이나 돼지날에 담그며, 뺨날에는 담그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월 그믐께나 2월 초에는 고사를 지냈다. 정월 중의 놀이로는 여자들의 춘향이 놀이, 종지놀이 등과 남자 아이들의 팽이치기, 제기차기, 비석치기 등이 있었다.

#### (2) 2월(초하룻날)

2월 초하룻날에는 나이송편(나이떡)을 만들어 먹는다. 숟갈로 쌀을 식구 나이 수만큼 떠서 송편을 작게 빚어 각각 나이대로 먹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은 실제로 나이 수만큼 먹지는 못하였다. 옛날에 2월이면 양식이 떨어져 먹을 것이 없으므로 이때 떡을 해서 먹는 것이라 하였다.

#### (3) 3월

##### 1) 삼진날

삼진날에는 거의 특별한 풍속이 없다. 이날은 처음 본 나비로 점을 친다. 흰 나비를 보면 그 해 상을 당하고 노랑나비를 보면 그 해 운수가 좋다고 하다. 삼진날은 길일이라 이날 장을 담그면 좋다고 한다. 그 외 말날에 담그기도 한다.

## 2) 한식

한식은 양력 4월 5, 6일경으로 음력 2월이나 3월에 든다. 한식날은 주로 조상의 산소에 가서 사초(莎草)를 하는데 가정에 따라서는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겨울에 얼었던 산소가 봄에 녹으면서 뭉그러진 곳에 복토를 뿌리고 떼를 입히는 등 산소를 잘 손질한 다음 묘마다 차례를 올린다. 차례 때는 송편을 만들어 지내는 집도 있고, 또 이날은 찬밥을 먹는 날이라 청명날 차례를 지내는 곳도 있다. 농사력으로 옛날에는 한식날 범씨를 뿌렸다.

## 3) 3월 내

봄이 되면 아이들 놀이로 갯버들이나 포풀러가지를 잘라 풀피리를 만들어 불고, 풀싸움·풀각시놀이 등이 행해졌다.

## (4) 4월

### 1) 초파일

초파일날 절에 가서 등을 달고 불공을 드린 후 논다. 주로 경치가 좋은 백련사(경태절)에 많이 가는데, 가까운 고봉산 만경사에도 많이 간다. 특히 윤달 드는 해 초파일에는 절을 세 군데 가면 죽어서 좋다고 한다. 그리고 이날부터 그네를 매어 뛰기 시작한다.

초파일 무렵 모내기 전에 일산시장에서는 ‘놀이’를 하였다. ‘놀이’란 활쏘기, 그네, 씨름, 윷놀이, 씨름대회 등 여러 가지 놀이가 한데 어우러져서 행해지는 종합적인 행사를 말한다. 이를 ‘놀이한다’고 하였고 이때에는 노름판도 벌어졌다. ‘놀이’하는 때는 곡우·입하 무렵인데, 망종 안 절기가 4월 초파일 무렵이 된다.

### 2) 4월 내

4월에는 봉숭아꽃을 따서 손톱에 물을 들인다. 남자들은 엄지 발가락에만 들였는데, 이는 뱀에 물리지 말라고 그런 것이다. 소만(양력 5월 21일경) 무렵 모내기를 시작하는데 이때 첫 모낼 때 논 가운데 모밥을 그대로 놓고 대풍을 기원하는 논 고사를 지냈다.

## (5) 5월

## 1) 단오

단오 때는 농사일로 바쁜 철이라 단오를 크게 쇠지 않았다. 단오날에는 창포를 베어다가 삶아 그 물로 머리를 감는다. 머리결이 좋아지고 비듬도 예방하며 몸이 건강하다고 한다. 그리고 창포 뿌리를 꺾어 물감을 들여 머리에 꽃기도 하였는데 그러면 풍이 없어진다고 한다. 또 이날 해뜨기 전에 상추 이슬을 받아 분(장분)에 개어 바른다. 얼굴이 고와지고 일년 내내 버짐이 안 생긴다고 한다. 이날 낮 12시에는 약쑥을 뜯어 말리는데 이때 뜯어야 효과가 좋다고 한다. 약쑥은 아침에 이슬 맞은 것을 베어 말리기도 한다. 익모초도 단오날 베어 말렸다가 설사나 이질에 다려 먹인다. 단오에는 그네를 뛰고 씨름을 하였다. 그네는 남녀 모두 뛰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뛰며, 혼자 타기도 하고 둘이서 쌍그네를 타기도 한다.

## 2) 5월 내

모낼 때 농악을 하였다. 일터로 나갈 때, 모내다가 설 참에, 점심 먹고 난 뒤에 약기를 치고 호적을 불며 한바탕씩 놀았다. 그리고 일을 끝내고 저녁 때 돌아가는 길에 마을 농기가 만나면 서로 길을 비키라고 농기 싸움을 하다가 진 쪽에서 상대방의 농기에게 절을 하였다. 모내기철에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냈다. 농사력으로 5월에는 모내기를 하고 가을보리를 수확하며, 보리를 벤 다음에 콩을 심는다.

## (6) 6월

6월은 썩은 달이라 하여 앓은 방식도 돌려놓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6월에는 이사나 집수리도 하지 않고 행사가 거의 없다고 한다.

## 1) 유두

유두 풍속도 거의 없으나, 이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도 있다. 또 미역을 감고 정성을 드리기도 하는데 주로 노인네들이 하였다.

## 2) 복

복날에 주로 개를 잡아 개고기를 먹거나 닭고기를 먹는다. 그밖에 수박·참외 등 과일도 먹는다. 복날은 몸보신을 위해 잘 먹는다.

## 3) 6월 내

여름에는 개울에서 천렵을 하였다. 천렵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시로 하지만 주로 여름에 많이 하였다.

술과 고추장·파·마늘 등 양념을 준비하여 냇가에서 고기를 잡아 끓여 먹으며 더위를 식혔다. 더러는 곡릉천이나 장진천에 가서 많이 하였다.

### (7) 7월

#### 1) 칠석

칠석날에는 수확한 햇밀을 친신한다. 밀전병과 햇과일을 성주에 갖다놓고 잡귀 퇴치와 집안 평안을 기원한 후 조왕, 터주, 용왕, 수문, 대감 등 집안 곳곳에 있는 신들에게 밀전병을 갖다 놓는다. 이 날은 칠성맞이라 하여 절에 가서 명과 복을 기원한다. 일반적으로 불교 신자들은 이날 절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

#### 2) 백중

백중날도 칠석날과 마찬가지로 밀전병과 수박이나 참외 등의 과일을 먹고,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서 조상의 명복을 비는 불공을 드린다.

#### 3) 7월 내

칠석을 전후하여 두 벌 김매기가 끝나면 호미걸이를 하였다. 두 벌 김을 매고 나면 호미가 필요 없으므로 호미를 걸어 놓는다고 해서 호미걸이라 한다. 호미걸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품앗이셈(두레심)을 하였다. 품앗이셈은 논이 면적에 따라 일의 많고 적음을 셈하는 것으로 두레심을 하고 나면 한 잔 먹고 놀았다. 백중이나 처서(양력 8월 22일경) 무렵(음력 7월 20일경), 곧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선조 묘역에 벌초를 한다.

### (8) 8월(추석)

추석에는 송편 차례를 지낸다. 차례상은 설날과 비슷하게 차린다. 송편 차례이기 때문에 탕을 올리지 않는 집도 있으나 송편과 함께 삼탕(고기, 두부, 북어를 같이 끓여서 담음)을 올린다. 추석의 성묘는 가는 집도 있지만 설날처럼 반드시 가지는 않는다. 추석날 특별한 놀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9) 9월

9월은 수확으로 바쁜 시기이다. 쌀을 비롯한 보리, 콩, 팥, 수수, 조 등을 수확하고 가을보리를 간다. 한편 9월은 단풍의 계절이라 근래는 주로 단풍 관광을 간다.

## (10) 10월(상달)

10월은 상달이라 하여 고사와 동제, 시향(時享, 時祭) 등 제의가 중심적으로 행해진다. 추수를 한 뒤 각 가정에서는 낱을 잡아 햇곡으로 시루떡을 하여 집안에 있는 신들에게 고사를 지낸다. 고사떡은 넉넉히 하여 이웃에 돌려 먹었다. 10월 고사는 추수에 감사하는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집에 따라서는 판수(장님)를 데려다가 안택을 하기도 하고, 대감놀이나 신사굿(재수굿)을 하기도 하였다. 해에 따라서 10월에는 산치성을 지낸다.

시향은 10월에 낱을 잡아, 대진(代盡)된 5대조 이상의 조상을 묘소에서 제사지낸다. 산소마다 찾아가서 제를 지내므로 하루 종일 걸린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8월 추석과 정월 초하루에 지내기도 한다. 입동(양력 11월 8일)이 지나면 김장을 한다.

## (11) 11월(동짓달)

## 1) 동지

동지에는 동지 팔죽을 쑤어 먹는다. 동지는 동지가 일찍 들고 늦게 드느냐에 따라 애동지(10일 이전), 중동지, 노동지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애동지에 팔죽을 쑤면 어린애들이 죽거나 우환이 많다고 하여 노동지에만 팔죽을 쑤다. 팔죽에는 찹쌀로 새알을 만들어 넣는다. 팔죽은 성주, 터주, 대문 등 가신에게 올려 잡귀를 물리기도 한다.

## 2) 11월 내

11월에는 별다른 행사가 없다.

## (12) 12월(섣달)

## 1) 그믐날

섣달그믐날을 한자어로는 제석(除夕) 또는 제야(除夜)라고 하고, 또한 이날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는 풍습을 수세(守歲)라고 하나 현지조사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섣달 그믐날은 집안에 복이 들어오라고 밤새 동안 불을 환하게 켜놓았으며, 이날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잠을 자지 않았다. 일찍 자는 사람이 있으면 눈썹에 분가루를 칠하고 눈썹에 세었다고 놀렸다. 이는 설음식 준비로 바쁜 그믐날 밤 머느리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하고, 가는 해와 오는 해의 시간의 연속성을 맞추기 위해 그런 풍습이 생긴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또 이날 밤에 하늘에서 양갱이(안갱이, 마귀할멈, 귀신 등으로 나타남)가 내려와서 신발을 신어 보거나 신고가면 그 임자가 운수가 나쁘거나 죽는다고 신발을 방안에 감추었다. 그리고 섣달 그믐날 밤에는 복조리 장사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복조리를 던져놓거나 판다. 복조리 값은 설 쉼 다음에 받아간다.

2) 12월 내

설음식 준비는 대개 선달 보름 넘어서부터 시작한다. 술을 담그고 엿을 고며 유과, 다식, 식혜, 수정과 등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믐 즈음에는 떡과 전, 나물 등 본격적인 음식 장만을 한다. 또한 그릇을 꺼내 닦고, 집안도 깨끗이 청소하여 설맞이 준비를 한다. 또 그믐 무렵 새해 맞이하러 가거나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을 방문하여 고기와 계란, 김, 북어, 약주 등을 선물한다. 지금은 돈으로 많이 한다.

(13) 윤달

윤달은 덩으로 있는 달이라고 하여 공달이라고도 한다. 윤달에는 귀신이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산소를 고치거나 이장을 하기도 하고 또 수의를 만든다.

이상과 같이 풍동 마을에서 행하던 세시풍속은 근년에 들어 전통적인 모습이 많이 변형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더러는 겉모습은 같지만 실제 의례적 성격이 퇴색되어 그 의미는 변질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명절 차례, 세배, 성묘 등과 같은 미풍양속은 가정과 웃어른을 존경하는 풍습과 함께 잘 유지되고 있었다.



운동장에서 본 옷말

## 가신신앙과 마을신앙

풍동 마을에서는 가정과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는 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앙심을 표현하며, 가정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가정을 단위로 하는 가신신앙은 가택의 요소마다 신이 있어서 집안을 보살펴 주는 것이라 믿고 이 신에게 정기적인 의례를 올리는 신앙을 말한다. 각 가신의 기능과 봉안형태, 장소, 의례 등의 이들 신에 따라 달라진다. 성주신, 조상신, 삼신, 조왕신, 측신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마을을 단위로 하는 마을신앙은 마을의 수호신을 신당에 모셔 놓고 재액초복을 위해 동민들이 합동으로 제의를 올리는 마을의 공동체신앙으로 산치성이 대표적인 것이다.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고,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기는 했지만, 2002년도 산치성을 개최할 정도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신앙의 한 가지였다.

풍동 마을의 산치성은 '도당제' 라고도 한다. 산치성은 2년마다 열리는데, 서울 미아리에 살고 있는 법사에게 날을 받는데 주로 음력 10월 중에 택일을 한다. 산치성의 비용은 마을의 각 가정에서 거두며 떡과 밥, 과일을 걷기도 한다. 제물은 농작물과 과실을 올렸다. 제주는 그 해 액이 없고, 가족 모두가 평온한 자를 당주로 선출한다. 특히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나 임신한 자가 있으면 당주가 되지 못한다. 풍동 산치성은 마을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비는 마을굿이며, 법사를 불러 치루었다. 눈 먼 법사 3, 4명이 주도하며 밤새도록 북을 쳐서 산신에게 마을과 개인의 평안을 빈다. 산치성 이외에도 무당을 불러 개인 단위로 간간이 굿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마을에 무당이 주재하지 않았다.

### 1.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가신신앙

풍동 마을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가신을 모시며 때때로 제사 등의 의례를 행하여 가족의 안녕과 복을 빌기도 하였는데, 최의순(73세, 여)씨에 의하면 터주신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예전에는 동네에 굿하는 집들이 많았다. 특히 집에 모시는 터주를 크게 위했다. 터주는 짚을 덮어 놓았으며 명단 같은 것을 꽂아 놓았다. 제물로는 떡하고 과일, 밤이며 만신이 정해진 날짜에 행한다.

그렇게 날이 잡히면 장님이 마을에 와서 터주에 고사를 드리면서 경을 읽는다. 굿은 밤새도록 했

으며 장님 서너명이 와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북을 치면서 지냈다.

● 터주는 향아리에 쌀을 가득 담아서 대나무를 꺾고 어느 집에 가서 “이 집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신의 뜻을 물을 때, 신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대가 우뚝 서고, 그렇지 않다면 옆으로 쓰러져 버린다고 한다. 마을 전체를 수호하는 터주 이외에도 어병가리를 따로 모시며, 마을굿을 할 때는 어병가리를 따로 위하기도 한다. 어병가리는 업영가리 혹은 익양가리라고도 한다.

● 안택고사는 구시월에 만신들에 날을 잡아 했다. 고사를 지낼 때는 만신들을 부르고 낮에 떡을 해 놓고 저녁부터 시작한다. 술은 막걸리를 사용한다. 처음에는 성주에 놓고 다음으로는 대청마루, 터줏가리 대감, 제석의 순으로 빈다. 예전에는 화장실, 노적가리 등에도 놓고 빌었다고 한다.



제례상과 터줏가리, 업양가리

● 성주는 집안의 안전을 지켜주는 신이라 생각하였다. 성주의 신체는 배를 너자세치를 끊어서 네 겹으로 접어서 대들보에다 걸어 놓는다. 안택고사 지낼 때에 위하는데 절은 3번 한다. 다른 집에는 대감모자라 해서 대감 모자를 성주로 모신다.

● 정화수는 신에게 빌 때 바치는 맑은 물이다.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아들이 군대를 가거나 가족 중에 먼 곳에 갔을 때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다.

● 업신이란 집안에 재물을 가져다 준다는 신이라고 한다. 업을 모시기 전에는 업 받는다고 해서 손이 가는 데로 가서 업가리를 만들어 놓는다. 어영가리 혹은 업영가리라고 하는데 이곳에 업신을 모신다. 예전에는 이 지역 만신에게 물어봐서 업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업신은 구렁이나 족제비, 두꺼비 등과 같은 동물들이 대부분이다. 체보자 집에서는 노랑 족제비를 업으로 모신다고 한다. 특히 두꺼비를 모시는 집은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한다. 업고사를 지낼 때는 백설기, 정화수를 떠놓고 과일은 일체 놓지 않는다. 시간은 밤 12시에 한다. 고사에는 무당이 징을 치면서 공수를 하고 주인은 바가지를 잡고 있으면 업신이 내린다. 바가지 안에는 쌀과 백설기를 넣는다. 그러면 바가지를 잡고 있던 사람은 뭐라고 중얼거린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바가지를 집안 이곳 저곳으로 가져가서 뿌리거나 가지런히 차려 놓는다. 특히 집안 뒤뜰에 놓는다. 지금은 업을 모시고 있는 집은 거의 없다. 새로운 집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다.

● 기우제는 가뭄이 심해지면 하늘에 비를 비는 제사이다. 비가 오지 않으면 여자들이 우물가에 가서 솥뚜껑(소두뱅이)을 때렸다. 남자들은 산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 용알뜨기는 정월에 물을 관장하는 용왕신을 대접하는 행사이다. 정월 14일에 우물에 가서 식구

들 나이 수대로 밥을 해서 밤중에 조금씩 담아서 우물에 집어넣는다. 이것은 용왕님께 일년 열두달 편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행하는 것이다. 던질 때는 한꺼번에 던지고 밥은 흰밥만 넣는다. 이 일을 용왕님 밥주기라고 한다.

● 삼신 모시기는 아기의 출생과 성장을 관장하는 삼신을 위한 일이다. 아이를 낳으면 짚을 깔고 미역국과 청수도 같이 올린다. 짚대신에 맨바닥에 놓기도 하고, 앞치마 같은 것을 깔아두기도 한다. 아이가 아프면 여러 색깔의 형겅을 자르고 밥을 새로 해서 서낭당에 가서 빌었다.

## 2. 마을공동체의 신앙

### (1) 풍동 마을의 산치성

풍동 마을의 마을공동체가 마을 전체의 안녕과 단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의 수호신에게 산치성을 올리며, 평소에도 수호신을 소중하게 여겼다. 마을의 언덕 위에 도당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는 터줏가리와 어병가리가 있어 이들 모두가 중요한 신으로 여기며, 그 앞에서는 모든 행동을 삼가며 조심하여 신앙심을 표현했다. 터줏가리는 대감 혹은 대감님이라고도 한다. 이런 마을 사람들의 신앙심을 모아 크게 제사를 올리며 마을의 안녕을 비는 행사는 매우 중요한 일로, 마을 전체의 힘을 모아 치르는 행사이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다.

산치성은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어려서부터 산치성에 초빙되어 집례해 왔다는 양정석(梁征錫, 1935년생)가 선배들에게 들은 바를 정리하여 말하기를 풍동 마을의 산치성의 역사는 적어도 260년이 된다고 하였다. 고양 관내에도 많은 무속인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굳이 서울에서 초빙하여오는 전통은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산치성은 제사를 지내거나 공수를 받는 절차에서는 매우 엄숙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커다란 마을잔치와 같이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특히 노인층이 제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청년들이 굿은 일을 도맡아 준비하며, 부인들이 음식을 장만하여 모든 참석자들에게 대접하는 등 마을 전체가 힘을 합하여 이루어내는 아름답고 성대한 축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2001년 11월 20일(음력 10월 6일)에 산치성이 거행되었는데 도당굿이라고도 했다. 마을이 해체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굿을 하면서 서울 왕십리에서 봉사 4명을 모셔와 경을 읽었다. 그들 중 한 명은 30년 전부터 하였고 한 명은 10년 전부터 하였으며 2명은 금년부터 시작하였다고 한다. 소경들은 서양북과 같이 생긴 북을 공중에 걸어놓고 채 두 개로 치면서 굿을 하였다. 무당의 굿과는 달리 앉아서



경을 읽는 형식이었다.

굿은 먼저 어병대 내리기부터 시작되었다. 오병군 노인이 술가지를 들고 쌀을 담은 함지에 술가지를 꽂아들고 앉아 있다. 어병대는 술가지에 한지를 묶어 만든다. 술가지로 어병대를 만드는 이유는 사철 푸르고 번치 않으며, 깨끗하기 때문에 모든 살을 몰아내기 때문이다. 어병대는 나쁜 것을 집어 삼킨다. 부정만 씻고 정화시키고 가시는 것이다.

소경은 주소를 대고 마을 상황을 설명한 후에 마을이 개발되어 떠나게 되었다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하강하시어 주민들을 도와 달라고 기원하였다. 계속 주문을 외우면 어병대가 흔들리기 시작해 왼쪽으로 쓰러지더니 바닥을 친다. 봉사가 산신령님, 도당신령님이 하강하셨다고 하고 부정을 거둬 주시기를 바란다고 한다. 오노인은 어병대를 들고 밖으로 나가 굿하는 천막 친 곳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와 어병대를 쌀을 담은 함지에 꽂는다. 들고 다시 일어나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다 한 여자의 머리를 쳤는데 맞은 분은 잘못했다는 듯이 빈다.

봉사는 다양한 경문을 읽으며 마을을 위해 축원을 해 주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는 산신대 내리기이다. 산신대는 참나무에 한지를 묶은 형태이다. 참나무는 길흉을 알려준다. 참나무에 신이 내린 상태에서 봉사가 공수를 한다. 봉사가 한 말이 맞으면 쿵 찌고 맞지 않으면 좌우로 흔들린다. 봉사가 ○○씨 가족도 편안하고 하고 말하니 참나무가 좌우로 흔들리니 봉사는 안택경이라도 읽으라고 일러준다. ○○씨의 경우 이름만 나온 상태인데도 좌우로 흔들린다. 이사가 문제냐고 물으니 좌우로 흔들렸고 다시 우환이 문제냐고 물어도 좌우로 흔들렸으며 구설에도 좌우로 흔들렸다. 풍파냐는 질문에 쿵 찌었다. 동네 사람들은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서로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조심할 것을 새겨 듣는다.

나쁘게 나오면 봉사는 신령님이 살피줘도 고사를 지내라고 한다. 심하게 안 좋은 경우 참나무가 바닥을 두들기기도 한다. 좋은 집은 이름이 나오면 바로 쿵 찌는 경우도 있다. 봉사는 참나무 신에게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올해 장가 갈까 하고 물으면 참나무가 쿵 찌으면 장가를 간다고 하신다라고 답한다. 구설이 올해냐 내일이나 묻고 올해냐 하고 세부적으로 물으면 맞으면 쿵하고 찌는다. 봉사가 공수를 내리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참나무는 흔들려 봉사는 다시 물어봐야 한다. 봉사는 스스로 공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산신대에게 뜻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거행된다.

이번 산치성에서는 마을이 없어지면서 신령님을 더 이상 모실 수 없게 되어 이제 먼 곳으로 가시라는 뜻으로 지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도당나무를 도지사, 시장, 구청장 중 누가 지켜 줄 것인가를 물었는데 산신대는 모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 줄 것이라는 말에 쿵하고 찌었다. 그래서 얼마나 계실 것인가를 물었더니 주민이 원하면 이곳에 있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섭섭한 마음 푸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먹고 놀다가 가시라고 하였다.

산신대가 봉사를 막 때렸다. 묻지 말라는 뜻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산신령님을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안 가신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난처해 하였다. 몇 백년을 모셨는데 안 가시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봉사에게 여기 계셔도 뿔뿔이 흩어져 모실 수 없으니 잘 좀 달래서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밤을 새워 안택경, 옥추경 등의 경문을 외우며 산치성을 진행하였는데,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각 가정별로 소지(燒紙) 올리기가 진행되었다. 집행부 임원들이 각 가정의 가장의 이름을 호명하면, 소경이 이름을 불러 올리면서 각 가정의 평안을 비는 축문을 외웠다. 산치성이 진행되는 동안에 부녀자들은 음식을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대접하면서, 마을의 화목한 분위기를 잘 드러내었다. 새벽에 잡신을 풀어 먹이는 뒷전을 진행한 후에 소경은 마을회관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청년회에서는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함으로 산치성이 종료되었다.

## (2) 당산나무와 터줏가리 어병가리의 보존

2002년부터 풍동의 식골 마을은 마을 전체가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어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되었다. 약 300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이 마을은 완전히 해체되고 주민은 각처로 흩어져 마을의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마을이 해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오랜동안 마을을 지켜주던 당산나무와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믿던 터줏가리와 어병가리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당산나무의 수종은 참나무인 마을에서 가장 신성한 존재이자 사람들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긴다. 터줏가리는 높이 2m 정도의 고깔 모양의 벚짚단인데 그 안에는 옛날 장수가 입었던 대감복과 전립을 단지에 넣어 신체로 삼은 것이다. 매년 가을에는 벚단을 새로 짜서 덮어씌었다. 어병가리란 업영가리라고도 하며, 마을과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준다는 업(業)을 모시기 위하여 터줏가리와 비슷한 크기로 세운 고깔 모양의 벚짚단이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이 매우 신성하게 여기는 것으로,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앞에서 기원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당산나무와 터줏가리, 어병가리는 절대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의지를 모으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과정에 마을의 당산나무를 지키려는 뜻을 모아 고양시와 대한주택공사에 청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터줏가리, 업영가리의 원래 모습

## 풍동 식골 민속문화재보존 건의서

고양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많은 수난을 겪어오는 가운데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훌륭한 역사를 이어 왔으며, 이제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삶에서 정신적인 가치가 물질적 가치보다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가치 가운데서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성한 장소로 여기면서 그 곳에 모여 마을 일을 논의하고 공동체의 신앙심을 확인하며 마을 공동체 의식(意識)을 함양하는 공간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되는 귀중한 문화 유산입니다.



2004년 열린 풍동 식골 마을 산치성과 APT 공사현장

고양시 일대에는 그동안 이상적인 도시화라는 과제를 위하여 많은 주거시설과 공공시설이 건설되었고, 문화공간 문화시설이 구축되어 근년에는 이상적인 도시로써 널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적인 과제를 위하여 고양시 전래의 농경지를 새로운 계획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선조들의 생활 가운데서 형성된 마을공동체의 회의 장소이자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의 공간과 그 일대의 언덕,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역사적인 나무와 신성한 민속문화재, 풍경 등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현대식 주거시설로만 밀집된 주거공간보다는 선조들의 오랜 전통과 역사가 공존하며 함께 숨쉬는 공간에서 지라나는 우리의 후손은, 분명 풍요로운 정신의 소유자이자 역사를 사랑하는 긍지 있는 시민이 될 것입니다.

풍동의 식골은 조선 중기 이전부터 역사가 시작된 매우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매우 독특한 민속문화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앞 산자락에 있는 산신제 터의 산신당목과 일대의 터줏가리, 이병가리는 민속문화재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산신제는 2년마다 가을에 수확을 감사하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로서, 마을의 수호신인 산신은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 상부상조하는 전통을 유지시키는데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왔습니다.

산신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새로 단장하는 터줏가리는 마을 일대의 안녕을 기원하는 상징물로서 마을을 지켜준다는 신앙을 형성하였습니다. 터줏가리는 높이 약 1.5m의 신비스러운 짚단으로 그 속에는 수호신에게 바쳐온 마을 사람들의 아름다운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어병가리는 어병가리 혹은 업령(業靈)가리라고도 하는데, 수백년 전부터 풍작을 지켜준다는 신이 깃들고 있다고 하여 마을공동체의 신앙대상이 됩니다. 어병가리는 터줏가리와 나란히 높이 1.5m의 짚단으로 금줄이 둘러 있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 기원하며 소중히 여깁니다. 시각적으로도 신성하게 보이는 요소가 있어서 인간이 만든 조형물이지만, 보는 사람에게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귀중한 민속문화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터줏가리와 어병가리 앞에 있는 산신당목(堂木) 산신나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전통사회에서 우주와 인간세계를 연결하는 신성한 신의 내림대의 기능을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산신나무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신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시각적 문화유산입니다. 이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마땅히 보존되어, 보는 현대인들에게 그 의미를 되새기며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지닐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산치성의 한 장면  
(걸어둔 복을 치며 경을 읽고 있다.)

2002년 봄에는 풍동의 식골이 풍동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마을이 해체되고 지형지물에 커다란 변경이 시도됩니다. 신주택지 건설에 편이성과 경제성이 우선적 기준이 되리라는 점은 수긍하면서도, 보다 넓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개발 과정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식골 마을의 산신제터 일대가 보존되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산신제터 주변의 자연과 더불어 산신당목, 터줏가리, 어병가리 등을 민속문화재로 후손들에게 남김으로서 신시가지 속에 자리잡은 생활사의 귀중한 유산로 남겨야 합니다.

많은 면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이 일대의 200평 내지 300평을 식골 민속문화유산 보존공원으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이 지너온 마을공동체의 훌륭한 협동정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자, 현대인에게 정신적 여유를 제공하는 의미 깊은 공간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민속현장 가운데서,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곳이면서도 식곡 마을과 같이 마을공동체 의식(意識)이 잘 남아 있는 아름다운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잘 다듬어져 있는 터줏가리와 어병가리는 좋은 위치에 균형 잡힌 단정한 형태로 잘 전승되고 있어 매우 훌륭한 민속문화재로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쌀을 담은 그릇에 엽양대(솔가지)를 세우고 있다.

부디, 택지개발과정에 편의주의에만 의의를 두고 이 민속문화재를 파괴해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가꾸고 보존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자랑이 되며, 후손들이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귀중한 공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02년 1월 3일 이런 청원의 일부가 수용되어 비록 원래의 자리는 아니지만 약 300m 떨어진 아파트 단지 내의 공원의 언덕 아래, 당산나무를 옮겨 심고 터줏가리와 어병가리를 옮겨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주민들은 이곳에 모여 마을의 역사를 회상하기도 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장소로 삼고 있다. 이곳에는 애향비 건립 예정지라는 풋말을 세우고, 아파트 공사가 완결되는 대로 마을의 역사를 기념하며 마을의 수호신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단결하던 모습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 (3) 되살린 산치성의 성공적인 개최

풍동 마을 터에 진행되던 아파트 외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도로가 설치된 2004년 11월 18일에는 3년만에 도당굿을 진행하여 흩어져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를 했다. 이날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옮겨 심겨진 도당나무 주위에 마련된 터줏가리와 어병가리 앞에 천막을 치고, 제상을 차렸다. 주변에는 부인회가 참석자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는 천막을 치고, 집행부가 노인들을 위한 천막도 따로 마련했다. 산치성의 개최를 기념하는 순서에서는, 모인 주민들이 감격하였고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도 있었다. 집행부의 인사와 내빈의 인사가 있었다.

고양시청의 전문위원인 정동일 씨는 이날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이곳 풍동 마을은 다른 곳과는 달리 동네 어른들이 노력하여 대한주택공사와 고양시에 건의하여 도당나무를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남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나,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 보존하기가 어려워서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어병가리도 있고 도당나무도 잘 보존

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노력하여 다행입니다. 대감나무가 살아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이곳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달라고 제출한 민원이 접수된 바에 따라서 12월에 문화재 지정에 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만일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주변 지역을 정비하고 안내판을 세우고 산치성을 지낼 때 일부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주민들이 여기 와서 살게 되면, 새로 이사온 주민들이 이것은 미신이니 무어니 하여 이곳을 헐고자 해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안내판을 만들고 이 주변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기 때문에 풍동의 산치성이 문화재가 되는데 나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협조를 잘 하여서 외부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한다고 할 정도로 잘 진행하여주기 바랍니다. 우선 대감나무를 잘 보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국의 여러 지방을 다녀보았으나, 이곳 풍동처럼 여러 어른들이 합심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니다. 특히 풍동의 경우는 소경을 모시고 경을 읽는데 이런 곳이 많지 않습니다. 고양시에 마을을 위하여 굿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소경을 모셔 경을 읽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도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이 바뀌고 산이 바뀌기는 했으나, 풍동 식골에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전체 마을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의미 깊은 순간을 기념하여 전체가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런 식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산치성 도당고사가 시작되었다.

산치성 도당고사는 대감과 어병가리 앞에 제사상을 차려 놓고 ①부정거리 ②신령 정의청배 ③대감놀이 ④재수경 ⑤소지 가정별 축원 ⑥신령 명당경 ⑦객귀퇴송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부정거리란 도당고사를 시작하면서 주변에 깃들이 있다고 하는 부정(不淨)한 기운을 쫓아내기 위하여 소경이 축문을 외우며 주위를 정화시키는 과정이다. 다음 정의청배란 신령에게 제를 올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모신다는 뜻이다. 대감놀이는 마을을 지켜주신다는 대감님을 칭하여 음악으로 즐겁게 노시도록 하는 과정이다. 재수경이란 마을과 각가정에 불행을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기를 바란다는 내용인 옥추경, 산신경(山神經), 연수경(延壽經), 도액경(度厄經), 용호경(龍虎經) 등의 경문을 북장단에 맞추어 외우는 과정이다. 소지는 각 가정별로 한지를 태워 올리면서 가족이 화목하기와 건강을 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각 가정의 가장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 올리며 축원한다. 신령 명당경은 지신에게 각집집의 토지를 잘 지켜달라고 비는 과정이다. 이렇게 마을과 각 가정의 안녕을 축원한 뒤에는 모셔왔던 좋은 신들과 이 자리에 와 있던 잠귀잡신들 모두가 잘 돌아가시도록 하는 순서로 객귀퇴송을 한다. 객귀에게 제상에 차렸던 제물을 떼어 던져주면서 잘 물러가라고 축원하며 전체 과정을 마친다.

#### (4) 산치성의 준비와 진행과정

대부분의 주민들은 식골 마을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고양시 내의 인근 지역에 이사하였으나, 장년층, 청년층, 부녀자들도 지내던 가끔 모여서 이전처럼 마을에 대하여 이야기도 나누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경조사에 출석하는 등 우의를 다지고 있다. 그러던 중 옮겨 심었던 도당나무도 무사히 자라고 있고, 가을에는 산치성을 지내던 풍속을 되살리고 싶다는 소원이 무르익어 마을 유지들이 모여 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노인회장 양봉석을 중심으로 도당제를 집행하기로 하고 추진위원장은 이기완이 맡았다. 도당제의 실무를 담당하는 상당주는 김농현, 부당주는 장년층인 이강준과 청년층인 김상문이 뽑히고, 삼당주는 청년층인 이강범과 이태호가 뽑혔다. 도당제 당일의 진행은 1960년대부터 도당제 때마다 초청하여 제의를 담당하게 하던 양정석(梁征錫, 1935년생) 일행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앞을 못보는 양정석은 경기도 양평군 출신으로 고향에서 김웅준에게 점치는 법과 고사소리를 배워 1959년에 상경하였는데, 1960년부터 유효준이 주재하던 식골 마을의 도당고사에 따라 다니며 일을 돕다가, 그가 세상을 떠나자 자연스럽게 일을 물려받아 격년마다 열리는 식골의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식골에 올 때는 동료 소경 2, 3명을 불러 함께 온다.

11월 8일에는 마을 대표가 서울시 성북구 중암경찰서 부근의 양정석의 사무실인 희망철학원에 가서 도당제 날짜를 열흘 뒤인 18일로 정하고 돌아왔다. 돌아와서 주민들에게 계획을 통지하고 당일에 제주(祭酒)로 바칠 조라술을 빚었다. 2되들이 술 항아리는 도당나무에서 10여m 되는 땅에 파묻고 익기를 기다리며 도당고사 준비에 들어갔다.

준비 과정의 중심에 있던 이기완 씨가 말하는 산치성의 준비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마을을 떠나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금년 가을은 매년 2년마다 열었던 산치성이 열리는 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노인회를 중심으로 마을에 안녕과 각 가정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하여 산치성을 열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10월 29일에 풍산동에 마련된 노인회관에서 양봉석 회장을 비롯한 마을의 원로 여러분이 모여 산치성을 기획하기 위한 각 모임의 대표를 모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1월 4일에 노인회, 부인회, 청장년회, 50대 남녀 친목회, 풍산금릉회, 조기축구회, 40대 미만 상조회, 풍육회 등의 단체의 임원 30여 명이 모여, 이전과 같이 소경을 불러 경을 읽는 형식으로 산치성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개최를 결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경비 마련과 진행의 기본 순서, 초청 대상자 등을 논의하였다.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마을의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찬성하는 화목한 분위기였다.

11월 8일에는 터줏가리와 어병가리를 만들기 위해 썰지 않은 기다란 쪼 50단을 구하여 말려 두었다. 10일에는 당주 부당주 삼당주가 될 수 있는 덕망있는 사람을 가려 뽑아 생년월일을 가리고 마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자 명단을 만들어 두었다.

11월 10일에는 노인회의 양봉식 회장과 김정복 전회장, 김농현 부회장, 박재식 총무, 이석송 이사, 이기완 추진위원장 등 6명이 제주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가지고 양정식 소경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번 일에 부정을 타지 않았고, 생기복덕이 좋은 사람을 골라 부당주에 이강준, 부당주 김상문, 삼당주에 이태호 등이 좋다고 하였고, 이밖에도 실제로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을 양정식 봉사와 협의하여 뽑았다. 날짜는 산치성 드리기에 11월 18일이 가장 좋다고 하여 이 날로 받았다.

날짜가 정해지면 당주는 물론 동네 사람들도 부정타지 않기 위하여 조심했다. 3, 4년전까지만 해도 날짜가 정해지면 다른 마을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는 일을 금했고, 들어온다고 해도 자고 가는 일이 없도록 했다. 마을이 수용된 이후로 이런 일들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으나, 이번에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부 지키도록 했다. 제관이 된 사람들은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하여 부부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피를 보거나 아기를 낳을 사람은 마을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다. 부당주나 삼당주는 몸이 깨끗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기간 중에는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일행은 돌아오는 길에 갈현동에서 조라(조라술)를 담글 때 쓰는 새 항아리를 구입했다. 돌아오자 곧 찹쌀과 누룩과 물을 부어넣고 조라를 담그어 당산나무 마루에 문었다. 이때 초청장과 안내장을 인쇄하여 발송하였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안내장을 140통을 보내고, 외부 사람들에게는 초청장을 170통 보냈다.

예전에 한 마을에 살고 있던 시절에는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산치성 안내를 하고 찬조금을 받았으나, 지금은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으니 안내장을 준비하였다. 한편 현지의 아파트 공사업체인 주공의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산치성 개최 일정을 알리고, 도당나무 둘레의 작업 정지와 주변 정리를 부탁하여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11월 15일에는 안내장 초청장을 발송하고, 담당자 회의를 소집하여 전체적인 업무를 분담하였다. 노인회는 고사반, 대감님, 어병가리를 단장하는 일, 부당주는 돈으로 구입해야 할 음식 준비와 재료 구입 계획과 진행을 철저히 하여 모두 구입하여 두는 일, 삼당주는 산치성에 집행 관련된 천막 제사상 깔개 책상 의자 식기에서 행주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준비하기, 청년회는 내빈을 위한 안내판 설치, 음식 만들기 등을 지정하였다. 총괄하는 집행위원장이 점검하는 일을 맡았다.

11월 16일에는 주택공사 현장사무실을 재차 방문하여 주변 정리를 다시 한번 의뢰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11월 17일에는 분담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노인회가 많

은 협조를 해주었다.

11월 18일 산치성 당일에 참석자는 도중에 다녀간 사람을 포함하여 약 270명이었다. 집행부에서는 떡 7말을 만들어 이 자리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마다 한 주머니씩 가지고 돌아가게 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일이 되고 모두가 나누어 먹는 일이니 매우 좋은 일이기 때문이라 한다.

부조로 찬조하여 도움을 준 사람들은 약 90명이었다. 처음에 노인회에서 내어놓았던 기금과 찬조금 가운데서 진행 경비와 소경 일행에게 지불한 사례금을 제하고도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이는 2년 뒤에 열릴 산치성 진행비로 노인회 총무에게 기탁하였다.

산치성이 끝난 뒤에는 남은 사람들이 부근의 식당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11월 21일에는 이기완 회장이 결산을 보고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마을의 통과례

정복여 / 고양시문화유산해설사

〈제보자〉

- 이종남(82) : 파주 탄현 갈현리에서 40여 년 동안 마을 이장을 지낸 김해 김씨 집안으로 시집와 5남 1녀를 두었다.
- 김옥희(78) : 식골 토박이로 아들이 없던 친정에서 양주군 백석면에 사는 정씨 성의 데릴사위를 들 여왔다. 5남매를 두었다.
- 이봉순(71) : 벽계 기미골(관산동)에서 태어나 열일곱 살에 원당으로 이사한 후 전주 김씨 집안으로 시집 왔다.

### ■ 조사의 개요

이 조사는 2003년 7월 현재 식골에 남아 있는 여성 고령자 세 분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식골은 사철 노동력이 부족하던 마을로 통과례의 형식은 그렇게 엄격하게 행하여지지 않았다. 또한 체계적으로 이를 관장하는 마을 어른이 따로 없었으니 이번 조사도 부득이 많은 부분이 세 할머니의 개인적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통과례의 모습들은 우리 나라 어느 고장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럼에도 식골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통과례의 형식을 조사하려 하다보니 어떤 자료는 한 개인의 경험이 그대로 내용이 된 경우도 있다. 또한 현재의 식골 모습은 70년대 전후로 주거환경이 전통가옥에서 현대가옥으로 바뀌면서 일상 생활에 많은 변화를 겪은 후였다.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의식도 간소화, 소멸화되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은 전통은 아직 살아있다고 보고 조사에 임하였다. 그러다 보니 2003년에 이루어진 조사이지만 많은 부분이 1970년 이전의 마을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되었다.

## ■ 임신 기원과 출산

농사일에 분주했던 마을 부녀자들은 아이를 낳기 위한 기원은 주로 마을 당굿 때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들 낳기 위한 노력이 많았는데 당굿 때 개인적으로 쌀 한 말 정도를 올리고 지성을 드린다. 또한 근처의 산이나 사찰에 가서 득남을 빌거나 북한산 바위 하나를 정해 놓고 지성을 드린 경우도 있다. 딸이 많은 집은 여자 아이를 낳으면 남자 이름을 지어 불리 다음 출산에 남아를 기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 없이 무조건 출산으로 아들을 기대한다.

임신한 후에도 특별한 태교 없이 일상적인 일을 그대로 한다. 출산시 난산일 경우에만 산파를 찾았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통 시어머니의 시중을 받는다. 그러나 이도 여의치 않았을 때는 혼자서 출산하는 예도 많아서 콩밭을 매다가 아이를 낳기도 한다. 마을의 각 가정에서는 대부분 6~8명의 자녀를 낳고 그 중 한 둘은 병으로 죽었다.

### (1) 출산 준비

출산이 임박해지면 벋짚, 수건, 세숫대야, 솜, 가위, 실패, 배넛옷을 산실에 준비하고 밥과 미역국으로 된 삼신밥을 대문 앞에 짚을 깔고 부어놓는다. 준비한 벋짚은 양수로 미끄러운 간난아이를 처음 눕히는 자리로 쓰인다. 삼신밥은 쌀밥과 미역국으로 차린 상차림으로 마루 아래 차려놓고 삼신에게 순산을 기원, 비손하고 대문 앞에 손 없는 방향으로 깨끗한 곳을 찾아 짚을 깔고 부어놓는다. 그 다음 산모의 첫 국밥을 다시 끓인다. 살생을 상징하는 고기 미역국은 부정이 탄다는 이유로 출산 일주일이어야만 끓일 수 있다. 제보자 이종남 집안의 경우는 출산 중에 사망한 조상이 있어 별도로 집안의 안녕을 담당하는 성주대감에게도 밥, 미역국을 차려 올린다.

### (2) 태줄 끊기와 금줄 치기

산파는 난산일 경우이나 불렀기 때문에 주로 시어머니가 태줄을 끊는다. 아이의 배꼽에서부터 한 뼘 정도 남기고 매듭을 두 개 만든 뒤 그 두 매듭 사이를 가위로 자르고 미리 마련한 실로 묶는다. 잘라낸 태반은 짚이나 종이푸대(양회종이)에 싼 후 바로 마당에 나와 태운다. 마당에 돌을 세 개 놓고 짚단을 올려놓은 뒤 그 위에 태를 놓고 왕겨를 덮어서 은근히 태운다. 하루 정도 타는데, 태가 민간 비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도둑 맞지 않게 잘 지키고 태운 재는 밭에 버린다.

아이가 태어나면 대문에 금줄을 건다. 이는 아이의 탄생을 알리면서 부정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 금줄은 지푸라기를 왼쪽으로 꼬아서 중간 중간 매듭을 만들어 고추, 술, 숯을 끼운 후 건다. 고추, 술, 숯 등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계절에 미리 마련해둔다. 아들을 낳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끼우고 딸을

낳았을 때는 고추를 빼고 솔과 솥만 끼운다. 금줄은 삼칠일이 지나면 대문 양끝에 매두었던 줄을 한 쪽만 거두어 기둥에 둘러 매둔다. 그리곤 백일이 지나야 완전히 치운다.

### (3) 작명하기

아이의 이름은 대부분 집안 어른이 짓는다. 아들의 경우는 출산 전에 미리 한문 풀이를 하여 작명하는 등 신중하게 생각했으나, 딸의 경우는 출산 후에 부르기 쉬운 이름을 쉽게 지어 부르는 경우가 많다. 아들일 경우는 작명해 놓은 이름을 피하고, 아무렇게나 붙인 듯한 천한 이름을 하나 더 만들어 부르기도 한다. 이는 귀한 아들을 귀히 여기면 잡신의 시기를 산다는 믿음으로 잡신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다. 딸이 많은 집은 여자 아이에게 남자 이름을 지어 불러 아들을 기원하기도 한다. 작명 후 호적 입적은 한 달 안에 하는 경우는 드물고 돌이 지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

### (4) 이후 백일까지

탄생 3일째 되는 날 아기 앞에 밥, 미역국 세 공기씩을 쥘 위에 놓는다. 이는 삼신에게 산모의 회복과 아이가 잘 자라게 해달라는 기원을 하는 것으로 3일째 날, 7일째 날, 삼칠일 날 이렇게 3번 같은 방법으로 차린다.

백일은 간단하게 차린다. 쥘을 깔고 국밥과 떡 한 접시 차린 상을 그 위에 놓는다. 이때 아이에게 새 옷을 해 입히는데, 어른이 입던 바지를 잘라서 재활용하기도 한다. 백일이 지나면 대문에 걸어두었던 금줄은 치운다.

### (5) 돌

첫 돌은 크게 의미를 둔다. 아이에게는 색동옷을 해 입히고 미역국, 밥, 국수, 과일, 수수팥떡 등 잔치음식으로 큰상을 차린다. 이는 아이의 수명을 길게 해달라는 기원으로 쌀 한 사발에 실을 걸어두기도 하고 책, 돈, 연필, 주산 등을 놓고 아이에게 '돌잡이' 를 하게 하여 장차 아이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점치기도 한다. 돌이 되어야 비로소 건강을 확인 받고 정상적으로 커서 어른이 될 수 있는 아이로 인정 받는다. 그러므로 큰 의미를 두어 기념하였으며 부유한 집은 외지에서 사진사를 불러 기념사진을 찍기도 한다.

## ■ 운명이나 병마를 물리치는 방법

### (1) 쌍가마를 갖고 태어난 아이

아이 팔자가 사나운 운명을 타고 난다고 믿는다. 이를 막는 방법으로는 아이의 외할머니가 작은 무쇠솥에 수수팥떡을 해서 이고 와 아이에게 직접 먹여야 한다. 제보자 이종남의 경우 아이들이 쌍가마로 태어나자 외손자의 악운을 물리치려 외할머니가 40리 길을 무쇠솥을 이고 걸어와 먹였다. 작은 무쇠솥이 부뚜막에 아직도 그대로 있다.



노구솥과 가마솥

### (2) 홍역, 마마 등 전염병 막이 주술

홍역은 민간요법으로 약을 만들어 쓴다. 눈비 맞고 바래서 희고 딱딱해진 개똥을 구해서 질그릇에 볶다 박숙, 보리를 넣어 다시 볶은 후 물에 넣어 끓인다. 이를 먹이면 홍역의 열기가 내리면서 병이 낫는다. 마마를 앓는 사람에게는 마마귀신이 붙었다고 하여 환자 앞에 물 한 그릇을 놓고 집안 어른들이 모두 환자에게 절을 한다. [별상님]이라고 부르는 마마귀신에게 잘못했다고 주문을 외듯 용서를 빈다. 병세가 호전되어 상처 딱지가 떨어지면, 쌀과 팥을 3되 3홉을 넣고 시루떡을 찌서 별상님 드시고 가라고 대접한다. 그리고는 짚또아리를 만들어 떡을 담아 마을 산 소나무 위에 달아둔다. 소나무는 손 없는 쪽 방향에 있는 나무를 골라서 달아놓는데 이를 '마마배신' 이라고 한다. 병이 마을에 퍼지면 이 '마마배신' 을 마을 동산 소나무 가지마다 여기저기에 올려져 있다.

## ■ 성인식

특별한 의식을 치루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남자 아이들에게는 '여자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지 마라' '집안을 돌보아야 한다' 는 등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여자 아이들은 '얌전하고 부엌일을 잘 해야 한다' '남자 아이들을 조심하라' 는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여자 아이의 경우 초경을 치루면 엄마가 생리대를 광목으로 해주는데 처음에는 흰 천으로 해주어야만 부정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식사법, 인사법 등을 가르친다. 밥 먹을 때는 이야기하지 말라, 맛있는 건 나누어 먹어라, 어른들께는 언제나 공손히 인사를 올려라, 기타 등등의 품행에 관한 제재가 이루어진다.

### ■ 결혼 풍습

40대 이후의 마을 사람들의 경우 중매결혼이 대부분으로 연애결혼은 거의 없다. 식골은 일이 많기로 유명한 동네로 결혼하면 일꾼이 하나 들어온다고 보고, 떠느리가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했으므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그다지 심하지 않다. 그러나 큰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 손톱이 다 닳아 피가 나도록 쌀을 씻고 한 해 간장을 30동이를 담그고 그것도 모자라 소금으로 국을 끓여 먹어야 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

### ■ 중매

집안 어른이나 이웃의 소개가 대부분으로 남자 집에서 여자 집을 찾아가 신부를 선본 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신부는 신랑의 얼굴도 못 본 상황이 많아 혼례장에서나 아니면 대엿새, 혹은 열흘이 지나서야 신랑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된다.

양쪽 집안의 찬성으로 혼인이 결정되면 신랑집에서 사주단지를 보낸다. 이는 누구와 누구가 혼인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랑이 보내온 사주 내용에 신부의 사주를 적어 합사주를 만들어 갖는다. 이후 택일이 이루어지면 신랑집은 신부에게 은반지, 저고리 한 감을 주면서 한 집 식구가 됐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혼례 2, 3일 전에 신랑은 신부 측에 함을 보낸다. 함 속의 내용은 집집의 형편마다 다르지만 양장옷 한 벌, 반지, 목걸이 등의 패물, 옷감 등이다. 신부 측은 함을 받으며 함을 지고 온 신랑 친구들에게 후한 대접을 한다. 신부나 신랑의 결혼 전날 의식은 목욕하는 게 전부이다. 가마솔에서 끓인 물을 다라이에 받아 부엌에서 씻고 혼례날이면 신부는 연지, 박하분 단장을 한다.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테릴사위를 들인다. 이때 신부는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시집을 가는 격이 된다. 이는 재보자 김옥희의 예로 특별히 다른 혼례의식은 없었다.

▶혼례의 절차 : 선보기 - 사주단지 보내기 - 날 택일 - 함가기 - 혼례(선 보고 20여 일 후)

### ■ 혼례

초례는 신부 집 마당에서 이루어진다. 신부 집에서는 혼례를 치르러 온 신랑에게 동네 총각들이 뒷간에서 가져온 재를 쪼꾸러미에 담아 신랑에게 퍼붙는다. 이를 '젓기름질' 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랑을 따라온 나쁜 귀신을 재를 뿌려 쫓아낸다는 의식이며, 한편



마을 처녀를 빼앗기는 데 대한 섭섭함에 대한 화풀이이기도 하다. 이때 신랑은 옷을 버리지 않게 우산이나 부채로 막는다. 말에서 내리는 신랑에게 친구들의 발바닥 때리기 등으로 '신랑다루기'를 하면 장모가 얼른 음식상을 나와 이를 말린다.

초례상을 차려놓고 신부가 먼저 절을 3번 하고 신랑은 절을 2번 한다. 상 양쪽에는 촛불을 밝히고 신부 앞에는 수탉을, 신랑 앞에는 암탉을 놓는다. 국수, 쌀, 콩 두 탕기에 젓가락을 꽂아놓고, 술잔 받침에는 청실, 홍실 깔고 술잔을 서로 주고 받는다.

초례가 끝나고 난 저녁 신랑 색시는 한방에서 상을 받는다. 첫날밤 촛불은 한삼으로 끈다. 절대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는다는 금기가 있다. 입으로 끄면 부정 타서 이별수가 낀다는 의미가 있으며, 한삼은 관복에 딸린 것으로 혼례 때 쓰던 것으로 한다. 신부 집에서 혼례 치르고 이틀밤을 보낸 후 신랑, 신부는 신랑 집으로 간다. 오고 갈 때 신랑 측에서 한 사람, 신부 측에서 한 사람씩만 동반한다.

신랑 집에서는 신랑 누나들이 동생인 신랑을 굴뚝 모퉁이로 끌고 가 맨 국수를 삶아 장국을 넣고 바가지에 담아 수수깥을 꺾어 만든 젓가락으로 먹인다. 신부가 신랑 집에 들어설 때 가마에서 내려서 대문 들어가기 전 솔뚜껑을 땅에 내려놓고 숟가락을 한웅큼 쥐어주면서 솔뚜껑 위에 던지게 한다. 이는 요란한 소리로 주당살을 물리치는 의식으로 그런 다음 신부는 솔뚜껑을 넘어간다. 주당살이란 잔 첫날 낄 수 있는 잡신을 말한다.

신부가 시집에 도착하여 처음 받는 상을 '인매상'이라고 한다. 다른 지방에서는 신랑집에서 다시 혼례상을 차리는데 식골에서는 이를 대신하는 것이다. 사탕, 국수, 약과 등 상 위의 음식들은 신부가 먹고 난 후 다 쏟아서 그 날로 친정집으로 보낸다. 부자집일수록 많이 차리고 많이 보낸다.

인매상은 신부를 대접하는 밥상으로 시집에서 차려주는 것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접대상이다. 이는 정식으로 식구로 인정하는 것으로 여유 있는 집안에서나 하는 것이었으며 가난한 집에서는 이를 국수 한 그릇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다.

신부는 집안 식구들에게 인사하는 폐백을 드린다. 신부 집에서 장만해 간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과 식구들에게 절한다. 가져온 참쌀, 팥 중 참쌀은 혼례 다음날 아침밥으로 팥은 종자로 쓴다. 팥은 자손 번창을 의미한다.

시집에서 3일 후엔 신랑만 술 한 병, 감주 한 병, 돼지 뒷다리 하나 들고 처갓집에 '삼일드비'라는 처음 인사를 간다. 그러나 신부는 시집에 남아 그날부터 일하기 시작한다. 이때 가장 흔하게 시키는 일이 흰 버선 깎는 일인데, 낡고 더러운 버선을 수북하게 내놓는다. 버선 깎는 솜씨를 보고 동네 사람들 신부를 평가한다. 혼자 처가에 간 신랑은 그날 오는 게 원칙이나 먼 경우는 자고 오기도 한다. 이때 역시 동네 청년들은 신랑의 다리를 묶어달고 발바닥을 때리는 '신랑 달기'를 하기도 한다.

사돈집 음식은 '저울에 달아둔다'는 속담이 있듯이 신부 집에서는 신랑 집에서 가져온 음식보다

더 많이 챙겨서 다시 신랑 집으로 보낸다. 이때 옷집 버선(시집 식구들이 신을 버선), 캐불(고추 모양이나 연밥 모양 노리개로 옆구리에 차는 것) 등도 만들어 보낸다.

### ■ 이혼과 재혼

40호도 채 안되던 마을로 이혼하는 경우는 없다. 식골은 항상 일손이 부족한 농촌 마을로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배우자를 내치지 않는다. 남자가 사별하였을 때 재혼하는 경우 있었으나 혼례를 치르는 등 형식적인 절차는 특별히 없다. 마을 사람들이 새 식구를 보러 구경 가면 인사를 하는 것이 신고식이다.

### ■ 회갑 및 칠순

회갑이나 칠순은 부유한 집에서만 치른다. 마을의 유지일 경우는 마당에 천막을 치고 2, 3일씩 동네잔치를 한다. 이는 40년 이장을 지낸 제보자 이종남의 시아버지 경우로 특수한 경우였고 대부분 잘 차린 생일상으로 대신하거나, 대부분 회갑여행으로 대신한다. 아들 장가를 다 못 보낸 집은 할 일 다 못했다고 회갑잔치를 하지 않는다.



회갑 날 잔치를 안 하면 다른 곳에 나가서

자고 온다. 또한 회갑 날짜가 좋지 않을 경우는 다음 해인 진갑 때 회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칠순보다는 회갑을 하는 경우가 많다. 회갑 날 새벽에 회갑 음식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작은 접시에 조금씩 담아 앞마당에 상차림하고 화장실에는 키에 차려서 놓는다. 조상님(5대조까지)께 먼저 올리고 회갑 맞는 당사자가 행사를 하기 전 무사안녕을 빈다. 회갑상은 마당, 화장실, 안방 이렇게 세 번 차리는 격이다.

### ■ 제례

과거에는 제사를 5대조까지 지냈으나 현재는 증조까지만 지낸다. 5대조는 정월, 추석에만 상차림하고 쫓날은 안 챙긴다. 장남일 경우 대를 내려오는 제사를 모두 받아 지내고, 차남일 경우는 장남이 미처 못 챙기는 조상을 모신다. 아들 없이 죽은 막내 삼촌이나 실종된 시동생, 독신이던 사촌시동생의 제사는 차남들의 몫으로 기꺼이 지낸다. 죽은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중에서 골라 제삿날을 정한다. 숫자가 겹치는 홀수 날을 정한 것이다. 전쟁으로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이 중에서 날짜를 골라서 제사를 지냈으므로 제삿날이 같은 경우가 종종 있다. 한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백중날을 제삿날로 정하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은 집안의 수 많은 제사도 번거로워하지 않고 조상신이 자신들을 보호한다는 믿음으로 스스로 찾아서 정성을 다하여 섬긴다.

### (1) 제례의 절차

제삿날 아침부터 제물 준비, 제기 닦기 등 제상 준비를 한다. 제사는 장남인 제주가 주관하는데 저녁이 되면 지방을 쓰고 축문을 작성한 후 집안의 문을 모두 열고 병풍을 친다. 시간은 11시에서 1시인 자시에 올린다. 제상에 갖은 제물을 올려놓고 촛불을 2개 켜고 향을 1개 사른다. 병풍 가운데 지방을 붙이고 남자들만 상 앞에 선다. 첫 술잔은 술로 부시는 모사를 하고 모사함에 부어버린 후 잔을 지방 앞에 놓는다. 모두 합동으로 2번 반 절한다. 모사잔을 다시 제주 앞으로 가져오고 밥과 국을 상에 올린다. 숟가락은 밥그릇 한가운데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게 꽂는다. 술잔에 술을 8부 따라서 향로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3번 돌린 후 지방 앞에 놓는다. 제주가 젓가락을 늦대접으로 된 시접에 3번 두드린 다음 모두 엎드려 절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축문 읽는다.

축문이 끝나면 다시 절을 한번 반 더 한다. 국그릇을 빼고 냉수를 올린다. 냉수에 밥사발의 밥을 3번 떠서 만 다음 수저 걸쳐둔다. 먼저 8부만 따랐던 술잔에 가득 침잔을 한다. 이후 2, 3분간 망자의 음복 시간을 준다. 걸쳐둔 수저를 그릇에 올려놓고 밥뚜껑을 덮고 젓가락으로 3번 올린 후 일제히 3번 절한다. 제사가 끝나면 촛불을 끄고 지방을 떼어내어 앞마당에서 태운다. 제관들은 제사상 앞에서 음복을 한 잔씩 하고 음식을 먹은 후 나머지는 상에서 내려 골고루 친지나 이웃에게 나누어준다.

### ■ 마을 신 모시기 - 대감나무

식골의 마을신은 300여 년 된 참나무로 나무 옆에는 짚으로 만든 마을 공동의 안녕과 각 가정의 복을 비는 터줏가리와 업양가리가 있다. 마을 굿은 하기로 한 해의 10월 초에는 점쟁이 장님을 찾아가 날을 잡는다. 날을 너무 멀리 잡으면 그사이 부정 탈 수도 있다 하여 4, 5일 후로 잡는다. 당주는 점쟁이가 뽑는데 깨끗하고 부정 없는 집 출신으로 육갑을 집어서 사주가 맞는 사람을 선택하여 3당주(상당주, 중당주, 삼당주)를 정하고 축원해준다.

축원 후 산에 올라가 부정 물리는 경 축원하고 밤새도록 경 읽는다. 이날 이후 당주 집은 대문 밖 양쪽에다 붉은 진흙을 파다 놓고 촛불을 쫓아 놓는다. 부정한 이는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이다. 마을회관이 생기고 나서는 회관 앞에다 마련한다.

굿 날 당일엔 사흘 전에 넣어둔 터줏가리 속 술항아리에서 익은 술을 꺼내 걸러서 당주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축원하며 끼었다. 나무밑 등에 잡귀 잡는 행위를 한다. 굿 경비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추렴한 쌀이나 돈으로 하는데 개인 축원은 쌀 한 말을 추가로 올리면서 하기도 한다. 음식은 쇠머리 고아서 눌린 고기, 밤, 대추 등 써 있는 과실을 쓰며 산신이니 만큼 생선 등 비린 것은 피한다.

당주 축원 후 장님이 경문 축원을 하고 밤새도록 경 읽으며 논다. 불러들인 귀신들과 놀고 나중에 보내는 형식이다. 이때 앞에서 산신대 흔들리면 운세가 나쁜 '언짢은 집'으로 쌀 한 말을 개인적으로 놓고 개인 운을 빌기도 한다.

굿 날이 잡히고 난 후 마을에 손님이 오면 못 오게 하거나 이미 들어왔으면 굿이 끝난 후에 나가게 한다. 옛날에는 도당굿을 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이 병을 앓아 이후로 2년에 한번 장님이 경을 읊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 ■ 가정의 액막이

점쟁이가 마을로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점괘를 물어보고 점괘가 안 좋아 식구들 중 누가 액이 끼었다면 만신이나 점쟁이들에게 쌀 한 두 말을 주며 빌어주길 부탁한다. 단골 만신이 있었는데 집집마다 2년에 한번씩 경사 굿을 했다. 한 해에 마을의 반이 굿을 하고, 다음 해에 나머지 반이 굿을 하니 해마다 10월 초는 온통 마을 사람들이 굿거리 구경 다니는 것이 일이다. 굿거리 구경을 다니는 것도 서로 품앗이이다. 집안 굿날은 10월 초에 있는 당굿 다음으로 잡아 동짓달에 한다. 근처 마을 식사리에 만신들이 살았는데 조상거리는 이 단골 만신이 한다.

식골 마을의 가정 신앙은 무수히 많다. 마을의 38집에 집집마다 수십 가지의 신주 단지를 모시고 있다. 대감으로 불리는 이 가신들을 명절이나 집안의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받든다. 집안 곳곳, 집 뒤(터줏대감), 안방(지석대감), 대들보(성주대감 - 집의 큰 신), 외양간(우마대감) 부엌, 문 밖 기둥(건립대감), 대문 위(수문대감), 조상대감(마루) 등을 모셔두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신의 존재를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신주 단지들은 대다수 마을 사람들이 전통가옥을 현대화하면서 거의 사라진다. 70년대 이후로 대대로 모셔오던 가신들을 한 곳에 모아 불살라 없앤 경우가 대부분이다.



터줏가리, 업양가리



당주가 모셔온 조라술

### (1) 성주대감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 가택 신으로 삼베를 3자 3치를 접어 대들보에 걸친다. 밖에서 소나무를 꺾어 대잡이 하는 사람에게 대를 잡아 모셔온다. 소나무 가지를 집안 대들보(대들보도 나무이다)에 대고 붙이는 시늉으로 성주를 모셔오는 행위를 한다. 3년, 5년에 한번씩 다시 모셔온다. 이는 밖에서 있던 성주 신을 집안에 모셔오는 것으로 원래가 나무에 살던 성주님이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무로 간다는 생각에서이다.

### (2) 터줏대감

뒤란에 단지에 걸벼나 콩을 넣고 짚으로 덮어 놓는다.

### (3) 조상대감

마루 들어오는 귀통이에 췌자, 대감옷, 안알림병거지 등 의관을 구비해 둔다. 다른 곳에서는 장손에 서만 했지만, 이 마을에서는 분가한 작은 아들네도 모두 마련한다.

### (4) 제석대감

식구들 수명을 빈다. 안방 벽에 주머니 명다리(칠성다리), 선반에 제석다리를 마련한다. 칠성님, 삼신 할머니를 모시는 곳이기도 하다.

▶명다리 - 소청을 석자 세치를 끊어서 빨아 말려 쌀을 3되 3홉을 담아둔다.

▶제석다리 - 고사를 지내고 나면 음식을 놓는 선반이다.

대바구니에 넣거나 창호지를 깔고 한 상 차리고 물 한 그릇과 촛불을 켜놓고 기원한다.

### (5) 대감독

추수 끝내고 햇벼를 한 말이나 두 말 넣어둔 항아리이다. 빌려주지도 않고 시주용으로 안 쓴다. 담았던 곡식은 재복을 의미하여 해를 넘기면 꺼내어 집안 식구들만 먹는다. 집안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으로 마루 한 쪽에 두었다.

### (6) 조왕(부엌신)

조왕은 부뚜막에 있다고 믿는데, 명절이나 고사 때만 물 한 그릇과 떡 한 접시를 놓고 비손한다.

## (7) 우마대감

농가의 중요한 재산이던 가축을 지키는 신으로, 외양간에 배 조각을 달아놓고 모신다.

## (8) 문전신

집안에 드는 잡귀를 막고 복을 지키는 신으로 대감병거지 모형모자, 의대 등 대문 위나 대문에 선반을 만들어 놓고 모셔 놓는다. 설날 '입춘대길' 등을 문짝에 붙이기도 한다.

## (9) 지신대감

집터를 관장하는 신으로 앞마당에 상차림으로 고사 때만 모신다.

## 〈식골의 가정 액막이 굿, 이종남의 예〉

최근 2002년 3월(음)에 조상님의 묘소 이장을 앞두고 조상굿을 했다. 5명의 만신을 불렀으며 경비는 5백만원이 들었다. 굿 상에는 큰 돼지 한 마리, 소갈비 1짝, 소죽 4, 떡, 밥, 대추, 꽃감, 과일 등을 올리고 시루떡 대감시루(팥), 성주시루(팥), 칠성시루(백설), 불사시루(백설), 지성시루(팥), 수문장시루(팥) 등 작은 시루 7개 만들어 모셨다. 이는 250년 전 이후의 조상(거의 7대조)을 불러 이장을 허락 받는다는 의미이다. 묘파기 전에 무덤 앞에서 미리 사전 예고를 읊는다. 일반적으로 이장을 위한 굿에는 '파묘요!' 라고 외치며 시작했으나 이번 경우는 장황하게 식골 개발로 인한 이장의 연유를 설명하는 말로 읊고 이후 파주시 적성면으로 이장을 하였다.

## ■ 식골의 마지막 마을 굿 - 당산대감 보내기 굿

2003년 7월 28일(6월 상달아흐레) 당산나무 이전을 앞두고 당산대감 보내는 이별굿거리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3가구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구경꾼이 거의 없는 가운데 당대감, 당할머니, 당할아버지를 모시는 굿관이 무당 5명에 의하여 열렸다. 마을 굿은 그동안 맹인이 경을 읽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는 이례적인 굿이었다.

당골은 문산 선유3리에 사는 이명자(39세) 외 4명으로 아침 10시에 시작하여 하루굿으로 진행되었다. 12거리 복식을 모두 갖춘 12거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부정거리, 산거리, 초부정거리, 불사거리, 구능거리, 대감거리, 성주거리, 지신거리 별상거리, 장군거리, 조상거리, 뒷전거리였다. 이후 당산나무이던 참나무는 마을의 서쪽 방향으로 이전된다고 하였다. 이때 공수를 하는 무당에 의하면 대감은 이제 이 나무를 따라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다. 마을이 사라지면서 나무에 깃들어 살던 당산대감도 나무와 헤어지는 것이었다.

이 곳은 그동안 마을 수호신 역할을 해준 당대감에게 38년 만에 새옷을 해 입히고 이별을 고하는 곳으로 마을에서 준비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300여 년 된 참나무는 물론, 나무 옆의 터줏가리와 업양가리도 사라졌다. 터줏가리는 참나무의 왼편에 있는 것으로 당대감의 옷을 넣어두었던 곳이고, 업양가리는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술항아리를 넣어둔 곳이다. 굿이 시작되는 이 날 아침부터 하루종일 당대감의 이별을 하늘도 안다는 듯 주룩주룩 비가 내렸다.



옮겨지기 이전의 대감나무



식골의 마지막 이별굿



옮겨진 후의 대감나무

## ■ 조사를 마치고

이 조사는 2003년 7월 한 달 동안 제보자 3명과의 면담 인터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현재 마을의 상황은 마을 주민들이 거의 이주하고 세 가구만 남은 상태였으며, 제보자 역시 고령의 여성으로 관혼상제 등을 주관하는 남자들에 비하여 통과의례의 자세한 절차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더불어 같은 내용을 모든 제보자에게 확인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한 사람씩 다른 내용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실제 이 내용이 식골의 일반적인 의례인지 개인적인 의례인지 그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관습이나 전통 등 민속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사자의 자질로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이니 우리나라의 어느 마을에서나 흔하게 이루어지는 통과의례조차 많이 생략되어 있어 이 조사는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험을 통하여 사라지는 우리 전통 마을의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현실화 해보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그리고 식골의 마지막 통과의례였던 '대감나무 보내기 굿'에 참여하여 취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조사 과정 중 가장 값진 경험이었다.

## 마을의 옷 이야기

목복균 / 경기도문화유산해설사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풍동 식골은 전주 이씨, 전주 김씨, 김해 김씨가 모여사는 곳이다. 임진왜란 이후 300~4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며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 식골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위에는 윗말, 건너는 건넌말, 회관 아래는 아랫말, 마을과 회관 사이는 셋말로 나누어 삼태기 모양의 동네에 옹기종기 정겹게 살아가던 농촌 마을이었다.

지금은 택지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날마다 얼굴보며 가정사를 나누던 이웃은 하나 둘 떠나고, 폐허로 남은 옛 집터 위에는 손때묻은 생활도구만이 덩굴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전형적인 우리들의 어머니 모습을 볼 수 있는 통장님 어머니 이종남 할머니와 김옥희 할머니 그리고 딸을 많이 낳으셨다는 이봉순 할머니를 찾아뵙고 그 어려웠던 시절의 의식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 시절 옷이라고 해야 광목으로 손수 만들어 입었던 바지 저고리, 치마 두루마기가 기본이었지만 한 벌 가지고 한 철을 보내던 시절이었으니까 별 다른 것이 없다고 하신다.

봄, 가을 여자들은 치마 저고리, 속치마, 단속곳을 입었으며 여름에는 등거리 적삼, 베치마, 속속곳 등을 입었다고 하신다. 또한 겨울에는 솜저고리, 광목치마, 광목버선을 신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자 옷에 있어서는 속옷의 가짓수가 많았던 것이 특징인 것 같다. 하의로는 단속곳, 바지, 또는 고쟁이, 속속곳, 다리속곳, 너른바지와 어깨허리의 속치마이며 상의로는 속적삼과 거드랑이 및 가슴 가리개 용 허리띠가 그것이다.

평상복으로는 사내 아이는 개구멍 바지와 여자에는 풍차 바지를 입었다. 또 명절이나 돌 때에는 연두색이나 노랑색의 천으로 저고리를 해주거나 색동 저고리를 입혀 곱게 꾸며주기도 했다. 성인 남자들은 바지저고리, 조끼, 마고자를 입고 여름에는 적삼에 홀조끼를 입었다. 두루마기는 외출할 때 계절에 관계없이 입었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벗는 법이 아니라고 한다. 두루마기는 남자 한복의 옷옷으로 착용되어 왔으며, 밖에서는 예복 또는 방한복으로 사용되는 유일한 한복의 옷옷이었다. 또 실내에서는 제사를 지내거나 세배할 때 착용했다. 이때 남자들의 속옷으로는 속고의, 적삼 등이었다.

겨울에는 방한용으로 토시를 만들어 끼기도 하였다. 혼례시 신부는 노란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고 족두리를 썼다. 가정 형편이 좀 나은 집에서는 초록색 원삼과 다홍색 활옷에 화관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는 용잠에 앞쟁기와 도투락쟁기를 드렸다.

신랑은 바지저고리, 조끼, 마고자 위에 두루마기를 입고 사모관대를 하고 각띠를 두르고 목화를 신었다. 또한 상례시 남자는 상복을 굴건제복이라 하여 굴건을 쓰고 중단을 입고 행전을 다리에 두른 후 제복 위에 요질을 댔다. 또한 아버지를 잃었을 경우에는 대나무 지팡이(죽장)을 짚고 어머니를 잃었을 경우에는 오동나무 지팡이(삭장 : 꺾아만든 지팡이)를 짚었다.

여자는 소복에 중단을 입고 머리엔 수질을 둘렀다. 또한 옷을 손수 지어 입던 때라 옷감은 주로 일산시장이나 능곡시장, 멀리는 서울 영천시장까지 가서 광목을 구입하여 양젯물을 넣고 삶아 햇볕에 널어 말리기를 반복 5~6번 말린 후 풀 먹여 다듬이로 다듬어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한다.

또 시장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방물장수를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주로 방물장수는 성냥, 비누, 비단, 색실, 물감, 빗(참빗, 열래빗, 민빗), 바늘, 구루무, 고무줄, 머리핀(실핀), 옷핀, 장분, 가위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녔다. 돈이 귀한 때라 쌀, 수수, 보리쌀, 계란, 깨 등으로 물건을 교환했다고 한다. 그 당시 화장품이 요즘처럼 흔하지 않았지만 그때에도 미용에 관심이 있던 여인네들은 동동구루무나 가루분(장분), 불연지 등을 구입해 발랐다.

머리 모양은 결혼한 여자들은 쪽머리나 머리를 말아올린 까미머리를 했으며 머리엔 동백기름이나 피마주 기름을 발랐다. 아이들은 머리를 땅거나 불잡아 댔고 대부분 남자들은 상고머리나 뽀뽀머리였다고 한다. 또 옛날엔 왜 하지 말라고 하던 것들이 그렇게나 많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옛날 어르신들이 현명하고 정이 많으셨던 것 같다고 하신다.

- 문지방을 밟거나 깔고 앉지 마라.
- 아침에 일찍 남의 집에 가지 마라.
- 밤에 손톱, 발톱을 깎지 마라.(특히 정월대보름 안에는)
- 누워 있는 사람 타 넘고 가지 마라.
- 동네 초상 가면 빨래 하지 마라.
- 해 넘어 가면 삶은 빨래 방망이질 하지 마라.
- 해산어미 그냥 보내지 마라.
- 밤에 머리 감지 마라.
- 빌린 것 선달 그림 되기 전에 돌려 주어라 등등

금기 사항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살아오시던 이웃들이 하나 둘 떠나가시고 이제는 몇 집 안 남아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통장님 댁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이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생을 살아오시던 많은 추억이 깃든 집과 고향을 등져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단다. 어떻게 고향을 잃은 저분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지금도 그 인자하시던 할머니의 모습과 그 아름답던 흙담이 눈에 아른거린다.



숲이 우거진 방성머리



산치성에서 만난 주민들은 반갑기 그지 없다.

## 마을 주민의 삶

전필숙 / 경기도문화유산해설사

### ■ 이봉순 할머니(71세)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특별나게 이야기 할 것도 없는 삶이야.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말을 잘 못해서 할 얘기도 없어. …… 그런데 어디다 쓸려고 그래? 별 도움이 못 될텐데…….”

어떡하냐고 먼저 걱정을 하신다. 고단한 삶에 찌들어 온 몸이 굴곡된 모습이지만 미소는 어찌보면 천진난만 하기만 하다.

이봉순 할머니는 출생은 원당에서 했지만 유년시절을 관산동에서 지내셨다고 한다. 딸만 넷인 가정에서 둘째 딸로 성장했고 큰 언니는 멀리 미국으로 갔으며, 두 동생은 서울 면목동에 살고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는 문 앞에도 못 가보고 집에서 아버지가 국문을 겨우 깨우쳐 주셨다. 아들 없어 구박 받는 친정 어머니와 너무 가난했던 기억만 절절하다고 한다. 그때는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로(보리고개, 홍수) 항상 배가 고팠기에 신나고 즐거웠던 일이 별로 없었다나…. 음식으로는 주로 밀떡, 밀지게미, 수수, 보리 등을 먹었다고 했다.

하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한 입이라도 덜고자 20세에 결혼을 하셨다. 자손을 8녀 1남을 두셨는데 지금은 5녀 1남이란다. 결혼과 동시에 할아버지께서는 군입대를 하셨다고 한다. 남편 없는 시댁에서 시집살이는 정말로 외롭고 힘겹기만 했다고 하시면서 상상에 맡기시겠다. 할머니는 5년 후 첫 출산을 시작해서 계속 6번째까지 딸만 낳으셨다고 했다. 다행히 서운하긴 하셨겠지만 인자하신 시어머니께서 아들 못 낳는다고 심하게 구박하지는 않으셨다고 한다. 차라리 형님의 시집살이가 훨씬 고되고 참기 힘들었다고 했다.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낳기만 하면 뒷목에다 모셔놓고 일 하나도 안 시키고 공주처럼 살게 해주겠다고 늘 약속 아닌 약속을 하셨단다. 나름대로 줄줄이 딸만 낳으니 걱정이 되고 아들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봉산 밑에 만경사라는 절에서 백일기도도 드렸다고 한다. 또한 다섯 번째 딸 아이의 이름을 밑에 남동생 보라고 이름을 ‘넘새’ 라고 짓기도 했다. 끈질긴 노력 끝에 일곱 번째 아들을 보게 되었고…. 그때의 할머니 기분을 이 세상 부러운 게 없고 모두가 내 세상 같았으니 평생 최고의 기쁜 날이었던 것 같다고 하셨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받으셨는데 드디어 고추

를 보시고는 너무 좋아 놀라 말문이 막혀 ‘아—아—아—’ 하시고 입을 다물지 못하셨다고 한다. 할머니께서는 아들을 보시고도 후시나 하는 마음으로 밀으로 두 딸을 더 두셨는데 그 딸들이 지금 옷 사주고 화장품 사주시고 할머니를 단장시키는 주역들이란다.

이봉순 할머니는 평생을 일만 하신 ‘일’ 할머니이시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논밭에서만 사셨다고 한다. 너무나 가난했기에 여러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면 일밖에 길이 없었다. 그야말로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만 해서 지금은 얼마간의 땅덩이를 마련했다니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는가? 물론 할아버지도 같이 하시긴 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째째 쉬면서 가무를 즐기셨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술 주정으로 싸움도 많이 했고, 속 태운 걸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고 하신다. 또한 할머니께서는 농작물을 서울 영천시장까지 이고 가서 팔았다고 한다.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오면 경제권은 할아버지가 다 가졌는데 한 번 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영원히 나올 줄 몰랐다고 한다.

구두쇠 할아버지가 안타까웠지만 도리 없이 체념하고 말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아주 무서웠고 그래서 할머니는 꼼짝도 못하신다고 했다. 친정 나들이 때도 항상 야박하게 하셨기에 지금도 그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는데, 그나마 아들 없어 의지할 데 없는 친정 어머니를 몇 년간 모셨기에 그래도 고맙다고 했다. 그래도 술은 고래였지만 노름을 하거나 바람을 피운 적은 없다고 했다. 오로지 할머니는 남자 일 여자 일 가릴 것 없이 외출 한 번 못하고 황소 같이 일만 하고 살았기에 지금도 할 줄 아는 것은 살림보다는 일 뿐이라고 한다. 몸만 허락하면 얼마든지 할텐데 온 몸이 다 아픈지라 지금은 집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신다고 했다. 구두쇠 할아버지가 병원비나 좀 넉넉히 주었으면, 그저 아이들 다 키웠으니 맛있는 거나 먹어가며 구경이나 하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도무지 풀지를 앓으신다고 원망하신다.

할머니께 여러 자식 키운 얘기를 해보라시니까 가슴이 메여 말씀 못하신다. 원래 8녀 1남이었는데 두 딸은 이내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큰딸은 다 키워서 시집 보내 손주까지 보았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잃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산다고 하셨다. 현재 다섯 딸들은 주변 가까이에서 살고 있고, 효자 아들은 파평에서 살고 있으며 주말마다 손주 손녀 데리고 자주 다닌다고 하셨다. 현재 13명의 손주를 두고 계시는 할머니, 더 이상의 일은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생’ 끝이 되었다. 평생 돈 한번 못 써보고 일만 하셨던 일 할머니께서 작년 칠순기념으로 온 가족이 모여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한다. 잔치를 하면 안 좋다고 해서 여행을 하셨단다.

“원래 나도 참 활발한 성격이고 아주 잘 노는 사람인데 어디 시간이 있어야 해보지. 주어진 삶에 그냥 순종을 하다보니 세월이 다 갔지 뭐야.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 아이고, 머느리 봉양 받을 나이인데 함께 살아야 좋을지 따로 살아야 좋을지 모르겠어. 수족 움직일 때까지는 따로 살아야겠지. 내 손이 내 딸이 아니겠어?” 하시며 허허거리신다. 지금껏 지나온 고단하고 힘들었던 무거운 삶을 이제 잠시 내려놓고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돌리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바로 그 환한 미소로 모든 걸 감싸안고 사셨으면 한다.

## ■ 이종남 할머니(82세)

인자하신 미소가 일품이신 미인 할머니이시다. 속정이 깊으시고 마음씨가 따스하다. 늙은이가 될 안다고 도와줄 것도 없는데 하며 손사래 치시다가 금방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 줄줄 나오신다. 꽤 드신 연세이신데 기억력도 좋으시고 정정하신 편이며 두루두루 지혜로우시고 똑똑하신 할머니이시다. 정말 평화롭고 다복하신 할머니님으로 오늘날 그것이 몸에 배여 보는 이들을 편안하게 하신다.

전주 이씨 이 할머니께서는 과주시 탄현면 갈현리에서 태어나셨고 3남 2녀 중 둘째로 살림밑천이었던 큰 딸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검정치마와 흰저고리를 주로 입었고 꽃당머리를 땀고 토막댕기 들이고 주로 짙신 신고 비석치기 놀이를 제일 많이 하셔서 신발이 다 닳아 떨어지기 일쑤였다고 한다. 왜 정 시절이라 딸 자식 많이 배우면 안된다고 학교 못 가게 해서 틈틈이 한글을 어깨 너머로 배우고 익히셨다고 한다. “정말 우리 할머니가 원망스러워. 내가 배우기만 했으면 한가닥 했을텐데 배우게 해야 말이지.” 집에서 가사일 돌보고 스스로 독학 하시면서 동생들을 보살피셨단다. 가끔씩 금촌으로 나들이도 하셨다 한다.

이종남 할머니께서는 처녀시절 솜씨가 아주 좋아 수를 잘 놓으셨다고 한다. 베갯잇이나 여러 소품들을 수놓아 돈벌이를 하시기도 했다. 작은 아버지가 그림을 그려서 수틀을 짜 주셨다는데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면서 보여주셨다. 할머니는 20세에 고모부의 중매로 시집을 오셨는데 할아버지는 그때 3살 연하이신 17세이셨다 한다. 할아버지는 4남 1녀 중 둘째이고 셋째아들은 6·25 때 거제에서 좌우의 싸움에 희생되셨다고 했다.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집으로 직접 선을 보러 오셨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도 못해 얼굴을 보지 못하시고 시집 온 첫날밤에나 제대로 봤다고 했다. 너무 잘 생기시고 미남이라 얼마나 다행이나면서 웃으신다.

시집살이로는 완전 대가족이 한 집에 살았기에 늘 그 뒤치닥거리로 세월을 보내셨단다. 20여 명이 되는 식구들의 먹을 쌀을 날마다 씻다보니 손톱이 다 닳을 지경이었단다. 일도 고되고 시집살이도 고달픈 데다 시집 온 새색시 눈에 시어머님 되시는 분이 주책스럽고 풍수 같아 처음에는 늘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남편이 하도 잘해주고 임신으로 인해 포기하셨다고 했다. 새 동서를 맞으면서 분가를 하셨는데 계속 분가로 출퇴근하시면서 식사 및 빨래를 맡아 하시고 시간 나면 바지저고리 만드느라 세월 다 보냈다고 했다. 특히 시아버지께서 이장 일을 보시느라 바깥 출입이 잦으셨기에 항상 바쁘기만 했다. 분가하시면서 친정 나들이가 좀 자유로워졌고 그래서 자주 친정을 다니셨는데, 첫 번째 신행길 얘기를 하셨다.

동짓달에 겨울 감장을 해놓으시고 달떡, 인절미, 돼지다리, 술, 감주 잔뜩 해서 소달구지에 싣고서 나들이를 가셨단다. 할머니는 지금 사시고 계시는 집으로 분가하셨고 큰아들 돌잔치도 치루고 5남 1녀 기르면서 현재까지 살고 계신단다. 특별히 지손들이 병원 문지방 넘는 일 없이 건강했으며 다 얹전하고 품행이 발라서 별로 속썩는 일 없이 키우셨다 한다. 크게 놀랐던 일은 큰아들이 친구들과 인

민군 수류탄을 주워 가지고 놀다 터져서 세 명이 죽었는데 할머니 아들은 다행히 파편만 맞아 무사했다 한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정월 열사흘 생일 지난 뒤 심하게 독감을 앓아 병원에 갔더니 신생아들이 막 죽어 나간지라 그때 애를 태웠다고 한다. 이 외에는 특별히 고생스럽거나 힘든 기억이 별로 없다.

23살 첫 출산 이후 5남 1녀를 4살 터울로 낳아 모두 훌륭하게 키우셨다. 남편을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었으며 아이들은 우주였다. 할아버지께서는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꽃 농장을 해서 큰아들한테 맡기시고 남대문시장에서 꽃 장사를 하셨다. 할머니 역시 남편을 도와 열심히 가사일에 충실하시고 자식들을 사랑하며 탈 없이 잘 키우셨다고 했다. 지금도 장남은 화원을 경영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포항 제철 다니며 셋째, 넷째는 교사와 회사원이며 딸은 저 멀리 제주도로 시집가서 전화로 자주 모녀의 정을 더 하고 있다.

누구나 한 가지 걱정을 다 있다고 늘 할머니 가슴속을 태웠던 막내아들이 늙도록 장가를 가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하신다. 풍동의 보배로 통장 일을 보셨던 노총각 막내아들, 좋은 인연 만나 부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든이 넘은 연세에 지금도 김치며 밑반찬을 맛있게 해서 이 아들, 저 아들 나누어 주신다. 노인 분 살림하시는 집 치고는 매우 정갈하시다. 이 모든 것이 평탄하시고 복되게 사셨기 때문일 것이다. 원래 타고난 성격이 밝고 넉넉하며 그 시대에 어른치고는 상당히 멋있고 깨이신 분이시다. 노랫소리도 시원하게 잘 하신다. 아무튼 숨씨, 마음씨, 맵시, 거기에다가 재치까지 푹푹 뭉치신 할머니, 할머니처럼 사셨더라면 ‘한’ 없는 삶일 텐데...

중간 중간 음료수 과일 먹을 것을 권하시며 미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안해 하시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이 ‘나이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한다. 집을 나올 때는 예쁜 꽃을 한 다발씩 가슴에 안겨주시면서 미소짓는 소녀 같으신 할머니.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무 때고 기분이 좋아진다.



## 마을의 의생활

### 1. 연령에 따른 평상복

일반 복식 즉 평상복은 아이에서 어른까지 평상시 입는 옷들을 말한다. 출생 후 돌까지 지나고 유아기 아이들의 차림과 처녀들의 차림 및 머리 모양, 성인(成人)의 옷차림 등 연령에 따라 달리하는 의생활의 전개 과정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어른 옷에서는 부인들의 머리 형태와 서답, 농부들의 비옷 등을 살펴보았다.

#### (1) 유아복(乳兒服)

이 시기는 돌이 지나고 자립하여 걸어 다니는 1~3세 정도 유아기 때를 말한다. 명절이나 나들이 할 때 옷은 남·여아 구별을 하여 만들어 입히지만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남·여아 구별이 없었다.



##### 1) 남아(男兒)

저고리는 길이를 배가 덮히도록 길게 하고, 옷고름은 겹썩 쪽 것을 길게 하여 허리를 한 바퀴 돌려 맨다. 아래에 입는 것은 주로 배 앞을 가리는 '두랭이' 로 하거나, 십자 바지나 풍차 바지를 입히다가 대소변을 가리면 가랑이가 막힌 일반 바지를 입혔다. 옷 색깔은 일상 입는 것으로는 주로 흰색인데, 흰색은 더러움이 잘 타기 때문에 특히 바지는 보라색이나 검정 또는 갈색 물을 들여 입혔다.

칙칙한 옷으로 하는 이유는 옷감이 귀하고, 또 고운 물을 들여도 쉽게 탈색하기 때문에 겨우 흰색만 면하게 하여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곱게 입힐 때는 여아들 옷은 주로 노랑이나 빨강·분홍물도 들었다.

옷감은 주로 왜포를 시장에서 사다가 하거나 어른들이 입던 것을 뜯어 만들기도 하고, 겨울이면 솜이나 누비옷으로 하고, 여름에는 홉으로 했다. 신은 귀한 것이라 여름에는 주로 맨발로 다녔다. 차츰 고무신이 보급되어 고무신을 신었고 그 전에는 짚신도 신었다 한다.

## 2) 여아(女兒)

특히 머리 치장을 잘했다. 머리카락이 짧았을 때에는 종종머리를 하였다. “ 종종머리 ”란 가르마를 타고 양쪽으로 바둑판처럼 2~3가닥을 나누어 땅는 것을 말한다. 머리카락이 조금 자라면 다시 귀밑에서 모아 땅고, 좀 더 자라면 뒤로 모아 땅아준다. 머리가 짧기 때문에 뒤로 긴 땡기를 들이지 않고 “ 토막땡기 ”라 하여 고리를 단 빨강의 짧은 땡기를 달아주기도 했다. 1950년대 이후 집안에서 만든 한복 대신에 시장에서 파는 양복류를 입히기 시작하였다.

## (2) 젊은이

## 1) 총각

## ① 두식

머리는 남자어른들처럼 단발한 중머리였다. 드물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상고머리도 하였다.

## ② 옷

옷은 학생인 경우와, 집에서 농사만 짓는 경우에 따라 달랐다. 1930년대 이후 대부분의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나섰으며, 이 때는 한복을 입었다. 여름에는 적삼에 바지 속에 ‘잠뱅이(袴衣 짧은 것)’를 입었다. 겨울에는 솜바지와 저고리에 솜 두루마기를 입었으나 매우 귀한 일이었다. 겨울에는 저고리 위에 조끼도 입었다. 토끼털로 귀마개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차츰 양복이 나오고 중학생이 되면서 학생일 경우는 양복 교복과, 한복을 겸용하는 이중구조였다. 일상 생활에서는 남자 어른처럼 학교 갈 때 외에는 대부분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으므로 한복을 입었다.

## ③ 신

주로 나막신과 짚신을 신었다. 여름에 농사철에는 거의 맨발이었다. 1920년대부터 고무신, 운동화, 구두가 있었으나 학교 가거나 나들이 할 때만 신었다. 1950년대에는 대체로 고무신을 신게 되었다.

## 2) 처녀

## ① 머리 장식

처녀들의 머리는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였는데 한 가지는 시집갈 때까지 ‘땡기머리’를 계속한 경우와 다른 한 가지는 ‘중단발머리’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다. 처녀들은 땡기머리는 반드시 ‘귀머리(귀밑머리)’를 땅고, 이 머리를 뒤로 모아 땅아 늘어뜨렸다.

처녀들의 유일한 호사거리는 머리를 땅아서 뒷머리를 할 때는 들이는 ‘땡기’였다. 색상은 빨강이나 자주로 하고 여유가 있으면 사철 따라 옷감이 다른 것을 사용했는데, 단(緞)이나 사(紗), 명주 또는

시대에 긴 땡기머리는 거추장스럽고 비위생적이며 비활동적이라고 하여 짧게 하라고 해서 특히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단발머리가 강요되었으며, 이로부터 짧게 자르는 중단발머리가 일반 처녀들에게도 유행하였다. 중단발머리는 긴 머리를 2~3번 땡을 정도로 짧게 하고 고무줄로 끝을 묶는 것이다. 땡기 머리를 했을 때는 처녀들은 반드시 귀머리를 하고 뒷머리를 해야 했다.

### ② 옷

주로 어깨허리를 단 검정 통치마에 흰 저고리가 처녀들의 상징이고, 정장일 정도로 가장 많은 차림이었다. 옷감은 주로 왜포나 인조로 만든 치마에 저고리를 입고 속에는 '고장바지' 나 '사르마다'를 입었다. 고장바지는 가랑이가 트인 바지를 말하며, 사르마다는 남자들이 입는 잠방이 같이 만든 것으로 길이를 무릎 아래 오게 짧게 하고 허리에 고무줄이나 끈을 넣어 만든 짧은 바지와 같은 것을 말한다. 운동회 때는 검정물을 들인 사르마다에도 여자 것에는 고무줄을 넣고 남자 것에는 고무줄이 귀해서 끈을 넣었다.

처녀나 여자들은 가슴이 크면 흉거리였다. 그래서 되도록 싸매서 작게 보이려고 하였다. 처녀들은 특히 "저고리 앞이 들리면 흉" 이라고 하여 저고리를 입을 때는 가슴을 조여 메었다. 가슴을 작게 하기 위하여 대부분 치마나 바지의 허리말기를 넓게 하여 가슴에 치켜올려 묶었다. 학교 다니거나 외출이 잦은 처녀들은 짧은 통치마를 입기 때문에 거울에는 따로 '반도띠' 나 '반도' 를 만들어 입었다. 반도는 조끼형의 어깨말기에 단추로 여미도록 만든 것이다. 노인들은 '석(革)대' 또는 '허리속곳' 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옷감은 주로 왜포나 삼베로 누벼 만든 것으로 가슴을 조이기도 하고 추울 때는 방한용이 되기도 하였다.

### ③ 신는 것

버선은 왜포로 만들었는데 거울 것은 솜을 넣고 버선의 발목을 길게 하고, 여름 것은 솜을 얇게 두거나 겹으로 하였다. 고무신이 1920년대부터 나왔다. 처음에는 검정이었는데 당시는 매우 귀한 것이었으므로 집에서는 대부분 짚신을 신었다. 이곳은 벼농사를 지었으므로 짚신 재료가 흔하였고, 특히 백석 쪽에서는 짚신을 만드는 사람이 많았으며, 마포 등 서울 쪽에 가서 팔았다. 짚신 중에서도 특히 물들여서 곱게 짠 것은 대단한 호사로 잘 사는 집의 처녀나 새댁들이 명절이나 혼사 때 신었다.

이중남(1922년 생)은 "일곱 여덟 살 때 할아버지가 장에 가서 검정 고무신을 사 오셨는데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을에서도 혼자 신었는데 친구들이 매우 부러워했다. 대개 그 때 아이들은 짚신을 신었다. 앞 축만 붉은 물을 들여 신으면 호사였다." 고 한다.

## (3) 어른

## 1) 남자

## ① 두발(頭髮)·관식(冠飾)

대부분 머리는 단발(斷髮)이었다. 드문 일로 1930년대까지도 상투를 들고 있는 어른들도 있었으나 마을에 하나, 둘이었다. 상투 튼 어른들이 돌아가신 후 전부 중머리나 상고머리였다. 상고머리는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나 젊은이들이 하였다. 머리에는 모자를 쓰기도 하였는데 직장에 다니거나 특별한 나들이에 썼다. 대부분 중절모(中折帽)였다. 겨울에는 상투를 튼 노인들은 남바위, 휘항, 풍차를 썼다. 차츰 서양식 군인용 털모자(병탱이)가 나와서 이용하고, 귀마개도 하였다.

## ② 옷

양복과 한복을 겸용하는 이중 구조였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한복이었다. 총각 옷과 같이 계절에 따라 옷감은 광복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여름에는 주로 삼베로 하였다. 겨울에는 노인들은 명주로 솜옷을 입고 손토수도 하였다. 조끼와 마고자도 있었는데 조끼는 대부분 사계절 모두 입고, 마고자는 주로 방한용이었으며 여유 있는 경우에는 사계절 입기도 하였다. 손토수는 솜을 넣거나, 털로 하였는데 털토수는 매우 고급이었다. 주로 토끼털로 하였으며 노인들이나 사용하였다. 추울 때 밖에 나갈 때는 목에 수건을 칭칭 감기도 하였다.

## 2) 여자

## ① 두발(頭髮), 쓰개

부인들의 머리 모양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계속 '쪽진머리' 를 했는데 70~80대 부인들이 젊었을 때는 쪽머리 외에 신여성들에게 유행된 새로운 머리 모양도 보급되어 공존하였다. 머리 형태에 따라 "까미", "우찌마끼", "노루마끼" 등 일본식 명칭으로 부르는 것들이었는데 이 머리는 남자 머리보다 짧게 하여 머리핀을 꽂아 뒷목덜미 위에 고정시키는 형이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로는 '불파마' 머리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까미는 한 가닥으로 묶은 뒤 두 가닥으로 나누어 땅아서 일종의 쪽머리 형식이지만 팔자(八字)형으로 말아서 핀을 꽂은 것이다. 까미나 쪽머리도 큰 것이 좋아 보이므로 달비를 들여 크게 하였다.

노루마끼는 '싱' 을 넣어 말아넣은 것인데 이 머리를 하려면 10여 개의 'U' 자 모양의 실핀과 싱이 있어야 한다. 싱은 머리 빗을 때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 두었다가 만드는데 중심 부분이 약 4cm 직경으로 둥글게 하고, 양쪽 끝으로는 가늘게 만들어서 마치 5~6일 쯤 된 초승달 모양이 되게 만든 것이다. 까미나 노루마끼를 하려면 '머리 발(毛髮)' 이 뺏뺏한 생머리보다는 곱슬한 것이 좋기 때문에 머리끝만 파마를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쓰개’는 드문 일이었지만 일제시대까지도 젊은 색시가 친정 나들이 갈 때 썼는데, 이유는 거리에서 ‘남자 본다’고 해서였다. 어른들은 그런대로 자유로웠지만 새댁들이 얼굴을 뺀히 내놓고 다니는 일은 좋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다. 여유있는 노인들은 거울에 남바위나 조바위를 쓰기도 하였다. 2002년 1월 현재 노인들의 두발은 대개 ‘컷트’와 파마이며, 쪽 머리를 한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 ② 옷

### ○ 치마여밈

여자들의 치마 입는 형태에 따라 ‘주릿대 치마’라는 말이 있었다. 이는 기생들의 치마 입는 모습을 말한 것으로 치마의 자락을 저고리 뒤 도련 위로 치켜올려 입은 형태이다. 양반이나 일반 가정집 여자들은 치마자락을 치켜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통치마’는 학교 다니는 여학생이나 신식 여성들이 주로 입었지만 60대 또래의 부인들도 젊었을 때는 통치마도 편의에 의해 입기도 했다. 통치마는 일반 치마 보다 조금 짧고, 통을 막았기 때문에 활동적이며 편리한 것이었다. 이 지역의 치마 여밈은 기생이나 ‘쌍사람’들은 ‘바른쪽’으로 여며 입고, 양반이나 일반 여자는 ‘왼쪽’으로 여몐다.

### ○ 몸빼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자락치마 대신 간편한 옷으로 입으라고 하여 몸빼를 강제로 입게 하였다. 치마를 입고 다니다가 두 가랑이가 벌어진 몸빼를 입으니까 쑥스러웠지만 할 수 없이 입었다. 서울 가려면 기차를 타야 했는데 역(驛)에는 일본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일본말을 하고 몸빼를 입어야 표를 살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마을에서나 집에서는 일상복인 치마에 저고리 차림이었다. 특히 마을에서 남자들이 지도자층에 있던 경우는 몸빼를 숭선하여 입었다. 부인들은 강제로 반(班)단위로 모내기도 하고, 공청에 나가서 글도 배우고 체조도 하였다. 검정 몸빼에 흰 적삼을 입었다.

### ○ 서답

‘서답’이란 일반적으로 빨래를 말하는 것인데 여성은 속어로 월경대를 ‘서(소)답’ ‘가(개)집’ ‘개지미라고 하였다. 그러나 개집은 비속하다고 하여 주로 서답이라고 하였다. 월경을 할 때는 ‘몸한다’ 또는 ‘그거’ 등 은어로 통할 정도였다. 이것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특히, 남자의 눈에 띄지 않게 매우 조심스럽게 간수하였다. 옷감은 빨래하기 쉽고 흡수가 잘 되는 것으로 하는데 삼베가 가장 좋았으며, 소창지나 왜목(倭木), 남목(우리나라산 무명을 말함) 등으로도 하였다. 특히 시집갈 때는 아기 낳으면 쓸 것이라 하여 삼베로 3~5개 가지고 갔다. 삼베는 아기 낳은 뒤 산후(産後)에는 땀이 안 나고 흡수가 좋고 또 때가 잘 빠지므로 가장 좋은 것이다. 서답은 대개 삼베 10자 정도면 3개를 만드는데 대각선형으로 접어서 고리를 달고 끈을 연결하여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다.

서답을 빨 때는 오줌에 담갔다가 했는데 이는 비누나 잿물이 귀해서이기도 했지만 삼베는 다른 것에 비해서 워낙 피 때가 잘 빠지기 때문이다. 때가 덜 빠지거나 또 왜포나 무명으로 하였을 때는 잿물에 삶고 말릴 때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널어서 말렸다.

## 3) 일상복

## ① 남자

남자들의 일거리는 주로 농사짓기나 땀감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특별한 나들이 때 외에는 일상복이 노동복과 같은 것이었다. 농사가 주업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논이나 들일을 하고 집에서는 부업으로 삿갓이나 방석(김치독, 시루밑 등) 혹은 짚신을 만들거나, 가마니 짜기 등을 했다. 따라서 남자들의 옷은 농사짓기에 간편한 옷으로 계절에 따라 바지나 저고리를 입었다. 여름에는 고의에 적삼을 입고, 겨울에는 방한용으로 솜옷이나 누비옷을 입었다. 손목에 토수를 끼기도 하고, 모자를 쓰고, 귀마개도 하였다. 모지는 솜을 넣거나 볼에 토끼털을 댄 것을 쓰기도 하였다. 귀마개도 털로 하였는데 주로 토끼털로 하였다.

## ② 여자

여자들의 일은 주로 집안에서 하는 것들로 음식 만들기, 바느질하기 등이다.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밖을 나가는 일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여자들의 옷은 치마에 저고리가 기본이었고, 속에는 바지에 단속곳을 입었다. 바지는 여름에는 홀이었는데 고장바지라고 하였다. 이 때 바지는 품체가 달리고, 가랑이는 트이고, 허리에 말기를 단 것이었다. 특히 부업일을 할 때는 행주치마가 필수였다.

옷은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홀으로, 봄과 가을에는 겹으로, 겨울에는 솜옷이나 누비옷을 입었다. 겨울용으로 내복이 없었으므로 노인들은 보온용으로 솜을 넣거나 누빈 허리띠를 속에 띠기도 하였는데 이를 허리속옷이라고 하였다. 허리속옷은 명주나 왜포에 솜을 넣어 누빈 것이고, 노인들은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솜토수를 하고, 덧저고리를 입었다. 또 수건을 쓰기도 하였다. 덧저고리는 솜을 넣어서 일반 저고리보다는 크게 하여 길에 입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토수나 허리속곳, 덧저고리 같은 것은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나 입었으며 보통은 외출할 때나 입을 수 있는 것이었다.

## 4) 우의(雨衣)

우천(雨天)에는 주로 머리에 삿갓을 쓰고 우장을 입었다. 신은 나막신을 신었다. 평소 비가 오는 날은 비옷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 나들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옷은 주로 농부들이 사용하였는데 특히 여름철에 논 밭일을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며,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였다. 신은 나막신을 주로 신었지만, 일제강점기 때는 젊은이들에게는 게다가 많이 이용되었다. 멀리 갈 때는 짚신을 신고 논밭에 가서는 맨발이었다. 우장은 망토처럼 이영 위듯 땀뺀을 달아서 어깨에 지게처럼 걸쳐 입었다. 크기는 엉덩이 위를 덮을 정도이다. 대부분 자급자족으로 집에서 만들어 입었는데 재료는 부들이나 나락짚 또는 보릿짚으로 하였다. 가장 좋은 것은 부들로 만든 것으로 가볍고 윤이 났다. 이것은 매 집마다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이웃 나들이 할 때나 사용할 정도였다. 나락짚이나 보릿짚으로

만든 것은 비에 젖으면 무거워서 혼이 났다고 한다. 우장은 짧기 때문에 아랫도리를 가리기 위해서 두랭이를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두랭이는 치마와 같은 모양으로 허리에 끈을 달아 입었다.

1940년대가 되면 삼(麻)으로 짠 쌀포대가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쌀을 처리한 다음에 가볍고 편리해서 일할 때는 비옷 뒤집어 쓰기도 했다. 또한 이 때 맥고(밀짚) 모자와 검정 고무신이 나와서 이것들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이후 군대에서 고무로 만든 비옷이 나오는데 매우 좋은 것이었다. 그러나 쓰면 걸리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었다.

1970년대 이후 비닐로 만든 비옷이 나오면서 아주 편리하여졌다. 샷갓은 백석과 난산 쪽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재료는 행주산성 부근에서 많이 야생(野生)하는 갈땡을 이용하였다. 속에 입는 옷은 여름에는 무명이나 왜포 굵은 것으로 만든 적삼에 잠방이를 입었다. 여자들도 들일을 나갈 때는 몸빼에 적삼을 입었으며, 한국 전쟁 이후부터 겨울에는 담요로 만든 몸빼를 입기도 하였다.

## 2. 기타

의복을 만들기 위한 재료의 준비와 갈무리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루었다. 즉 옷감 생산으로써의 길쌈, 염색, 빨래와 푸세, 바느질, 옷 갈무리하기와 당시 유행했던 옷감도 포함시켰다.

### (1) 길쌈

이 곳의 길쌈은 무명과 명주를 주로 하였지만, 1900년대 초 이미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까지도 목화를 심기는 했으나 솜옷이나 솜이불을 만드는데 솜을 쓰기 위한 정도였다. 제보자 대부분 길쌈 일은 어려서 조모(祖母)나 모친이 길쌈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고, 이들이 ‘물레’로 목화씨를 뺨 경험을 가진 경우도 매우 드물었다. 길쌈 가운데서도 모시나 삼베를 하는 것은 전혀 본적이 없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는 집집마다 뿔나무를 심고 누에를 쳤는데 이 일은 강제로 시켜서 한 것이었다. 이 때는 관청에서 누에씨를 나누어줬으며, 누에고치는 모두 공출로 바쳤다.

이중남(1922년 생)은 “친정 파주에서는 목화공출이 심했다. 베틀을 못 봤다. 오히려 요즘 TV에서 볼 정도이다. 이 곳 고양에서는 누에 공출이 심했다. 마지와 저고리를 해 입을 솜도 남기지 말고 공출 내라고 해서 안내면 집집마다 뒤지기까지 하였다.” 신난옥(1926년 생)은 “시집(송포면 대화 4리)에 오니까 시모님이 당신이 짠 명주와 무명을 주셔서 명주로는 이불거죽을 하고, 무명은 아기 기저귀로 사용하였다. 이곳에서는 길쌈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시모님 때도 마을에서 당신 혼자만 하셨다고 들었다.” 고 한다.

## (2) 갈무리

### 1) 빨래

지금과 같은 고품비누가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이다. 그 전에는 잿물을 만들어서 썼는데 일제강점기 말(末) 쯤에 양젓물이 등장하자 잿물을 받는 일은 차츰 줄어들고 대부분 양젓물을 구하여 썼다. 잿물은 찰벼 태운 재나 짚 재, 콩대 태운 깍지재를 시루에 넣고 물을 부어 갈아 앉힌 것이다.

일반 빨래는 잿물로 하고, 양젓물은 잿물보다 더 독해서 때가 찌든 빨래를 삶을 때 썼다. 시중에 파는 비누도 있었으나 값도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워서 주로 양젓물을 사다가 집에서 만들어 썼다. 그러나 잿물을 받아 쓸 때도 좋은 잿물거리가 없으면 만들기가 어려워서 비가 오면 낙숫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매주 삶은 물을 받아 두었다가 쓰기도 했다. 때가 짓누른 것은 오줌으로 하였는데 오래 썩은 것일수록 좋은 것이었다. 오줌은 거름으로 쓰기도 하여 매우 귀한 것으로 여겼으며, 한번 싼 량의 오줌을 “보리밥 한 사발” 이라고 까지 하였다. 특히 여성의 서답은 오줌에 담갔다 빨았다.

양젓물을 “왜(倭)젓물” 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잿물을 받아서 쓸 때는 집집마다 만들어 쓰다가 1950년대는 양젓물이 흔해지면서 집에서 비누를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다. 집에서 만드는 비누는 양젓물에도 ‘쌀겨’ 를 섞고 굳힌 것으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두고두고 사용하였다. 이 때는 광목인 많이 나오고 쓰이면서 누런 깃광목을 바래느라고 양젓물이 많이 쓰였다. 빨래 외에 세수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도 비누가 귀해서 사용하지 못하였다. 세수할 때는 쌀 뜬 물이나 녹두가루를 썼다. 머리 감을 때는 녹두가루나 팥가루, 두부 뜬 물, 메주 쏜 물, 낙숫물 등으로 하였다. 또 때가 많은 머리를 감을 때는 잿물을 약하게 풀어서 감기도 하였는데 잿물을 쓰면 머리카락이 부서지고 약해지므로 감은 다음에 식초를 조금 떨어뜨린 물에 헹구기도 하였다.

빨래터는 집안에 우물이 있으면 집에서 하고, 겨울에는 논 웅덩이에 모아둔 ‘논물’ 에서 ‘돌광’ 을 만들어 놓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샘가나 개울가에서 했는데, 해가 진 뒤에 방망이질을 하면 초상(初喪)이 나가나 집안 망한다고 하여 철저히 금했다.

### 2) 염색

천연염색도 제보자들은 해 본 경험이 없었다. 다만 어려서 어른들이 치자나 도토리, 쪽, 밤으로 물을 들이는 것을 본 적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자연 재료로 물을 들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대개 어렸을 때는 ‘방물장사’ 나 ‘어리장사’ 를 통해서 샀다. 또 남자 어른들이 시장에서 가서 구입하거나 쓰기도 하였다. 색깔은 주로 분홍·빨강·검정·옥색·남색·자주·노랑·연두·보라였으며, 고운 색은 여아나 젊은 여성들의 명절 옷이나 혼수에 썼다. 바지나 치마에는 양회색이나 검정물을 많이 들었다.

## 3) 푸세

풀거리는 쌀, 밀, 보리였다. 쌀로 할 때는 쌀이 귀했기 때문에 싸래기를 모아 두었다가 했다. 쌀풀을 쓸 때는 싸래기를 불러서 ‘풀매’에 갈아서 하는데 풀을 쭈면 굳은 다음 조금씩 떠서 두었다가 썼다. 보리나 밀풀로도 하지만 쌀풀보다는 약해서 좋은 옷에는 안 썼으며, 밥을 자루에 담아 주물러서 쓰기도 하였다.

## 4) 다듬이

풀한 것은 구김을 풀고 울을 바로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듬이에서 다듬기’, ‘홍두께 올리기’, ‘다리미로 다리기’가 있었다. 손바느질로 옷을 만들어 입던 때는 더러워지면 뜯어서 빨고, 풀하고, 다듬이하고, 다시 만들어서 입었기 때문에 이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풀을 먹이면 젖었을 때 다듬이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진다듬이’라고 한다. 진다듬이를 한 후 반드시 홍두께를 올려야 좋다.

옷감의 종류에 따라 주름을 펴는 방법이 달랐다. 무명류의 옷감일 때는 뜯어서 빨고 풀한 뒤에 다듬이로 다듬거나 다리미로 다려서 입지만, 명주나 모시 등 고운 고급 옷감일 때는 ‘홍두께’를 올린다. 특히 명주는 잘 다듬으면 윤이 나고 옷을 만들어 입으면 비단소리가 났다고 한다. 고급 옷이나 솜옷일 때는 뜯어 빨아서 풀한 후에 홍두께에 감아 두드려서 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특히 혼례 때나 명절이 가까워 오면 밤에도 다듬이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빨래 방망이 소리는 해가 진 뒤에는 절대 금기이지만, 홍두께나 다듬이는 밤에 해도 상관이 없었다.

## 5) 보관하기

옷 보관은 옷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이나 ‘고리짝’에 넣어 두었다. 또 매일 입는 옷은 방벽(壁)에 이동식 ‘헛대’를 걸고 거기에 걸어 두었다. 제보자의 부모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간수한 것은 ‘수의’였는데 ‘고리짝’이나 보따리에 싸서 방안에 두거나 ‘시렁(실경)’에 얹어 두었다. 좀이 쓸지 않도록 담배 잎을 넣거나, 약초 같은 것을 넣어두기도 하였다. 옷을 둘 때는 남녀의 옷을 따로 구분하여 분리 간수하였다. 남자 옷 사이에 여자 옷이 섞여 있으면 남자가 재수 없어서 출세를 못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 (3) 침선(針線)

여성들이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낮에는 주로 집안 일 처리를 하고 밤에는 바느질하는 일이 일과였으며, 바느질 못 하면 큰 일이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인두판으로 머

리를 때려 맞으면서 바느질을 배웠다고 한다. 지금처럼 옷을 당장 빨아서 입거나 한 가지씩 편리하게 여러 번 갈아입을 여유가 없었으므로 더러워지면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세탁해서 푸세하여 다듬고 만들기를 하였다. 주로 혼례 때는 형편에 따라 일생 입을 것을 모두 마련하여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930년 재봉틀이 나와서 마을에 한 두대 씩 생기고, 차츰 여자들도 논밭 일을 거들거나 외부로 외출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손바느질 일이 줄어들었다.

또 기성품 옷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재봉틀로 만든 옷을 부러워하면서 샅을 내어 재봉틀 바느질을 해서 입거나 시장에서 옷을 사 입게 되었다. 이종남(1922년 생)은 “재봉틀이 이 마을에 들어온 것은 8·15해방 때부터이다. 당시 쌀이 귀했던지 서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바꾸었고, 다른 것들도 이것저것 가지고 와서 쌀하고 바꾸었다. 재봉틀은 ‘인장표(SINGER)’였으며, 쌀 2~3말 정도면 바꿨다. 그 후로 고의, 적삼, 조끼 등 재봉틀로 많이 했다.”고 한다. 옛 어른들은 “바느질 잘 하면 팔자가 사납다.”고 하였다. 그러나 바느질을 잘하는 처녀가 색시감으로 인기 있었으며, 결혼 후에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였으므로 솜씨가 있어야 가족들이 제대로 옷을 얻어 입었던 것이다.

### 1) 바느질

새 옷을 마련하였을 때는 각기 옷옷과 아래옷을 구별하여 표시하였다. 두루마기나 저고리 등 옷옷 일 때는 격식대로 개어서 빨간 실로 ‘上’자로 표시하고, 아래 옷이나 쌍으로 되는 벚선이나 토수 등은 짝을 맞추어 ‘+’로 징겼다. 보관할 때는 주로 장이나 농에 넣고 종이 쓸지 않게 담뻏잎 등을 사이에 두었는데, 1960년대 이후는 시중에 파는 종이약을 넣기 시작하였다.

바느질법은 주로 감치기, 박기, 호기, 시치기, 누비기, 말아감치기를 하였다. 저고리는 바느질한 것에 따라 백이겹저고리, 물겹저고리, 솜저고리, 적삼이 있었다. 백이겹저고리는 솔기를 싹 잘라서 가늘게 박은 다음에 뒤집어서 다시 박은 것으로, 주로 봄가을에 입는 겹저고리이다. 적삼에는 옷고름을 달기도 했지만 ‘적삼단추’라고 하는 밑에서 감친 단추를 달았다.

남자들의 두루마기나 솜옷 겹옷 등과 같이 빨고 다듬어야 하는 고급 옷은 꼼꼼하게 꿰매지 않고 성근 흠질로 하였으며, 단이나 깃은 바느질을 하지 않고 풀로 붙이기도 하였다. 해방 전후만 해도 재봉기구로는 재봉틀이 마을에서 한 두 집 밖에 없었으며 재봉틀 바느질을 잘 하는 사람도 귀했고 또 샅도 비싸서 혼인 때나 좋은 옷을 만들 때 또는 백이겹옷이나 적삼을 만들 때는 샅을 내고 했다.

시집갈 때는 형편에 맞게 재봉도구를 마련했는데 자, 인두, 인두판, 다리미, 가위, 실 등을 나무상자에 넣어가지고 갔다.

### 2) 수(繡) 놓기

수를 놓는 일은 혼하지 않았지만 주로 처녀들이 하였는데 집안 환경이나 취미나, 솜씨에 따라 달

랐다. 수는 주로 베갯모나 퇴침, 액자에 넣었는데 문양은 액자에는 학(鶴)이나 함박꽃(작약), 우리나라 지도를 무궁화로 하였다. 퇴침이나 베갯모에는 완자 문양에다 글씨나 사슴·나비·모란·함박꽃 등이 수의 주제였다.

이종남(1922년 생)은 “손재주가 좋아서 처녀 때는 수를 놓아 팔기도 하였다. 제일 많이 한 것은 베개마구리, 염낭(夾囊), 수저집, 골무였다. 베개마구리에는 원앙(鴛鴦), 염낭에는 목단(牡丹), 수저집에는 십장생(十長生)무늬를 많이 썼다. 골무도 많이 만들었다. 수실을 집에서 뽑은 명주실에다 물을 들여서 썼다.” 임순덕(1919년 생)도 본인이 시집갈 때 베개, 퇴침, 액자 등에 수를 놓고 가지고 갔으며, 김옥녀(1931년 생)는 첫푸레기 때 중동풀이를 해갔는데 시장에 파는 것을 사갔다.

초등학교나 여학교에 다니는 처녀들은 학교에 가서 수봉기를 배웠기 때문에 졸업한 후에도 ‘수본(繡本)’을 얻어다가 수를 놓았다. 수봉기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데 처음에는 비단 ‘푼사실’로 ‘동양자수’만 놓았는데 1950년 한국전쟁 이후는 ‘서양자수’가 들어와 크게 유행하였는데 서양자수는 ‘십자수’였다. ‘가게 바늘’로 ‘뜨게’도 하였는데 ‘책상보’나 ‘뒷개보’를 가장 많이 했다. 십자수는 목(綿)실로 같은 간격의 울에 놓는 것으로 방석·베갯잇·보가 가장 많았으며, 벽장에 거는 ‘햇대보’도 놓았다.

#### (4) 옷감

옷감은 특별히 ‘한산모시’나 ‘안동포’ 등 생산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들은 주로 그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 특산물 외에는 어느 지역이나 빈부(貧富)의 차이에 따라 공통적으로 쓰였던 것이다. 이 지역의 옷감은 특별한 것은 없다. 다만 이 지역 사람들이 평소에 쓰거나, 혼수로 마련하였던 것들을 간추려 보았다.

##### 1) 일제강점기

비단 종류로는 저고리 감으로 모본단·호박단·범단·양단이 최고급품이었으며, 치마 감은 유통, 비로드, 하비단 등이 있었다. 사(紗) 종류는 준(진)주사, 숙고사, 생고사, 은조사, 향라, 인조 등이 있었으며, 여름 옷감으로 많이 쓰이는 삼베나 모시 혹은 광당포 같은 것은 귀한 것이었다. 특히 세루나 후지기누라는 옷감은 혼인 때 신랑의 두루마기 감으로 최고였다.

현재 80~90대 노인들이 혼인할 무렵에는 옷감에 쟁반 같이 둥근 무늬가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재병’이라고 하였으며, 당시 최고로 좋은 것이라 색씨 옷감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로는 보이지가 않았다고 한다. 색씨 옷은 연두삼회장저고리에다 빨강치마를 입었다. 이 재병무늬 옷감은 청국산(淸國産)이라고 하며, 그 후 사라졌다. 그 외에는 명주나 무명을 주로 썼는데, 머느리 볼 때는 모본단(縞

本緞)이 최고로 쳤고, 차츰 호박단, 양단, 유풃, 비로드, 하비단, 왜포, 인조 등이 나왔다.

## 2) 해방 후

가장 흔하게 일상용으로 쓰였던 옷감은 광목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왜포(倭布)'라고 불렀다. 다른 지역에 비해 길쌈이 성행하지 않았으며, 또 일찍이 길쌈을 그만 두었기 때문인지 무명이나 명주, 삼베, 모시의 이용률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좋은 옷감은 서울에 가서 사다가 만들어 입었다. 갓난 아이들용으로는 흰색 울이 가장 많이 쓰였으며 혼례 때 색시의 속적삼으로도 이용되었다. 다른 지방에서는 혼례 때나 수의에도 명주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또 명주가 비단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약간씩 이불 거죽이나 겉 옷감으로 마련하고 있는 반면 다른 비단류를 많이 이용하여 왔다. 이는 명주를 타지방에서는 최근까지도 혼수(婚需)나 수의(壽衣) 감으로 쓰기 위하여 짜기도 했으며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해 왔던 점도 있겠지만, 이보다 이 지역에서 명주 생산이 적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6·25 전쟁을 지나면서 무늬 있는 광목과 '뽀뿌링'이라는 것이 나왔다. 특히 무늬 있는 광목은 여자들의 적삼이나 겹저고리 감으로 많이 해 입었으며, 시집갈 때 이불이나 요 거죽에 썼다. 이때 이불과 요의 호칭감은 누런 깃광목으로 하였는데 깃광목을 희게 표백하기 위해서 양젓물에 삶아서 빠느라고 부녀자들이 애를 먹었다. 1960년대쯤 되니까 흰 뽀뿌링이 나와서 이불 호칭도 깃광목을 쓸 때보다 매우 편리해졌다.

## 3. 풍동 마을의 의생활

이 지역은 서울과는 당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가까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기차가 연결되어 있어 다른 어느 곳보다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따라서 의생활 문화권도 서울과 상통하고 있으나, 약간씩의 빈부(貧富)차에 의해 토착서민성(土着庶民性)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의생활 문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의 멸망과 일제시대를 겪는 동안 우리의 의생활에 일본 혹은 서양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해방 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의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혼례의식은 '신식(新式)'과 '구식(舊式)'이라는 양면 속에 우리의 전통은 구식으로, 또는 낡은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의생활도 이러한 인식과 변화 속에 서양식 의복이 일상적인 것이 되어, 우리의 전통 옷은 예복과 특수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노인들 층에서는 서양과 한복을 절충하여 입는 이중구조 속에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마을의 음식 문화(1)

이기주 / 경기도문화유산해설사

### 1. 풍동의 지형적인 특징

고양시 풍동 지역은 쌀농사를 주로 한다. 평상시의 반찬은 대부분 채소류가 중심이고 저장하여 두고 먹을수 있는 김치류, 장아지류, 장류가있다.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어서 음식의 간이 남쪽에 비하여 싱거운 편이고 매운 맛도 덜 하다. 이 곳은 서해안에서 나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동쪽의 산간 지대는 산채가 많아 밭농사와 벼농사가 활발하여 여러 가지 식품이 고루 생산되는 지역이다. 전반적으로 음식의 크기가 크고 소박하여 양이 많은 편이다. 간은 세지도 약하지도 않고 서울과 음식의 이름이 같은 것이 많다. 주로 쌀과 잡곡밥을 즐기고 범벅이나 풀떼기, 수제비 등을 구수하게 잘 만든다.

### 2. 마을의 특징

- 해방전에는 일본의 미곡 조사로 인해 공출을 당함으로써 밀 등을 갈아서 만든 수제비나 풀떼기 (밭에서나는 채소나 나물로 죽을 만듦)로 생활하기도 하였다.
- 모든 행사에는 품앗이로 주변의 이웃들이 음식을 한 가지씩 만들어 가지고 온다.



정월대보름에 쓸 나물 말리기



풍동주민들이 자주 이용한 일산장터의 모습

- 집에 우물이 있었으나 물이 부족하여 공동우물을 이용하였다.
- 근처에 마포나무, 행주나무, 이산포 등 나무터가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여 새우젓, 밴댕이젓, 꼴뚜기젓, 뱀어젓 등 젓갈은 풍부하였지만 김치는 새우젓으로 만들어 먹었다.
- 일산장을 이용하여 음식의 재료를 쉽게 구할수 있었다.
- 주변의 산에서 나는 나물과 밭에서 나는 채소, 민물고기로 만든 매운탕과 미꾸라지 털레기를 즐겨 먹었다.
- 산치성에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곡물을 기두어서 행사를 하였다.

### 3. 통과례에 따른 음식

- 출산시의 육아숙 : 출산을 한 후 신생아의 산욕을 시킨 다음 바로 흰 쌀밥과 미역국을 밥세 그릇과 국 세그릇을 상에 받쳐 '삼신상' 을 준비하여 산실의 산모 머리맡 구석진 자리에 놓고 삼신께 감사의 뜻과 영아의 명복(命福)과 산모의 건강 회복을 기원한 후에 산모에게 흰 쌀과미역국으로 첫 국밥을 대접한다. 부기가 있는 산모나 몸이 허약해지 산모에게는 가물치, 잉어, 도라지, 차조(청차조)를 가마솥에 하루를 푹 끓인 다음 짜서 그 국물을 먹인다.
- 흰밥 : 잡곡을 섞지 않은 쌀로만 만든다.
- 미역국 : 부유한집에서는 뼈국물로 미역국을 만들지만 어려운집에서는 참기름에 미역을 끓여 국을 준비하였다.
- 삼칠일숙 : 삼칠일에산모는 산욕을건고 일어나며,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끓여 먹었다.
- 백일 : 백일에는 백설기를 찌고 붉은 색의 팔고물을 문힌 찰수수 경단과 흰밥, 고기미역국, 메밀떡, 푸른색의 나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음식도 함께 장만하였다.
- 첫돌 : 돌이 되어 아기를 축하해 주기 위하여 마련한 상인데 떡과 과일이 주가 된다. 백설기, 고물을 문힌 수수경단, 인절미, 송편, 잠채, 메밀떡 등이며 과일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색깔의 과일을 안배하여 담는다.
- 생일 : 돌이나 회갑처럼 대규모의 잔치를 베풀지 않고 자축하는 정도로 가족끼리 조촐하게 한다. 평상시보다 음식을 조금 더 준비하는데 고기를 넣은 미역국에 나물과 부유한 집에서는 떡을 하여 먹었다
- 혼례 : 혼례 음식은 납폐, 초례, 구고에 드리는 폐백례, 축의의 연의 등으로 나뉘며 각기 의식에 따라 음식 양식이 다르나 이곳은 행사 때 하는 음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폐백에 하는 음식은 육회로 하였으나 닭을 사용하는 집도 있었다.

- 이바지(삼일두베기) : 남자는 술과 고기를 들고 처가에 간다.  
여자는 인절미(찰떡에 콩가루나 흰 팥가루를 문힘)를 만들어서 시댁으로 간다. 인절미의 크기는 10×7로 크게 만든다.
- 회갑 : 회갑 때는 큰 상을 차리는데 이 큰 상은 음식을 높이 고이므로 고배상 또는 바라보는 상이라 하여 망상이라고도 한다.  
많은 음식을 회갑 상 위에 진설하고 축배를 드리고 즐겁게 해 드린다. 집안 마당에 천막을 치고 손님을 맞이하였으며 떡국을 대접하였다. 또한 집에서 빚은 술과 묵(녹두묵, 동부묵), 감주, 녹두전, 잡채 등과 각색 나물로 상을 차렸다. 국수 가게가 드문 관계로 국수보다는 손으로 만든 떡국을 주로 먹었다.
- 제례 : 돌아가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제례라한다.
- 쫄면 : 밥, 추석에는 송편, 설에는 떡국으로 대신한다.
- 탕 : 육탕, 어탕, 소탕으로 한다.
- 적 : 육적(고기를 다져서 철판에 굽는다.)  
이적(병태를 포를 떠서 계란에 입혀 후라이팬에 익힌다.)  
소적(두부를 기름에 두른 팬에 부친다.)  
녹두전(녹두를 갈아서 그 위에 고사리, 숙주나물, 다시마, 파, 김치 등을 얹어 부친다.)
- 초상 : 갖은 나물(무나물, 숙주나물, 시금치나물, 콩나물) / 장국(간장, 무우, 파, 마늘)  
갖은 나물과 두부에 장국을 부어 먹었다. 더불어 김치와 국밥에 얹었던 나물을 반찬으로 내놓는다. 초상, 대상 때는 사돈집에서 달떡을 만들어 보낸다. 마을에서는 이 때에도 품앗이(음식을 한 가지씩 만듦)를 하였다.
- 새참 : 이웃간에 서로 도와주면서 정도 많았다.
- 셋밥 : 밥밀수제비(멸치국물에 밀가루 반죽을 떠서 끓였다.)  
고추장찌개(동태, 고등어, 조기, 두부 등을 넣어 얼큰하게 먹었다.) 채나물(계절에 따라 밭에서 나는 나물로 무쳐서 먹었다.) 막걸리, 무우말랭이, 짬아치, 아욱국 등과 함께 이웃간의 정을 나누었다.



식골 마을 점심 상차림

- 정월음식 : 설날에는 차례상과 세배 손님 대접을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음식을 통틀어 세찬이라 한다. 음식으로는 떡국과 돼지고기를 삶아 편육으로 썰어 놓았으며 다른 행사와 같이 음식상을 내었다 한다. 별미로는 엿을 만들었다.

- 대보름 음식 : 보름 음식으로는 참쌀, 수수, 팥, 차조, 콩 등 다섯 가지 이상의 곡물을 섞어 지은 오

곡밥에 호박꽃이, 가지, 시래기무침, 콩나물, 시금치 등을 볶거나 무쳐서 먹는다. 떡으로는 콩 버무리와 술을 빚는다.

- 추석 : 추석은 음력 보름으로 우리나라의 큰 명절 중의 하나이며 먼저 햇곡식으로 만든 떡과 술, 그리고 햇과일이 이날의 절식이다. 송편에는 햇쌀을 갈아서 반죽하여 햇녹두, 거피팥, 참깨가루, 콩, 밤 등을 소로 하여 반달 모양으로 빚어 만든 떡이다.

송편은 한 김을 올린 솥에 술잎을 깔고 그 위에 떡을 올려 찐다. 무우고기국, 녹두전, 잡채, 식혜, 튀각 등과 행사 때 하는 음식과 같이 한다.

- 추어탕(미꾸리주탕) 만드는 법

- \* 개천이나 논에서 미꾸라지, 붕어, 메기, 참깨 등을 잡는다.
- \* 산으로 가서 죽은 나뭇가지(식장지)를 주어다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솥을 건다.
- \* 솥 안에 물을 붓고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푼다.
- \* 잡은 물고기와 감자, 호박, 파, 고추 등 갖은 야채, 양념을 넣는다.
- \* 끓은 후 국수나 수제비를 넣어서 먹는다.

- 호박 풀떼기(호박죽) 만드는 법

- \* 주로 장마 때(7·8월경) 만들어 먹는다.
- \* 늙은 호박의 껍질을 까서 삶아서 주걱으로 으갠다.
- \* 으갠 호박에 차조나 생팥을 넣고 푹 익힌다.
- \* 마지막으로 밀가루를 넣어 짓는다.
- \* 간은 짠맛은 소금으로 단맛은 설탕이 부족하여 뉴슈가나 당원을 사용하였다.

- 고사떡

- \* 음력 10월 상달이면 시루떡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 \* 시루에다 쌀가루를 깔고 사이에 붉은 팥을 넣어 층층이 엮는다.
- \* 솥위에 시루를 얹어 뜨거운 김으로 찌낸다.

- 무 시루떡

- \* 고사떡을 만들 때 무나 호박꽃이(말린 호박) 등을 넣어 만든다.
- \* 쌀가루에 무우를 채 썰어서 호박꽃이와 함께 버무리린다.
- \* 시루 안에 버무린 재료를 넣는다.
- \* 솥 위에 시루를 얹어 뜨거운 김으로 찌낸다.

- 달떡

- \* 쌀가루를 찌서 떡메로 쳐서 둥근달처럼 만든다.
- \* 사이가 붙지 않도록 가운데를 찍어서 누른다. \* 층층히 쌓아서 보낸다.

## 마을의 음식 문화(2)

박전열(중앙대교수) / 한국민속학회장

풍동 마을은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해 온 마을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음식에 걱정이 없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식골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 주변에 매 3일과 8일에 일산장이 서고, 경의선 기차역에서 멀지 않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었기에 다양한 음식과 조리방법 등이 전해지고 있었다.

### 1. 의례의 음식

의례의 음식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하고 이어서 사후의 과정까지의 의례의 과정마다 만들어 대접하기도 하고 먹는 음식을 말한다.

의례란 관혼상제 즉 관례, 혼례, 상례, 제례로 구분하며 가정마다 가가례라 하여 약간씩 다르다고는 하지만, 거의 같은 방식으로 치르며 풍동 마을의 각 가정의 음식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준비되었다. 일생을 통하여 가장 대표적인 의식이라고 하면 출생 직후의 삼신상(三神床)으로부터 생후 백일째 되는 날의 백일상과 잔치, 돌상, 혼례시 교배상과 폐백, 큰상, 61세에 회갑상, 사후 장례에 따른 상례와 제사까지를 말한다. 간소화, 변형 내지는 생략된 부분도 있으나 격식을 따라서 제대로 치르려는 경우를 사례로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삼신상

아기가 출생하면 즉시 따스한 물에 부드러운 천이나 풀솜으로 온 몸을 깨끗이 닦아주고 감초를 얇게 달인 물이나 미나리즙, 들기름, 인삼달인 물을 입에 넣어준다. 또는 들기름을 적신 솜으로 입안을 닦아주어 질병을 예방한다. 그리고 해산 후의 산모에게는 고기를 넣지 않은 소(素) 미역국을 간장과 참기름으로 끓이고 흰 쌀밥과 같이 준다.

3일 또는 7일 후에는 미역국에 조개나 홍합, 고기 등을 넣는다. 하루 6~8번 정도 삼칠일까지(21일간) 밥과 미역국만을 먹는다. 산후 산모에게 미역국을 주는 것은 해산물이라서 무기질이 풍부

치고 외부와의 출입을 삼가면서 산모나 아기에게 질병의 전염이 없고 정갈하고 조용한 환경을 해준다.

삼신상을 차려서 산신(産神)에게 바친다고 하는데 삼신은 생명의 신이고 산신은 태어나게 해주는 신으로 본다. 삼신은 천, 지, 인 또는 불교의 삼존(三尊), 칠성신(七星神)이라는 무교적인 의미 등으로 해석이 분분하다. 삼신상은 산모방 서남쪽 모퉁이를 깨끗이 치우고 네모난 상에 쌀밥 3그릇과 미역국 3그릇을 놓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축원한다.

삼신상에 놓았던 국과 밥은 산모만이 먹는다. 일반적으로는 밥 3그릇에 생쌀을 앞쪽에 수북히 놓고 그 위에 넓고 긴 미역을 덮어 늘어뜨린다. 삼신상의 특징은 상위에 짚을 깨끗이 털어서 가지런히 펴고 그 위에 밥 3그릇을 놓는다. 이 밥을 녹음의 밥이라고 하며 산모를 돌보는 해산 할머니가 축원해 준다.

산모가 먹을 미역과 쌀은 시어머니가 좋은 것으로 준비하는데 고부간의 정을 느끼게 해주는 풍속이다. 해산 미역이라고 하여 납적하고 긴 미역으로 하고 값은 깎지도 않고, 접어서 꺾지도 않는다. 이런 것들은 난산할지 모른다는 속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음식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대부분이 충분한 쌀이나 미역이 없어서 몇 번 또는 며칠 먹고 조금 아팠다가 삼칠에 먹기도 하고 거의 못 먹었던 경우도 있었다.

일제시대에는 미역 배급이 있었는데 산모가 있는 집에서는 동네집들에게 부탁하여 몇 잎씩 얻었다. 잠곡죽도 못 먹을 때는 산모도 어쩔 수가 없고 산후에 곧 발일을 나가거나 고된 일을 해야 했던 예가 많았다. 당사자들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90세 가까운 노인들이 많다.

산후에는 각종 금기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 치아의 건강을 위하여 찬 음식, 찬물, 매운 음식 등으로 사과, 무, 김치, 깍두기 등을 금기했다.
- 비린내 나는 것, 무른 음식, 얻어 먹지도 않고 거지에게 주지도 않으며, 상가집 음식도 금기시한다. 이들 금기 음식은 현재는 거의 사라지고 있고 비과학적인 점도 있으나 치아 건강을 위한 주의는 다분히 설득력이 있다. 삼신상 외에 상원날에 장수의 뜻으로 아기에게 국수를 먹이기도 하고 회갑잔치 음식을 얻어 먹이기도 한다. 그래서 회갑집에 아기들을 데리고 온다.
- 삼칠일: 삼칠일은 산후 21일이 되는 날로 때문에 걸었던 금줄을 치우고 축하음식으로는 흰 밥, 미역국, 백설기, 수수정단을 만들어 손님에게 대접하고 아기를 첫 대면하러 오는 사람들은 무병장수와 부귀를 누리라고 의복이나 실타래, 돈을 주고 외할머니는 찰떡, 시루떡, 아기의 누비이불을 해온다.

삼칠에도 삼신상과 같이 차려놓고 빈다. 백일과 둘에는 밥 1그릇과 백설기를 놓고 빈다. 요즘은 병원에서 낳고 위생적으로 잘 처리해주고 산후에도 입맛이 당기면 고기든 무엇이든 영양 섭취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타래도 구하기 힘들고 실을 쓸 일도 없어서 자연히 그런 풍속은 없어지고 아기옷이나 돈을 준다.



● 백일상 : 백설기, 수수팔떡 위에 메밀경단, 흰밥, 미역국을 차려주고 백설기를 백사람에게 돌려서 장수를 빈다. 수수팔떡은 부정을 막는다고 하여 붉은 색을 쓴다. 미역국과 밥을 지어서 잔치한다. 떡을 받은 사람은 실이나 돈 또는 쌀을 담아 보낸다.

● 돌상 : 각종 떡 중에 흰무리, 수수팔떡 외에 과일이나 과자, 밥(주발), 국수(대접)을 푸짐하게 담고 장래를 점치는 물건들을 놓아 잡는 것을 본다. 남자에는 활과 수저, 붓, 돈, 책 등을 놓는다. 잔치 후에는 떡을 많이 하여 손님에게 싸준다. 여자 아기에게는 활은 놓지 않는다.

● 혼례 : 혼례는 신부집에서 치르는데 혼례상을 교배상(交拜床)이라고 하여 암탉, 수탉과 양쪽에 국수 삶은 것, 쌀 1주발씩, 가운데 자손이 번성하라고 밤과 대추를 놓는다. 교배상은 대청이나 마당에 동서로 차리고 병풍을 남북으로 두른다. 교배례, 근배례, 처가 친족상면례, 부모 배례를 하면 혼례 예식이 끝난다. 신부집에서 혼례식이 끝나면 시집이 가까운 경우에는 그날로 시집으로 와서 우선 집 뒤에 있는 조상사당에 인사를 한다. 제기에 삶은 국수, 꽃감, 배, 사과 등 삼색 과일을 담고 절을 한다.

과주에서 시집 온 사례 가운데 폐백은 밤, 대추에 잣을 끼운 것 한 쟁반과 4근 정도의 소고기 육회 한 쟁반 등 2쟁반을 가지고 와서 폐백을 드렸는데 여의치 못할 때는 닭을 쓰기도 한다. 신부집과 신부집 즉 양쪽집에서 서로 큰 상을 차려주는데 호화롭게 하기도 하나 대개는 간소하게 떡, 전, 나물, 국수 등을 넉넉히 담아 차렸다. 큰 상에 차려 놓은 색떡은 특히 화려하다. 뒤에 나오는 회갑상의 색떡나무와 또 다르게 장식을 했다. 첫날밤에 방안에 과일과 떡 등을 한상 보아 들어 놓는다.

3일후 처가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때 달아먹기를 한다. 처가 마을 사람들은 신랑의 발목을 무명 끈으로 묶어서 누군가가 어깨에 메고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린다. 그러면 푸짐하게 술상을 내고 요구대로 돈을 내거나 신부가 노래를 부르거나 해야 한다.

시집와서 3개월 또는 일년이나 3년만에 근친이라고 하여 첫번째 친정 나들이를 갈 때는 인절미 5말 1고리, 골무떡(절편) 1고리, 삶은 돼지다리 1개 함지에 담고 까만 항아리 병에 술과 감주(식혜) 1병씩을 가져간다. 시집으로 돌아올 때도 같은 음식을 가져오는데 시모와 시조모에게 귀주머니가 달린 허

시집와서 3개월 또는 일년이나 3년만에 근친이라고 하여 첫번째 친정 나들이를 갈 때는 인절미 5말 1고리, 골무떡(절편) 1고리, 삶은 돼지다리 1개 함지에 담고 까만 항아리 병에 술과 감주(식혜) 1병씩을 가져간다. 시집으로 돌아올 때도 같은 음식을 가져오는데 시모와 시조모에게 귀주머니가 달린 허리띠와 친척들에게 버선 2켢레씩을 해서 선물을 한다.

시집와서 첫 해에는 신랑이나 시부모의 생신에 친정에서 음식을 보내는데 형편에 따르지만 넉넉한 집에서는 생일잔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떡, 과일, 부침류, 편육, 술 등을 보낸다. 대가족이 한 집에 사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동서간에 넉넉하지 못한 며느리는 매우 난감했다고 한다.

● 회갑상: 1950년대에 회갑을 치른 풍동에 사시는 김해 김씨택의 회갑상에는 보기 드물게 1자 반 높이로 고여서 12가지 정도의 한과, 과일, 떡류, 당류, 분어새김에 색떡까지 양쪽에 놓는 화려한 상을 차렸다. 색떡이란 떡에 갖가지 색을 물들여서 5가지 꽃 모양과 토끼나 노루 모양을 만들어서 나뭇가지에 꽂아서 장식하는 것이다. 크고 좁 깊은 양푼(화분 역할) 안에 떡 덩어리를 넣고 그 떡에 나뭇가지를 꽂고 색떡을 장식한다.

고임음식의 안쪽에는 갓은 술안주와 술 그리고 자손들의 예가 끝나면 신선로를 놓고 친구들을 접대한다. 여유가 있으면 잔치를 위해서 소 1마리 잡고 돼지순대, 청포묵, 동부 묵, 두부, 삶은 간과 천엽, 돼지편육, 갓은 나물, 적, 해물전 등을 차렸다. 회갑 전에 사망했을 때는 자식들의 효심으로 신주를 모시고 제사 지내고 동네잔치를 한다. 이를 사갑(死甲)이라고 한다.

회갑이나 생신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국수와 막걸리를 보낸다. 회갑 잔치를 못했을 때는 미리 60세에 잔치를 하는데 상을 고이거나 술잔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62세인 진갑에 회갑잔치를 하게 된다. 회갑잔치를 못하는 경우 중에 그 이유를 말하기를 절에 물었더니 회갑날 굴뚝연기를 내지 말라, 그러면 운수가 나쁘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 장례: 3일이나 5일장을 치르는데 사망 후 사자를 고할 때 앞마당에 쟁방석 위에 사자밥으로 밥 3그릇과 물 3그릇을 차린다. 초상이 나면 친척이나 동네에서 팔죽을 쭈어 모재비나 동구리에 담아 보내고 향축도 보낸다.

● 제사: 사후 1년에 소상, 3년에 대상(삼년상), 백일제사, 첫 번째 정일(丁日) 제사, 밤 기제사 등이 있다. 소대상은 60년대 초까지는 철저히 지킨 셈이고 근래에는 49제를 지내고 있다. 이는 6·25 이후로 약 15년 동안의 변화로 본다. 정초 제사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을 쓰고, 기제사는 4대조까지 지내는데 삼색과일, 떡, 적, 한과 등에 당과 반을 올린다.

탕이 단탕(單湯)이나 3탕이나에 따라서 다른데 삼탕란 고기를 위에 얹는 육탕, 북어를 얹는 어탕, 다시마를 얹는 소탕 등 3가지를 차리는 것이고 단탕은 이들 3가지를 한그릇에 담는 것이다. 1년에 명절까지 합쳐서 10번 이상은 죽히 된다. 한식에는 북어와 적 등 간단히 차려서 성묘를 한다.

## (2) 세시풍속과 음식

세시풍속에 따라 만들어 먹는 음식이란 일년을 단위로 정초부터 설날 그믐까지 계절에 따라 자연의 변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자연의 맛을 음식으로 표현하고 그 진미를 즐기려는 풍속에 따른 것이다. 연중에는 몇 차례 큰 명절이 있어서 조상이나 신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껏 올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가족, 친척, 친지간에 모여서 즐기고 잔치를 하고 농사가 풍년이 들고 안위와 복을 빈다.

한국은 예부터 이러한 기회에 서로 나누며 혈연적이고도 지역적인 공동사회의 결속과 우의를 두터이 하는 잔치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근래의 도시화와 대량집단 주거체제는 이러한 정스런 유대관계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

자연을 먹고 자연을 즐기고 자연과의 일체감을 모두가 같이 느끼는 행사들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명절이다. 봄에 향기로운 봄 나물을 먹고 겨우내 부족했던 영양을 보충하고 진달래꽃이 피면 찹쌀가루를 곱게 빻아서 진달래 화전을 부치고 가을이면 국화 화전을 먹고 그 맛과 가을의 향에 심취하고 동시에 좋은 약효 성분은 몸을 보신해주고 겨울에 걸리기 쉬운 감기를 예방해주고 풍류까지 곁들이니 사는 즐거움이 배가된다. 계절에 따른 과정을 정초부터 차례로 서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설날

일년의 첫날로 '설' 이란 '진일(慎日)' 이라고 하여 일년이 무사하고 복이 오도록 근신하고 언행을 조심하라는 뜻이다. 첫날 시작이 좋아야 일년이 순탄하므로 상호간에 좋은 말만하고 윗사람에게 세배하고 애들에게 행운을 비는 덕담을 나눈다. 설날 아침 일찍 정결하게 설빔을 입고 세찬(歲饌)과 세주(歲酒)를 마련하여 장손집에 모여서 조상께 차례를 지낸다.

차례 후에는 향렬순으로 아랫사람이 세배를 드리고 떡국과 세찬으로 아침 식사를 한다. 식사 후에는 일가친척과 어른들을 찾아 세배로 인사를 드린다. 멀리 있거나 설날에 찾아뵙지 못할 때는 보름까지 세배를 갈 수가 있다.

세찬은 차례와 손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차리는데 대표적인 것은 떡국을 만드는 흰떡(가래떡)으로 맷쌀가루를 찌서 떡판에 놓고 메로 쳐서 떡이 되면 길고 둥글게 늘려밀어서 굵은 다음 동전보다 약간 타원 모양으로 썬다. 이것을 고기 국물에 끓인 것이 떡국이다. 젓상에도 메(흰밥)대신 올리고 사람이 동이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 것이다.

- 떡국
- 각색나물 :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등
- 각색김치 : 동치미, 배추포기김치, 깍두기, 나박김치
- 각색전 : 누름적, 산적, 동태전, 동구래미, 호박전 등

- 옛과 강정, 한과 : 수수를 갈아서 수수엿을 고았고 그 엿으로 콩, 참깨, 들깨, 밥풀강정을 만든다.
- 식혜, 수정과
- 삼색과일 : 배, 사과, 감, 대추, 밤
- 떡류 : 절편, 인절미, 숫나 찹쌀부꾸미
- 제주 : 약주(소주는 쓰지 않음)

## 2) 대보름(음력 정월 15일)

대보름에 밝은 달을 보면 일년 내내 운이 좋다고 한다.

또한 일년중 좋거나 부스럼이 없도록 새벽에 눈이 뜨자마자 날밤, 호두, 콩, 은행, 잣, 낙화생 등을 깨물어 바깥으로 던져버린다. 귀밝기술로 테우지 않은 청주를

한 잔 마신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는데 큰 솥에 오곡밥을 지어놓고 종일 또는 며칠을 먹고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한다. 오곡이란 꼭 다섯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는다는 뜻이다. 이는 여름에 더위를 타지 말라는 것인데 긴 겨울 내내 부족했던 비타민과 지방보충을 위한 조상들의 지혜였음을 알 수 있다.

- 오곡밥 : 쌀, 찹쌀, 콩, 팥, 보리, 수수, 조, 기장 등 가능한 한 다수의 잡곡을 섞는다. 성씨가 다른 3성집의 밥을 먹어야 운이 좋다고 하고 경상도에서는 백집의 것을 얻어다 먹어야 병이 없다고 했고 하루에 9번 먹으라고 했다.
- 묵은 나물 : 진채식(陳菜食)이라고 하여 시래기, 가지, 고사리, 도라지, 호박, 콩나물, 무우 등 여러 가지를 마늘과 참기름, 들기름으로 무치거나 볶는다. 거의가 여름에 흔할 때 썰어서 말리거나 색깔이 변하지 말라고 오이는 채에 처리한다. 동국세기에는 박나물, 버섯, 순무, 무 등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진채라고 한다.

## 3) 정월 16일(귀신날)

남자는 일을 하면 우환이 있고 여자는 과부가 된다고 했는데 특히 여자가 밖에 외출을 금하고 집 밖에서 소변을 보면 안 되고 말조심 하라고 했다.

## 4) 나이떡 먹기

정월 그믐날 밤에 만들어 두었던 송편을 2월 초하루에 나이 수대로 먹으면 일년 내내 좋다고 하여 나이떡을 먹는다.



식골마을의 간단한 상차림

### 5) 한식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인데 냉절이라고 하여 찬밥을 먹고 간단히 과일이나 북어, 술을 가지고 성묘를 가서 한식 차례를 지낸다. 찬밥을 먹는 것은 중국 진(晉)나라 때 개자추(介子推)라는 충신이 간신에게 몰려서 금산(綿山)에 숨어 나오지 않자, 나오게 하기 위해 불을 질렀으나 그만 타죽어버리고 말았다. 그의 충성심에 감동하여 그 날을 기리기 위하여 찬밥을 먹게 되었다고 한다.

### 6) 사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에 절에 찾아가는 집이 많았고, 절 음식을 먹고 소찬(素饌)을 한다. 한편 입맛을 돋구어 주는 미나리강회, 파강회, 중편을 먹는다.

### 7) 단오

음력 5월 5일로 그네를 뛰고 씨름하고 아낙들은 창포에 머리감고 머리치장을 하고 세수도 한다. 머리를 감을 때 창포물 대신에 보리짚물을 쓰기도 했다. 원래 수릿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수레바퀴 모양의 수리취떡을 먹기 때문이었다. 수리취떡이란 썩떡을 말한다. 예전에는 논두렁 밭두렁, 들과 산에 썩이 흔하고 5월에는 그 향기도 좋고 약효도 있어서 단오절 외에도 썩떡을 자주 만들어 먹었다.

### 8) 삼복

하지부터 3번째 경일(庚日)을 초복, 4번째를 중복, 입추부터 첫 번째 경일을 말복이라 하고 이것을 삼복이라 하여 가장 더운 계절이다. 복중에는 더위를 잊기 위하여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시원한 계곡이나 강가로 갔다. 더위에 지친 몸과 체력을 위하여 보신하는 음식이 삼계탕과 구탕(狗湯)을 먹는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개고기보다 삼계탕을 먹는다. 지금도 일산 3, 8일장에 가면 개를 많이 팔고 있다.

### 9) 칠월 칠석

견우와 직녀가 일년에 한 번 만나는 날로 절식에는 밀전병, 중편, 육개장, 잉어구이와 회, 복숭아화채 등이 있고, 밀전병과 수수팥떡도 먹는다.

### 10) 추석

추석은 한가위, 가위, 중추절로도 불리는데 음력 8월 15일이다. 축도 덥지도 않고 오곡이 익고 풍성

한 과일과 농사가 끝나 몸이 편하며 식욕이 나는 일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이요 명절이다. 햇밥을 짓고 송편과 술을 빚고, 햇과일로 조상께 성묘도 하고 제사를 지낸다. 일반적으로 쫄맛에 밥 대신 송편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 11) 동지 팔죽

11월 중에 천세력에 정해 있는 동지가 있다. 하지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으며 동지는 그 반대이다. 11월을 동짓달이라고 하여 작은 설로 팔죽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한다. 동짓날 사자(蛇字)를 써서 거꾸로 부치면 악귀가 달아난다고 한다.

동짓날 따뜻하면 천염병이 돌고 추우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팔죽의 붉은 색깔은 액을 막고 잡귀를 쫓는다고 하고 주술적인 의미로 동네 고목에 뿌려서 액막이를 하는 풍속이 있다. 팔죽에 새알만 한 찹쌀로 만든 단자를 넣는데 이것을 '새알심' 이라고 한다.

### 12) 선달 그믐의 복조리

선달 그믐날 자정이 지나면서 복조리 장사가 복조리 사라고 한다. 각 가정에서는 자다가 1년간 쓸 만큼의 조리를 산다. 1년간 복이 들어온다고 하여 복조리라고 한다. 요즘은 조리를 쓸 일도 없어지고 쇠줄이나 비닐 소재가 나와서 대나무를 쪼개서 만든 조리가 거의 사라지고 그저 상징적으로 작은 복조리를 만들거나 선물로 준다. 2개나 3개씩 묶어서 매달아두고 그 안에 돈이나 엿을 넣어두면 좋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세시풍속의 음식은 일상적인 식사 형태와는 달리 계절에 따라 나는 먹거리를 조화롭게 조리하여 맛과 보신이 되도록 만든 간식이나 별식들이다. 각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혹은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에게 전해지던 음식 문화의 소중한 전통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자 세시풍속에 따른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 마을의 장례 이야기

박정례 / 경기도문화유산해설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식골 마을은 임진왜란 이후 형성된 마을로 추측하고 있으며 바깥 동네에서는 식골마을을 ‘안골’ 혹은 ‘안동네’ 로 부르는 아늑한 마을이다. 약 80여 가구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윗말, 아랫말, 셋말, 건너말로 구분되어 불리우며 그 중에서도 아랫말에 가구 수가 가장 많았다.

성(性)씨의 분포로는 전주 이씨, 전주 김씨, 김해 김씨 등이 주로 일가친척을 이루었고 마을의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서로 돕고 나누며 정을 돈독히 쌓아가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그 마을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셨다는 할아버지는 올해로 일흔 아홉 되셨다는 연세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해서 환갑을 조금 넘기셨을 것으로 보여질만큼 씩씩하고 부지런하신 할아버지이셨다.

“이사 나가기 전까지는 뭐든지 심어 먹어야 하지 않겠어?”

하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천직으로 해 오신 농사에 대한 애착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먼저 이사하신 분들의 전답에 무성히 자란 잡풀이 잘 가꾸신 텃밭과 비교되어 아릿한 마음이 들었고, 또한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소중한 터전이 사라져 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지막한 앞산이 푸근히 마주 보이는 대문 앞에 앉아 할아버지께 식골 마을의 장례 풍습을 조심스럽게 여쭙 보았다. 곧 정든 터전을 떠나야 하는 마당에 장례 풍습을 여쭙보기에는 그렇게 기분 좋은 주제가 될 만 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장례 풍습은 뭐 다른 동네와 다를 게 있나?”

하시며 이내 섭섭한 마음부터 털어 놓으신다.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세상이 되어서 식골 마을에 초상이 나도 연습할 줄 아시는 어른들께서도 줄어들게 되었고 동네 상여를 써 본 지도 아마 2년은 더 넘었을 거라는 말씀이었다. 그래도 이야기를 시작하시니 아스름히 옛 기억을 떠올리시며 구슬땀이 배어있는 장례 풍습도 구수하게 풀어내신다.

다섯 살 미만의 영유아가 죽었을 때에는 장례 형식이나 절차가 따로 없었다고 한다. 옛날 어려운 시절에는 잔병치레도 많았고 열병이나 홍역 같은 돌림병에도 병원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집에서 앓다가

다행히 살아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 죽기도 하여서 그런 저런 병으로 영유아가 죽는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 평소 그 아이가 입던 옷 중에서 깨끗한 것으로 골라 입히고 쓰던 기저귀로 잘 싸고 감아서 당일로 적당한 자리에 평평하게 묻어주어 다른 사람이 볼 때 무덤이라고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

소문도 늦게 돌아서 누구네 아무개 어린 것이 죽었다는 것을 며칠 후에야 알게 되곤 하셨다고 한다. 유년에서 청년 나이의 장례도 유아들의 장례와 마찬가지로 소문 없이 당일 묻었으며, 다른 것이 있다면 영유아들보다 더 많이 자랐으니 가마니로 들 것을 만들어 운구하였고,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없는 곳에 묻고 봉분은 작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나이가 어렸어도 장가를 들었으면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 삼일장으로 어른 대접을 하여 장례를 치렀다고 기억하였다. 식골 마을은 다행히 이런 불행한 일이 별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얘기 끝에 기억나는 일이 있다고 하시며 몇 년전 일을 이야기 해 주셨다.

마을 청년이 무슨 연고로 죽어 초상이 났는데 장례를 치른 후 무속인에게 묻거리를 청해 들으니 그 청년의 혼백을 위로하고 가정의 무사안녕을 위하여 사혼례를 올려주는 것이 좋다고 했다고 한다. 산 사람의 혼례 성사시키는 일 못지 않게 참한 처녀의 혼백을 수소문하여 보니 마침 마땅한 서울 각시의 혼백을 배필로 맞아 고봉산 만경사에서 정성을 다해 '사혼례' 를 올려 주었다고 한다.

어른들의 장례는 호상이라 하더라도 마을의 슬픔이어서 마을 사람들 모두 내 집안 일처럼 도와줬는데 "요즈음은 어디 그런가? 음식 품앗이 없어진 것도 그렇고... 밤샘할 자리도 마땅치 않고..." 하시며 할아버지께서는 또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시작한 최근의 변화에 대해 섭섭한 기색을 내비치셨다.

마을의 어른이 임종을 맞게 되면 그래도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뵙고자 일가 친척들이 다녀가고, 가족들의 슬픔 속에 임종을 하게 되면 금방 곡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였다. 숨을 거뒀지만 귀는 가장 늦게 닫히기 때문에 저승사자를 따라가야 할 혼백이 곡소리에 놀라 저승사자를 잘 따라가지 못할까 봐서였다.

수시 절차로는 우선을 눈을 감겨드리고 다음 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 드리며 깨끗한 솜으로 귀와 코를 막아서 시신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다음, 창호지를 좁게 접어서 끈을 만들어 턱에서 정수리로 매듭 없이 고정시켜서 턱을 고여 드렸다. 그리고 손과 발을 가지런히 모아서 창호지 끈으로 어깨 부분과 손을 모아드린 배 부분, 발을 모아드린 발목 부분을 매듭 없이 고정시켜놓고 짚뭉치나 팽목을 창호지로 싸서 양쪽과 중간에 피고 널빤지(칠성판)을 올려놓은 다음 망자를 그 위에 모시고 깨끗한 무명천으로 덮고 병풍을 친 후 작은 소반에 촛불과 향을 피웠다. 한편 부엌에서는 정갈한 마을 아낙에게 저승사자 밥을 짓게 하여 대문 밖에 차려 놓게 하고 안마당에서는 절구통을 엮어놓고 가까운 친척 어른신이 망자의 상의를 들고 올라서서 망자의 생년월일 이름을 대며 초혼을 불렀다.

수시 절차를 마치면 남자 상주는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라 하여 두루마기 또는 윗저고리의 앞섶을 바로 여미지 못하고 어깨 위 사선으로 걸쳐 옷고름을 매었고, 여자 상주는 비녀와 반지 등 쇠

붙이를 모두 빼고 무색옷에 머리를 풀었다. 그리고 상주의 가까운 일가친척 중에 상례에 밝고 덕망 있는 어른을 뽑아 상주를 도와서 상례 일체를 관장해 줄 호상(護喪)을 정하여 부탁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장례위원장인 셈이다.

경황 없는 중에도 일가 친척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임종 후 처음 지내는 제사인 전(奠)을 올리는데 전을 올려드리는 것은 죽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염습이 끝날 때까지는 고인을 생시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제물을 올리는 것이다. 전을 속히 올리는 것은 염습을 당일로 하지 못하고 만 하루가 지난 다음 하게 되므로 늦게 전을 올려드릴 경우 혼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됨을 자식된 도리로서 죄송한 마음에 망자를 안정시켜 드리기를 위한 제사라고 하셨다.

한편 호상을 맡으신 어른은 선산에 묘터를 잡고 산역 준비를 마련하며 제수 준비 등을 지시하여 준비하게 한다. 호상은 망자나 상주와 가까운 상복을 준비하라 제사 음식과 문상객들 맞을 음식 장만하라 모두 내 집일을 제쳐두고 상가택을 도우셨다고 한다.

염습은 만 하루가 지나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식골마을은 주로 삼일장이었으므로 자정에 임박하여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았어도 염습을 하였다. 염습례를 '염 잡수신다' 라고도 했는데 염습은 자손과 가까운 친척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풍을 걷고 칠성판에서 모셔 내려 먼저 수시할 때 매듭 없이 묶었던 창호지 끈을 풀고 임종할 때 입으셨던 옷을 벗겨드리게 된다. 이때 몸을 덮어 드린 흠이불을 그대로 두고 행하여 망자에 대한 예우를 극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여자 망자일 경우에는 여자들이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까지 맡아서 하게 하였다.

망자를 씻기는 물은 향나무를 잘게 쪼개어 우려낸 물에 새솥을 적서 머리를 감겨드리고 여자일 경우에는 쪽을 지어 버드나무로 비너를 깎아 만들어 꽃아드렸다. 향나무 물은 머리 감기는 물, 얼굴과 윗몸 씻기는 물, 아랫몸 씻기는 물을 구별하여 나누어 놓고 차례로 씻겨드린 후 새 수건으로 물기를 말끔히 닦아드리게 되는데 이 절차 중에 거두게 된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주머니에 넣어두고, 다음은 수의를 입혀드린다. 망자를 여러번 들썩거림은 예가 아니므로 하의를 모두 갖추어 먼저 입혀드린다.

상의는 속점삼, 저고리, 두루마기까지 모두 입은 듯이 팔을 꿰어 한번에 입혀 드리며, 이 때에도 망자의 몸 위로 수의를 넘기지 않고 대나무 자를 이용하여 망자의 허리 밑으로 밀어넣어 입혀 드렸다. 버선을 신겨드리고 손도 삼베 장갑으로 감싸드린 후 창호지로 곱게 접은 신발을 신겨드리면 반함(飯含) 의례를 한다. 반함은 망자의 얼굴을 감싸기 전에 물에 불린 생쌀을 버드나무 수저를 떠서 망자의 입안 좌, 우, 중앙에 각각 한 수저씩 더 넣을 때마다 '백 석이오', '천 석이오', '만 석이오' 하면서 넣어드리는 예이다. 망자가 저승까지 가시는 동안 잡수시게 될 식량을 드리는 것이어서 반함을 드릴 때 상주들의 슬픔은 이루 표현할 수 없지만 곡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셨다.

염습을 마치면 관에 모시고 다섯 주머니에 모셔둔 망자의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위와 양손 옆과 발 아래 제 위치에 넣어드린다. 망자와 관 벽 사이의 빈 공간을 짚을 창호지로 싸서 넣게 되는데 이를 보

공이라 하여 빈틈없이 하는 이유는 묘지로 옮겨갈 때 상여꾼들의 움직임에 흔들리거나 한 칸으로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나서 관 뚜껑을 덮게 되는데 연습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곡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였지만 이때부터는 곡을 하게 하여 다시는 뱃지 못할 망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슬게 울게 한다. 또 우는 중에 관 뚜껑에 나무못을 치는 순간에는 역장이 무너지는 듯한 곡소리에 밖에서 연습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모두 울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셨다.

염을 잡숫고 나면 상주는 망자의 죽음을 기정사실화 하여 본격적인 상주 구실을 해야 하므로 상복으로 갈아입는 예를 하게 된다. 안마당에 명석을 깔고 소반을 중앙에 놓아 그 위에 깨끗한 물을 담은 물동이를 놓고 상주들이 원으로 둘러서서 우로 세 번 돌고 좌로 세 번 도는 동안 한번씩 돌 때마다 절하며 주변 사람들이 상복을 갈아입혀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상복을 입은 후 준비된 상청에 처음 제사를 올리는 예를 '상복제'라 하고 상복제를 올린 후 조문객들의 문상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요즈음은 상복을 갈아입는 예식도 없고, 그러니 자연 '상복제'라고 예를 갖춘 제사도 따로 있을 필요가 있겠냐는 말씀이었다.

사라져가고 간소화되는 것이 어디 장례풍습 일까마는 그래도 할아버지께서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풍습은 다 깊은 의미가 있기에 행하는 예이므로 그저 바쁜 세상과 변하는 세상이라고 무조건 없애고 간소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다.

발인은 상여가 장지로 떠나는 절차로서 상주는 관을 따라 나오면서 곡을 하고 상여꾼들은 관을 상여에 옮겨 튼튼히 매어 흑여 길이 좋지 않은 산길을 헤쳐오를 때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였다. 상여에 안치한 후 상여 앞에 제상을 차리고 망자가 집을 마지막으로 나갈 때 지내는 발인제를 지낼 때는 상주들과 이웃들의 곡성이 더욱 커졌으며, 상여꾼들의 상여소리에 맞추어 상여를 메고 집을 향하여 세 번 절할 때까지도 망자를 떠나보내는 곡성은 그치지 않았다.

마을 어귀를 벗어날 썸에서 노제를 지내고 구슬픈 상여 소리에 맞춰 장지에 도착하면 하관 시간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장지로 찾아오신 조문객을 맞이하였다. 하관 시간이 되면 영구를 광중의 남쪽에 모시고 상주들의 광중의 양옆에 서서 곡을 하고 영구를 광중에 내리는데 식골 마을의 오랜 풍습대로 탈관을 하였다. 흥대를 덮고 회를 섞은 흙으로 광중을 채우고 달구질을 할 때 달구질 소리에 맞춰 꼭꼭 다지고 밟아드리는 것은 흑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나무뿌리가 시신에게 뺨어내리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봉분까지 다 마치면 산에서의 하직 제사를 드린 후 상주들은 장지에서 혼백을 영여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며 도착할 때까지 곡을 하고 돌아오는 길을 반드시 상여가 갔던 길을 대로 되돌아오는 것이라 하였다. 혼백이 영여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 장지에서 먼저 돌아와 있던 여자 상주들이 남자 상주들을 맞이하여 곡을 하고, 혼백을 모신 영여를 상청에 모시게 되며, 다음날 아침부터 혼백을 모신 상

청에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리고, 삼오제날은 새벽부터 서둘러 아침 상식을 올린 후 산소를 찾아 뵙고 삼오제를 올렸다.

음력 초하루와 보름은 삭망(朔望)이라 하여 평소 올리는 상식보다는 다르게 삭망 제사를 지냈으며 소상 혹은 대상 때까지 살아 계실 때처럼 조식을 정성스럽게 지어 올렸다.

아침 상식은 해뜨기 전에 올리고 저녁 상식은 해지기 전에 올리며 한 번 올린 음식은 다시 올리지 않는 정성과 부지런함으로 혼백을 극진히 섬겨오던 식골마을의 장례 풍습의 특징이다. 지금은 초상이나도 장례를 치른 후 상청을 모시는 집이 없고, 상청이 없으니 상식 올리는 것도 모르며 대신 장례를 치른 후 혼백을 절에 모시는 것으로 바뀌어졌고 탈상도 소상, 대상까지 가지 않고 빠르면 사십구제 때나 아니면 백일 탈상으로 간소화되었다.

“세상이 변하니 할 수 없지 뭐.”

하시며 바뀌고 간소화 되어가는 절차와 풍습을 인정하시면서도 한숨 섞인 타령조로 읊조리셨다.

“그나저나 늙은이에게 농사일 말고는 소일거리가 있어야 말이지.”

곧 식골 마을을 떠나야 하는 이주의 서글픔을 착잡하게 말씀하시며 먼저 떠난 이들의 무너진 집채와 무성한 풀밭을 둘러보시는 눈빛이 잠깐 촉촉해지시는 것 같기도 했다.

앞으로 식골 마을 터전에 와서 살게 될 주민들이 새로운 동네를 만들어가며 예전에 이곳이 여러 가지 풍습들이 조상 대대로 면면이 이어져 오던 마을이었다는 것을 알아주거나 할까? 또한 마을 주민 모두가 한 가족같이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애경사를 치루고 살던 마을이었다는 것도 기억이나 해줄 것인가?

그리고 조상 대대로 살던 정든 터전을 한숨과 눈물로 버터내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차마 돌리지 못한 무거운 발걸음들을 기억이나 해 줄 것인가? 오랜 세월 동안 식골 마을을 지켜주고 갖가지 사연의 소원을 빌며 주민들의 섬겨오던 마을회관 앞의 당(堂山) 나무조차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못하고 좋은 자리를 점지하여 옮길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싶을 정도의 식골 마을을 둘러보시는 할아버지의 눈빛은 한참이나 슬픈 꿈을 꾸시는 듯 쓸쓸하였고, 유월의 저무는 햇살은 여전히 한낮처럼 무더웠다.





동심어린이집 옥상에서 본 마을 모습



움막고개에 세워진 택지개발 안내문



풍동 애니골 쌍용APT 에서 본 식골과 북한산

부/록  
고향이야기

|                         |     |
|-------------------------|-----|
| 고양풍동지구 택지개발사업 .....     | 254 |
| 풍동 식골(제1통) 거주자 명부 ..... | 261 |



## 고양풍동지구 택지개발사업

###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식사동 일원
- 면 적 : 857,226㎡(259,311평)
- 수용계획 : 23,049인(7,683호)
- 사업비 : 428,051백만원(용지비: 238,533, 조성비: 189,518)
- 사업기간 : 2000. 10. 18 ~ 2006. 12. 31
- 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 □ 추진경위

- '99. 7. 27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교부)
- '00. 10. 18 택지개발계획 승인 (경기도)
- '00. 12. 14 교통영향평가 협의완료 (경기도)
- '01. 3. 21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경인지방환경관리청)
- '01. 4. 27 실시계획 승인 (경기도)
- '03. 6. 12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기도)
- '04. 2. 12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기도)

## 사업지구 현황 분석

2000년 10월 대한주택공사

### 1. 입지 여건

- 고양시청으로부터 서측으로 약 3.5km, 백마역에서 1km 지점에 위치하고 행정구역상 고양시 일산구 풍동·식사동에 속함.
- 고양시 2011년 도시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산 신도시와 연결하여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임.
- 대상지 북측에 지봉도 310호선이 남측에는 시도 62호선과 동측에는 시도 83호선이 입지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남서측에 복선화 예정인 경의선이 통과하고 있고 사업지구와 인접해 백마역이 입지
-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상 6개 중생활권 3개 특수생활권 중 백마중생활권에 속함.

### 2. 주변 지역 현황

- 본 사업지는 일산 신시가지와 북동측으로 약 1km 거리에 입지하며 주변에 농지로 둘러싸여 있고 사방에 개발 예정지가 입지하고 있음.
  - 동측: 농업진흥지역과 경계를 이루며 농지를 경계로 취락지구 개발 예정지 입지
  - 서측: 농업진흥지역과 경계를 이루며 일산 신도시와 인접해 있음
  - 남측: 풍동 취락지구 성원건설 부지와 경계를 이루며 백마역에 인접하여 있음
  - 북측: 지방도 310호선을 포함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인접하여 군부대 입지
- 지구 주변의 주요 시설로는 고양시청이 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산종합시장이 1.4km 내, 국립암센터가 1km에 위치하고 있음.

### 3. 자연환경

#### 가. 지형 및 지세

- 사업지구 북측과 서측으로 구릉지가 형성되어 북서고 남동저(北西高 南東低) 지형임.
- 최고 표고 47.1m, 최저 표고 10.3m로 표고차 36.8m를 나타냄.

〈표〉 표고 분석

| 구분     | 계       | 20m미만   | 20~30m  | 30~40m  | 40m이상  | 비고 |
|--------|---------|---------|---------|---------|--------|----|
| 면적(㎡)  | 834,725 | 329,527 | 362,404 | 119,947 | 22,847 |    |
| 구성비(%) | 100.0   | 39.5    | 43.4    | 14.4    | 2.7    |    |

자료: 축척 1/1200 지형도에서 구적

- 대상지 경사는 10% 미만인 전체의 50.8%를 차지하며 15% 미만이 전체의 72.2%로 완만한 구릉지로 형성.

〈표〉경사 분석

| 구분     | 계       | 20%미만   | 10~15%  | 15~30%  | 30%이상  | 비고 |
|--------|---------|---------|---------|---------|--------|----|
| 면적(㎡)  | 834,725 | 424,040 | 178,630 | 222,040 | 10,015 |    |
| 구성비(%) | 100.0   | 50.8    | 21.4    | 26.6    | 1.2    |    |

자료 : 축척 1/1200 지형도에서 구적

#### 나. 수계

- 구릉지를 따라 자연유하되어 서측과 동측의 구거로 흘러들어서 서측의 풍동천과 남측의 풍삼천으로 유입되어 도촌천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됨.

#### 다. 식생 및 경관

- 사업지구는 농경지와 임야로 구성된 전형적인 미개발지로 구릉지를 중심으로 일부 양호한 수림대 형성됨.
- 특이한 시각적 경관 요소는 없으나 사업지구 북측에 군부대가 입지하여 개발의 제약요소로 작용됨.

## 4. 인문 환경

### 가. 도시 계획

- 도시기본계획 - 2011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
- 도시계획재정비 -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 취락지구로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상 도시계획구역에 해당되지 않음.

### 나. 토지 이용

#### 1) 지목별 현황

- 사업지구 내에는 1개소의 집단취락과 수개소의 자연취락이 산재하고 있으며 구릉지의 능선에 의해 농경지가 분산되어 있음.
- 사업지구의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가 전체의 57.1%인 477,007㎡, 전이 18.1%인 150,900㎡, 대지가 12.4%인 103,464㎡, 답이 5.7%인 47,809㎡ 순으로 구성

〈표〉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 구분     | 계       | 전       | 답      | 임야      | 대지      | 기타     |
|--------|---------|---------|--------|---------|---------|--------|
| 면적(㎡)  | 834,725 | 150,900 | 47,809 | 477,007 | 103,464 | 55,545 |
| 구성비(%) | 100.0   | 18.1    | 5.7    | 57.1    | 12.4    | 6.7    |

## 2) 소유별 현황

- 소유별 토지 이용 현황은 대부분이 사유지로(96.4%) 되어 있고, 국·공유지는 2.6%를 차지하고 있음.

〈표〉소유별 토지 이용 현황

| 구분                  | 계       | 국유지    | 공유지   | 사유지     | 기타 |
|---------------------|---------|--------|-------|---------|----|
| 면적(m <sup>2</sup> ) | 834,725 | 18,515 | 7,014 | 809,196 |    |
| 구성비(%)              | 100.0   | 2.5    | 1.0   | 96.4    |    |

## 다. 지장물

- 사업부지 내 45동의 가옥과 24호의 연립주택이 산재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2개소와 대규모 교회 1개소가 신축 중에 있으며 기타 특이한 지장물은 없음.
- 추가 편입된 풍산 3, 5통에는 지장가옥(305동)이 많아 이주대책 수립시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아파트 입주권 부여가 불가피한 실정임.

〈표〉지장물 현황

| 구분  | 가옥  | 연립주택 | 어린이집 | 상가 | 교회 | 공장 | 전주  | 창고및<br>축사 | 비닐<br>하우스 | 분묘  | 기타 |
|-----|-----|------|------|----|----|----|-----|-----------|-----------|-----|----|
| 지장물 | 450 | 24   | 2    | 26 | 7  | 24 | 220 | 82        | 30        | 125 | -  |

## 라. 교통 시설 현황

- 현재 사업지 내부에는 지역간 연결도로인 지방도 310호선(4차선, 25M)이 지구 북측을 통과하고 있으며 시도 83호선(2차선, 12M)이 사업지 동측에 개설되어 있음.
- 이밖에 3~6m의 농로와 취락지간 연결도로가 일부 개설되어 있음.
- 정의선역으로는 백마역이 지구 남측 0.8km 위치에 입지하고 있으며, 일산역이 2.5km, 곡산역이 2.5km 위치에 입지하고 있음.

## 마. 공급 처리 시설 현황

## 1) 상수도

- 본 사업지구 주변에 대장 정수장(250천ton/일)과 중산 배수지(12천ton/일), 정발산 배수지(15천ton/일)가 위치하고 있음.
- 지구내로는 300m/m 상수관을 통해 공급되며 기존 취락과 풍동 준도시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50~150m/m관이 매설되어 있음.
- 본 사업지구는 고봉 급수1구역에 속하며 고봉 배수지로부터 지방도 310호선과 시도 62호선을 통해 배수됨.

## 2) 하수도

- 본 사업지구는 일산배수구역 중 풍리배수분구에 속하며, 지구내 발생된 오수는 일산하수처리장을 통해 한강으로 방류됨.
- 지구 내에는 300~600m/m의 합류식관을 통해서 풍삼천, 도촌천을 거쳐 한강으로 방류됨.

## 3) 폐기물 처리 시설

- 일산신도시 백석역 근처에 고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처리용량 300ton/일)이 입지해 있음.

〈표〉주요 계획 지표

| 구 분              |                   | 단 위                | 개발지표       | 비 고            |                            |
|------------------|-------------------|--------------------|------------|----------------|----------------------------|
| 면 적              |                   | m <sup>2</sup>     | 834,725    | 약 253천평        |                            |
| 인구<br>및<br>가구    | 인 구               | 인                  | 28,700     |                |                            |
|                  | 가 구               | 세대                 | 8,200      |                |                            |
|                  | 가구원수              | 인/세대               | 3.5        |                |                            |
| 도로               | 도 로 율             | %                  | 15~20      |                |                            |
| 상수도              | 1인1일급수량           | l / 일 · 인          | 430        | 2011년 고양도시기본계획 |                            |
| 하수도              | 1인1일오수량           | l / 일 · 인          | 420        | "              |                            |
| 주택형태비율           |                   | %                  | 10이하 :90이상 | 단독 : 공동        |                            |
| 주택<br>규모         | 단독                | m <sup>2</sup> /세대 | 198        | (60평)          |                            |
|                  | 공동                | m <sup>2</sup> /세대 | 55-160     | 분양면적 기준        |                            |
| 시<br>설<br>기<br>준 | 교육<br>시설          | 초등학교               | 개교         | 3              | 12,000m <sup>2</sup> 기준    |
|                  |                   | 중학교                | 개교         | 2              | 12,000m <sup>2</sup> 기준    |
|                  |                   | 고등학교               | 개교         | 1              | 14,000m <sup>2</sup> 기준    |
|                  | 공원<br>녹지          | 근린공원               | 개소         | 1              | 10,000m <sup>2</sup> 이상/개소 |
|                  |                   | 체육공원               | 개소         | 1              | 10,000m <sup>2</sup> 이상/개소 |
|                  |                   | 어린이공원              | 개소         | 7              | 1,500m <sup>2</sup> 이상/개소  |
|                  | 공용<br>의<br>청<br>사 | 파출소                | 개소         | 1              | 요구면적반영(200평)               |
|                  |                   | 우체국                | 개소         | 1              | 요구면적반영(800m <sup>2</sup> ) |
|                  |                   | 소방파출소              | 개소         | 1              | 요구면적반영(300평)               |
| 주 차 장            |                   | m <sup>2</sup>     | 0.6%이상     | 주차장법 제 12조     |                            |
| 종 교 시 설          |                   | 개소                 | 9          |                |                            |
| 사회복지시설           |                   | 개소                 | 1          |                |                            |

## 택지개발 예정지구 관리카드

## ■ 현 황

|               |                 |          |                     |       |           |                |
|---------------|-----------------|----------|---------------------|-------|-----------|----------------|
| 고양풍동지구 택지개발산업 |                 | 면적       | 857,226㎡            | 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                |
| 수용계획          | 23,049인(7,683호) | 사업기간     | '00.10.18~'06.12.31 | 지구지정일 | '99.7.27  |                |
| 개발계획 승인일      | '00.10.18       | 실시계획 승인일 | '01.4.27            | 준공예정일 | '06.12.31 | 사업비<br>4,281억원 |

## ■ 토지 이용 계획표

| 구 분                  |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                      |                | ㎡         | 평        |           |                       |
| 합계                   |                | 857,225.8 | 259,569  | 100.0     |                       |
| 주택<br>건설<br>용지       | 소계             | 431,144.6 | 130,551  | 50.3      |                       |
|                      | 단독주택           | 43,050.0  | 13,036   | 5.0       | 195필지                 |
|                      | 공동주택           | 380,109.5 | 115,098  | 44.4      |                       |
|                      | 근린생활시설         | 7,985.1   | 2,418    | 0.9       |                       |
| 준주거용지                |                | 17,624.5  | 5,337    | 2.0       |                       |
| 산업용지                 |                | 9,930.0   | 3,007    | 1.2       |                       |
| 공공시설용지               |                | 398,526.7 | 120,674  | 46.5      |                       |
| 도시<br>계획<br>시설<br>용지 | 소계             | 382,153.1 | 115,716  | 44.6      |                       |
|                      | 도로 및 기타        | 138,039.6 | 41,799   | 16.1      |                       |
|                      | 보행자도로          | 17,895.0  | 5,419    | 2.1       |                       |
|                      | 주차장            | 5,803.9   | 1,757    | 0.7       | 3개소                   |
|                      | 학교             | 75,713.3  | 22,926   | 8.8       | 초등3, 중등2, 고등1, 유1     |
|                      | 근린공원           | 89,417.1  | 27,076   | 10.4      | 2개소                   |
|                      | 어린이공원          | 20,488.3  | 6,204    | 2.4       | 7개소                   |
|                      | 완충녹지           | 26,495.3  | 8,023    | 3.1       |                       |
|                      | 경관녹지           | 2,473.1   | 749      | 0.3       |                       |
|                      | 근린공공시설         | 3,502.9   | 1,061    | 0.4       | 우체국, 소방파출소, 파출소, 동사무소 |
|                      | 공공공지           | 2,294.6   | 695      | 0.3       |                       |
|                      | 가스공급시설         | 30.0      | 9        | 0.0       | 1개소                   |
|                      | 기타<br>시설<br>용지 | 소계        | 16,373.6 | 4,958     | 1.9                   |
| 사회복지시설               |                | 2,043.6   | 619      | 0.2       | 1개소                   |
| 공공보육시설               |                | 821.2     | 249      | 0.1       | 1개소                   |
| 종교용지                 |                | 13,508.8  | 4,090    | 1.6       | 10개소                  |



## 풍동 식골(제1통) 거주자 명부

2002년 2월 기준

| 지 번                          | 성 명  |
|------------------------------|--|
| 풍동 193<br>196<br>197         | 임송산 남은자<br>백봉호 오선심<br>김덕만 최경분 김희태 종준 해림 최경옥<br>김희성 민정 민지 차영희 김희순   |
| 197                          | 박재영 박미경 마상규 마건호 김순자 임성철 정정호  |
| 218-4<br>218-7<br>220-5      | 김종만 호섭 미정 연정 이은자<br>김종국 효정 김미령<br>김기영 송봉연 김광섭 장석중 일순 병순 조미숙  |
| 223<br>226<br>226            | 이석승 재복 박삼순 이재호 경희 주희 영록 이규순 이재웅 이재환<br>장인철 이인숙 장인규 지원 정원 양재인 장세창 장세훈<br>서만식 준영 성해 이경월 이수병 세미 전필조 이종복 호원 지원 노순이 |
| 227<br>227<br>228<br>229     | 이정환 김옥례 이지훈 규현 동현<br>신현장 이지영 고부희 이은영<br>이강윤 이정이 이승재 지영 정훈 김오영 이경애<br>이강용 민재 현옥 임영희                             |
| 230-1<br>231-1               | 정점옥 이태영 김현희<br>김조수 용선 용민 박현숙 최상순 양민자 박준영 박홍주   |
| 231-3<br>231-5<br>231-5      | 김영업 김기설 현정 병용 민정 강영재<br>조춘웅 혜령 영삼 최정인<br>최순호 윤성 윤민 윤태 윤찬 이숙현 이관재 이광자 최윤석 최윤영                                   |
| 232<br>233<br>233-2<br>233-6 | 이택환 종정 최정옥 김광남 고복순<br>김용환 이종남 김재근 우경 이계순 김규성 김규현 수정 민기 손수연 김유자<br>박주행 태열 양열 서운순 박영호<br>유세균 정은 이기분 유용원          |
| 풍동 238-1<br>239<br>241       | 박정제 준우 김정옥<br>박향자 노병민<br>김재국 옥선 동선 이선옥 이연래   |
| 242<br>242<br>243            | 이구용 미영 원진 현정 정순자<br>신재용 의정 성배 장미화<br>김기찬 이강순 허성신 민정운 허재공 유정 최성금 박종성 정빈 김현순                                     |

| 지 번                                 | 성 명  |
|-------------------------------------|--|
| 244<br>245-1<br>246<br>248<br>248-7 | 이점복 이강엽 태재 지현 김정현 이강록<br>안도현 은미 영신 신영자 김혁수 동준 박혜경<br>오보영 영근 연근 정근 이연재 강삼례<br>김덕천 이봉순 김기황 종혁 주영근<br>공용치 |
| 251<br>252-1                        | 김갑순 이강원 효재 윤재 조순희 이강선 현재 석재 원매자 이강범 혁재 선재 이명양<br>최성보 동정희   |
| 256-2<br>256-3                      | 배봉주 상희 지혜 한상선 한상식<br>박현성 박종민 임익영 서현 박희순 안성숙 조기천 이상임  |
| 257<br>257<br>257<br>257            | 이재록 임순덕 이기완 소진 소인 승호 조혜옥<br>김학재 장옥순 김광임 김광조 김혜인 김현우<br>김옥희 정지성 소연 경호 염양순 정지영 영호 김기선<br>심경섭 정민 김수길 원정옥  |
| 259<br>259<br>259                   | 이강준 연재 상재 권연이 유순녀<br>오경숙 고영숙 고성철 고성배<br>박상용 찬재 김복남 권기순 임봉수 오태문   |
| 260<br>260-1<br>262                 | 김수식 덕승 성희 황태숙 오춘순<br>고부용 오병준<br>김영환 김의환 김재만 인선 정선 김규태 경선 문선 원선 인현주                                     |
| 263<br>263-1<br>263-2               | 이순재 택형 김봉희<br>김기현 자경 인경 병구 병현 박영희 방은임<br>김기윤 병화 병훈 경아 유중현  |
| 266<br>269                          | 김덕산 김기택 병근 김기선 이상영<br>김덕용 연상 현주 현애 최청자 최간란   |
| 풍동 270<br>270<br>271-1<br>271-3     | 양학진 승민 최의순 양승철 준혁 선아 이춘경<br>김기열 김기열 김옥례 김병호 대섭 민섭 이춘현<br>심병권 보연 용석 양정숙 김정순<br>이영재 연지 연화 안옥진 고순덕        |
| 272<br>272<br>273<br>276            | 이강숙 김순희 이덕재 박영숙 방완 방민<br>양봉석 박병례 양승만 정순자 양승호<br>우무수 윤철 피순여<br>전현삼 이연자                                  |

| 지 번    | 성 명   |
|--------|---|
| 277    | 우금제 준식 찬식 지선 창식 변영숙                         |
| 278-3  | 박무길 미영 민효 조순희                               |
| 279    | 김덕선 박순희 양순임 김덕원 김기철 김기환 도춘 김기범 진아 민지 강경란    |
| 279    | 김주영 이희분 김재운 최희자 김승현                         |
| 279    | 김승구 수진 수정 수연 이영섭 박승자 신현식 홍철 효선 김용자          |
| 279-2  | 김창환 미숙 동원 김인순 김광옥 동희 동우 허희경                 |
| 280-1  | 임용택 시범 보현 국영숙                               |
| 280-4  | 박종진 경원 지원 국인옥                               |
| 280-5  | 이종환 승훈 국영옥                                  |
| 281    | 김경문 동욱 동아 이은순 이을순                           |
| 284    | 김용주 주영 최영희                                  |
| 290    | 김상태 수연 강은화 장경숙                              |
| 292    | 이인식 김영희 고봉화                                 |
| 294-2  | 이재웅 자은 진호 모금주                               |
| 294-6  | 이정민 이복성 이근형 윤태욱                             |
| 295-1  | 심병철 주희 김지연                                  |
| 295-2  | 이창남 유진 경훈 심병애                               |
| 298    | 임규혁 조미숙 김영선 황수경 김용금 이규원 조진숙 이규택 박용숙 황용배 윤영희 |
| 298    | 배천길 신순덕 배문수 조애경 황훈 김용호 임화숙 한만승 김선하          |
| 01-2   | 김봉덕 윤권 동권 이선미 신재철 이주미 이강설 고광상 이은미           |
| 307-1  | 이영자 김인숙 이찬영                                 |
| 307-2  | 이승미 권재열 승혁 주혁                               |
| 307-3  | 함태호   |
| 307-5  | 우지환 화정 이명자                                  |
| 307-14 | 김영화 구정심                                     |
| 310    | 이강일 상은 지영 희재 정옥자 이태성                        |
| 312    | 김대훈 양춘순 김덕운 기일 혜선 김향자                       |
| 312    | 박찬영 대식 슬기 임은경                               |
| 312-1  | 백옥자 백한갑                                     |
| 314    | 우종식 김입분 우종선 석제 이재은                          |
| 315    | 우철재 성환 명환 김귀남                               |
| 316    | 이우장 영구 종구 최정순 오영록 경택                        |

| 지 번   | 성 명  |
|---|--|
| 321-1<br>354-1<br>584-1<br>584-2                                | 이강규 이강자 이진우<br>김경복 김상문 김상철<br>김농현 정철 홍연옥 문풍순<br>이성길 이진욱  |
| 597<br>604-1<br>653   | 유문성 유수성 양간난<br>이해수 전찬분<br>차경열 오승은 오종은  |
| 산34-7<br>산42-6<br>산42-18<br>산43<br>산44<br>산69<br>산66-2<br>산80-1 | 최창석 경립 김월순<br>강정진 훈언 훈철 주금옥<br>김정일 장순례<br>이윤병 상렬 박길준 이만병 종열 김복기 이태식<br>노상철 현주 조정란 노운용<br>김영순 김유철 이선일<br>최영기 원길 원철 조정순<br>남재현 영민 민수 강순화 채영선 수철 호철 남금연   |
| 풍동318<br>(전풍벨라)   | 김경국 유광석 김종원 이종선 남문자 조성철 한은자 김완준<br>양만식 정장기 남기봉 최계녕 이정권 김학제 이종용 최용순 구자관<br>제정옥 이규란 이용훈 박청구 정난영 박태근 박훈순 황기현 송근성<br>가명천 주복란 육광수 최성열 민근식 유연근 최영부 편영주 장석준<br>김문웅 소유홍 유재억 오광수 최창우 이영기 유제학 구용덕 김영례 연은숙<br>유원식 박종찬 맹혁재 김종익 박정수 권오덕 민문량 정철재 |

- 풍동 제1통 노인회(회장: 양봉석 / 부회장: 김농현)
- 풍동 식골 산치성 보존회(회장: 이강윤 / 총무: 김상문)
- 풍동 제1통 부녀회(회장: 김봉희 / 총무: 조혜옥)
- 풍동 청년회(회장: 이강범 / 총무: 이태호)
- 풍동 제1통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청구 / 부위원장: 국영숙 / 총무: 김기황)
- 풍동 제1통 새마을 지도자: 김기설  
반장: 강영재(장미화), 임영희(백옥자), 구태두(최점례)  
통장: 김규성

■ 도움주신분들

- 풍동 제1통 노인회(회장: 양봉석 / 부회장: 김농현)
- 풍동 식골 산치성 보존회(회장: 이강윤 / 총무: 김상문)
- 풍동 제1통 부녀회(회장: 김봉희 / 총무: 조혜옥)
- 풍동 청년회(회장: 이강범 / 총무: 이태호)
- 풍동 제1통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청구 / 부위원장: 국영숙 / 총무: 김기황)
- 풍동 제1통 새마을 지도자: 김기설  
반장: 강영재(장미화), 임영희(백옥자), 구태두(최점례)  
통장: 김규성

.....

■ 발 행 일 : 2006년 11월 30일

■ 인 쇄 일 : 2006년 11월 26일

■ 기획·지도: 정동일(고양시문화재전문위원)

■ 편집 위원: 김기설, 김규성, 김규태, 이강범, 국영숙

■ 발 행 처: 고양시 일산 풍동 식골 마을

■ 인 쇄: 두레기획(☎ 965-4060)

[비매품]

